



데이빗 영맥주석

레위기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레위기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

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레위기 1장 =====

[레 1:1]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
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 1: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
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
릴지니라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
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
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의 규정을 주시는 장면입
니다. 이 규례는 생축 제물을 통해 우리 삶을 하
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강조하며,
마음과 삶을 바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여정을
안내합니다. 이 제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
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이는 애굽 탈출
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생생히 보

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강조되듯, 불순종은 예배를 더럽히지만, 이 경고는 자비로운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납되어 속죄가 될 것이라”라고 선언하시며, 제사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순종과 복의 증언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1장 1-4절은 번제의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회막에서의 부르심부터 안수 행위까지 제사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이 생명의 길임을 상기시키는 경고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의 영적·실제적 결과를 일깨웁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사는 회개를 위한 자비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제사가 완성되는 은혜를 예고합니다. 번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빛을 비추는 치유와 회복

의 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시합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제사의 지침을 주시는 장면으로, 만남의 은밀함을 강조합니다.

[레 1:1] 여호와께서 회막<오헬 모에드>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제사의 지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은 은밀한 초대입니다. 회막은 만남의 문입니다. 회막<오헬 모에드>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지침을 주십니다. 회막<오헬 모에드>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헬>은 '장막'이라는 뜻이지만, 어근이 '숨기다'나 '가리다'에서 유래해 하나님의 임재가 은밀하게 드러나는 공간을 암시합니다. <모에드>는 '약속된 만남'으로,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정해진 성회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은밀히 부르시는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제

사의 지침을 주십니다. 이 부르심은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시려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도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은 예물 드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생축으로 드리는 자발적 헌신으로, 예배의 포괄성을 강조합니다.

[레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코르반>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예물은 가까이 다가가는 선물입니다. 생축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처럼,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물<코르반>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선물입니다. <

코르반>의 어근 <카바>는 '가까이 하다'로,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는 과정(출애굽)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끌어당겨지는 은혜를 숨기고 있습니다. 소나 양은 그때 가장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시간, 재능,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은 소의 번제를 제시합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완전한 순결을 강조합니다.

[레 1:3] 그 예물이 소의 번제<올라>이면 흠 없는<타밈>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라초온>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의 번제로 흠 없는 수컷을 회막 문 앞에서 드리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오르는 불꽃입니다. 흠 없음은 순

결한 마음입니다. 번제<올라>로 흠 없는<타밈> 수컷을 회막 문 앞에서 열납<라초온>하시도록 드립니다. 번제<올라>는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올라>의 어근 <아랄>은 '오르다'로, 제물이 연기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창조의 6일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높은 곳'으로 초대받는 여정을 상징하며, 우리의 헌신이 하늘로 승천하는 영적 상승을 암시합니다. "흠 없는<타밈>"은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뜻합니다. <타밈>은 '완전하다'지만, 히브리 전통에서 '평화로운 온전함'(<샬롬>과 연결)으로, 제물이 창조 질서의 완벽을 회복하는 도구임을 드러냅니다. 제물이 완전해야 하듯, 우리의 헌신도 진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회막 문 앞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린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히 10:19-20).

레위기 1장 4절은 안수 행위를 제시합니다. 제물 머리에 손을 얹는 상징으로, 속죄의 전가와 수용을 강조합니다.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사마크>할 지니 그리하면 열납<라초온>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카파르>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물 머리에 안수하여 열납되어 속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속죄는 덮이는 은혜입니다. 번제물 머리에 안수<사마크>하여 열납<라초온>되어 속죄<카파르>가 됩니다. 손을 얹는 안수<사마크>는, 우리의 죄와 짐을 제물에 옮기는 상징입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로, 단순한 전가가 아니라 제물에 '기댐'처럼 우리의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에 기대는 신앙을 연상시킵니다. 제물이 대신 희생이 되어줍니다. 열납<라초온>은 하나님께서 이런 헌신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뜻으로, '향기로운 냄새'처럼 제사의 연기가 하나님의 기쁨을 자아

나는 은밀한 교제를 암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의 진짜 속죄 제물을 가리킵니다. 속죄 <카파르>는 '덮다'로, 죄를 가리는 동시에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로, 아담의 가죽옷(창 3:21)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는 자유와 새로움을 얻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안수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세례가 임한 것은 바울의 안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서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1~6)

안수는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주로 안수함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줄 때에도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민 27:18) 그 뿐 아니라 속죄물로 바쳐졌던 짐승들에게도 안수를 했습니다.(출 29:10)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도 안수를 했습니다.(행 13:3) 초대교회는 일곱명의 집사를 선별하고 저들에게 안수함으로 직분을 감당케 했습니다.(행 6:5~6)

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정의 가정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안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과 야곱의 자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녀를 축복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목사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저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령충만한 성도는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안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안수하라고 명했던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행 9:10~12)

아나니아는 평범한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도 환상으로 아나니아가 저에게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직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성도가 마음껏 안수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언을 전하게 하십시오. 방언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교회 내에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중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 내에 흘러 넘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안수는 직분에 관계없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안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도 안수할 수 있고 권사도 안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안수는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서도 안되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해선 안됩니다. 안수함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수자에게 하나

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안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의지대로 열심히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은 안수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수는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바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피안수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돈을 바라거나 어떤 유익을 바라면서 행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 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찌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행 8:14~23)

시몬은 사마리아에 사는 마술사였습니다. 그에게도 놀라운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로부터 큰 자라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와서 귀신을 쫓아 내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를 고쳐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시몬도 빌립의 기적을 보며 놀랐습니다. 시몬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좇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을 보고선 더 놀랐습니다. 마술사인 시몬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단순한 마술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기를 원했으므로 사도들에게 돈을 쥐고 그 권능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신의 정욕대로 안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안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후 5:22)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늘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부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해서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안수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고 저들에게 직분을 줄 때만 안수를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세례의식을 행할 때 안수를 합니다. 하지만 안수함으로 병자를 고치고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안수함으로 축복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안수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안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찌니라”(히 6:1~2)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회개와 신앙과 세례

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들 중 '안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헌금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헌금'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임'에 대한 단어도 빠져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헌금'이나 '모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은 모두 다 복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헌금이나 모임이 복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헌금이나 모임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안수가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도 안수가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더 많은 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안수는 전이(impartation)의식입니다. 이미 앞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저들에게 큰 능력이 임하였음을 말했습니

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글에서 우리는 안수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딤후 1:6)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전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딤후 1:6 NIV).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는 바울의 안수함에 의해서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수가 은사를 전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단순히 목회를 위한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것이든 바울의 안수에 의해 그것이 다시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안수는 능력을 전이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하지만 전이할 것이 없는 사람은 안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체험자만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가정은 자녀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법칙이 적용될 때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하지만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정에게서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죄악의 대물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축복할 수 없습니다. 안수를 한다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영광을 전이하지 못하는 목회자는 더 이상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 해도 아버지인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다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는 피를 나눈 관계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외에는 당신과 더 이상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는 이미 당신의 목회자 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목회자를 당신도 버리십시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

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울왕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곤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하도록 내 버려 두셨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삼상 16:14)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1:6]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족을 벗기고 각을 뜸 것이요

레위기 1장 5-6절은 번제 과정에서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제사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번제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예수 그리

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속죄와 화목의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1장 5-6절은 번제의 준비 과정을 규정합니다. 이 구절들은 예배자의 직접적 참여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헌신의 철저함을 강조하며, 현대 신앙인에게도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을 일깨웁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되는 은혜를 예고합니다. 번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은 제물 잡음과 피 뿌림을 제시합니다. 예배자가 직접 잡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행위로, 죄의 전가와 속죄를 상징합니다.

[레 1:5]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수송아지를 잡고 제사장들이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는 뜻입니다. 잡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피 뿌

림은 화목의 표시입니다. 예배자가 번제소에서 직접 수송아지를 잡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립니다. 번제소에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한 후, 그 제물이 대신 희생됨을 상징합니다. 이 행위는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서도 반복되며,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잡는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4:29). 안수하다<사마크>는 예배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제물에 전가하는 행위로, 이는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성취됩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단순한 전가가 아니라 제물에 '기댐'처럼 우리의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에 기대는 신앙을 연상시킵니다. 제사장들이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헌신을 기뻐 받아지다<라초온>의 표시로, 죄의 대가가 치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나타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이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라초온>은 '향기로운 냄새'처럼 제

사의 연기가 하나님의 기쁨을 자아내는 은밀한 교제를 암시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레위기 1장 6절은 가죽 벗기고 각 뜨기를 제시합니다. 예배자가 직접 수행하는 고된 작업으로, 전 존재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레 1:6]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는 뜻입니다. 벗김은 자아 내려놓음입니다. 뜨기는 내면 드러냄입니다.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 예배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된 작업으로,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영적 결단을 상징합니다. 가죽은 외적인 자아나 세상적인 겉모습을, 각을 뜨는 것은 내면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바치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예배자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부모나 목사,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자아를 스스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레 1: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레 1: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1:10]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레위기 1장 7-10절은 번제의 완성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섬김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

가는 거룩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의 섬김과 예배자의 결단을 통해 삶을 바치는 의미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레위기 1장 7-10절은 번제의 준비와 완성을 규정합니다. 이 구절들은 제사장의 불 지키기부터 제물 불살라까지 과정을 통해 헌신의 철저함을 강조하며, 현대 신앙인에게도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을 일깨웁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사는 예수의 완전한 희생으로 화목되는 은혜를 예고합니다. 번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평화와 회복의 길입니다.

레위기 1장 7-8절은 제사장의 준비를 제시합니다. 단 위 불과 나무 벌임, 각머라기름 올림으로 제사의 지속성과 섬김을 강조합니다.

[레 1:7]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레 1:8]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뜸 각과 머

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단 위에 불을 두고 나무를 벌이며 각머리·기름을 올리라는 뜻입니다. 불은 거룩한 임재입니다. 섬김은 중재의 손입니다. 제사장들이 단<미즈베아흐> 위에 불<에쉬>을 두고 각머리·기름을 올립니다. 단<미즈베아흐> 위에 불<에쉬>을 두고 나무를 벌여 놓는 것은 제사장이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 그리고 평화의 능력을 상징하는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책임을 나타냅니다. <미즈베아흐>는 '희생을 잡는 곳'이라는 뜻이지만, 어근 <자바흐>가 '희생하다'에서 나오며, 고대 근동 제단처럼 피를 흘리는 장소로 죄의 대가를 상기시키지만, 이스라엘의 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피를 통해 회복되는 '화목의 자리'를 암시합니다. <에쉬>는 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라 (레 6:9)처럼, 하나님의 지속적 임재를 상징하며,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신앙의 불꽃을 연상시

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중재하며,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섬 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 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 혜로 그들을 인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예배 자가 직접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겨 각을 뜬 후, 제사장은 이를 단 위에 올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예배자의 개인적인 헌신과 제사장의 섬김 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각과 머리, 기름은 제물의 전부를 상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 생각 (머리), 힘(기름), 내면(각) - 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섬김은 예배자의 헌 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도록 돕는 중 재의 역할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은 내장 씻김과 불살라를 제시합 니다. 물로 정결케 한 후 불에 태우는 과정으로, 거룩함과 향기로운 수용을 강조합니다.

[레 1:9]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이 전부를 불살라 드리라는 뜻입니다. 씻김은 정결의 물입니다. 불살라는 오르는 헌신입니다. 제사장이 내장<케라브>과 정강이<케라>를 씻고 전부를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로 드립니다. 내장<케라브>과 정강이<케라>는 짐승의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내장은 음식물과 불결함이 쌓인 곳이고, 정강이는 세상과 닿아 더러워진 다리입니다. 이를 물로 씻는 것은 죄와 불결함을 정화하는 과정을 상징하며, 제사장이 이 힘든 일을 맡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케라브>는 '숨겨진 내부'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더러움을, <케라>는 '땅에 닿는 부분'으로 세상의 오염을 상징하며, 이 씻김은 너희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출 19:10)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전체를 깨끗이 하는 준비를 암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향기

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는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아흐 니호아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창 8:21) 처럼,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평화의 향기’로, 우리의 헌신이 창조의 저주를 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깊이 드러냅니다. 제사장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고된 작업을 감당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 섬기는 역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섬겨야 함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의 섬김은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뻐 받아지다<라초온>로 나아가도록 돕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레위기 1장 10절은 양·염소 번제를 제시합니다.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헌신으로, 모든 예물의 동일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레 1:10]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

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로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수컷은 순결한 선택입니다. 번제는 보편적 헌신입니다. 떼의 양이나 염소로 흠 없는<타밈> 수컷을 드립니다. "흠 없는 수컷"<타밈>은 외적 완전함뿐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과 정직함을 상징하며,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온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타밈>은 '완전하다'지만, 히브리 전통에서 '평화로운 온전함'(<샬롬>과 연결)으로, 제물이 창조 질서의 완벽을 회복하는 도구임을 드러냅니다. 양이나 염소는 소보다 덜 값비싼 제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정성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헌신이 물질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

[레 1: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यो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
에 뿌릴 것이며

[레 1:12]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यो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레 1:13]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यो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
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1-13절은 번제의 절차를 통해, 하
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
리의 전 존재를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예배자와 제사장
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정화하고 생명을 얻
는 은혜를 제시합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희생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함을 미리 드러냅니다.

이 구절들은 예배자의 헌신과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정결과 수용을 강조하며, 현대 신앙인에게
도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을 일깨웁니다. 궁극

적으로 이 제사는 예수의 보혈로 완성되는 은혜를 예고합니다. 번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평화와 회복의 길입니다.

레위기 1장 11절은 제물 잡음과 피 뿌림을 제시합니다. 단 북편에서 잡는 행위로, 죄의 전가와 속죄를 상징합니다.

[레 1:11]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북편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라는 뜻입니다. 잡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피 뿌림은 회복의 표시입니다. 예배자가 단<미즈베아흐> 북편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립니다. 단<미즈베아흐> 북편에 위치한 번제소에서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잡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미즈베아흐>는 '희생을 잡는 곳'

이라는 뜻이지만, 어근 <자바흐>가 '희생하다'에서 나오며, 고대 근동 제단처럼 피를 흘리는 장소로 죄의 대가를 상기시키지만, 이스라엘의 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피를 통해 회복되는 '화목의 자리'를 암시합니다. 북편 위치는 네가 제단을 산송아지 가죽 네 뿔로 하는 네 규빗 네 규빗의 길이와 네 규빗의 너비로 네모난 제단을 만들어야 하며 제단의 높이는 삼 규빗이 되리라 (출 27:1)처럼, 희생의 장소가 '죽음의 방향'(북쪽, 사탄의 영역 상징)에서 하나님을 향해 피를 뿌리는 회복을 나타냅니다. 이는 속죄제에서도 반복되며, 예배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4:29). 안수하다<사마크>는 예배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제물에 전가하는 행위로, 이는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성치됩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단순한 전가가 아니라 제물에 '기댐'처럼 우리의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에 기대는 신앙을 연상시킵니다. 제사장이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

은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나타내며,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생명을 주는 능력을 지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 12:22-23)처럼 -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받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보여 줍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4)처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레위기 1장 12절은 각 뜨기와 베어 냄을 제시합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준비하는 행위로, 전 존재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레 1:12]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물의 각
을 뜨고 머리·기름을 베어 제사장이 단 위에 올
리라는 뜻입니다. 뜨기는 내면 드러냄입니다. 베
어 낸은 전부 바침입니다. 예배자가 각을 뜨고
머리·기름을 베어 제사장이 올립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베어 내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생각(머리), 힘(기름), 내
면(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
케라브>는 '숨겨진 내부'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
는 마음의 더러움을, <머리>는 지혜와 방향성을,
<기름>은 기쁨과 힘의 원천을 나타내며, 이 베
어 낸은 네가 장자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여
호와께 드리되 네 모든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 (출 13:2,12)처럼 아브라함의 순종
이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여정을 연상
시킵니다. 제사장은 이를 단 위에 올려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온
전히 드러지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예배자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적인 결단으로 하나

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장 13절은 내장 씻김과 불살라를 제시합니다. 물로 정결케 한 후 불에 태우는 과정으로, 거룩함과 향기로운 수용을 강조합니다.

[레 1:13]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이 전부를 불살라 드리라는 뜻입니다. 씻김은 정결의 물입니다. 불살라는 오르는 헌신입니다. 제사장이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전부를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로 드립니다. 내장과 정갱이는 짐승의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이를 물로 씻는 것은 죄와 불결함을 정화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케라브>와 <케라>는 '땅에 닿는 부분'으로 세상의 오염을 상징하며, 이 씻김은 너희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

을 빨고 예비하여 제 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출 19:10)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전체를 깨끗이 하는 준비를 암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향기로운 냄새" <레아흐 니호아흐>는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아흐 니호아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창 8:21)처럼, 홍수 심판 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평화의 향기'로, 우리의 헌신이 창조의 저주를 넘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깊이 드러냅니다. 제사장이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고된 작업을 감당하는 것은 백성을 위해 섬기는 역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섬겨야 함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의 섬김은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뻐 받아지다<라초온>로 나아가도록 돕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레 1:14]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레 1:15]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레위기 1장 14-15절은 번제의 예물이 소나 양뿐 아니라 새로도 드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모든 이에게 열린 예배의 길을 드러냅니다. 예배자가 형편에 맞춰 헌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그 헌신이 즐거운 마음에서 나와야 함을 가르칩니다. 번제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예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레 1:14]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소나 양을 바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코르반>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드러내며, 예배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바쳐지면 기뻐하시며 받아들이주십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9:7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운 심령으로 드리는 헌신을 사랑하시며 그에 따른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즐거운 마음에서 나와야 함을 강조하시며, 그에 따른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10에서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원하는 헌신은 하나님을 열어 복을 부으시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제사장이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를 흘리는 과정은 번제의 거룩함과 속죄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레 1:15]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를 단 곁에 흘리는 것은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며,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미리 보여줍니다. 비록 새는 작은 제물이지만, 그 피는 여전히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죄를 씻고 생명을 가져오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는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영생을 주시는 능력을 드러냅니다.

[레 1:16] 멍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레 1: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6-17절은 새를 번제로 드리는 과정의 마무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의 거룩함과 그분의 기쁨이 되는 헌신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번제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여정임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먹통과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과정은
예배의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레 1:16]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먹통과 더러운 것을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는 행위는 제물의 불결한 부분을 제거하여 예배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지도록 준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단 동편은 재와 불결함이 쌓이는 곳으로, 죄와 부정함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됨을 나타냅니다. 먹통<크로프>은 새의 소화 기관으로, 먹은 음식물이 쌓인 더러운 곳을 뜻하며, <페레쉬>는 '배설물'로 세상의 오염과 죄의 찌꺼기를 상징합니다. 이 제거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죄를 버려야 함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불결함을 깨끗이 씻어주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요한 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능케 합니다.

제사장이 새를 찢고 단 위에 불사르는 과정은 예배의 완성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냅니다.

[레 1:17]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를 날개 자리에서 찢되 완전히 나누지 않는 것은 제물이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짐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배자의 삶이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찢다 <바라>는 '찢어 열다'로, 제물을 불에 태우기 전에 드러내지만 완전히 분리하지 않는 이 방법은 제사의 연속성을 암시하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번제<올라>는 제물이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화제<이슈>의 방법으로, <레아흐 니호아흐>는 '향기로운 냄새'로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화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미리 보여주며, 히브

리서 10:10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레위기 2장 =====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위기 2장 1-3절은 소제(곡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헌신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소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로, 곡식으로 드려지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서원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과 소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로 들어가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소제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고운 가루는 곡식을 정성껏 빻아 준비한 것으로, 예배자의 노력과 정성을 상징합니다. 기름<쉐멘>은 감람유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풍성함을, 유향<레보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헌신을 나타냅니다. <쉐멘>은 ‘기름짓다’라는 어근으로,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이 성령으로 부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암시합니다. <레보나>은 ‘순수한 향으로, 고대 근동에서 왕의 향으로 쓰이듯,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왕 같은 기쁨을 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예배자의 삶이 정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

는 예배로 드려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소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지만, 예배자의 마음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마태복음 22:37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제사장이 소제를 단 위에 불사르는 과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이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소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화제<이슈>임을 나타냅니다. <이슈>는 '불로 태우다'로, 제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상징하며, <레아흐 니호아흐>는 '향

기로운 냄새로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아흐 니호아흐>는 창세기 8:21의 노아 제사처럼, 심판 후 평화를 가져오는 향기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소제는 종종 번제와 함께 드려졌으며, 이는 우리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10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희생이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만드는 길입니다.

소제의 남은 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냅니다.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의 남은 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예배자와 섬기는 자

들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옴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9:6-7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원하는 헌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카데쉬 코데쉬>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소제가 제사장에게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유지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와 공동체를 축복하는 과정을 암시합니다.

[레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레 2:5] 번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레 2: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레 2:7]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레위기 2장 4-7절은 소제(곡물 제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모든 이에게 열린 예배의 길을 드러냅니다. 소제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유일한 제사로, 곡식으로 드려지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서원하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자신의 형편에 맞춰 정성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누룩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소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화덕에 구운 무교병, 번철에 부친 것,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배려하셔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보여줍니다. 화덕<탄누르>은 화로로, 번철<마블라흐>은 후라이팬, 솥<마르케 세트>은 가마솥과 같은 일상 도구로, 예배자가

제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

	성격	목적	특징	의미	그리스도와의 관계
번제	자원 및 의무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	흠없는 제물을 준비, 가족을 제외한 제물 전체를 불살라 드림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함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헌신의 보람
소제	자원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로서 고운 곡식 가루를 기름, 유향, 소금 등과 섞어 불살라 드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함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
화목제	자원	하나님과 특별한 친교를 위해	제사후 경배자도 제물을 분배받을, 드리는 동기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됨.	하나님과 화평과 교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속죄제	의무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 받기 위해	각 사람의 신분, 지위(제사장,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 평민, 극빈자)에 따라 제물이 다름	*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 * 죄의 치명적 결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임
속건제	의무	하나님과 이웃을 저 대관계에 놓이게 한 죄의 해결 및 보상	범죄한 대상(하나님, 사람)에 따라 제물이 다르며, 범한 물건의 1/5을 더 냄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함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치명적인 파괴성을 제거함

제사의 방법에 따른 구분

	제사법	해당제물	해당제사	예표
화제	경배자가 가져와 인수하고 제사장이 잡고 다듬은 희생 제물을 단위에서 불사를 (레 1:6-9; 3:3-9). 이때 그 피는 성막 기구 및 번제단 주위에 뿌림	흠없는 수소, 암소, 숫양, 양양, 숫염소, 양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곡식 가루, 기름, 유향 등의 모든 제물 (레 1:3, 10, 14; 2:1, 2; 3:1, 6, 12; 4:23, 28)	번제 (출 29:18, 25; 레 1:9, 13, 17) 소제 (레 2:1-16) 화목제 (레 3:3, 5, 9) 속죄제 (레 5:12) 속건제 (레 6:17, 18)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상징함 (요 1:29, 36;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피흘리심을 상징함)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전체를 바쳐 희생당함 (50)
요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을 높이 들어 앞뒤로 흔들어 바침 (출 29:24, 26)	화목 제물의 가슴, 첫 곡식 단(레 23:15), 첫 이삭의 떡 (레 23:20), 레위인(님 8:11-15)	화목제 (레 7:30) 속건제 (레 14: 12, 14) 땅의 처음 익은 곡식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바쳐짐을 의미함 (골 1:20)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여지심을 상징함 (골 1:26)
거제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 희생 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쳐들어서 위아래로 흔들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 타작 마당의 곡식, 십일조, 포도주, 기름 등 (레 7:32; 민 15:20)	화목제 (레 7:14, 22) 땅의 첫 소산물을 드릴 때 십일조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바쳐짐을 의미함 (골 1:20)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여지심을 상징함 (골 1:26)

자신의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쉐멘>을 섞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정성을 상징하며, <쉐멘>은 '기름짓다'라는 어근으로, 예배자의 삶이 성령으로 부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암시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9:6-7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형편에 맞는 헌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누룩 없는 소제는 예배의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누룩<사아르>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며, 쉽게 스며드는 특성으로 인해 사람의 심령을 빠르게 물들이는 죄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사아르>은 '발효하다'로, 고대 근동에서 누룩이 우상 제사에 쓰이듯,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명령은 예배가 정결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 은혜를 미리 드러

냅니다.

소제의 다양한 준비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헌신을 받아들이신다는 자비를 드러냅니다. 번제단에 유향<레보나>과 함께 드려지는 소제는 값비싼 향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적합했지만, 유향 없이 화덕, 번철, 솥으로 준비된 소제는 가난한 자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레보나>은 '순수한 향으로, 왕의 향처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2:37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배의 가치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제는 예배자가 직접 준비하며, 이는 정성과 진심을 요구합니다. 고운 가루를 빻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는 과정은 예배자의 노력과 헌신을 상징하며,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계명을 반영합니다.

[레 2: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
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레 2: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
로운 냄새니라

[레 2: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
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
룩한 것이니라

레위기 2장 8-10절은 소제의 드려짐과 처분 과정
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예배의 거룩함과 그분
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소제는 짐승의 피를 흘리
지 않는 유일한 제사로, 예배자의 정성과 충성을
담아 드려지며 그 예물이 하나님의 소유로 성별
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헌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배자와 섬기
는 자들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옴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
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소제는 예배자의 정성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레 2: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예배자가 고운 가루, 기름<쉐멘>, 유향<레보나>으로 정성껏 준비한 소제를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과 수고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이를 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중재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소제는 예배자의 충성과 헌신을 담아 드러지는 예물<코르반>으로,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뜻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계명을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22:37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헌신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제사장이 소제의 일부를 불사르는 것은 예배의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레 2: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이 소제물 중 일부를 "기념할 것"<아즈카라>로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화제<이쉬>임을 나타냅니다. <아즈카라>는 '기억하다'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심을 상징합니다. <이쉬>는 '불로 태우다'로, 제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는 예배자의 정성과 충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히브리서 10:10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

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소제의 남은 부분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나타냅니다.

[레 2: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의 남은 부분이 아론과 그 자손, 즉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성별되어 그분의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백성이 직접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그들을 부양하시는 섭리를 나타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 <코데쉬 코다심>은 소제가 제사장에게 돌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유지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9:6-7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원하는 헌신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동체를 풍성히 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레 2:11]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레 2:12]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레 2:13]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 2:14]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찜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레 2:15]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레 2:16] 제사장은 찜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2장의 이 단락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素祭, 곡식 제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별히 누룩과 꿀의 금지, 소금의 첨가, 그리고 첫 이삭 소제라는 영적인 상징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예배의 기본 요소인 소제를 통해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거룩함과 순수성, 그리고 신실성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습니다.

“[레 2:11]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는 명령은 소제의 핵심적인 금지 규정입니다. 누룩<세오르>은 부패와 죄의 영향력을 상징했으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고전 5:6-8]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말씀처럼 교회 안의 죄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꿀은 세상의 달콤함이나 자연적인 기쁨을 상징했으나, 발효되어 부패할 수 있는 속성을 가졌기에 영구적인 제단에서는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예배가 죄와 세속적인 부

패를 배제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간적인 쾌락이나 세상의 단 맛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습니다. 다만 "[레 2:12]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라는 규정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소제에서는 누룩과 꿀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는 자연적인 소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봉헌을 할 수는 있지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단 위에서는 누룩과 꿀의 상징적인 부정함 때문에 태워지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레 2:13]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는 명령은 소제의 필수 첨가물인 소금의 영적인 중요성을 선언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언약의 소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와 신실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소제를 통해 드려지는 언약 백성의 헌신과 순종이 "[민 18:19]영원한 소금 언약"처럼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가져야

함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습니다.

소금은 "[마 5:13]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의 역할을 예표합니다.

"[레 2:14]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이라는 규정은 추수의 첫 소산물을 드리는 감사와 헌신을 다룹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찜은 것 위에 "[레 2:15]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라고 규정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과 봉헌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도와 향기로운 예배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이 중에서 일부(찜은 곡식, 기름, 유향)를 "[레 2:16]기념물로 불사를지니"라고 명령받았는데, 이 기념물<아즈카라>은 '기억'이라는 뜻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백성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은혜의 확증이었습니다.

소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노동의 소산을 드리는 예배로서, 우리는 죄와 세속의 탐심(누룩과

꿀)을 버리고 변치 않는 신실함(소금)과 성령의 기름부으심(기름), 그리고 간절한 기도(유향)를 더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헌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초태생의 비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 13: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짐승을 포함하여 사람까지도 모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헤아린 이스라엘의 1개월 이상된 장자의 수는 22,273명이었습니다(민 3:42-43). 그러나

레위인의 1개월 이상된 남자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민 3:39). 레위인을 대속물로 삼는다 할 지라도 273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수에 대해서 속전을 지불케 하셨습니다. 한 명당 속전은 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은 속전세를 지불하여 그것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민 3:46]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이백칠십삼 인이 더한즉 속하기 위하여 [민 3:47] 매명에 오 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민 3:48]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첫 아들과 짐승의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과 첫 태생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습니다 (출13:2-3). 그런데 이스라엘 첫아들과 첫태생 대신 레위인 남자와 레위인의 첫태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님이 구별하여 소유로 삼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었으나 그들로 성막과 제사 사역을 감당하기는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파를 선택하여 모든 제사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엄격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녀 중 초태생까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초태생된 자녀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백성의 초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이 된 것입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민 8:17]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내가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민 8:18] 이러므로 내

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
으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처럼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여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에게는 그 어떠한 재물을 취할수도 없었으며 하나
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되었
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이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
은 많이 퇴색되어 갔으며 많은 레위인들이 세상으
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었기 때문
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레위인을 돌보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에 대한 초태생 대속제물로 삼음은
오늘날에는 목회자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든 목회
자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대속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저
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초태생 대속제물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들 위에서 군림하는 왕같은 존재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면서 "모두가 똑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주장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초태생을 취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초태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초태생이 있으며 우리의 재물 중에도 초태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소산의 십일조도 함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산의 처음 난 것과 수입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 레위인으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느 12: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오래도록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킬 때에 솔로몬 이후에 그토록 큰 기쁨이 없었는데 왕이 백성에게 헌금을 바치라고 명하자 백성들이 많은 헌금을 가져왔는데 그 헌금을 쌓아 올리는데만 자그마치 4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대하 31:7).

"[대하 31:5]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오늘날에도 소산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소산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나 하나님은 예니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초태생과 십일조는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금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소금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모든 거제물을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위해 하나님

께 바쳐졌기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민 18: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 18:20]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민 18:22]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레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

레위기 3장 =====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레위기 3장 1절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자, 공동체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드러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며, 그 분과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자가 흠 없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희생을 통해 완성되는 화평의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위한 예배입니다.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셀레미임>는 "평화" 또는 "화목"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예배자, 공동체 사이의 화평을 상징합니다. <셀레미임>은 '평화로운 것'이라는 어근으로,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공동 식사처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를 암시합니다. 소를 예물<코르반>로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가장 귀한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흠 없는"<타밈> 제물은 외적 완전함뿐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순수함과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히브리 전통에서 <샬롬>과 연결되어 제물이 화평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흠 있는 예물을 싫어하시며, 오직 정결한 헌신만이 그분께 받아들여짐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13에서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흠 있는 제물은 헛된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희생을 통해 우리

의 예배가 완성됨을 미리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화목제 희생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1:20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합니다.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3:3]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3:6]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레 3:7]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

[레 3:8]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3:9]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10]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11]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레위기 3장 2-11절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자, 공동체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상징하는 예배의 여정을 드러냅니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과 보호,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흠 없이 바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화목제는 예배자의 헌신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상징합니다.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제물에 전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나타냅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단순한 전가가 아니라 제물에 '기댐'처럼 우리의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드러내며,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에 기대는 신앙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예배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개인적인 결단을 상징

합니다.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나타내며,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능케 합니다. 이 보혈은 또한 우리를 악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출애굽기 12:13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가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하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제물의 기름과 내장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온전함을 보여줍니다.

[레 3:3]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5]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헬레브>과 내장, 콩팥, 간에 덮인 꺼풀은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예배자의 삶과 소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음식 부분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단 위에 불사르는 화제<이슈>는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어 그분께 온전히 드리짐을 나타냅니다. <이슈>는 '불로 태우다'로, 제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는 이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히브리서 10:10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

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역시 동일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레 3:6]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레 3:7]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가

[레 3:8]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3:9]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힌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10]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11]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양으로 드리는 화목제에서도 예배자는 흠 없는 <타밈>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하고, 제사장은 피와 기름을 단 위에 드립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화목제의 본질인 화평을 강조합니다. 특히 양의 "기름진 꼬리"는 풍성함과 생명을 상징하며, 이는 예배자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강조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공동체 사이의 화평을 상징하며, 골로새서 1:20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완성됩니다.

[레 3:12]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레 3:13]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3: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

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레 3:16]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레 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3장 12-17절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자, 공동체 사이의 화평과 교제를 상징합니다. 기름과 피에 대한 영원한 규례는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자가 흠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과 보호,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여정을 드러냅니다. 또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속한 것의 거룩함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히 보존하라는 그분의 뜻을 보여줍니다.

염소로 드리는 화목제는 예배자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레 3:12]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레 3:13]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배자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제물에 전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나타냅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제물에 '기댐'처럼 우리의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드러내며,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에 기대는 신앙을 연상시킵니다.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며,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의 사

꿈을 가능케 합니다. 이 보혈은 또한 악과 죽음
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출애굽기 12:13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말
씀처럼, 피가 죽음의 재앙에서 보호하는 은혜를
드려냅니다.

제물의 기름과 내장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온전
함을 보여줍니다.

[레 3:14]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
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
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3:15]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
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
할 것이요

[레 3:16]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기름<헬레브>과 내장, 콩팥, 간에 덮인 꺼풀은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예배자의 삶과 소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단 위에 불사르는 화제<이쉐>는 예배자의 헌신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어 그분께 드리심을 나타냅니다. <이쉐>는 '불로 태우다'로, 제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는 이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선언은 기름이 하나님께 성별된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0:10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영원한 규례는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함을 가르칩니다.

[레 3:17]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

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기름<헬레브>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호캇 올람>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호캇 올람>은 '영원한 법도'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소에서 지켜야 할 영원한 명령을 강조합니다. 기름은 생명과 풍성함을, 피는 생명 자체를 상징하며, 이는 하나님의 소유로 성별되어 예배자에게 금지됩니다. 이는 골로새서 1:20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희생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규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히 보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기름과 피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식이 규례가 우리의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레위기 4장 =====

[레 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4: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레위기 4장 1-3절은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달리 죄로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이에게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화목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속죄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레 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속죄제의 규례를 전하신 것은, 죄로 멀어진 백성들을 다시 그분의 임재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개와 예배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속죄제는 모든 이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길을 엽니다.

[레 4: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속죄제가 지도자나 백성,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죄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열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금령”<미츠바>은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며, 특히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죄를 포함합니다. <미츠바>는 '지시하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실수나 고의의 범죄를 다룹니다. 이는 죄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속죄제는 그 단절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능케 합니다.

제사장의 죄와 속죄제는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기에, 그는 흠 없는<타밈> 수

송아지를 속죄제<핫타트>로 드려야 합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고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제물이 외적 완전함뿐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도자의 책임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모든 이가 죄의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7:27에서 "저가 저희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매일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단번 희생이 제사장의 속죄제를 완성합니다.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 4: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
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위기 4장 4-7절은 속죄제의 엄숙한 의식을 통
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
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
과 달리 지성소 휘장 앞 피 뿌림과 번제단 밑 피
쏟기를 포함합니다. 이는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
께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길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화목한 관계로 들어가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
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속죄제는 예배자의 회개와 헌신으로 시작됩니
다.

[레 4:4]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
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
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예배자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

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나타냅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단순한 전가가 아니라 제물에 '기댐'처럼 우리의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완전한 속죄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14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줍니다.

속죄제의 피 뿌림은 죄의 용서와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레 4: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

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가 지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는 것은 속죄제의 엄중함과 죄 사함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일곱 번"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지성소 휘장 앞 피 뿌림은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재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9:12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회복을 이룹니다.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이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러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고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특히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들은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며, 모든 이가 회개와 속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레 4:8]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4:9]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레 4:10]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레 4: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레 4:12]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레위기 4장 8-12절은 속죄제의 의식을 통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드러냅니다.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전체를 진 밖에서 태우는 과정은 속죄제의 엄중함과 온전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 밖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속죄제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레 4:8] 또 그 속죄 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 4:9]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레 4:10]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기름<헬레브>과 내장, 콩팥, 간에 덮인 꺼풀은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예배자의 삶과 소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번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속죄제<핫타트>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어 그분께 드려짐을 나타냅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고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화

목제와 동일하게 기름을 취하는 것은 속죄제가 화평과 용서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히브리서 9:14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줍니다.

제물의 진 밖 불사름은 예수님의 속죄를 예표합니다.

[레 4: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레 4:12]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속죄제의 제물이 진 밖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는 것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의식으로, 죄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제거됨을 상징합니다.

다. "진 밖"<마하네 마하레>은 '진 밖'으로, 불결한 죄가 거룩한 공간에서 멀어지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12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 밖 희생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성소 휘장을 열어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27:51에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한 사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20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신 것입니다.

[레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레 4: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위기 4장 13-15절은 속죄제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깨달았을 때, 장로들이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온 회중의 죄는 공동체적 회개로 다루 집니다.

[레 4:13]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

로 깨닫지 못하다가

[레 4:14]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와 금령<미츠바>을 어긴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핫타트>를 드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미츠바>는 '지시하다'로,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죄를 포함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라는 표현은 죄가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하더라도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를 깨달은 순간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중이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여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공동체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장로들의 속죄제는 공동체의 책임과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레 4: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다 <사마크>하고 잡는 것은 백성의 죄를 대표하여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장로들이 공동체의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흠 없는 <타밈>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지도자의 죄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회개가 화평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복음 1:29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희생을 미리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9:12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공동체의

속죄를 완성합니다.

[레 4: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레 4:19]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레 4:20]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레 4:21]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 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레위기 4장 16-20절은 속죄제의 엄숙한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지성소 휘장 앞 피 뿌림과 번제단 밑 피 쏟기는 속죄제의 중대한 의미와 지도자의 책임을 강조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의 피 뿌림은 속죄제의 엄중함과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레 4: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17]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가 지성소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리는 것은 속죄제<핫타트>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고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일곱 번"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지성소 휘장 앞 피 뿌림은 죄로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는 중재의 행위

를 나타냅니다. 이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한 의식으로, 온 회중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4:6에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라고 한 것처럼, 이 의식은 회중의 죄를 완전히 속죄합니다.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레 4:18]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이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러져야 함을 나타냅니다.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는 것은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화목을 이루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यो”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사함을 가능케 합니다.

기름을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레 4:19]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기름<헬레브>은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예배자의 삶과 소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속죄제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어 그분께 드려짐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의 흠 없는 희생이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회중의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옵니다.

[레 4:20] 그 송아지를 속제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속죄 희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미리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9:12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회중의 사함을 완성합니다.

[레 4:22]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레 4:23]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레 4:24]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레 4:25]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레 4:26]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 같
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22-26절은 속죄제를 통해, 이스라엘
의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족
장의 죄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므
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며 회개하는 것은 지도
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
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
니다.

족장의 죄는 회개와 속죄제를 통해 용서받습니
다.

[레 4:22]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레 4:23]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나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의 죄는 공동체 전체에 미치므로, 하나님의 금령<미츠바>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흠 없는<타밈> 수염소를 예물<코르반>으로 드려야 합니다. <미츠바>는 '지시하다'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죄를 포함합니다. "부지중에"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죄를 다루며, 죄를 깨달은 순간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제물이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로, 족장의 헌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9:14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지도자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줍니다.

속죄제의 피 뿌림과 기름 불사름은 관계 회복을 상징합니다.

[레 4:24]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 제라

[레 4:25]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예배자가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는 것은 죄를 제물에 전가하며 헌신을 서원합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제물에 '기댐'처럼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는 것은 속죄제<핫타트>가 죄를 덮고 용서를 가져옵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족장의 죄를 깨끗이 씻습니다.

기름을 불사르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레 4:26]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 같
이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기름<헬레브>은 제물의 귀한 부분으로, 삶의 중
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헬레
브>는 '지방'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
을 나타냅니다. 이를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속
죄제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됩니다. 화목제
처럼 기름을 드리는 것은 속죄제가 화평으로 이
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골로새서 1:20에서 "그
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로 말
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게 하셨느니라"라
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죄를 사하고
화목을 이룹니다.

[레 4:27]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레 4:28]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
것을 예물로 삼아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4:30]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레 4:31]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 4:32]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
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레 4:33]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
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
요

[레 4:34]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
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레 4:35]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
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
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

우리라

레위기 4장 27-35절은 속죄제를 통해, 평민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 죄에 대한 회개와 헌신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평민의 죄는 개인적 회개로 속죄됩니다.

[레 4:27]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레 4:28]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평민의 하나”가 하나님의 금령<미츠바>을 어긴 죄를 깨달았을 때, 흠 없는<타밈> 암염소를 예물 <코르반>로 드리는 것은 개인적 회개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미츠바>는 '지시하다'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죄를 포함합니다. "부지중에"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죄를 다루며,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제물이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간다"로, 평민의 헌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평민의 죄를 깨끗이 씻습니다.

속죄제의 안수와 피 뿌림은 개인의 헌신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레 4:29]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레 4:30]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평민이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하고 번제소에서 잡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며 헌신을 서원합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제물에 '기댐'처럼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밑에 쏟는 것은 속죄제<핫타트>가 죄를 덮고 용서를 가져옵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9:12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평민의 죄를 영원히 사합니다.

기름을 불사르는 것은 거룩한 헌신입니다.

[레 4:31]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기름<헬레브>은 제물의 귀한 부분으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헬레브>은 '지방'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속

죄제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됩니다. "향기로
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는 이 헌신이 하나님
의 기쁨이 됩니다. 화목제처럼 기름을 드리는 것
은 속죄제가 화평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암양으로 드리는 속죄제 역시 동일한 회개와 용
서를 상징합니다.

[레 4:32]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
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레 4:33]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
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
요

[레 4:34]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
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레 4:35]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
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와 화제물
위에 불사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
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
으리라

암양으로 드리는 속죄제도 흠 없는<타밈> 제물을 사용하며, 안수와 피 뿌림, 기름 불사름의 과정은 동일합니다. <타밈>은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암염소나 암양을 허락하심은 모든 이의 회개를 받아들이시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는 골로새서 1:20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화목을 이룹니다.

레위기 5장 =====

[레 5: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레위기 5장 1절은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특히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증인의 죄는 개인적 회개와 속죄로 다뤄집니다.

[레 5: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

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이 죄가 평민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맹세<알라>와 관련된 죄, 즉 증인으로서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금령<미츠바>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알라>는 '맹세하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긴 배신을 뜻합니다. <미츠바>는 '지시하다'로, 공동체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으며,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은 개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과의 사귀를 가능케 합니다.

[레 5: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

한 가족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3]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4]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레 5: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레 5: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5장 2-6절은 속건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맹세를 위반한 죄를 다룹니다. 이는 공동체의 신뢰와 정의를 훼손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거나 맹세를 위반한 죄는 속건제를 요구합니다.

[레 5: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3]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레 5:4]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

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요

“부지 중에” 또는 “무심 중에”라는 표현은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죄를 포함합니다. 부정한 것<타메>에 접촉하거나 맹세<알라>를 위반한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결함을 해칩니다. <타메>는 ‘부정하다’로, 육체적·영적 오염을 뜻하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체 만지거나 불결한 사람 접촉은 공동체 위생과 거룩함을 위협했습니다. <알라>는 ‘맹세하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긴 배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신뢰와 정의를 훼손하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한 삶을 저해합니다. 죄를 깨달은 순간 회개로 나아가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결함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속건제는 회개와 제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습니다.

[레 5: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레 5: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죄를 "자복하고" 흠 없는<타밈> 암염소나 어린 양을 예물<코르반>로 드리는 것은 개인적 회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야다>는 '고백하다'로,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진실한 회개를 뜻합니다. 예배자가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하고 속건제<아삼>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아삼>은 '보상하다'로, 죄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제사를 의미하며,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합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제물이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로, 평민의 헌신이 하나

님께 나아가는 길을 엽니다. 이는 히브리서 9:14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게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줍니다.

[레 5: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레 5:8]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찢개지 말며

[레 5:9]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레위기 5장 7-9절은 속건제를 통해, 가난한 자도 일상생활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죄를 정결케 하는 예배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와 같은 작은 제물을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과 악한 자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가난한 자의 속건제를 받아들입니다.

[레 5: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양이나 염소를 드릴 여력이 없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예물<코르반>로 허락하신 것은 모든 이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자비를 보여줍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로, 작은 제물이라도 진심 어린 헌신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속죄제<헛타트>

로, 다른 하나는 번제<올라>로 드려지며, 이는 죄 사함과 온전한 헌신을 함께 나타냅니다. <핫 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는 제사, <올라>는 '오르다'로 하늘로 올라가는 헌신을 뜻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5:32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며 작은 헌신도 받아들이시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속건제의 의식은 죄의 정결함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레 5:8] 제사장에게로 가져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찢개지 말며

[레 5:9]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제사장이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를 단 곁에 뿌리며, 남은 피를 단 밑에 흘리는 것은 속죄제가 죄를 덮고 정결케 하는 예배임을 나타냅니다.

새를 쪼개지 않고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헌신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핫타트>는 죄를 제거하는 제사로, 피<담>은 생명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일서 1:7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यो"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한 자의 작은 헌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작은 제물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분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7-29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죄인, 특히 약한 자와 멸시받는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드

러냅니다.

[레 5: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 5: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레 5: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르지니 이는 속죄제라

[레 5: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레위기 5장 10-13절은 속건제의 마무리를 통해, 가난한 자도 작은 제물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냅니다.

속죄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죄를 다루며, 새나 곡식 제물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이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악한 자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새 제물의 번제는 죄 사함과 온전한 헌신을 완성합니다.

[레 5:10] 그 다음 것은 번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제<핫타트> 후 번제<올라>를 드리는 것은 죄 사함과 함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는 제사, <올라>는 '오르다'로 하늘로 올라가는 헌신을 뜻합니다. 제사장이 규례를 따라 드림으로써 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제사의 완전한 의식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베소서 1:7에

서 "우리를 그 피로써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은혜의 풍성함대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사하고 은혜를 부어줍니다.

곡식 제물의 속건제는 가난한 자의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레 5:11] 만일 힘이 새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고운 가루 절반 에바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삼아 속죄 제물로 삼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이는 속죄제니라

새를 드릴 여력도 없는 자를 위해 고운 가루(보리가루) 절반 에바를 속죄제물로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약한 자까지 미침을 보여줍니다. 기름과 유향을 생략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형편을 배려하신 배려로, 제사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임을 강조합니다. <미누하>는 '곡물 제물'로, 일상적인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로마

서 3:25에서 "하나님이 그를 신앙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가난한 자의 작은 회개도 받아들이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제사장의 기념물 불사름은 하나님의 기억과 용서를 가져옵니다.

[레 5:12]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그 속죄제물 중에서 한 줌을 취하여 여호와 앞 곧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르고 제사장은 그 속죄를 위하여 드린 것이니라

제사장이 가루 한 줌을 "기념물"<아즈카라>로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예배자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심을 상징합니다. <아즈카라>는 '기억하다'로,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도 잊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고 화목으로 이어짐을 나타냅니다.

[레 5:13] 제사장이 그것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

한즉 그가 범한 중 하나에 속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함으로써 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제사의 완전한 의식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형편의 사람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자비로운 길입니다.

고체 용량 측정 단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고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에는 호멜(Homer), 에바(Ephah), 스아(Seah), 오멜(Omer), 갑(Cab)이 있었습니다.

호멜(Homer)

호멜은 이스라엘 고체용량 측정 단위 중에서 최대 단위입니다. 대략적인 용량은 230리터입니다. '호멜'이라는 뜻은 '당나귀'를 뜻하는데 이는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쌀 한 가마는 80kg인데 이를 리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180리터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호멜은 대략 쌀 한가마 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바(Ephah)

에바는 가루나 보리, 곡식 등의 양을 재는 단위로 약 22리터에 해당 됩니다.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는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한 에바는 호멜의 1/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바'는 고체용량 측정 단위이지만 액체용량 측정 단위 인 '밧'과 같은 용량에 해당됩니다. 거의 22리터 정도에 해당됩니다.

스아(Seah)

가루나 곡식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단위로 대략 7.3리터에 해당됩니다(쌀 4되에 해당됩니다). 보통 팬케이크는 대략 밀가루 0.3리터 정도가 소요됩니다. 1 스아로는 대략 2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오멜(Omer)

오멜은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으로 보통 성인의 하루 먹을 양식을 의합니다. '에바'의 10분이 1에 해당되는 양이며 보통 2.2리터 정도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통 성인의 하루 양이 되는 것입니다.

갑(Cab)

'갑'은 고체측량 단위로 1.2리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쌀 반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레 5: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5:15]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레위기 5장 14-15절은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관계를 회복

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성물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행위로,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속건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레 5: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속건제의 규례를 전하신 것은, 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백성들을 회개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결한 예배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성물에 대한 죄는 속건제로 회개해야 합니다.

[레 5:15] 누구든지 여호와와 성물에 대하여 그
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
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코데쉬>은 "구별하다" 또는 "바치다"를
뜻하는 <카다쉬>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의미합니다. 성물에 대한 죄
는 십일조나 헌물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
의 것으로 여기는 행위로, 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입니다. 말라기 3:8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흠 없는<타밈>
수양을 속건제<아삼>로 드리며, 성소의 세겔로
정확한 가치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직
하고 정확한 회개를 요구하심을 보여줍니다. <
아삼>은 '보상하다'로, 죄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제사를 뜻합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
로, 제물이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성소의
세겔은 세상의 기준과 달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상징합니다. 이는 로마서 3:25에서 "하나님이 그를 신앙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성물에 대한 죄를 완전히 속죄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한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바쳐진 것을 정결히 돌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1:7에서 "우리를 그 피로써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은혜의 풍성함대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킵니다.

이 구절들은 속건제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분의 소유로 성별되며, 이를 도둑질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화목한 관

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소유를 정결히 돌려드리는 속건제의 예배자가 됩니다.

[레 5: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 5: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 5:18]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 5: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레위기 5장 16-19절은 속건제를 통해, 성물에 대한 죄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보상과 헌신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성물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행위로, 정결한 보상과 속건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정직한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성물에 대한 죄는 정직한 보상과 속건제로 회개해야 합니다.

[레 5: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성물<코데쉬>은 "구별하다" 또는 "바치다"를 뜻하는 <카다쉬>에서 나온 단어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을 의미합니다. 성물에 대한 죄는 십일조나 헌물 같은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

으로 여기는 도둑질입니다. 이를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하여 보상하는 것은 정직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아삼>은 '보상하다'로, 죄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제사를 뜻합니다. 흠 없는<타밈> 수양을 속건제<아삼>로 드리는 것은 예배자의 정결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제물이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민수기 5:7에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돌려 줄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복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제사장이 속죄함으로써 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정직한 보상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도 속건제로 용서받습니다.

[레 5: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와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레 5:18]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 5: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미츠바>을 어긴 죄는 고의적이거나 부주의한 잘못을 포함합니다. <미츠바>는 ‘지시하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 실수입니다. 이를 깨달은 자는 흠 없는 수양을 예물<코르반>로 드려 속건제를 지내야 합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는 표현은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로마서 3:25에서 “하나님이 그를 신앙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부주의한 죄도 사합니다. 제사장이 속죄함으로써 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를 통해 임함을 나타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화목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성물에 대한 죄와 계명을 어긴 잘못을 회개하며, 정직한 보상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1:7에서 "우리를 그 피로써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은혜의 풍성함대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킵니다.

이 구절들은 속건제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보상으로 정결한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오분의 일을 더한 보상은 죄에 대한 책임과 정직함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회개와 정직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화폐 단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화폐 단위 화폐

1) 세겔(Shekel)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세겔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황실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세겔과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이 있습니다. 황실에서 사용되는 세겔은 성전 세겔의 두 세배 정도였습니다. 성전세겔이 대략적으로 9.7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세겔은 그보다 약간 많은 11.4g 정도였습니다.

세겔은 은세겔이 있고 금세겔이 있습니다. 은으로 된 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으로 된 세겔은 은세겔에 비해 15배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만원을 번다고 하면 은세겔은 40만원이고 금세겔은 600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위해 금 600세겔을 지불했는데 노동자 하루 임금을 5만원으로 생각했을 때 대략 18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대상 21:24] 다윗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

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대상 21:25] 그 기지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에게 받은 금액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마 26:14] 그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마 26: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은 30세겔은 그 당시 히브리인 중 한 사람의 값에 해당되었습니다. “[출 21: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찌니라”

2) 베가(Bcca)

베가는 반세겔을 의미합니다. “[출 38:26] 조사를 받은 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 오백 오십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베가 곧 반 세겔씩이라”

3) 게라(Gerah)

게라는 1/20 세겔(1/10 베가)이었습니다. 성전

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계산했을 때 0.57g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성인남성에게 생명의 속전을 성막에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때 사용되는 금액은 반 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한 세겔은 20 게라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생명 속전은 10게라였던 것입니다.”[출 30:13]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찌니 한 세겔은 이십 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찌며”

4) 달란트(Talent)

성경에 달란트라는 화폐단위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달란트는 무게로 약 34kg에 해당되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는 달란트는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금달란트는 은달란트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금세겔이 은세겔보다 15배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은달란트는 3000 은세겔의 가치였습니다. 한 은세겔의 가치가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되었으니 한 은달란트는 무려 12,000일의 임금에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33년 정도의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 한세겔을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은 한달란

트는 무려 6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금 한 달란트는 무려 90억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금액이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상 29:3]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므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대상 29:4]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이러한 금액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기때문에 달란트에 대한 화폐가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화폐가치는 그 정확성이 매우 엄밀하고 뛰어나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정확성은 훨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천 년전의 다윗의 시대 때의 화폐단위는 그 정확성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와 헬라지역에서 사용되었던 화폐단위

1) 데나리온(Denarius), 드라크마(Drachma)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단위입니다. 이것은 아사리온, 고드란트와 함께 로마 화폐단위로 사용되

었습니다. 이것은 헬라 화폐로 많이 등장하는 것은 드라크마와 렘돈과 구별되었습니다.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둘 다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세겔은 4 드라크마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유지를 위해 성전세를 냈는데 모세 때부터 반세겔을 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2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마 17:24]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2) 앗사리온(Assarius)

앗사리온은 로마 화폐로서 1/16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5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한 앓사리온은 약 3000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참새 두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 고드란트(Kodrantes), 렘돈(Lepton)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단위로서 1/64 앓사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렙돈'은 헬라 화폐단위로서 고드란트의 1/2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막 12:41] 예수께서 연보 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막 12: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막 12: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렙돈이 고드란트의 1/2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의 금액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5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고드란트 금액은 대략 780원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두 렙돈은 500원짜리 동전 두 개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을 헌금했다시며 매우 귀한 헌금으로 받으셨습니다.

레위기 6장 =====

[레 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6:2]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 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능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레 6:3]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 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레 6:4]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능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레 6:5]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 보내 되 곧 그 본물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 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레위기 6장 1-5절은 속건제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 특히 재산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회개하고 보상함으로써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시며, 부당한 방법으

로 타인의 것을 취한 죄를 정직한 회개와 보상으로 해결하도록 명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정직한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속건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레 6: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속건제의 규례를 전하신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백성들을 회개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결한 예배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재산에 대한 죄는 회개와 보상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 6:2]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 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 하거나 능복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레 6:3]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 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한 죄는 하나님의 계명<미츠바>을 어기고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하거나 거짓 맹세<알라>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미츠바>는 ‘지시하다’로, 출애굽기 20:17에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재산에 대한 탐욕을 금합니다. <알라>는 ‘맹세하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어긴 배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신뢰와 정의를 훼손하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한 삶을 저해합니다.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

내지 말지니라

죄를 깨달은 자는 본물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줌으로써 속건제<아삼>를 드려야 합니다. <아삼>은 '보상하다'로, 죄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제사를 뜻합니다. 이는 민수기 5:7에서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돌려 줄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직한 회개와 보상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을 회복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한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보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9:8에서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부당히 취하였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회개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구절들은 속건제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한 죄를 회개하고 정직한 보상으로 정결한 삶을 회복하는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재산을 존중하시는 계명은 공동체의 신뢰와 화목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회개와 정직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회개의 단계

정결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이웃과 나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회개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

르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인식

첫째로 회개에는 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든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기까지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던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였고 백성 중 삼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잠시 잠깐뿐 조금 지나면 곧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의 인식은 회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삼상 12:23) 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한 성도에게도 기도를 쉰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의 멈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잠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은 회개의 단계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살인의 큰 죄를 범했더라도 조금도 죄를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을 큰 죄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온전한 회개를 낳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 4:9)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인

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대하는 저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동생에 대해 물었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살려달라 용서를 빌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죄에 대한 합리성만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들춰내셨을 때 비로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창 4:10-11)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비로소 땅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죄를 인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의 다음 모습을

보십시오.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창 4:12)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동생을 죽인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라는 말 밖에 없을까요? 적어도 가인은 “저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단계를 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인식은 중요합니다.

죄의 애통함

둘째로 회개에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죄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겨납니다.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회

개를 잘 하기 위해선 마음에 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시편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시 38:18)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에스라를 아십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학자요 율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에 빠져있었습니다. 거룩의 상징이었던 레위인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정직의 상징이었던 관리들도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방여인을 집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로 울며 기도하였을 때에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스 10:1-2)

보십시오.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함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뭇 때문에 통곡했습니까? 바로 저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자복했으며 저

들의 죄에 대해 통곡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는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 목매달아 죽었습니다(마 27:5). 그가 죽기 전에 행한 것은 은 삼십세겔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갚아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 없었다면 스스로 자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무서움보다 죄의 고통이 더 컸던 것입니다.

가롯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줄곧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재정을 담당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저 마음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예수님까지 팔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죄를 인식했을 땐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죄로 고통을 받았을 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행복을 누려야 할 자였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죄의 포로였으며

죄는 그에게 행복대신 고통을 주었습니다.

죄의 고백

셋째로 회개에는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는 의식이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들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도 좋습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해도 좋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도 좋습니다. 남편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내에게 해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로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상점 주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배우자 몰래 간음을 저질렀다면 배우

자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기를 쳤다면 사기 당한 장본인을 찾아 가십시오.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로 상처를 당한 당사자를 찾아 가십시오. 부당하게 물건값을 높게 받았다면 소비자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회개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민 5:7)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마 3:6)았습니다.

사도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죄 지은 사람에게 달려 가십시오. 먼 곳에 있다면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숨기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보상

넷째로 회개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께 보상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더 많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값은 자녀 삼 시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 보상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에게로 삼 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 20:5)

사람에 대한 죄는 사람에게 보상하십시오. 물건을 훔쳤다면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음을 했다면 간음에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간다면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파십시오. 죄와 함께 사는 집보다 죄 없이 사는 길바닥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남을 속였다면 속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근무시간을 어겼으면 어긴 시간만큼 일을 더 하십시오.

모세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온전히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보상’은 원래의 것에 1/5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민 5:7)

보상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가해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것 다섯을 취했다면 다섯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섯에다가 다른 손해배상까지 합쳐서 열 개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지나

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모세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출 21:23-25)고 명령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받음

다섯째로 회개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받기 전에는 온전한 회개가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한 대표적인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식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 51:4)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대상은 밋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죄를 들춰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삼하 12:13)

분명히 나단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왕을 질책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소임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내 팽거친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질책하기 위해서 찾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
다 내가 여호와와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
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
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
서”(삼상 15:24-25)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
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보기
에 좋은 것은 취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만 진멸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사울은 자
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내 죄를 사하고’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울
이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
다. 당신이 용서를 바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
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
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8)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 스스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대하 7:14)

혹 당신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보상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당신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잘못 때문에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야곱의 총리대신이 되었으니 요셉이 벌을 주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이 형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염려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 요셉에게 용서할 것을 당부했다고 형들이 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찌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창 50:17)

형들의 그런 태도에 요셉이 울음을 터트렸던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아직까지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진실되이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닮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우리의 용서가 마땅히 요셉의 것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하루 일곱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눅 17:4)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몇 번이든 어떠한든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죄의 버림

여섯째로 회개에는 죄를 버림이 필요합니다. 지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에는 죄의 반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똑 같은 죄를 다시금 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회개를 외쳤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회개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저들의 이방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내다 쫓아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스 10:11-12)

나는 성경에서 이처럼 확실하게 죄를 버렸던 기록을 읽으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인을 내 팽거칠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방여인을 내 보냈습니다. 심지어 이방여인에게서 얻은 자녀까지 내 보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

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아
십니까? 저들의 입으로 직접 말했던 이유를 들
어 봅시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
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
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스
10:3)

저들이 자신의 부인과 자녀까지 내 쫓았던 가
장 큰 이유는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
의 명령을 떨며 준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
랑하는 가족보다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
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는 현재를 지켜 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

던지 상관없이 오직 현재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과거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성자가 될 수 있음은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죄는 완전히 죄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도박, 마약, 음행 등 습관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혹 당신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단계를 잘 이행했다면 습관적인 죄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습관적인 죄를 없애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버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인식할 수도 없으며 죄에 대한 고통과 죄의 고백은 물론이고 죄에 대한 보상과 용서, 그리고 죄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

라”(속 4:6)

[레 6:6]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 올
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
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 올
것ियो

[레 6:7]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
라

레위기 6장 6-7절은 속건제를 통해, 타인에 대한
죄뿐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하고 정결
한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죄가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데 그치
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룩함을 훼손하
는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
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
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정직
한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레 6:6]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 올 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 올 것이요

타인에게 보상한 후에도 속건제<아삼>를 드리는 것은 죄가 사람에게 대한 잘못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흠 없는<타밈> 수양을 예물<코르반>로 드리는 것은 예배자가 자신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나타냅니다. <아삼>은 '보상하다'로, 죄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제사를 뜻합니다. <타밈>은 '평화로운 온전함'으로, 제물이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로, 보상 후에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는 로마서 5:11에서 "이제 우리로 화목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죄를 넘어 화목의 기쁨을 줍니다.

속건제를 통해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레 6:7]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예배자가 사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예배를 받아들이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무슨 허물이든지"는 고의적이든 부주의한 죄를 포괄합니다. 죄는 타인에 대한 잘못뿐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을 온전치 못하게 사용하는 불충으로,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는 골로새서 1:20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사하고 화목을 이룹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합니다. 죄는 단

순히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치 못하게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충한 죄로, 속건제를 통해 회개하고 정결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1:7에서 "우리를 그 피로써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은혜의 풍성함대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룹니다.

[레 6: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6:9]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레위기 6장 8-9절은 번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번제단의 불이 상징하는 영원한 헌신의 여정을 드러냅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로 항상 타

올라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헌신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는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제의 규례를 통해 헌신을 명하십니다.

[레 6: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번제의 규례를 전하신 것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레 6:9]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

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올라>는 제물이 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올라>는 '오르다'로, 제물이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단의 불<에쉬>이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에쉬>는 레위기 6:12-13에서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속적 임재를 상징하며,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신앙의 불꽃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히브리서 10:12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우리의 영원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명

령은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로마서 12:1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산 제사로 만듭니다.

[레 6: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레 6: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 갈 것이요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며

[레 6: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레위기 6장 10-13절은 번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정체성을 지니며 끊임없는 헌신으로 예배드려야 함을 드러냅니다. 세마

포 옷과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배자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의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레 6:10]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를 하체에 두르고 단 위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레 6:11]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청결한 곳으로 가져 갈 것이요

제사장이 성막에서 세마포 옷<바드>을 입고 번제의 재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함<코데쉬>을 나타냅니다. <바드>는 '백' 또는 '순수한'으로, 세마포가 천국의 의처럼 예배자의 정결한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

코데쉬>는 '구별하다'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거룩한 의식을 행함을 보여줍니다. 재를 단 곁에 두고 진 밖으로 가져가 다른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6:16-17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희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지며

[레 6: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단의 불<에쉬>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라는 명

령은 번제<올라>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지는 예배임을 나타냅니다. <올라>는 '오르다'로, 제물이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에쉬>는 '불'로, 화목제의 기름<헬레브>과 함께 불사르는 것은 헌신이 화평으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가장 귀한 부분을 드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0:12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번제단의 불과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9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 받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레 6:14]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레 6:15]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레위기 6장 14-15절은 소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충성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소제는 피 흘림 없는 유일한 제사로, 곡식으로 드려지며 예배자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분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희생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완성됨을 미리 드러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충성의 예배입니다.

[레 6:14]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

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하나님께서 소제의 규례를 다시 명하신 것은 예배자가 정성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소제<민하>는 '선물' 또는 '공물'로, 레위기 2장에서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민하>의 어근 <나하>는 '드리다'로, 예배자의 수고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론의 자손이 단 앞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가 공동체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태복음 22:37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계명을 반영합니다.

소제의 고운 가루와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레 6:15]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고운 가루는 예배자의 정성 어린 수고를, 기름<쉐멘>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향<레보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헌신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이를 "기념물"<아즈카라>로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소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임을 나타냅니다. <아즈카라>는 '기억하다'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는 이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레아흐 니호아흐>는 창세기 8:21의 노아 제사처럼, 심판 후 평화를 가져오는 향기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는 히브리서 10:12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이 우리의 예배를 완성합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소제는 피 흘림 없는 제사로, 예배자의 삶과 수

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로마서 12:1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모든 헌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엽니다.

소 제

소제는 무엇인가?

소제는 유일하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소제 역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이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서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 2:1]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

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레 2:2]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3]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어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소제에 사용된 기름은 감람유가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향료로서 매우 귀한 향료였습니다. 유향 냄새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으며 제사장은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화제로 태워진 소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진 소제물은 번제와 함께 행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소제만 별도로 드릴 경우가 있었지만 그 양이 지극히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주로 번제와 함께 행해졌을 것입니다.

백성이 가져온 소제물은 한 줌 이상되는 양이었습니다. 물론 가져온 사람에 따라 그 양이 각각 달랐지만 화제로 드려질 때는 한 줌 곡식만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소제물은 레위인들에게 돌

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으로만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처럼 곡식으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물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 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짐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곡식으로 하나님께 소제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부자는 가진 것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가난한 자는 적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드렸다고 풍성한 제사가 되지 않으며 적게 드렸다고 빈약한 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진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

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소제를 드리는 방법

소제로 드려질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단에 화제로 드려질 수도 있었지만 화덕에 구워서도 드려졌으며 번철에 부쳐서도 드려졌습니다. 또한 솥에 삶아서도 드려졌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레 2:4]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릴 것이요 [레 2:5] 번철에 부친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레 2:6]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레 2:7]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번제단에 화제로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을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유향이 비싼 향료이기때문에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사람만이 그러

한 소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황없이도 화덕과 변철과 솥을 이용하여 소제를 드리게 했던 것은 유황을 구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소제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덕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화로와 같은 것입니다. 변철은 넓다란 철판으로 오늘날의 후라이팬과 같은 것입니다. 솥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마솥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들려졌으며 반드시 누룩이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누룩이 첨가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매우 쉽게 음식 속에 스며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특성이 아주빨리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누룩없는 소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제는 바치는 사람이 직접 행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헌금만 바친다고 훌륭한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드리는 신령과 진정어린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레위인이 남은 음식을 취함

이렇게 준비된 소제물은 제사장에게 드려졌습니다. 제사장은 준비하여 가져온 소제물 중 일부를 취하여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습니다.

“[레 2:8]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레 2:9]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 2:10]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찌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의 남은 것은 레위인에게 돌려졌습니다. 남은 소제물을 가져온 백성에게 돌리지 않고 레위인들이 취하도록 한 것은 소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 스스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민 18:8]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

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민 18:9]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물의 남은 음식을 레위인에게 주셨던 것은 레위인에게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기업을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스스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졌기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들 스스로 저들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 8:16]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렇기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헌금으로 목회

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헌금을 하였으면 그 헌금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먹이시는 것이지 성도의 헌금으로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행동을 만들며 그 사람을 그릇되이 만들게 합니다.

[레 6: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레 6: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레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

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 니라

레위기 6장 16-18절은 소제의 나머지를 레위인들이 거룩한 곳에서 누룩 없이 먹도록 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과 세상과의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초태생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소제의 나머지는 레위인의 거룩한 소득입니다.

[레 6:16]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레 6:17]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소제의 나머지가 아론과 그 자손, 즉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코르반>이 성별되어 그분의 소유로 귀히 사용됨을 보여줍니다.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로, 헌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옴을 상징합니다. 누룩<샤아르>은 세상의 죄악과 부패를 뜻하며, 이를 넣지 말라는 명령은 레위인들이 세상의 정욕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샤아르>은 '발효하다'로, 쉽게 스며드는 부패처럼 죄가 마음을 물들이는 것을 경계합니다. 회막 뜰, 즉 거룩한 곳<코데쉬>에서만 먹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섭취되며, 레위인들이 초태생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코데쉬 코다심>은 '지극히 거룩한'으로, 소제가 속죄제<핫타트>와 속건제<아삼>처럼 하나님께 속한 소득임을 드러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9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그분의 소유로 살아

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레위인의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레 6:18]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소제를 회막 뜰에서만 먹도록 명하신 것은 레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성별된 힘을 지니며, 이를 다루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호캇 올람>은 '대대로 영원한'으로, 레위인들의 소득이 영원한 거룩한 직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0:10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정욕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룩 없는 소제와 회막 뜰에서의 섭취는 레위인들이 세상의 정욕과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의식을 집행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2:2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 6: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6:20]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에바 십분 일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레 6:21]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레 6:22]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레 6:23]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레위기 6장 19-23절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드리는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과 헌신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소제가 피 흘림 없는 제사로 예배자의 정성과 충성을 상징하며,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레위인의 소제를 통해 거룩한 헌신을 명하십니다.

[레 6: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소제의 규례를 전하신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헌신하라는 초청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장들의 삶이 그분께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레위인의 소제는 거룩한 헌신과 정성을 상징합니다.

[레 6:20]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에바 십분 일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레 6:21]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고운 가루에바 십분 일은 레위인들의 정성 어린 수고를 상징하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은 그들의 헌신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기름<쉐멘>으로 반죽하여 번철<마블라흐>에 구운 소제<민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

께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민하>는 '선물'로, <쉐멘>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마블라흐>는 '평평한 팬'으로, 제물이 평평하게 구워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암시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는 이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히브리서 10:10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레위인들의 소제를 완성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여지게 합니다.

레위인의 소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레 6:22]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레 6:23] 무릇 제사장의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라

제사장의 소제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않도록 명하신 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

쳐진 초태생<코데쉬>으로서 그들의 예배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호캇 올람>은 '영원한 규례'로, 이 소제가 대대로 지속되는 제사장 직분을 상징합니다. <코데쉬>는 '구별하다'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성별됨을 나타냅니다. 이는 민수기 8:14에서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정결케 된 과정을 반영합니다.

레위인의 거룩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들의 소제가 온전히 불사르는 것은 그들이 초태생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6:16-17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저희 가운데서 나와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입니다.

[레 6:2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6:25]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레위기 6장 24-25절은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한 <코데쉬 코다심> 제사로, 번제소에서 드러지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사하는 엄숙한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속죄제의 거룩한 예배를 명하십니다.

[레 6:2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속죄제의 규례를 전하신 것은, 죄로 멀어진 백성들을 회개로 초대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결한 예배를 통해 그 분께 나아가라는 초청입니다.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한 예배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레 6:25]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핫타트>는 번제소에서 드러지며,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하고 잡는 행위는 죄를 제물에 전가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고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사

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제물에 '기댐'처럼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지극히 거룩한" <코데쉬 코다심>은 속죄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지는 엄숙한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코데쉬 코다심>은 '지극히 구별된'으로, 제물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4:29에서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यो"라고 한 것처럼, 이 의식은 죄의 심각성과 용서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는 히브리서 9:12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으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의 거룩함은 예배자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로마서 12:1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만듭니다.

속죄제

속죄제란?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호와와의 금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계명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행하라”는 계명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뜻합니다.

“[레 4: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레 4:3]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했을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거나 부주의함으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지켜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만 속죄제를 드려야 함도 아니고 백성들만 드려야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레 4: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레 4:6]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4:7]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은 속죄제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이는 속죄제가 다른 제사에 비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엔 단순히 피를 번제단에다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엔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일곱번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오직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로 여기고 장로들로 하여금 속죄제로 드렸는데 이렇게 속죄제로 드려질 때만 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라 할지라도 백성의 족장이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단순히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뿌린 후에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부어졌습니다.

속죄제 의식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뿌림이 매우 복잡하며 회막 안에서까지 피를 뿌렸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죄제의 경우에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고 지성소 앞의 분향단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은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도록 명하셨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성소 휘장 앞에다

가 피를 뿌려야 했던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에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속죄제의 경우엔 짐승의 피를 모두 번제단 밑에 부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 다 붓도록 명하신 것은 그만큼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유로 속죄제의 짐승의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부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해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시대에만 국한된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져야만 하는 의식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어겼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모든 피를 번제단에 쏟아야 할 것이며 당신의 피를 지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번제단에 발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

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특별한 점

“[레 4:11]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레 4:12]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속죄제에 쓰였던 짐승은 반드시 진 밖에서 태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속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내어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속죄제로 드러졌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히 13: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히 13: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처럼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임을 당하심으로 성소의 휘장은 둘로 찢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 27: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마 27: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 6:26]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레 6:27]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레 6:28]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레위기 6장 26-28절은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속죄제의 고기를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고, 피와 접촉한 것을 정결케 하는 규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성별

됨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의 거룩한 소득입니다.

[레 6:26]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핫타트>의 고기를 제사장이 회막 뜰, 즉 거룩한 곳<코데쉬>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성별되어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어짐을 나타냅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고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코데쉬>는 '구별하다'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섬취하며 그들의 삶이 거룩함에 동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15-16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지어

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소득으로 만듭니다.

속죄제의 피와 고기는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레 6:27]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속죄제의 고기나 피에 접촉하는 자가 거룩해야 하며, 피가 묻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하는 규례는 속죄제의 지극히 거룩한<코데쉬 코다심> 성격을 강조합니다. <코데쉬 코다심>은 '지극히 구별된'으로,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결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피<דם>은 생명을 상징하며, 이를 빨아 정결케 하는 것은 죄의 오염을 완전히 제거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에스겔 36:25에서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인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오염을 씻어 거룩케 합니다.

속죄제의 그릇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레 6:28]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토기<헤레스>는 흡수성이 있어 부정을 품을 수
있으므로 깨뜨리고, 유기<네세크>는 닦아 정결
케 하는 규례는 속죄제의 거룩함이 예배의 모든
세부 사항에 미쳐야 함을 나타냅니다. <헤레스>
는 '점토 그릇'으로, 부정을 흡수하는 성질을 상
징합니다. <네세크>는 '금속 그릇'으로, 씻음으로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린도전
서 6:19-20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
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님의 희생이 우리의 몸과 삶을 정결케 하여 거룩
한 예배로 인도합니다.

[레 6:29]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레 6:30]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레위기 6장 29-30절은 속죄제의 고기의 거룩함과 진 밖 불사름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지극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속죄제의 고기가 성별된 소유이며, 성소에서 피가 뿌려진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거룩한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속죄제의 고기는 제사장의 거룩한 소득입니다.

[레 6:29]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속죄제<핫타트>의 고기를 제사장의 남자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지극히 거룩

한<코데쉬 코다심> 소유로 성별되어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어짐을 나타냅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고 제거하는 제사를 뜻합니다. <코데쉬 코다심>은 '지극히 구별된'으로, 고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섭취되며 제사장들의 삶이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1:7에서 "우리를 그 피로써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은혜의 풍성함대로"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제사장 같은 소득, 즉 거룩한 삶을 줍니다.

성소에서 속죄한 제물은 온전히 불사릅니다.

[레 6:30]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성소에서 피가 뿌려진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않고 진 밖에서 불사르는 것은 이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희생임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4:11-12에서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

든 고기...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라고 한 규례처럼, 제물의 전체가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됩니다. 이는 히브리서 13:11-12에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미리 드러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거룩한 예배입니다.

속죄제의 거룩함은 예배자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로마서 5:11에서 "이제 우리로 화목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죄 사함을 넘어 화목의 기쁨을 줍니다.

레위기 7장 =====

[레 7:1]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레 7:2]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레 7:3] 그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레 7: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레 7:5]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레위기 7장 1-5절은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 일상에서 타인에게 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정결한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코데쉬 코다심> 제사로, 번제소에서 드려지며 예배자의 정직한 헌신과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완전

한 속죄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개와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가르칩니다.

속건제는 지극히 거룩한 예배입니다.

[레 7:1]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속건제<아삼>를 지극히 거룩한<코데쉬 코다심> 제사로 규정하신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사하고 정결한 관계를 회복하는 엄숙한 의식임을 강조합니다. <아삼>은 '보상하다'로, 죄로 인한 손실을 메우는 제사를 뜻합니다. <코데쉬 코다심>은 '지극히 구별된'으로, 속건제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이는 예배자가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속건제의 희생은 예배자의 회개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레 7:2]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

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배자가 번제소에서 직접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속건제가 타인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배임을 나타냅니다. <아삼>은 레위기 4장의 속죄제와 유사한 의식으로,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하여 죄를 전가합니다. <사마크>의 어근 <삼>은 '기대다'로, 제물에 '기댐'처럼 무게를 지탱받는 신뢰를 드러냅니다. 피<담>은 생명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12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회복을 이룹니다.

기름을 불사르는 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레 7:3] 그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레 7:4]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레 7:5]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기름<헬레브>과 내장, 콩팥, 간에 덮인 꺼풀은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예배자의 삶과 소유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바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단 위에 불사르는 화제<이슈>는 속건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임을 나타냅니다. <이슈>는 '불로 태우다'로, 제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향기로운 냄새" <레아흐 니호아흐>는 이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는 골로새서 1:20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죄를 넘어 화목을 이룹니다.

[레 7:6]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

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레 7:7]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레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레 7:8]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레 7:9]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에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레 7:10]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레위기 7장 6-10절은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의 일부가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예배 사역으로 부양하시며 그들의 삶을 거룩한 정체성으로 구별하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육, 번제의 가족, 소제의 곡물은 하나

님의 백성의 헌신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로 유지하시는 것을 미리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각자의 소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육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며, 이 예물이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섭취되어야 함을 명합니다.

[레 7:6]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레 7:7]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레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죄제<핫타트>와 속건제<아삼>의 제육이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 예물이 지극히 거룩한<코데쉬 코다심> 성질을 지니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섭취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니다. <핫타트>는 '죄를 지우다'로 죄를 덮는 제사, <아삼>은 '보상하다'로 손실을 메우는 제사를 뜻합니다. <코데쉬 코다심>은 '지극히 구별된'으로, 제육이 세상과 분리된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이 회막 뜰, 즉 거룩한 곳<코데쉬>에서 먹는 것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 백성의 회개를 연결하는 중재적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목회자들이 복음의 중재자로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반영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9:12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여 백성을 거룩케 합니다.

번제의 가죽과 소제의 나머지가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며, 소제는 아론의 자손이 공평히 나누도록 명합니다.

[레 7:8]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

이며

[레 7:9]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솥에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레 7:10]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번제<올라>의 가족과 소제<민하>의 나머지가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레위인들의 삶을 유지하심을 드러냅니다. <올라>는 '오르다'로 온전한 헌신을, <민하>는 '선물'로 정성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소제가 기름<쉐멘> 섞은 것이나 마른 것 모두 아론의 자손에게 "평균히 분배"되도록 명한 것은 레위인들 사이의 공평함과 공동체적 연합을 강조합니다. <쉐멘>은 성령의 충만함을 뜻하며, 소제의 나머지가 공평히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제사장에게 평등하게 임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세상적 욕망이나 경쟁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며 사역했음을 상기시키며,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사

랑과 공의로 연합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9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세상의 기업을 주지 않고 오직 자신을 그들의 분깃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18장에서 레위인들이 성물<코데쉬>과 십일조를 통해 부양받으며,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초점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세상적 부와 권력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헌신에 의지하여 사역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는 세상의 물질적 성공을 좇기보다 복음과 예배에 헌신하는 삶이 요구되며, 성도들에게는 소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 이는 고린도전서 12:27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묶어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합니다.

[레 7: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레위기 7장 11-14절은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공동체적 교제의 예배를 강조합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죄 사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제사입니다. 무교병과 유교

병을 포함한 예물이 제사장과 공동체에 나누어지는 점에서 예배의 축제적 성격을 부각시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를 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풍성한 연합을 가져오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라고 촉구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은 화목제 희생의 규례를 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화평의 표현임을 밝힙니다.

[레 7:11]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셀레미임>의 규례를 명하신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셀레미임>은 "평화" 또는 "완전함"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예배자, 공동체 간의 조화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와 달리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

다는, 용서받은 상태에서 자발적 응답으로 드러지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배자가 가족과 친구들과 제물을 나누며 기뻐했던 축제적 예배를 반영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2:14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장벽을 허시고"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화평을 이룹니다.

레위기 7장 12-13절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 무교병과 유교병을 포함하여, 예배자의 정성과 공동체적 나눔을 강조합니다.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는 기름<쉐멘>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고운 가루로 만든 과자, 그

리고 유교병<하메츠>을 포함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샤아르> 없는 정결함을, 유교병은 축제적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샤아르>은 '발효하다'로, 세상의 부패처럼 죄를 경계합니다. <하메츠>는 '누룩 든'으로, 무교병과 대비되어 감사 예배의 기쁨과 자유를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의 고기와 떡은 예배자, 제사장, 가족, 친구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0:16에서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이 어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이 어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성찬과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배를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7장 14절은 화목제의 예물이 거제 의식으로 드려지고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규례를 명하며, 예배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

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화목제의 예물<코르반> 중 하나씩을 거제<테누파>로 드리는 것은 위아래로 흔들며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으로, 예배자의 감사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테누파>는 '흔들다'로, 제물이 하나님께 흔들려 받아들여짐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예물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적 역할을 수행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히브리서 13:15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배의 나눔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았으

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레위기 7장 15-18절은 화목제의 시간적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의성과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낙헌제)로 나뉘며, 각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즉각적 응답, 헌신의 약속, 자발적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규례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신속히 응답하고 예배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공동체와 기쁨을 나누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를 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풍성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은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 고

기를 당일에 먹어야 하며,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명하여 예배의 시의성을 강조합니다.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셀레미임> 고기를 드린 날에 먹고 남기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즉각성을 상징합니다. <토다>는 '감사'로,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응답을 의미하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의 고기는 예배자, 제사장, 가족, 친구들과 나누며 공동체적 축제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당일에 마무리하라는 규례는 감사의 마음이 시들지 않도록 신속히 표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시편 50:14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즉각적인 감사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레위기 7장 16-17절은 서원제와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 고기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으나,

제삼일까지 남으면 불사르라고 명하여 헌신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르지니

서원제<네데르>와 자원제<네다바>로 드리는 화목제 고기는 감사제와 달리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으며, 이는 서원과 자발적 헌신이 지속적인 마음가짐을 요구함을 보여줍니다. <네데르>는 '약속'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헌신을, <네다바>는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마음의 예물을 뜻합니다. 이튿날까지의 허락은 이러한 헌신이 깊이 묵상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제삼일까지 남은 고기를 불사르는 것은 예배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패를 방지하며 예물<코르반>의 성별된 성격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헌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교훈을 줍니다.

레위기 7장 18절은 제삼일에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제사가 열납되지 않고 가증한 것이 되며, 먹는 자가 죄를 당한다고 경고하여 예배의 거룩함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제삼일에 화목제 고기를 먹는 것은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하며,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증한 것<피굴>이 됩니다. <피굴>은 '가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예배자가 규례를 무시하고 태만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킴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삼일까지 고기를 남기는 것은 부패의 위험뿐 아니라, <코르반>의 성별된 성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0:16에서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이 어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이 어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 성찬에서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교훈을 줍니다.

[레 7: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레 7: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레 7:21]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7장 19-21절은 화목제 고기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규정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부정한 것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화목제의 고기가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된 거룩한 예물임을 나타냅니다. 부정한 자가 이를 먹으면 공동체에서 끊쳐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적, 영적 정결함을 유지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시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예배드리도록 권면합니다. 레위기 7장 19절은 화목제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불사르고,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고 명하여 예배의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레 7: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화목제<셀레미임> 고기가 부정한 것<타메>에 접촉되면 불사르고, 오직 깨끗한 자<타호르>만 먹을 수 있다는 규례는 예배의 거룩함을 지켜야 함을 나타냅니다. <타메>는 '부정하다'로, 육체적 오

염(부정한 동물 접촉)을 뜻하며, <타호르>는 '정결하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준비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는 공동체와 나누는 축제였으나, 부정한 고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로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와 삶에서 세상의 부정한 가치(탐욕, 미움)와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22에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끗이 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씻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레위기 7장 20절은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경고하여 예배자의 정결한 상태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레 7: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몸이 부정한 자<타메>가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카라트>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카라트>는 '끊다'로, 언약 공동체에서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정함은 육체적 오염뿐 아니라 도덕적 부정(미움, 탐욕)을 포함했으며,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칩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15-16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레위기 7장 21절은 부정한 사람, 짐승, 가증한 물건을 만진 자가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끊쳐진다고 재차 경고하여 예배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레 7:21]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부정한 사람, 짐승, 또는 가증한 물건<쉐케츠>을

만진 자가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끊쳐진다는 규례는 예배의 거룩함을 보호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쉐케츠>는 '가증하다'로, 우상이나 부정한 형상을 뜻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상충되는 세속적 요소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는 은혜를 기념하는 축제였으나, 부정한 상태로 참여하는 것은 언약을 훼손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6:11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레 7: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7:2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레위기 7장 22-23절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한 섭리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기름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지 말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온전해야 함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탐욕과 부정을 정결케 하여 그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배려를 깨닫고, 세상의 유혹을 버린 정결한 삶으로 그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름 규례를 통해 정결한 삶을 명하십니다.

[레 7: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름 규례를 전하신 것은, 백성들이 그분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상기시키는 초청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상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며 예배드리라는 부르심입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례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드러냅니다.

[레 7:2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소나 양, 염소의 기름<헬레브>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이 기름이 하나님께 화제<이슈>로 드려지는 생명의 상징임을 나타냅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음식처럼 우리의 탐욕과 힘의 원천을 상징하나, 이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그분의 섭리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슈>는 '불로 태우다'로, 기름이 번제단에서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로 드려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레아흐 니호아흐>는 창세기 8:21의 노아 제사처럼, 심판 후 평화를 가져오는 향기로,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의 기름을 불사르시며 백성의 건강과 정결을 지키시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는 시편 51:10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 다윗의 회개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탐욕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의

지하는 삶을 줍니다.

[레 7:24]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레 7:25]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
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7장 24-25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긴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고 다른 용
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화제로 드리는 기름
을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경고하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성별된 삶
을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의 거룩함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엄
격히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정결한 삶을 통해 예배와 일
상을 통합하도록 인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
도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은혜를 미리 드
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부

정한 것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며 예배드리도록 권면합니다.

레위기 7장 24절은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찢긴 짐승의 기름을 먹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예배의 거룩함과 일상의 실용성을 구분합니다.

[레 7:24]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은 짐승<네벨라>이나 찢긴 짐승<테레파>의 기름<헬레브>을 먹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예배에 바쳐지는 기름과 부정한 기름을 구분하는 섭리를 드러냅니다. <네벨라>는 '자연사한 주검'으로, 의식적 희생이 아닌 부패의 상징이며, <테레파>는 '찢긴 것'으로 야생동물의 사냥감처럼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죽은 것을 뜻합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상징하나,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

이 그분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며 정결한 식사를 유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기름은 가구 칠하거나 등불에 사용되었으나, 먹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이는 예배의 거룩함(화제용 기름)과 일상의 실용성(부정한 기름)을 분별하라는 지혜입니다. 이는 시편 51:10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 다윗의 회개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합니다.

레위기 7장 25절은 화제로 드리는 기름을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경고하며, 예배의 거룩함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레 7:25]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 화제<이슈>로 드리는 기름<헬레브>을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카라트>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쉬>는 '불로 태우다'로, 제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을 뜻하며,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로 받아들여집니다. <레아흐 니호아흐>는 창세기 8:21의 노아 제사처럼, 심판 후 평화를 가져오는 향기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은 그분의 소유로 성별되었으며, 이를 먹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침해합니다. <카라트>는 '끊다'로,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는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자가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존중하며, 세상의 부정한 욕망(탐욕, 이기심)을 멀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6:11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고 거룩하여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씻어 거룩케 합니다.

[레 7:26]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말라

레위기 7장 26절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 생명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피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섭리와 거룩함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 규례를 통해 정결한 삶을 명하십니다.

[레 7:26]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새나 짐승의 피<담>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담>은 '피'로, 창세기 9:4에서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가 생명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는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땅에 쏟아져 생명의 거룩함을 지켰으며, 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17:11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는 속죄의 도구로 성별되어 예배에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로 존중하며, 세상의 부정한 관습(예: 이교 피 섭취)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 드리지는 완전한 속죄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레 7:27]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

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7장 27절은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통해, 생명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피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섭리와 거룩함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 규례를 통해 정결한 삶을 명하십니다.

[레 7:27]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새나 짐승의 피<담>를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카라트>고 경고하신 것은,

피가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담>은 '피'로, 창세기 9:4에서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가 생명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광야 맥락에서 <카라트>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어 진 바깥으로 내쫓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죽음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를 먹는 행위는 단순한 식이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는 화제<이슈>로 드러지거나 땅에 쏟아져 생명의 성별됨을 지켰으며, 이를 먹는 것은 이교적 관습에 동참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7:14에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는 속죄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부정한 관습(탐욕, 폭력)과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9:12에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룹니다.

[레 7: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7:29]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레 7:30]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 어 요제를 삼고

레위기 7장 28-30절은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 예배자가 직접 손으로 예물을 가져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일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교제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여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서 성도들이 직접 헌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참석과 헌금으로 끝내는 태도는 이 말씀의 본의를 놓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직접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 직접 헌신을 명하십니다.

[레 7: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화목제의 규례를 전하신 것은, 예배자가 직접 손으로 예물을 가져와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일임을 상기시키는 초청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헌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화목제의 예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자원하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레 7:29]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화목제<셀레미임>의 예물을 예배자가 직접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교제를 표현하는 헌신이 우리 스스로의 일임을 나타냅니다. <셀레미임>은 "평화" 또는 "완전함"을 뜻하며, 하나님과 예배자, 공동체 간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예물<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가다"로, 우리의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하는 자발적 헌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는 공동체와 나누는 축제였으나, 예배자가 직접 가져오는 것은 개인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참석과 헌금으로 끝내지 말고, 직접 헌신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기름과 가슴을 직접 가져와 요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레 7:30]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

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
어 요제를 삼고

예배자가 직접 기름<헬레브>과 가슴<체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
께 바치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헬레브>는 '지방'
으로 생명의 힘을, <체렘>은 '가슴'으로 마음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가슴을 흔들어 요
제<테누파>로 드리는 것은, 예물이 하나님께 흔
들려 받아들여짐을 보여줍니다. <테누파>는 '흔
들다'로, 공동체적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
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2:37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신 말씀
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직접 드리는 사랑의 계
명을 반영합니다.

[레 7: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
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레 7: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
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레 7: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레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기 7장 31-34절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이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고한 제사장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주시며 사역을 지탱하시는 섭리를 드러냅니다. 이 규례는 예배의 거룩함과 제사장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받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에게 대가를 주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수고를 초월한 영원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권면합니다.

레위기 7장 31절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명하며, 예배의 거룩함과 제사장들의 소득을 구분합니다.

[레 7:31]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화목제<셀레미임> 희생의 기름<헬레브>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을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명하신 것은 예배의 성별됨과 제사장들의 부양을 구분하는 섭리를 드러냅니다. <셀레미임>은 "평화"를 뜻하며, 공동체적 감사와 나눔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헬레브>는 '지방'으로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을 의미하며, 화제<이쉬>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이쉬>는 '불로 태우다'로, 헌신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가슴<체렘>은 마음과 정성을 상징하며,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는 공동체적 감사였으며, 기름을 불사르는 것은 하

나눔께 드리는 헌신을, 가슴을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사역자를 지탱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시편 126:5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서 열매로 돌아오는 약속입니다.

레위기 7장 32-33절은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거제로 주며,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이를 소득으로 삼도록 명하여 수고한 사역자의 보상을 강조합니다.

[레 7:32]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레 7:33]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모하라>를 제사장에게 거제<테루마>로 주라고 명하신 것은 수고한 사역자를 특별히 배려하시는 사랑을 드러냅니다. <모하라>는 '우편 다리'로 힘과

지지를 상징하며, 제사장들이 예배를 통해 백성을 지탱하는 역할을 반영합니다. 피와 기름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를 소득으로 삼는 것은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받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는 공동체적 감사였으나 우편 뒷다리는 사역자의 수고를 인정하는 특별 몫이었습니다. <테루마>는 '들어 올리다'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후 제사장에게 내려지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6:10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사 너희 행한 일과 그의 이름에 대하여 나타낸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레위기 7장 34절은 화목제 중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신다고 명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영원함을 강조합니다.

[레 7:34]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

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 중 흔들 가슴<헤아즈>과 둔 뒷다리<하타>를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신 것은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속됨을 보장하시는 섭리를 드러냅니다. <헤아즈>는 요제<테누파>로 드러지는 가슴을, <하타>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뒷다리를 의미합니다. <테누파>는 '흔들다'로 제물이 하나님께 흔들려 받아들여짐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목제는 공동체적 감사였으나 제사장들의 소득이 영원한 언약으로 보장됨을 보여줍니다. <호캣 올람>은 '대대로 영원한'으로, 사역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5:21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잔치에 들어가게 하였더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레 7:35] 이는 여호와와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레 7: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

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레 7:37]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레 7:38]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레위기 7장 35-38절은 화제 중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소득을 주시며 제사장 직분을 영원한 언약으로 보장하시는 규례를 통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으로 부양받는 거룩한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모든 제사의 소득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며, 레위인들이 세상의 기업 없이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분깃으로 삼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그분의 소유로, 백성이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헌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헌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훈을 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상급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
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
의 소유로 인정하며 그분의 섭리에 의지하는 삶
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레위기 7장 35-36절은 화제 중 아론과 그 자손에
게 소득을 주시며 제사장 직분을 영원한 언약으
로 보장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레 7:35]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레 7:36]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
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
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서 화제<이슈> 중 아론과 그 자손에게
소득<하벨>을 주시며 기름 부음 날부터 영원한<
올람> 언약으로 보장하신 것은 레위인들의 사역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속됨을 나타냅니다.<
이슈>는 '불로 태우다'로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하벨>은 '분깃'으로 레위인들의 유일한 기업을 상징합니다. <올람>은 '대대로'로 변하지 않는 언약을 뜻하며, 민수기 18:19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레위인들이 세상의 기업 없이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브릿 멜라흐>는 '소금 언약으로 변함없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그분의 소유로, 백성이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이는 오늘날 헌금에 대한 오해("자신의 헌금으로 목회자를 먹인다"는 생각)를 바로잡으며, 헌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훈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영적 열매로 돌아오는 따듯한 약속입니다.

레위기 7장 37-38절은 번제부터 화목제까지의 규례를 요약하며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전반적인 질서를 강조합니다.

[레 7:37]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레 7:38]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번제<올라>, 소제<민하>, 속죄제<핫 타트>, 속건제<아삼>, 위임제<밀루임>, 화목제<셀레미임>의 규례를 요약하시며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토라>는 '가르침'으로, 시내 광야에서 주어진 율법 전체와 연결됩니다. 이 규례들은 예배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죄 사함부터 감사와 헌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포괄적인 응답을 가능케 합니다. 모든 제사의 남은 음식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섭리를 나타냅니다. 이는 엡 4:15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며 그를 머리로 삼으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헌금이 성도의 소유가 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화 목 제

화목제란?

레위기 2장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소, 양, 염소였습니다. 이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제물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상한제물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흠 있는 예물은 헛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스스로 예물 머리 위에 안수하였습니다. 이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화제로 드려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사용되기를 소원함을 뜻합니다.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죽여진 짐승의 피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습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십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출 12: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 하리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습

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로 드려지고 남은 음식은 누가 취하였나?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3장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곳 레위기 7장에서는 화목제를 지내고 남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화목제사에는 소, 양,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기름섞은 무교병과 기름바른 무교병, 그리고 기름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겸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로 드려지는 짐승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화목제사로 사용된 예물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 중 하나

씩만 사용되었기때문에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모두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과류는 거제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제'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드려지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제사 방법으로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방식이며, '요제'는 양 옆으로 흔들면서 드려지는 제사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술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사방법은 제사종류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사종류에는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제 1장은 '번제', 제 2장은 '소제', 제 3장은 '화목제', 제 4장은 '속죄제', 그리고 제 5-6장은 '속건제'가 차례대로 언급되었습니다.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그릇되이 취하는 경우는?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낙헌제)'로 구분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달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르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당일에 모두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이처럼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도 말며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미루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제에 비해 훨씬 시간적인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심령은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

유로 하나님께서 서원제와 자원제의 희생고기를 이튿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제사장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제삼일까지 남겨두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화목제는 열납되지 않았으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죄를 범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원하여 드린 성도의 헌금을 저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곧장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삼일까지 고기를 남겨두어 먹은 제사장에게 죄가 임하듯이 성도의 드린 서원헌금이나 자원헌금을 오래도록 저축하고 남겨둔다면 하나님의 죄가 없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드려지는 서원헌금과 자원헌금은 작정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레 7: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레 7: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레 7:21]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

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화목제로 사용된 희생고기는 정결한 고기여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면 그 누구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먹지 말고 고기를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또한 화목제 희생고기는 오직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자’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육적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제사장은 희생 고기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졌습니다. 백성에서 끊쳐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내 버려짐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육적으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만 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도 안되며 먹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짐승은 인간에게도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가증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되며 지녀도 안됩니다. 우상적인 물건이나 가증한 짐승의 형상은 버려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음란한 것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물건이나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정결한 육신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온전히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화목제 희생고기를 취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8장 =====

[레 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8:2] 너는 아론과 그 아들과 그 의복과 관
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레 8:3]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레 8:4]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
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레 8:5]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
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레위기 8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
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명하시며, 온 회중을 모아 증거를 삼는 규례를
통해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동체
적 증거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
는 출애굽기 28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와 같
이, 제사장 위임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
역에 동참하는 공동체적 행위임을 드러냅니다.
사명의 허락과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예수
님의 세례처럼 사역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개적 증거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위임식을 떠올리며, 우리 각자의 소명이 하나님의 손길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사장 위임식의 시작을 알립니다.

[레 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위임식<밀루임>의 규례를 전하신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역이 그분의 직접적인 부르심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밀루임>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역자를 구별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역이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허락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위임식 준비물은 사역의 거룩함과 공동체적 증거를 상징합니다.

[레 8:2]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며 그들의 의복과 부는 기름과 속죄제 수송아지와 두 수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속죄제 수송아지, 두 수양, 무교병 한 광주리, 관유<쉐멘>, 의복을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은 위임식이 정결과 헌신의 과정임을 나타냅니다. 속죄제<핫타트> 수송아지는 죄 사함을, 두 수양은 위임과 화목을, 무교병<마차>은 누룩 없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쉐멘>은 '기름'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의복은 거룩한 직분을 뜻합니다. <마차>는 '누룩 없는'으로 세상의 부패와 구별된 삶을 강조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 의복처럼, 사역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입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레 8:3]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으라

[레 8:4]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으매

[레 8:5]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리라 하니라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으라는 명령은 위임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를 삼는 공개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는 사명이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리라"라고 선언하는 것은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태복음 3:16-17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 있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한 예수님의 세례처럼, 사역 시작이 하나님의 증언으로 공개됩니다.

이 구절들은 제사장 위임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동체적 증거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룩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온 회중을 모아 증거를 삼는 것은 사명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로 시작하게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성막의 의식을 집행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예복과 대제사장의 예복은 달랐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단순한 세마포 예복만을 입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에다가 띠를 두르고 머리에 하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런데 대제사장 예복은 달랐습니다. 위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예복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겹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속옷은 평범한 베실로 된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일반 제사장과 같은 옷입니다. 일명 세마포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위의 그림처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일년에 하루 대 속죄일 때(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겹옷과 에봇과 흉패와 띠를 벗어 두고서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습니다. 세마포 속옷만 입었습니다. "[레



16: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찌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겉옷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그리고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었습니다.”[출 28:6]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베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흰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봇에 쓰인 네가지 색깔의 실로 띠와 흉패도 만들어졌습니다. 흉패에는 판결할 수 있는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습니다.”[출 28:30]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 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찌니라” '우림과 둠림'은 판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 전쟁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삼상 30: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삼상 30: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 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홍패에는 가로 세 개와 세로 네 줄로 모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은 매우 단단하게 홍패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출 28:21]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매 보석에 열 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요한이 바라보았던 천국의 거룩한 성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과 거룩한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은 동서남북 각각 세 개의 문이 있어서 모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마치 홍패에 박혀 있는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패에 사용된 보석들과 거룩한 성의 12개의 문에 사용된 보석들은 거의 같은 보석입니다 (출 28:17-20과 계 21:19-20을 비교하세요).

이처럼 홍패에 사용되는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거룩한 성의 12개의 문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또 다른 단서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144000명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44000명은 모두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을 상징적으로 더해진 수입니다. $12,000\text{명} \times 12\text{지파} = 144,000\text{명}$ 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셈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이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참감람나무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충만한 이방인의 수를 채우셨습니다.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돌감람나무를 통해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참감람나무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롬 11: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또한 대제사장은 머리에 금패를 맸습니다. 그 금패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이 쓰여졌습니다. "[출 28:36]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이라 하고 [출 28:37]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은 정결과 거룩을 뜻합니다. 대제

사장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식을 집행해야 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마땅히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레 8:6]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레 8:7]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겹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레 8:8]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뭉을 넣고

[레 8:9]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레위기 8장 6-9절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세마포 의복을 입히는 위임식 장면을 통해, 제사장들이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으

로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여정을 드러냅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기 28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대제사장 의복의 상징성을 반영하며, 정결과 거룩한 헌신이 사역의 기초임을 강조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가장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아야 하며,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함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사역자로 부르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더러움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정결한 상태에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레 8:6]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 <마임>로 씻기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

의 사역이 세상과 구별된 정결함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마임>은 '물'로, 부정<타메>을 씻어내는 정결의 상징입니다. 위임식 <밀루임>의 첫 단계가 정결 의식인 것은 사역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정한 상태로 시작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물로 씻김은 육체적·영적 오염을 제거하는 행위로, 출애굽기 30:18-21에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야 한다고 명하신 것처럼, 사역의 기초가 정결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사역자들이 형식적 헌신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해야 함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세례처럼 부르심의 시작이 정결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씻김을 떠올리며,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 3: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더니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 있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속옷, 띠, 겹옷, 에봇을 입히는 장면은 제사장 의복의 층층이 쌓이는 거룩한 준비를 보여줍니다.

[레 8:7]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겹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속옷<케토네트>, 띠<아바네트>, 겹옷<메일>, 에봇<에포드>을 입히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내면의 정결부터 외적인 거룩함으로 쌓여가는 준비를 나타냅니다. <케토네트>은 '내면의 순결'을, <에포드>는 '사역의 책임'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이 의복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는 역할을 상징하며, 모세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겹옷과 에봇을 입히는 과정은 사역의 준비가 층층이 쌓이는 거룩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사역자들이 내면의 정결부터 외적인 헌신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가르치

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손길로 정결케 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십시오.

[출 28:1] 너는 네 형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마르를 데려와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뭉을 넣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백성의 중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레 8:8]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뭉을 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흉패<호센>을 붙이고 우림과 둠뭉<우림 베투뭉>을 넣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백성의 중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당함을 나타냅니다.

다. <호센>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백성을 대표하며, <우림 베투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도구입니다. 출애굽기 28:15에서 "너는 또 금으로 짠 일 엽의 흉패를 만들어... 공평의 흉패라 할지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흉패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를 놓는 중재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사역자들이 백성의 필요를 하나님께 중재하며 그분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상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사역이 백성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소중한 몫임을 깨달으며 그 무게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관을 씌우고 금패를 붙이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레 8:9]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

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관<미츠네페트>을 씌우고 금패<차츠>를 붙이도록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으로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미츠네페트>은 "감싸다"를 의미하며, <차츠>는 "거룩한 관"으로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새겨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8:36에서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거룩한 관에 새기는 바와 같이 새겨서 그 관 위 전면에 붙일지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금패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는 거룩한 역할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관을 씌우는 것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사역의 정점입니다. 이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머리에 쓰고 겸손히 섬기도록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권위로 완성하시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머리에 쓰인 하나님의 권위가 일상에서 빛나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레 8:10]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 8:11] 또 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 8:12]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 8:13]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레 8:14]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 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레 8:1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 8:16]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레 8:17]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레 8:18]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레 8:19]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레 8:20] 그 수양의 각을 뜯고 그 머리와 각뚝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레 8:21]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레위기 8장 10-21절은 모세가 관유로 장막과 제사장들을 부으시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위임식 장면을 통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세워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기 28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와 같이, 관유 부음과 제물이 제사장들의 정결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섬기는 공동체적 행위를 강조합니다. 모세가 사용한 관유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로, 성막에 뿌려진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관유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기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사역자로 부르시
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
성에게 세상의 더러움과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
님께 헌신하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관유로 장막과 기구를 부으며 거룩하게
하는 장면은 성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성별되는 준비를 보여줍니다.

[레 8:10]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레 8:11] 또 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관유<쉐멘 하미쉬하>
로 장막, 단, 기구, 물두멍에 부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성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성별되
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쉐멘 하미쉬하>는 출애
굽기 30:25에서 "이를 섞어 향기로운 관유로 만

들지니 곧 향기로운 물약 제조자의 손으로 하는 대로 하라 이는 거룩한 관유니라”라고 한 특별한 기름으로, 보통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입니다. “일곱 번”<세 바> 뿌리는 것은 완전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관유 부음은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준비였으며, 이는 예배의 시작이 정결과 성별됨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공간과 사역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도록 준비하는 태도를 가르치며, 행 10:38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으므로”라고 한 바와 같이,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우리 삶을 성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부음의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일상을 채우는 따뜻한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모세가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하는 장면은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사역의 권위와 성별됨을 상징합니다.

[레 8:12]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

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관유<쉐멘 하미쉬하>로 아론의 머리에 부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대제 사장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위로 성별됨을 나타냅니다. "부어 발라"<마샤흐>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징하며, 출애굽기 29:7에서 "네가 그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아론의 머리에 부음은 제사장 전체를 위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중재하는 역할을 반영하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부름받아 헌신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3:16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니"라고 한 예수님의 세례처럼, 사역의 권위가 하나님의 부음으로 시작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부음의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적시는 따뜻한 비처럼 느껴 집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우는 장면은 제사장 전체가 대제

사장과 함께 거룩한 사역에 세워짐을 보여줍니다.

[레 8:13]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케토네트>, 띠<아바네트>, 관<미츠네페트>을 입히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전체가 대제사장과 함께 거룩한 사역에 세워짐을 나타냅니다. <케토네트>은 내면의 정결을, <미츠네페트>은 권위를 상징하며, 출애굽기 28:40에서 "네 형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짜서 그들에게 입히되...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구별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는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우는 것은 제사장 의복의 기본을 갖추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가족적 연합을 통해 공동체적 증거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오늘날 사역자들

이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27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사명을 축하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는 따뜻한 끈이 됩니다.

모세가 속죄제 수송아지를 끌어오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고 모세가 잡아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며 제물을 진 밖에 불사르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죄 사함과 정결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레 8:14]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레 8:15]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기록하게 하고

[레 8:16]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레 8:17]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
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속죄제<핫타트> 수송
아지를 끌어오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죄 사함과 정결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안수하다"<사마크>는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행
위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모세가 피
를 단 뿔에 바르고 기름<헬레브>을 불사르며 제
물을 진 밖에 불사르는 것은 사역의 정결을 상
징하며, 출애굽기 29:1에서 "이것이 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게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구별
할 때에 할 일이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는 제사
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기 위한 준비
입니다. 성막에 뿌려진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
징한다면 이 속죄제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죄 사
함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
엘에서 위임식이 죄 사함으로 시작된 것은 사역

이 부정한 상태로 시작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회개와 정결로 사역을 시작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정결한 마음으로 시작될 때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상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모세가 번제 수양을 드리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고 모세가 잡아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사르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온전한 헌신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레 8:18]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레 8:19]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레 8:20] 그 수양의 각을 뜯고 그 머리와 각뚫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레 8:21]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번제<올라> 수양을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온전한 헌신으로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번제"<올라>는 "올라가는 제사"로 제물이 완전히 불타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을 의미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는 것은 그들의 헌신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은 후 제물을 불사르는 것은 사역의 정결과 헌신을 상징하며 출애굽기 29:36에서 "매일 한 마리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 속죄하게 하고... 단을 속하게 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기 위한 완성된 준비입니다. 성막에 뿌려진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면 이 번제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헌신으로 마무리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속죄제와 번제로 구성된 것은 사역이 죄 사함과 헌신으로 균형을 이루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회개와 헌신으로 사역을 완성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타오르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그 기쁨에 감사하게 됩니다.

거룩한 관유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유를 성막의 모든 물품에 바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유를 통해 성막 물품이 거룩해지게 하셨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방법

관유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는 몰약과 육계, 창포와 계피에 감람유를 섞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용량을 말씀하셨습니다. "[출 30:23]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이백 오십 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이백 오십 세겔과 [출 30: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취하여 [출 30:25]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

찌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찌라”

관유를 만드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향을 제조할 줄 아는 전문가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브사렐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나오지만 브사렐이 성막 전체를 만드는데 모든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전문가를 통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관유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보면 모두 고급향품입니다. 이 향품을 짜서 추출해 낸 액을 통해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관유는 ‘거룩한 관유’로 취급되었습니다.

‘액체 몰약’은 감람과에 속하는 관목의 즙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을 말합니다. 주로 여성이 쓰는 향수나 화장품에 사용되었으며 마취할 때 사용하거나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육계’는 녹나무과의 상록 교목으로 월계수 나무와 매우 흡사합니다. 육계는 바로 이 나무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입니다. 원래는 식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관유 사용하는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창포’는 인도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연못 같은 곳에서 자라는데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에게도 즐겨 사용되었던 고급 향품입니다. 이

창포는 다른 향품과는 달리 향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도 단오날 같은 때에 창포에서 찐 울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계피'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람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찐 기름으로 감람유(올리브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으며 식용이나 등불을 켜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관유의 용도

하나님은 관유를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출 30:31]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출 30:32]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또한 이것을 타인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출 30:33]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느니라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이처럼 거룩한 관유를 함부로 만들거나 그것을 외부인들에게 사용할 경우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졌습

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거룩한 관유는 성막물품에만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한 관유가 발라 졌습니다.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관유의 효능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바르도록 하셨던 것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막물품에 거룩한 관유가 발라졌을 때 성막물품은 거룩해졌습니다. "[출 30:26]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출 30:27]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출 30:28]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출 30:29]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한 관유를 바를 때 사람 또한 거룩해졌습니다.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

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처럼 거룩한 관유는 세상과 구별케 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유의 효능은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레 8:22]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레위기 8장 22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헌신의 서약을 드러냅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위임제<밀루임>의 일부로, 제사장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서약하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직접 안수를 행하는 것은 스스로 짐승이 되어 죽여짐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이며, 개인적 믿음과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개인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개인적 헌신의 서약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레 8:22]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위임제<밀루임>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머리에 안수하다<사마크>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개인적 헌신의 서약으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밀루임>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역자를 구별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사마크>는 '손을 얹다'로 죄와 허물을 제물에 전가하는 행위이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서약하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9:19에서 "또 다른 수양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안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공식적 행위로, 제사장이 직접 안수를 행하는 것은 스스로 짐승이 되어 죽여짐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공동체 앞에서 이루어지며 사역의 시작이 개인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형식적 헌신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개인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족이나 타인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것임을 깨달으며, 그 자유로운 헌신의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레 8: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

락에 바르고

[레 8: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 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레 8:25]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레 8:26]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개와 기름 섞은 떡 한개와 전병 한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레 8:27]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레 8:28]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레 8:29]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레위기 8장 23-29절은 모세가 위임식 수양의 피

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귓부리,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고 기름과 떡을 요제로 드리며 불사르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정결과 헌신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위임제 <밀루임>의 일부로 피 바름과 요제 의식이 제사장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 서약임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수양의 피를 오른 귓부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며 세상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개인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소리와 욕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사역에 헌신하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위임식 수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 손가락, 발가락에 바르고 단 주위

에 뿌리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동행으로 세워짐을 보여줍니다.

[레 8: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레 8: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위임제<밀루임> 수양의 피<דם>를 오른 귓부리<오젠>, 손 엄지가락<에츠바야>, 발 엄지가락<에츠바야>에 바르고 단 주위에 뿌리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역하며 동행하는 헌신으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דם>은 '피'로 생명과 속죄를 상징하며 오른쪽은 힘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른 것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뜻 오른손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세상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라는 뜻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세상에 거하지 말고 하

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9:20에서 "또 그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피 바름은 제사장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서약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하다<사마크>한 후 모세가 피를 바르는 것은 공동체적 증거와 개인적 헌신을 결합합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온 회중 앞에서 이루어졌듯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개적 세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사역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귓가에 스며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그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십시오.

모세가 기름, 꼬리, 내장 기름, 콩팥, 뒷다리, 무교병, 기름 섞은 떡, 전병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고 요제로 드리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헌신과 공동체적 예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레 8:25]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레 8:26]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개와 기름 섞은 떡 한개와 전병 한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레 8:27]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름<헬레브>, 기름진 꼬리, 내장 기름, 간 꺼풀, 콩팥, 우편 뒷다리<모하라>, 무교병, 기름 섞은 떡, 전병을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고 요제<테누파>로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헌신과 공동체적 예물로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테누파>는 '흔들다'로 위아래로 흔들며 드리는 의식으로 예배자의 헌신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9:22에서 "또 위임식의 수양을 취하여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요제는 제사장들의 손에 예물을 두어 공동체적 헌신을

강조합니다. 무교병<마차>은 정결을 기름 섞은 떡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제사장들의 개인적 헌신과 백성의 참여를 결합한 행위였음을 보여주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공동체와 함께 헌신을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공동체적 예배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손에 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큰 열매로 변하는 그 기적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모세가 요제 예물을 단 위에 불사르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화제임을 보여줍니다.

[레 8:28]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요제 예물을 단 위에 불사르도록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화제<이쉐>임을 나타냅니다. <이쉐>는 '불로 태우다'로 제물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화되는 과정을 상징하며 "향기로운 냄새"<레아흐 니호아흐>로 받아들여집니다. 출애굽기 29:25에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불사르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불사름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이 하나님께 드리지는 완전한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행위였음을 보여주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 열매가 공동체에 미치는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화제로 만드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타오르는 그 순간 그 향기가 우리 삶을 채우는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모세가 가슴을 요제로 흔들어서 삼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응식으로 완성됨을 보

여줍니다.

[레 8:29]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슴<헤아즈>을 요제<테누파>로 흔들어 삼도록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응식<헤오파>으로 완성을 나타냅니다. <테누파>는 흔들어 드리는 의식으로 헌신의 상징이며 <헤오파>는 제사장 몫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26에서 "또 위임식의 수양을 취하여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아 네 응식으로 삼으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요제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받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제사장과 백성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열매가 공동체에 흘러넘치는 축복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헌

신을 하나님의 응식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서 돌아오는 그 선물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은 정결케 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요소입니다. 회개는 그것이고 주의 보혈이 또 다른 한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 드렸듯이 회개는 죄 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죄 씻음이 있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해 줍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다음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

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은 보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눈에 십자가가 보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박혀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다음 손과 옆구리와 발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주변에 아무런 십자가가 없다면 마음속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든 놋뱀 장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형상을 띤 놋뱀 장대를 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죽음을 면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

린 자마다 늦밤을 쳐다본즉 살더라”(민 21:8-9)

모세가 치켜 든 늦밤 장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역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2.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도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선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가 속죄함을 받으려면 당신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당신이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 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3.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믿겨지지 않을 땐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을 때 당신의 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당신은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당신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당신 것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일생에 한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정결 그 자체이시고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당신 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직 당신 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세상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못 박으시고 안목의 정욕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도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거듭 태어나십시오.

마귀의 방해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정결해지고 싶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마귀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회개한 자는 저들의 표적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화목제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였지만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마귀의 표적거리가 되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는 사자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니엘은 우는 사자가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 살아남았지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저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단 6장).

우는 사자의 입은 크고도 무섭습니다. 한번 물리

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 큰 입에는 사람의 머리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제 막 회개하고서 거듭 태어난 사람에게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혈의 힘은 사자의 힘을 꺾습니다. 삼손이 사자 입을 꺾었듯이 보혈의 힘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혈의 힘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실제로 나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더 이상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실제로 자녀들 위에 보혈의 피를 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내용을 선포할 때마다 이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토록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혈의 능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꺾기 위해 모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 제일 무서운 재앙은 사람과 짐승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든 애굽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이 생긴 이래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땅엔 눈물이 없었습니다. 죽은 장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출 12:23)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문 인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양의 피가 그런 효력을 낸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양의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36)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흘리신 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요한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리게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

방”(계 1:5)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신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능력을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나는 날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피를 묻힙니다. 나는 기도실에 들어 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언약궤 사방에 짐승의 피를 뿌려 속죄함을 얻었듯이 나 또한 기도실 사방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이러한 의식은 성경적이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식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느낌을 당신도 느껴야만 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실 사방에 피를 뿌린 후 내 몸에도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때때로 아예 예수님의 피를 온 몸에 바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면 기도의 힘이 커짐을 느낍니다. 마귀의 방해도 훨씬 약해짐을 느낍니다.

치유집회 때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영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내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내게 하신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젯거리를 다 드러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문제들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파도처럼 몰려 오는 것을 느끼라고 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문제가 사라지도록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속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얼마간의 시간동안 마음 속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향해 "주님,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또 다시 성도들에게 다시금 문제들이 몰려 오는 것을 느끼라고 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들이 사라질 것을 선포

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나사렛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사라질 지어다"
라는 선포를 마음 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
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성도들에게 다시
문제들을 생각하라고 했고 이제는 몰려 있는 문
제들을 향해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마음 속으로 문제들을 향해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성도들에게 눈을 뜨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어
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곳에 참
석했던 성도 모두가 한결같은 답을 했는데 주님
의 보혈을 뿌렸을 때 문제가 가장 많이 물러갔
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했던 것은, 기
도 중에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내게 똑 같은 실
험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 성령
님의 인도를 따라 이 세가지를 실험했을 때 나
역시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모든 문제가 한꺼
번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
다.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보다 더 강력하고 예수님의 이
름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제대
로 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니 주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보혈을 뿌릴 때 악한 영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악한 영들은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많이 뿌린 곳과 그렇지 않는 곳의 차이는 매우 큼니다. 주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느낌도 많이 다릅니다.

가끔씩 남의 집에 방문할 때면 그 집의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영적으로 매우 밝고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은 매우 어둡고 악한 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집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뿌릴 때 더 많이 뿌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TV나 컴퓨터에 많이 뿌려야 합니다. TV나 컴퓨터는 음란한 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가득합니다. 부엌이나 침실도 많이 뿌려야 합니다. 특히 냉장고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자리하기 쉽습니다. 응접실에는 여러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동품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각종 악한

영이 많이 달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사용했던 목걸이나 팔지 같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히 제작된 좋지 않는 글씨가 새겨진 반지도 좋지 않습니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는 악한 영이 자리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급적이면 모든 장소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새벽기도 하러 교회에 가면 어김없이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어느 집을 방문할 때에도 그 집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그 집에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님의 보혈이 그 가정을 덮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약궤의 피

혹 알고 계십니까? 언약궤에 피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법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법궤입니다. 그 이후로 성전에는 항상 언약궤가 모셔져 있어야 했습니다. 비운의 시기에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긴 시절이 있었지만 적군의 손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도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남아 있었

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성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장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늘이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삶의 핵심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언약궤에 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성전에서는 피가 뿌려졌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매일 쉬지 않고 짐승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피가 뿌려지는 이유는 속죄가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의 뿌림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소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피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는 속죄소에 들어가야 할 대제사장을 위해 피를 뿌렸고, 다른 하나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찌니”(레 16:14-15)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뿌렸던 피는 모두 속죄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속죄소 동편에 뿌렸습니다. 또한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를 취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속죄소 전 주위가 모두 피로 물들어져 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속죄소는 반드시 피로 덮여져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성소에 뿌린 수송아지와 염소를 대신하여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예수님은 몸소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해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모든 피 흘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피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기 위해 먼저 당신의 죄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 줍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속죄소입니다. 우리는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속죄소의 은혜

성령님께서 내게 언약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후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약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몸은 특별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손이 붓거나 통증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온 몸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머리에는 마치 뜨거운 열이 증발해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화관이 씩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온 몸이 굳어 버리기도 하고 심한 떨림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온 몸이 없어져 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의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느낌이 무엇인지 이해합니까? 이것은 마치 임신 때의 느낌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임신의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임신은 몸의 느낌을 알지 못하고 오직 영의 활동만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임신의 경지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과도 같습니다.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

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민 7:89)

속죄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그룹이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속죄소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으며 속죄소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이처럼 속죄소를 지키고 보호하며 지극히 높은 존경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룹들이 생명 나무를 지키고 보호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 3:24)

속죄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은 속죄소를 위한 피를 뿌렸습니다.

“또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찌니”(레 16:15)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피

를 뿌렸으며, 대제사장 스스로의 죄를 속하기 위해 수송아지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속죄소에 피가 뿌려진 것은 예수님의 피흘리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롬 5:9)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없이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20)

보혈을 지난다는 것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소를 거쳐야 합니다. 속죄소를 지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는 것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묻혀야 함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보혈을 지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는 마귀의 어떠한 세력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혈 한 방울만 우리의 영혼 속에 떨어질 때 마귀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은 내게 의문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도 열심히

히 하는 사람들인데요?”라고 물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저들이 비록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지만 저들에게 보혈이 묻어 있지 않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저들의 영혼에 보혈 한 방울만 떨어지게 되면 마귀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곧바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님의 보혈을 당신의 몸에 묻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상태는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죄는 오직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인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당신이 죄를 짓게 될 때 보혈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없애 주지만, 당신에게 죄가 없을 때 보혈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마음에 묻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마음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친구의 사랑보다 크며 부모의 사랑보다 큼니다.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키우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 4:20)

3.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한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당신의 심령에 묻히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속죄소를 지키고 있는 두 그룹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그룹은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지 않는 사람을 언약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심령만 언약궤로 들어가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
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속죄소를 통해 언약
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
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함
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황홀한 경험
입니다. 이것은 영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
광의 구름이 당신을 뒤 덮게 될 것입니다. 영광
의 구름은 모든 마귀의 세력이 당신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빛이 당신의 영혼을 내리 쫓을 것
입니다. 그 빛은 당신 안의 어두운 세력들을 물
러가게 할 것이며 당신의 영혼육에 건강을 허락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당신 안의 모
든 더러운 죄와 생각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속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얻게 됩니다.

[레 8:30]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8장 30절은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하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별과 보호로 완성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위임제<밀루임>의 일부로 관유와 피의 뿌림이 제사장들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하는 것은 관유와 피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관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임하고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누구든지 거룩해집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주님의 보혈이 임할 때 누구든지 거룩해지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부음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보혈의 보호를 체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하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별과 보호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레 8:30]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관유<쉐멘 하미쉬하>와 피<담>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의 옷에 뿌리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성별<카다쉬>과 보호로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쉐멘 하미쉬하>는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징하며 <담>은 속죄와 생명을 상징하는 주님의 피를 예표합니다.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 거룩하게 하는 것은 관유와 피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21에서 "또 그 피를 취하여 그와 그들의 의복에 뿌리고 그와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의복에 뿌려서 그와 그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뿌림은 제사장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여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음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의 이 행위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기는 역할을 준비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부음과 보혈의 보호를 체험하며 세상의 더러움과 악

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이 뿌림의 은혜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는 평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 10: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으므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레 8:31]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레 8:32]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지며

[레 8:33] 위임식은 칠 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칠 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레 8:34]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레 8:35]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락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

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레 8:36]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레위기 8장 31-36절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 고기와 떡을 먹으라고 명하고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무르며 부락을 지키라고 하시는 규례를 통해 제사장들의 사역이 정결과 순종으로 준비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출애굽기 29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위임제<밀루임>의 일부로 고기와 떡의 섭취와 7일 거함이 제사장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성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해졌으며 회막문 안에 거해야 했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의 위험이 따랐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락을 지키며 사역에 헌신하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 고기와 떡

을 회막문에서 먹으라고 명하며 나머지를 불사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정결한 섭취와 헌신으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레 8:31]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레 8:32]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라지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 고기와 떡을 회막문에서 먹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정결한 섭취와 헌신으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오헬 모에드>는 '만남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와의 만남을 상징하며, 고기와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 부양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9:32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고기를 먹고 그 광주리 안의 떡을 먹을지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섭취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됨을 보여줍니다. 나머지를 불사르는 것은 예배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제사장 위임식

의 7일 기간 동안 사역의 준비를 강조합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공동체 앞에서 행해졌듯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탁과 정결한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하며 사역을 시작하는 은혜를 미리 드러냅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식사와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위임식이 7일 동안 행해지며 회막문에 머무르며 부탁을 지키라고 명하는 말씀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순종과 준비의 기간으로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레 8:33] 위임식은 칠 일 동안 행하니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칠 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레 8:34]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레 8:35] 너희는 칠 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위임식<밀루임>을 7일 동안 행하고 회막문에 머무르며 부탁<미츠바>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순종과 준비의 기간으로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세바>는 '일곱'으로 완전한 기간을 상징하며 <페타흐 오헬 모에드>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회막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처럼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의 위험이 따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9:35에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같이 칠 일 동안 행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기간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부탁을 지키며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마태복음 4:1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사십 일 밤낮 동안 금식하신지라"라고 한 예수님의 광야 시험처럼 사역의 시작이 시험과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오늘날 사역자들이 형식적 헌신이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부탁을 지키도록 권면하며 순종이 생명의 길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

님의 사역에 세워지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7일의 고독한 준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모세의 명을 준행한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순종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레 8:36]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일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준행<아사>한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순종으로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아사>는 "행하다" 또는 "완수하다"를 의미하며 위임식의 절정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부탁을 지키며 사역을 시작함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9:35에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이같이 칠 일 동안 행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 준행은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의 위험이 따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 온 회중 앞에서 이루어졌듯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임을 강조하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지도자를 순종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사역을 완성하는 은혜를 예표하며 순종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손에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듯합니다.

레위기 9장 =====

[레 9:1] 제팔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레 9:2] 아론에게 이르되 흠 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레 9:3]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의 일년 되고 흠 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레 9:4]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레위기 8장 1-5절은 제사장 위임식의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과 장로들을 불러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들의 사역이 공동체적 증거와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다. 이 규례는 레위기 8장에서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문 제사장들이 8일째 나와 예배를 시작하는 절정으로 모든 제사 종류를 동원한 제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초대합니다. 제사장들은 7일 동안 회막 안에 갇혀 지내다가 8일째 회막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위임식을 끝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임재를 약속하신 것처럼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적 참여로 이루어짐을 미리 드러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역의 시작이 순종과 공동체 증거로 이어지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사장 위임식의 완성을 공동체적 증거로 시작합니다.

[레 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위임식<밀루임>의 8일째 규례를 전하신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공동체 앞에서 증거를 삼아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밀루임>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

역자를 구별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공동체와 함께 시작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은 제사장 위임식의 완성이 공동체적 증거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레 8:2]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며 그들의 의복과 부는 기름과 속죄제 수송아지와 두 수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져올지니라

[레 8:3]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으라

[레 8:4]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으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 아들들 장로들을 불러 속죄제<핫타트> 수송아지 두 수양 무교병 한 광주리 관유<쉐멘> 의복을 준비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위임식의 완성이 공동체적 증거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핫타트> 수송아지는 죄 사함을 두 수양은 위임과 화목을 무교병<마

차>은 누룩 없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쉐멘>은 성령의 부음 <마차>은 세상의 부패와 구별된 삶을 뜻합니다. 온 회중을 회막 입구<페타흐 오헬 모에드>에 모으라는 명령은 위임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증거를 삼는 공개적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온 회중을 모으는 것은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태복음 28:16에서 "열 한 제자가 갈릴리 예수께서 명하신 산에 가니 예수께서 보이시더라"라고 한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 모임처럼 사역의 완성이 공동체적 증거로 이어짐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 번제를 명하는 장면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죄 사함과 헌신으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레 8:5]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흠 없는<타밈> 송아지와 수양을 속죄제<핫타트>와 번제<올라>로 드리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 죄 사함과 헌신으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타밈>은 '완전함'으로 제물이 마음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위임식을 끝내는 제사는 모든 제사 종류를 동원한 것이며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는 제사장들의 사역이 정결과 헌신으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의 제사는 장로와 백성의 참여로 공동체적 축제를 이루었으며 이는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헌신으로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후 공생애 시작처럼 사역이 죄 사함과 헌신으로 완성됨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 순간 공동체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염소 송아지 어린 양 수소 수양 소제물을 준비하라고 명하는 장면은 제사장 위임식의 완성이 공동체적 헌신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수염소 송아지 어린 양을 속죄제와 번제로 수소와 수양을 화목제<셀레미임>로 소제<민하>를 준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위임식의 완성이 공동체적 헌신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히네>는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선언으로 위임식의 절정입니다. 위임식을 끝내는 제사는 모든 제사 종류를 동원한 것이며 공동체의 헌물이 제사장 사역의 완성을 증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는 장로와 백성의 참여로 공동체적 축제를 이루었으며 이는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헌신으로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제자들을 모아 임재를 약속하신 것처럼 사역이 공동체적 헌신으로 이어짐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공동체의 헌금과 기도로 지탱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채우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듯합니다.

[레 9:5]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 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레 9:6]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레위기 9장 5-6절은 제사장 위임식의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장로들을 불러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라고 명하시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들의 사역이 공동체적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8장에서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문 제사장들이 8일째 나와 예배를 시작하는 절정으로 모든 제사 종류를 동원한 제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초대합니다. 제사장들은 7일 동안 회막 안에 갇혀 지내다가 8일째 회막문 밖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위임식을 끝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임재를 약속하신 것처럼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적 참여로 이루어짐을 미리 드러냅니다.

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역의 시작이 순종과 공동체 증거로 이어지도록 권면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온 회중이 모세의 명대로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은 위임식의 완성이 공동체적 순종으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레 9:5]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 오고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 온 회중이 제물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위임식의 완성이 공동체적 순종으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에다>는 '회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며 <오헬 모에드> 입구에 모이는 것은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합니다. 레위기 8:2에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라고 한 준비물이 이제 공동체 앞에 드러지며 7일 동안 회막 안

에 머문 제사장들이 8일째 나와 서는 것은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백성의 참여로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세의 명대로 제물을 가져온 것은 위임식 때 이미 드린 제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드려야 하는 부담이었으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적 헌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의 완성은 온 회중 앞에서 드려졌으며 이는 사역이 개인적 부르심을 넘어 공동체적 증거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태복음 28:16에서 "열 한 제자가 갈릴리 예수께서 명하신 산에 가니 예수께서 보이시더라"라고 한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 모임처럼 사역이 공동체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함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 빛을 비추는 따뜻한 빛처럼 느껴집니다. 모세가 위임식 제물이 하나님의 명하심이며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함을 강조합니다.

[레 9:6]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

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
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순종
으로 "여호와와 영광" <케보드 여호와>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은 사역의 완성이 하나
님의 임재로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케보드>
는 '무게' 또는 '현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이나 불로 나타남을 뜻하며 레위기 9장에서 실
제로 나타난 불과 임재를 예고합니다. 모세가 "여
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행하리라"라고 말하며
불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
라고 격려한 것은 순종의 열매를 약속합니다. 이
는 출애굽기 40:34에서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
호와 영광이 장막을 채우는지라"라고 한 성막
완성처럼 사역의 시작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
재를 불러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은혜를 예표하며 우
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는 열쇠임
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
을 불러오는 그 빛이 우리 삶을 밝히는 희망입니

다.

[레 9:7]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와 의 명대로 하라

[레 9:8]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레위기 9장 7-8절은 제사장 위임식의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고 아론이 단에 나아가 송아지를 잡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 개인적·공동체적 속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8장에서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문 제사장들이 8일째 공동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절정으로 지도자의 헌신이 백성을 위한 중보임을 강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였으며 아론이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의미입

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더 큰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더 큰 헌신을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와 헌신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단에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 자신과 백성을 속하라고 명하며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 중보적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레 9:7]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와 명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단에 나아가 속죄제<핫타트>와 번제<올라>를 드려 자신

과 백성을 속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 중보적 헌신임을 강조합니다. <카파르>는 "속하다"로 죄를 덮고 용서받는 행위를 뜻하며 아론이 자신을 먼저 속한 후 백성을 속하는 것은 지도자의 헌신이 백성의 중보에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였으며 이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의 8일째 제사는 공동체 앞에서 드려졌으며 아론의 속죄제와 번제는 제사장 사역이 개인적 회개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레위기 4:3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한 바와 같이 지도자일수록 더 큰 헌신이 필요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더 큰 헌신을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와 헌신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 무게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는 장면은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 개인적 속죄로 실행됨을 보여줍니다.

[레 9:8]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 개인적 속죄로 실행됨을 나타냅니다. <사하트>는 '잡다'로 제물을 도살하는 행위이며 아론의 속죄제는 제사장으로서의 헌신이 죄 사함으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아론이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 것은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의미이며 이는 지도자 일수록 백성을 위해 먼저 속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의 8일째 제사는 공동체 앞에서 드려졌으며 아론의 속죄제는 제사장 사역이 개인적 회개에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이는 레위기 1:4에서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

여 속죄가 될 것이라”라고 한 바와 같이 헌신이 속죄와 연결됨을 가르치며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더 큰 헌신을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와 헌신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그 무게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레 9: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레 9:10]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레 9:11]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레 9:12]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레 9:13]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레 9:14]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 물 위에 불사르니라

[레 9:15]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레 9:16]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레 9:17]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레 9:18]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소와 수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레 9:19]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레 9:20]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레 9:21]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레 9: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레 9: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 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레위기 9장 9-24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순서대로 드리는 세부 의식과 모든 제사가 완성된 후 모세와 아론의 회막 입장 백성 축복 그리고 여호와와 영광이 불로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 사역의 완성과 하나님의 수용을 드러냅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8장의 위임식 후 8일째 공동체 앞에서 드려지는 절정으로 지도자의 순종적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모든 제사 의식을 마친 후 모세와 아론이 회막(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최종적 중보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절차로 보이며 이는 제사 사역이 단순한 외형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완성됨을 나타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더 큰 순종과 중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며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부활이 제사 사역의 완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순종으로 영광을 경험하도록 권면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 의식을 통해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 세부적 순종으로 실행됨을 강조합니다.

[레 9:9]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레 9:10]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켜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레 9:11]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레 9:12]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레 9:13] 그들이 또 번제의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레 9:14]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 물 위에 불사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피를 단 뿔<케렌>에 바르고 기름<헬레브>과 내장을 불사르며 고기와 가축을 진 밖에서 태우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시작이 세부적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케렌>은 '뿔'로 단의 네 모퉁이를 의미하며 피를 바르는 행위는 속죄 <카파르>의 상징으로 죄를 덮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들어 주는 협력은 가족적 사역의 단합을 보여주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의 8일째 제사는 공동체 앞에서 드러졌습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세부 규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철저한 헌신을 드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9:12에서 "그 피를 취하여 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단 밑에 쏟을지니"라고 한 바와 같이 속죄제의 완전함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세부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속죄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대로 세밀하게 이뤄질 때 그 은혜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 제사장 사역이 공동체 중보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레 9:15]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레 9:16]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레 9:17]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레 9:18]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의 수호와 수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레 9:19] 그들이 또 수호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레 9:20]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레 9:21]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백성을 위한 염
소 속죄제<핫타트>와 수호·수양 화목제<셀레미
임>를 드리며 기름<헬레브>과 꼬리를 불사르고
가슴과 다리를 흔드는 것은 제사장 사역이 개인
에서 공동체로 확장되는 중보임을 나타냅니다.
<테누파>는 '흔들다'로 요제의 움직임을 의미하
며 헌신의 완전한 드림을 상징합니다. 모든 의식
을 마친 후의 화목제는 공동체적 교제를 강조하
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는 백성의 참여를 초대
하는 절차였습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죄를 위해 더 큰 중보를 감당해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레위기 3:2
에서 "손을 화목제 희생의 머리에 얹고 여호와
앞에서 잡을지니"라고 한 바와 같이 화목제의 중
보성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공동
체를 위한 화목을 이루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

리의 중보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론의 축복 모세와 아론의 회막 입장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불이 나타나는 장면은 제사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의 수용으로 마무리됨을 강조합니다.

[레 9:22]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 오니라

[레 9: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 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명대로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공동 축복하는 것은 제사 사역의 완성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케보

드 여호와>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무게나 현현을 의미하며 불<에쉬>이 번제물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수용을 상징합니다. 회막 입장의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최종 지시나 음성을 받는 중보적 절차로 보이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는 제사의 절정으로 백성의 경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순종 후 영광을 경험해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신자들이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합 2:14에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사의 완성을 통해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불 같은 영광으로 불타오르기를 기도하십시오.

레위기 10장 =====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2절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 여호와와 불에 삼켜져 죽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 사역의 거룩함이 순종에 달려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9장의 위임식과 영광의 불 직후에 일어나는 비극으로 지도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대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른 불' <주르>은 세상에 속한 낯선 불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세상의 방법이 섞이면 치명적 형벌을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더 엄격한 순종이 요구됨을 드러내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유일한 거룩한 제사로 세상의

불법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사역을 완성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순종으로 거룩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는 행위는 제사장 사역의 순종 위반으로 비극을 초래함을 강조합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에쉬 자라> <주르>로 향로를 들고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순종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주르>는 "낮선" 또는 "세상에 속한"을 뜻하며 때로 타락한 것을 암시합니다. 제단의 불(레 9:24)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어야 함에도 세상의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위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사건은 공동체 앞에서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경고로 나답과 아비후

의 열정적 열심이 교만으로 변질된 결과였습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의 명을 철저히 지켜야 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의 방법으로 사역할 때 영적 죽음을 초래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0:9에서 "단 위에 향기로운 분향과 소제와 제물을 드리지 말며 술전을 드리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매 그 앞에서 죽었음이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세상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완성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대로만 이뤄질 때 그 거룩을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여호와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 죽이는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위반될 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심을 보여줍니다.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불<에쉬>이 회막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는 것은 제사 사역의 위반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아칼>은 "삼키다" 또는 "소멸시키다"를 의미하며 9장의 영광의 불(하나님의 수용)과 대조되는 파괴적 불입니다. 이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죽음은 공동체의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세상의 불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불만 사용해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신자들이 형식적 열심이 아닌 순종으로 사역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민수기 16:35에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 중 이방 백성 이방 이십오만 오백 명을 사르나니"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불법적 제사를 심판하고 순종의 불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레 10: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

하니

레위기 10장 3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사장 사역의 거룩함이 슬픔 속에서도 순종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9장의 영광 후 비극(10:1-2)과 연결되어 지도자의 사역이 개인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모세의 '차가운' 반응은 냉담함이 아닌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충실함으로 아론의 침묵은 슬픔 속 순종의 표현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더 엄격한 순종이 요구됨을 드러내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거룩과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슬픔 속 순종으로 거룩을 드러내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론이 침묵하는 장면은 제사장 사역의 고난이 거룩한 순종으로 응답함을 강조합니다.

[레 10:3]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영광
을 얻으리라"라고 전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본
질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카도쉬>과
영광<카보드>을 드러내는 중보임을 나타냅니
다. <카도쉬>는 '구별되다'로 제사장들이 세상과
분리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해야 함
을 뜻하며 <카보드>는 '무게' 또는 '현현'으로 공
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강
조합니다. 모세의 전달은 냉담함이 아닌 충실한
중재로 아론의 침묵<다마>은 슬픔 속 순종의 표
현입니다. <다마>는 '침묵하다'로 고통을 넘어 하
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태도를 상징하며 자식 잃
은 아론의 침묵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모
세의 명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사건은 공동체 앞에서 제 사장의 경외를 세우며 지도자일수록 자녀나 가족의 죽음 같은 극한 슬픔에서 사역을 포기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는 시편 46:10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만국 중에서 높임을 받으며 만민 중에서 영광을 받으리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슬픔을 넘어 거룩과 영광을 이루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침묵으로 순종할 때 그 위로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레 10:4] 모세가 아론의 아자비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레 10:5]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니

레위기 10장 4-5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 모세가 아론의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시신을 옮기게 하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 사역의

비극이 가족적 순종으로 처리되어 거룩을 유지함을 보여줍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1-3의 심판 직후에 이어지는 지시로 지도자의 슬픔이 사역의 오염 없이 공동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웃시엘(고핫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의 삼촌으로 미사엘과 엘사반은 사촌 관계이므로 이 부탁은 레위 지파 내 혈연 지지망을 활용한 순종입니다(출 6:18). 이는 지도자 일가의 고난이 혈연을 통한 중보로 치유됨을 드러내며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 제자들의 공동체적 순종이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슬픔 속 가족적 도움으로 사역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시신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고 명하는 장면은 제사장 사역의 비극이 혈연 순종으로 즉시 처리됨을 강조합니다.

[레 10:4] 모세가 아론의 사촌 웃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하나님의 명을 통해 모세가 아론의 사촌들을 "나
아와... 메어 가라"<야사>고 지시하는 것은 제사
장 사역의 오염을 제거하는 가족적 중보임을 나
타냅니다. <야사>는 '옮기다' 또는 '메다'로 시신
을 메는 행위를 뜻하며 <페네 코데쉬>는 '성소
앞'으로 회막 입구를 가리켜 제사장의 죽음이 거
룩한 공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함을 상징합니다.
웃시엘은 고핫의 아들(출 6:18)로 아론(아므람
의 아들)의 삼촌이므로 이 선택은 레위 지파 내
혈연 지지망을 활용한 지혜로운 순종입니다. 고
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사건은 공동
체의 순결을 위한 가족적 책임을 강조하며 미사
엘과 엘사반의 부름은 슬픔을 공유하는 연대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가족 내
에서 고난을 분담해야 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
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혈연을 통해
사역을 지탱하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
스도의 가족(제자들) 중보가 십자가 비극을 넘
어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고

난이 가족 순종으로 옮겨질 때 그 치유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미사엘과 엘사반이 모세의 명대로 시신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는 장면은 제사 사역의 순종이 슬픔 속에서도 완수됨을 보여줍니다.

[레 10:5] 그들이 나아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 내니

하나님의 명대로 사촌들이 "옷 입은 채" 시신을 진 밖으로 메어 내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지위가 죽음 후에도 존중되며 오염을 방지하는 순종임을 강조합니다. <야사>는 '내다 메다'로 제사장의 성결한 옷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역할을 상기시키는 상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행위는 공동체의 경계를 지키는 의식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을 사역의 교훈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지도자 일가의 슬픔이 순종적 행동으로 마무리되어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신자들이 가족적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을 따르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민수기 5:3에서 "

남녀를 다 진 밖으로 내어노이되 진 밖으로 내어
놓을지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장(옷 입은 채 무덤으로)이 부활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슬
픔을 넘어 회복의 길을 열기를 기도하십시오.

[레 10: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
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
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 친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와 친노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레 10:7] 여호와와 친노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
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
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레위기 10장 6-7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
후 모세가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 애도 금지와
회막 머무름을 명하며 제사장 사역의 슬픔이 세
상적 표현이 아닌 순종으로 응답해야 함을 강조
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1-5의 비극 직후에
이어지는 지시로 지도자의 고난이 사역의 지속

과 공동체 보호를 위해 거룩한 절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머리 풀기와 옷 찢기는 유대 전통적 애도 행위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에서는 금지되어 세상적 슬픔 표현을 초월한 순종을 요구하며 회막 문 나감 금지는 관유 받은 제사장의 성결을 지키는 조건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더 큰 순종이 요구됨을 드러내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애도의 형식이 아닌 부활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고난 속 순종으로 진노를 면하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아론 일가에게 머리 풀기와 옷 찢기를 금지하며 제사장 사역의 슬픔이 공동체적 진노를 피하는 순종으로 처리됨을 강조합니다.

[레 10: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와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을 통해 모세가 "머리를 풀거나" <파
라> 옷을 "찢지 말라" <파라트>고 지시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고난이 개인적 애도가 아닌 거룩
한 분리를 유지하는 순종임을 나타냅니다. <파
라>는 머리털을 헝클어뜨리는 애도 행위를 <파
라트>는 옷을 찢는 비통을 의미하며 "죽음을 면
하고... 진노가... 미침을 면케 하라"는 조건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회중 전체의 보호임을 상징합
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는 세상적 슬픔 표현이지
만 하나님의 치심(불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에
서는 금지되어 백성(이스라엘 온 족속)이 대신
슬퍼하는 공동체적 애도를 강조합니다. 고대 이
스라엘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지시는 제사장의
성결이 슬픔을 초월함을 보여주며 아론 일가의
순종은 사역의 안정화입니다. 이는 에스겔 24:17
에서 "탄식할 때에 애도의 음식도 먹지 말며 애
도의 옷도 입지 말며... 애도할 때에 애도하는 자
같이 행치 말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 고난이 세상적 애도를 넘어 백성을

보호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명 앞에서 절제로 변할 때 그 보호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아론 일가가 회막 문에 머물러 관유 받은 성결을 지키라는 지시는 제사 사역의 비극 후에도 중단 없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레 10:7] 너희는 회막문에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야사>고 명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지속이 관유 받은 생명의 조건임을 나타냅니다. <미사하>는 기름 부음으로 성별된 지위를 <야사>는 회막 입구를 떠나지 말라는 절제를 의미하며 "죽음을 면할지니라"는 경고로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중보임을 상징합니다. 이는 더욱 큰 슬픔처럼 보이지만 아론 일가의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케아사> 순종은 세

상적 표현(울음·옷 찢음)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케아사>는 '준행하다'로 위임식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지시는 비극 직후 사역의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 제사장의 출입이 공동체의 안위를 좌우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8:43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스스로 덮을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짐짓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 후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 교회를 지속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막 문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 생명을 기도하십시오.

[레 10: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레위기 10장 8-9절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포도주와 독주 금지를 명하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 사역의 거룩함이 세상적 정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1-7의 비극(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직후에 주어지는 지시로 지도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대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 명령은 제사장들이 평소 포도주를 마셨음을 암시하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술 취한 경솔함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세상의 영향을 차단해야 함을 드러내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세상의 정욕을 초월한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사역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제사장 사역의 지침이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에서 시작됨을 강조합니다.

[레 10: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다바르> 직접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규례가 비극

후 회복의 기초임을 나타냅니다. <다바르>는 "말씀하시다"를 의미하며 모세를 통한 중간 계시가 아닌 아론에게 직행하는 특별한 은혜로 10:1-7의 슬픔 속 지도자를 세우는 상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계시는 제사장의 권위를 재확인하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후 남은 아론 일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줍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개인적 비극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직접적 인도하심을 구하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8:1에서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중에서 너 아론에게 가까이 할 자를 구하여...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성령의 직접적 말씀처럼 사역을 재건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새로워질 때 그 은혜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영원한 규례는 제사 사역의 정결이 세상적 취함으로부터 분리됨을 보여줍니다.

[레 10:9]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야인 셰카르>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거룩함이 취함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야인>은 포도주를 <셰카르>은 강한 술을 의미하며 "사망을 면하라"<무트>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처럼 치명적 결과를 경고합니다. 이 규례는 평소 제사장들의 음주 습관을 전제하며 어찌면 그들의 죽음이 술 취한 경솔함과 연관되어 강한 금지가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회막 입구 의식은 공동체 앞에서 드러졌으며 "대대로 영영한 규례"<추콧 올람>는 레위 지파의 영속적 성결을 상징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세상의 정욕을 사역에 섞지 말아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목회자들이 취함 없이 말씀을 전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에스겔 44:21에서 "레위 지파 중 제사장 사독 자손은 여호와 앞에 섬길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세상의 술을 초월한 새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정결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레 10: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 10:11]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0장 10-11절은 제사장들이 거룩함과 속됨, 부정과 정결을 분별하고 규례를 가르치는 사명을 통해 사역의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별하는 분별력임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1-9의 비극과 금지 지시 후에 이어지는 긍정적 사명으로 지도자의 역할이 세상의 오염을 넘어 공동체를 인도하는 교훈을 줍니다. 거룩함 <카도쉬>은 오직 하나님만의 상태를 정결함<타호르>은 세상에서의 깨끗함을 의미하며 속된 것 <홀로>은 세상적·평범한 것을 부정한 것<타메>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지도자 일수록 삶의 분별이 사역의 기초임을 보여주며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희생이 세상의 부정을 분별하고 정결케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력으로 거룩을 추구하도록 권면합니다.

제사장들이 거룩과 속됨 부정과 정결을 분별하라는 지시는 사역의 핵심이 세상과 구별된 분별력임을 강조합니다.

[레 10:10]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을 통해 "분별하며" <헤빈> 제사장들이 거룩<카도쉬>과 속된<홀로> 부정<타메>과 정한<타호르>을 구분하라는 것은 사역의 지속이 분별의 책임임을 나타냅니다. <헤빈>은 "구분하다" 또는 "구별하다"를 뜻하며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세상의 불 사용)처럼 속된 것을 섞지 말라는 교훈으로 제사장의 눈이 하나님의 성결을 유지하는 도구임을 상징합니다. <카도쉬>는 하나님만의 초월적 상태를 <타호르>은 세상적 깨

끗함을 뜻하며 <홀로>은 일상적 세상성을 <타메>은 죄악의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지시는 공동체 앞에서 제사장의 분별이 백성의 순결을 지키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는 에스겔 44:23에서 "그들이 내 규례를 가르치며 내 율법을 지키게 하여 그들로 거룩하지 아니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하며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게 하리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세상의 부정을 분리하고 정결한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속되고 부정한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분별의 은혜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규례를 가르치라는 사명은 사역의 완성이 공동체 교육임을 보여줍니다.

[레 10:11]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명대로 "가르치리라"<요라> 제사장들이 규례<추카>를 전하는 것은 사역의 분별이 백

성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중보임을 강조합니다. <요라>는 "법을 지시하다"를 의미하며 10:8-9의 금지와 연결되어 분별의 지식이 실천적 가르침으로 확장됨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사명은 회막 중심의 공동체 교육으로 제사장의 입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는 신명기 33:10에서 "그들이 네 율법을 아굽에게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네 법을 알게 하며 분향을 네 앞에 드리며 전번제를 네 제단에 드리리로다"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 부정과 속됨을 분별하고 정결한 삶을 가르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규례로 백성을 거룩케 할 때 그 사명을 기도하십시오.

[레 10:12]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레 10:13] 이는 여호와와의 화제 중 네 음식과 네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레 10:14]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네 음식과 네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레 10:15]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으로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레위기 10장 12-15절은 모세가 아론 일가에게 소제와 화목제의 남은 음식을 '음식'으로 먹으라고 명하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 사역의 공급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배임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1-11의 비극과 금지 지시 후에 이어지는 회복으로 지도자의 사역이 물질적 필요를 초월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충족됨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음식은 누구든지 가져갈 수 없는 구별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업이 되시어 필요를 채우심을 상징하며 마태 6:33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원리를 드러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세상적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

해야 함을 가르치며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제사장의 영원한 응식으로 믿는 자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된 순종으로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아론 일가에게 소제의 남은 것을 단 곁에서 먹으라고 명하는 장면은 제사장 사역의 공급이 거룩한 공동체적 참여임을 강조합니다.

[레 10:12]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하나님의 명을 통해 모세가 "소제의 남은 것은... 응식"으로 먹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회복이 거룩한 공급으로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민하>는 '소제'로 예배자의 정성을 상징하며 "지극히 거룩하니" <코데쉬 코다쉬임>는 제사장의 음식이 누룩 없는 순결함을 뜻합니다. 단 곁 <야드 미즈베아흐>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임

재와의 만남을 강조하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
임식 직후의 이 지시는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후
남은 아들들의 사역을 안정화합니다. 이는 제사
장의 '기업'이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
며 누구든지 가져갈 수 없는 구별된 몫으로 하나
님께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6:33
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도자일수록 세상적 염려
를 넘어 하나님의 화제를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
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
수 그리스도의 만찬이 누룩 없는 빵으로 제사장
의 응식을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사역
이 하나님의 공급 앞에서 충만해질 때 그 은혜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
는 지시는 제사 사역의 가족적 공급이 공동체 희
생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레 10:14]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네 자

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네 음식과 네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흔든 가슴<테누파>"과 "든 뒷다리<테루마>"를 가족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음식이 백성의 화목제에서 나오는 공동체적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테누파>는 '흔들다'로 요제의 움직임을 <테루마>는 '들어 올리다'로 제사장 몫을 의미하며 "정결한 곳"<타호르>은 세상적 더러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몫이 이스라엘의 헌신에서 분배되는 상징으로 가족적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규례는 제사장의 물질적 필요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구조로 비극 후 아론 일가의 회복을 돕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31-32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이방인의 염려를 초월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가족의 필요를 하나님의 화제에 맡겨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사역자들이 세상적 구함을 버리고 믿음으

로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가슴처럼)이 믿는 자의 가족적 응식으로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채워질 때 그 평안을 기도하십시오.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요제로 드린 후 영원한 응식으로 삼으라는 지시는 제사 사역의 공급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레 10:15]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으로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흔들어 요제<테누파>" 삼은 후 "영원한 응식"<올람>으로 먹으라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뜻이 헌신과 공급의 순환임을 나타냅니다. <올람>은 '대대로'로 지속되는 규례를 뜻하며 기름<헤헬브>과 함께 드리는 것은 제사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절차는 회막 앞 공동체적 예배로 제사장의 응식이 하

나님의 명령에 뿌리내린 영속적 은혜임을 보여 줍니다. 이는 마태복음 6:32에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한 바와 같이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가 더해지는 질서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공급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적 염려를 버리고 영원한 음식을 추구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의 음식으로 믿는 자를 채우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요제처럼 흔들려 공급받을 때 그 충성을 소망하십시오.

[레 10:16]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레 10:17]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레위기 10장 16-17절은 모세가 속죄제 염소가 불태워진 것을 보고 아론의 남은 아들들에게 노하며 제육을 먹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 사역의 속죄가 제사장의 참여로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1-15의 비극과 공급 지시 후에 이어지는 긴장으로 지도자의 사역이 규례 준수로 백성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규례(제사장/회중: 수송아지 전부 태움, 족장/평민: 염소/양 제육 제사장 몫)에서 염소 제육을 태워버린 것은 위반으로 제사장이 먹어야 백성의 죄가 사함됨을 드러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헌신의 몫을 합당히 담당해야 함을 보여주며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성찬이 제사장의 속죄 참여처럼 믿는 자의 죄를 사함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헌금과 사역의 몫을 합당히 사용하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속죄제 염소를 찾다 불태워진 것을 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는 장면은 제사장

사역의 위반이 지도자의 질책으로 드러남을 강조합니다.

[레 10:16]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 모세가 "이미 불살랐는지라"<카바르> 염소를 찾고 "노하여"<카아스> 질책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순결이 세부 준수에 달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카바르>는 '태우다'로 제육을 불사른 행위를 뜻하며 <카아스>는 '분노'로 모세의 강한 감정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4:35에서 "그 모든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이는 속죄제의 화제라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그 죄를 속하리라"라고 한 바와 같이 염소(평민/족장 죄용) 제육은 제사장 몫인데 이를 태워버린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후 남은 아들들의 실수로 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사건은 공동체 앞에서 제사장의 책임을 강조하며 모세의 노여움은 아론 일가의 슬픔 속 규례 무시를 바로잡는 사랑의 질책입니다. 이는 지

도자일수록 사역의 몫(헌금처럼)을 소홀히 하면 백성의 속죄가 미완성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헌신의 부분을 합당히 담당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0:16에서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이 어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이 어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성찬이 믿는 자의 죄를 담당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의 몫을 통해 완성될 때 그 사함을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속죄제의 지극한 거룩함을 상기하며 제육을 먹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장면은 제사 사역의 중보가 제사장의 담당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레 10:17]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가 "지극히 거룩하거늘... 먹지 아니하였느뇨"라고 물으며 "회중의 죄를 담당"하라고 지적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속죄가 제육 섭취로 실현됨을 강조합니다. <나사>는 "지다" 또는 "책임지다"를 <카파르>는 "속죄하다"를 의미하며 제사장의 먹음이 백성의 죄를 덮는 상징입니다. 수송아지(레 4:3,11처럼 전부 태움)와 달리 염소 제육은 제사장 몫으로 이를 태워버리면 속죄가 무효화되어 모세의 노여움을 초래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규례는 제사장의 역할이 단순 소비가 아닌 중보적 참여임을 보여주며 아론 일가의 실수는 슬픔 속 혼란으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사역의 몫을 합당히 사용해야 백성의 축복이 임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목회자들이 부정 사용 시 죄 사함과 축복이 막힘을 권면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0:16에서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이 어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이 어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성찬이 믿는 자의 죄를 담당하는 은혜를 예표

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완성 될 때 그 사함을 기도하십시오.

[레 10:18]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 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 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레 10:19]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 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 더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레 10:20]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레위기 10장 18-20절은 모세가 속죄제 제육의 규례를 상기시키고 아론이 슬픔 속 변명을 하며 모세가 이를 수용하는 장면을 통해 제사장 사역 의 위반이 경외심으로 회복됨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1-17의 비극과 질책 후에 이 어지는 화해로 지도자의 사역이 고난 속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 다. 아론의 응답은 두 아들의 죽음에도 대제사장 으로서의 경외를 잃지 않은 자세를 드러내며 제 육을 태운 실수가 형식적 준수가 아닌 영적 순결

을 위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어려움 속 신뢰로 사역을 지켜야 함을 가르치며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슬픔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시심을 이루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 속 경외로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모세가 속죄제 제육의 규례를 상기시키며 제사 사역의 속죄가 제사장의 섭취로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레 10:18]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 모세가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먹었어야 할"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중보가 제육<바사르>의 거룩한 섭취로 실현됨을 나타냅니다. <바사르>은 '살'로 희생의 제육을 뜻하며 "거룩한 곳"<코데쉬>은 회막 안의 성결한 공간을 상징합니

다. 레위기 6:26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그 속죄제 희생을 먹을 것이요 성소 뜰 안에서 먹을 것이니"라고 한 바와 같이 피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염소 속죄제는 제사장 몫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대화는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후 남은 아들들의 실수를 바로잡으며 제육을 태운 것이 단순 실수가 아닌 슬픔 속 판단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사역의 몫(헌금처럼)을 소홀히 하면 백성의 속죄가 미완성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의 몫을 합당히 행하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시편 66:18에서 "내가 만일 마음에 허물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성찬이 슬픔을 넘어 죄 사함을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중보가 하나님의 몫을 통해 완성될 때 그 사함을 기도하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슬픔 속 변명을 하며 제사 사역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시심을 구하는 경외로 응답함을 보여줍니다.

[레 10:19]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더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기셨으리요

하나님의 임재 속 아론이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선히 여기셨으리요"라고 말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슬픔이 형식적 준수가 아닌 영적 두려움으로 이끌림을 강조합니다. <크라>는 "일어나다"를 <라차>는 "기뻐하다"를 뜻하며 두 아들의 죽음에도 속죄제·번제를 드린 오늘 제육 섭취가 불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아론의 경외심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순간은 대제사장의 침묵(10:3) 후 첫 발언으로 공동체 앞에서 사역의 무게를 드러내며 제육을 태운 것이 순결을 위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자녀·가족의 죽음이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라는 의심 대신 경외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신자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침이

고난 속 선하시심을 구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경외 앞에서 변명처럼 순종으로 변할 때 그 힘을 기도하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는 장면은 제사 사역의 화해가 경외심으로 완성됨을 강조합니다.

[레 10:20]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타브> 아론의 말을 수용하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비극이 두려움으로 회복되는 중보임을 나타냅니다. <타브>는 "좋아하다" 또는 "받아들이다"를 의미하며 모세의 질책(10:16-17)이 사랑의 교정으로 끝나 아론의 자세를 인정함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 직후의 이 화해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아론의 경외가 실수(제육 태움)를 넘어 사역을 지탱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어려움 속 신앙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라고 외치며 신앙을 버릴 때 아론처럼 경외를 유지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12:5에서 "나의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난 후 화해와 선하시심을 이루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경외를 좋게 여길 때 그 회복을 소망하십시오.

레위기 11장 =====

[레 11: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레 11: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
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
니

[레 11:3]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위기 11장 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
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육지 짐승의 기준
(굽 갈라짐과 새김질)을 명하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거룩한 분별로 구별되어
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장의
제사장 사역 후에 이어지는 생활 법으로 지도자
의 가르침이 일상적 순결로 확장되는 교훈을 줍
니다. 쪽발이(두 갈래 굽)와 새김질(음식 재咀
嚼)은 초식동물(소, 양, 염소, 사슴 등)의 특징으
로 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상징하며 이는 백성
의 건강과 영적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
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을 성별해야

함을 보여주며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정결한 제물로 믿는 자의 삶을 온전한 순결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별된 삶으로 건강과 거룩을 추구하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직접 정결 법을 고하시며 제사장 사역의 가르침이 공동체 생활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레 11: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고하여... 이르시되" <다바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음성인 백성의 일상 규례를 세우는 중보임을 나타냅니다. <다바르>는 "말씀하시다"를 의미하며 10장의 비극 후 회복된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은혜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 예배를 넘어 생활 분별로 확장됨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광야 여정 중 이 법은 출애굽 후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모세와 아론의 중재가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음식·건강 같은 일상을 하나님의 명대로 인도해야 함을 가르치며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속적 습관 속에서 성결을 가르치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6:13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시려고 모세와 아론의 손에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명하신지라"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상(빵처럼)을 통해 영적 양식을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결해질 때 그 인도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육지 짐승의 먹을 생물을 고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식탁이 구별된 분별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레 11: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만한 생물"<아클라 네페쉬>을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정결이 일상 음식으로 적용되는 중보임을 강조합니다. <아클라>는 "먹다"를 <네페쉬>은 "생명체"를 뜻하며 모든 짐승 중 구별된 선택을 상징하여 출애굽 백성의 식탁이 이집트의 우상 숭배(동물 숭배)에서 자유로워짐을 드러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법은 광야에서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실천으로 창조 후 채소 중심(창 1:29)에서 홍수 후 고기 허용(창 9:3)으로 이어지며 정결 기준이 추가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음식 선택)을 통해 영적 분리를 가르쳐야 함을 가르치며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 음식 문화 속에서 건강과 순결을 유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먹을 생물처럼 믿는 자의 영적 건강을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의 명대로 정결해질 때 그 건강을 기도하십시오.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명하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온순한 정결로 백

성의 삶을 성별함을 강조합니다.

[레 11:3] 짐승 중 무릇 굵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굵이 갈라져 쪽발이" <파르사 파르네> 되고 "새김질" <가라>하는 짐승을 먹으라고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초식동물의 온순함으로 상징됨을 나타냅니다. <파르사>는 "갈라진 발"을 <파르네>는 "쪽발"을 뜻하며 <가라>는 "입으로 끌어올리다"로 두 기준(갈라진 굵: 확실한 분리, 새김질: 재반성)이 결합되어야 정결임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법은 자연적 건강(초식동물의 순결한 소화)과 영적 교훈(평화로운 삶)을 주며 스스로 죽거나 찢긴 짐승 금지(레 7:24처럼)는 부패 성분을 피하는 배려입니다. 이는 신명기 14:4-5에서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럼한 사슴과 산염소와 불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고 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온순한 제물로 죄를 속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선

택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결해질 때 그 평안을
소망하십시오.

[레 11:4]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악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5]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6]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레 11:7]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
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레 11:8]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11장 4-8절은 낙타, 사반(바위쥐처럼 생
긴 동물), 토끼, 돼지처럼 새김질하거나 쪽발이
하나만 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입니
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반만 맞으면 안 됩니
다, 완전히 맞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
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을 조

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를 때 건강하고 깨끗한 삶이 됩니다. 이전 1-3절에서 정결한 동물을 말씀하신 후, 이제 왜 안 되는 동물을 예로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건 먹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며 가르치듯, 지도자들이 우리 일상을 깨끗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김질(음식을 다시 씹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을, 쪽발(굽이 갈라진 발)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되어 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나쁜 습관이 쉽게 퍼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가정주부인 우리처럼, 집안 청소나 요리할 때 작은 오염도 바로 막아야 하듯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처럼, 우리 삶의 반쪽짜리 선택을 넘어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주부들은 음식 선택처럼 일상에서 "하나님 기준 다 맞추기"로 건강 몸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은 안 된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시며, "완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레 11:4] 그러나 이 중에서 새김질은 하되 쪽발은 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에게 먹는 것이 아니니 곧 사반과 토끼라 사반은 새김질은 하되 쪽발은 아니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쪽발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새김질<가라>은 하되 쪽발<파르사 파르네>은 하지 아니하는" 동물을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반만 맞는 선택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새김질<가라>은 "입으로 끌어올리다" 또는 "다시 씹다"를 의미하며, 동물이 먹은 걸 천천히 되새기며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는 옛 문화에서 동물이 반추할 때 나는 소리에서 나온 말로, 영적으로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다시 곹씹는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되새기며 일상에 적용하는 순종을 나타내죠. 반면 쪽발<파르사 파르네>은 "완전히 갈라진 발굽"을 뜻하며, 파르사<파르사>는 "갈라지다"에서 온 것으로 세상과 확실히 떨어진 걸 나타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사반(바위쥐처럼 생긴 동물)과 토

끼는 먹은 걸 다시 씹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굽이 제대로 안 갈라져서 안 됩니다. 이는 반만 깨끗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처럼 불편하고 위험한 선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아에서 이런 동물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부분만 지키면 위험합니다"라고 가르치듯,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아이들 음식 선택에서 완전한 기준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처럼, 우리 반쪽 노력도 그분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기준으로 다 맞춰질 때, 그 깨끗함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낙타와 사반, 토끼를 부정으로 지정하시며,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레 11:5] 또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쪽발은 아니하니 부정하니라 너희에게 더럽다 하셨고

[레 11:6] 사반은 쪽발은 하되 새김질은 아니하니 부정하니라 너희에게 더럽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낙타는 새김질<가라>은 하되 쪽발<파르사 파르네>은 아니하니 부정<타메>하니라"라고 하시는 것은, 겉은 좋지만 속이 안 맞는 삶이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정<타메>은 "오염되다" 또는 "더러워지다"를 의미하는 말로, 원래 물이나 몸이 더러워지는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몸과 마음의 더러움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서 타메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하거나 공동체에서 잠시 떨어지게 하는 개념으로, 죄나 죽음 같은 부패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깨끗함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유용하지만 소화가 불완전합니다. 사반과 토끼도 마찬가지로, "더럽다<타메>하셨다"는 말은 몸과 마음의 오염을 막아줍니다. 고대 백성들은 이 법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이 친구와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라고 조언하듯, 지도자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씻어 주시듯이요. 우리의 삶이 불완전한 부분을 인정할 때,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돼지를 쪽발만 있고 새김질 없는 부정 짐승으로 명하시며, 먹음뿐 아니라 만짐도 금지하십니다.

[레 11:7] 또 돼지는 쪽발은 하되 새김질은 아니하니 부정하니라 너희에게 더럽다 하셨으니

[레 11:8] 그 고기를 먹지 말며 그 몸에 이르지 말라 나를 위하여 더럽다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돼지<하지르>는 쪽발<파르사 파르네>은 하되 새김질<가라>은 아니하니 부정<타메>하니라"라고 하시는 것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이 더러운 것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돼지<하지르>은 "돼지" 또는 "멧돼지"를 가리키는 말로, 옛 근동에서 잡식성(아무거나 먹음)과 코로 땅 파는 습성, 많이 낳는 번식력으로 알려진 동물입니다. 옛 랍비 이야기에서 하지르는 나중에 정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하지만(돼지가 날아다니는 날처럼), 레위기에서는 발굽은 구별되지만 속은 불순한 위선을 나타내어, 이스라엘의 마음과 행동 분리를 강조합니다. "몸에 이르지

말라”는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는 명령으로, 작은 습관도 조심하라는 배려입니다. 이는 주부가 집을 청소하며 먼지 하나 안 남기려 하듯, 우리 일상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어 주시듯이요. 우리의 접촉이 하나님 경계 안에서 안전해질 때, 그 보호를 감사로 받으십시오.

[레 11: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 11:10]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레 11:11]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레위기 11장 9-11절은 강·바다·다른 물(호수·연못· 시내)의 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만 먹으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따를 때 건강하고 깨끗한 식탁이 됩니다. 이전 1-8절에서 육지 짐승을 말씀하신 후, 이제 물 생물을 통해 더 넓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물고기는 먹어도 돼, 저건 안 돼" 하며 설명하듯, 지도자들이 우리 일상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느러미(자유롭게 헤엄치는 상징)는 마음의 자유를, 비늘(외피 보호)은 몸과 마음의 방어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비늘이 없는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고등어, 갈치, 복어, 뱀장어, 게·새우, 조개, 오징어 등)은 부정으로, 기생충·독소(히스타민 등)로 인한 건강 위험을 피하는 배려입니다. 가정주부인 우리는 요리할 때 신선한 재료만 골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오염을 넘어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주부들은 물고기 선택처럼 일상에서 "하나님 기준 다 맞추기"로 건강 몸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물 생물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며, 제사장 가르침이 물 세계로 이어짐을 강조하십니다.

[레 11:9]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강과 바다와 다른 물... 지느러미<신나임>와 비늘<카스케셋> 있는 것은... 먹되"라고 하시는 것은, 정결 기준이 자유로운 이동과 보호로 완전성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느러미<신나임>은 "날개처럼 펼쳐진" 또는 "자유롭게 헤엄치는"을 의미하며, 동물이 물을 자유롭게 누비는 걸 가리킵니다. 이는 옛 문화에서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나온 말로, 영적으로는 마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르는 걸 상징합니다. 반면 비늘<카스케셋>은 "뿔인 외피" 또는 "보호 껍데기"를 뜻하며, 물고기가 비늘로 몸을 지키는 걸 나타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세상 오염(이집트 수산물 숭배)에서 보호받는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 백성의 식탁이 광야바다 생활에서 구별되도록 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냉장 없이 어류가 쉽게 부패(히스타민으로 알레르기·구토·호흡 곤란)했으므로, 이 법은 공동체 건강을 위한 현명한 배려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음식으로 보호받으십시오"라고 가르치듯,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아이들 식사에서 안전한 선택을 돕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보호처럼 우리 영적 건강을 주시듯이요. 우리의 식탁이 하나님 기준으로 자유로워질 때, 그 보호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 생물을 가증한 것으로 규정하시며, 불완전한 생물을 피하는 분별을 보여주십니다.

[레 11:10]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증한<세케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은, 불완전한 이동·보호를 가진 생물(고등어·갈치·복어·뱀장어·갑각류·연체동물)을 부정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증한<세케츠>은 "혐오스럽다" 또는 "역겹다"를 의미하는 말로, 원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몸과 마음의 오염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서 <세케츠>은 단순한 싫음이 아니라, 기생충·독소(히스타민: 두통·구토·설사·호흡 곤란) 같은 건강 위험을 상징하여, 광아에서 부패를 막는 지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바다·강·호수의 어패류가 상하기 쉬웠으므로, 이 법은 공동체 생존을 위한 사랑의 규제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위험한 건 멀리하십시오"라고 가르치듯,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세상 음식 속 건강 위험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세상을 넘어 완전한 깨끗함을 주시듯이요. 우리의 선택이 가증함을 넘어 순결로 나아갈 때, 그 자유를 기도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정 생물의 고기 먹음과 주검 만짐

을 금지하시며, 접촉까지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
십니다.

[레 11:11]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
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
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지 말고... 주검을 가증하<
세케츠> 여기라"고 하시는 것은, 오염 방지가 먹
음과 만짐에 모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증히 여기라<세케츠>은 "혐오하다" 또는 "멀
리하다"를 의미하는 말로, 원래 더러운 것을 피
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지느러미·비늘이 없
는 생물의 독소·기생충(스콤브로이드 중독처럼
알레르기 증상)이 건강을 해치는 걸 상징합니다.
레위기에서 <세케츠>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냉동 없이 부패가 치명적이었던 옛날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우리
에게 "만지기만 해도 피하십시오"라고 가르치듯,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건강 위해를 고려한 실천
을 돕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주검을 넘
어 생명의 접촉을 주시듯이요. 우리의 삶이 가증

함의 오염을 넘어 깨끗해질 때, 그 안식을 소망 하십시오.

[레 11:12]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레 11:13]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레 11:14] 매와 매 종류와

[레 11:15] 까마귀 종류와

[레 11:16]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레 11:17]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레 11:18]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레 11:19]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레 11:20]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레 11:21]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레 11:22]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벼지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팻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

으려니와

[레 11:23]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레 11:24]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
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
할 것이며

[레 11:25]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1장 12-25절은 수중 생물의 부정 재확
인부터 시작하십니다. 일부 곤충, 특히 메뚜기 종
류는 먹어도 된다고 허용하십니다. 부정 주검의
오염 규정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
나님께서 "생태 전체에서 분별하십시오"라고 말
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
다.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따를 때 건강하고
온유한 일상이 됩니다. 이전 1-11절에서 육지와
수중 생물을 말씀하신 후입니다. 이제 새, 곤충,
주검으로 더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이는 가정
에서 아이들에게 "이 새는 안 돼. 저 곤충은 먹어도
돼" 하며 설명하듯이요. 지도자들이 우리 일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가증한 새들은 육식이나 시체를 먹는 잔인한 새들입니다. 독수리는 매처럼 사냥하십니다. 어응은 물수리, 하얀 꼬리 독수리입니다. 다호마스는 썩독새고, 당아는 펠리칸입니다. 이 새들은 먹이사슬 오염을 축적합니다. 플랑크톤에서 물고기, 새, 인간으로 이어집니다.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어둠과 공격성을 상징합니다. 영적 더러움을 드러냅니다. 가정주부인 우리는 요리할 때 신선하고 온유한 재료만 골라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결한 희생이 오염을 넘어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부들은 새나 곤충 선택처럼 일상에서 "하나님 기준 다 맞추기"로 건강 몸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을 가증하다 재확인하십니다. 제사장 가르침이 수생 세계의 기준으로 마무리됩니다.

[레 11:12]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니라<세케츠>"라고 하십니다. 정결 법의 수생 기준(11:9-11)이 불완전한 생물을 배제하는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가증하니라<세케츠>은 "혐오스럽다" 또는 "멀리해야 할"을 의미합니다. 원래 더러운 것을 피하는 감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오염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서 <세케츠>은 단순한 싫음이 아닙니다. 갑각류나 연체동물의 독소와 기생충을 상징합니다. 히스타민 중독으로 구토나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광아에서 부패를 막는 지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호수나 시내의 어패류가 상하기 쉬웠습니다. 이 재확인 은 공동체 건강을 위한 철저한 분리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세부 기준을 지키십시오"라고 가르치듯이요.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아이들 식사에서 안전한 선택을 돕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정의 물결을 넘어 정결한 샘물을 주시듯이요. 우리의 삶이 가증함의 흐름을 넘어 순결로 흘러갈 때, 그 정화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신명기 14장 10절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

증하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기준을 재확인하
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새 목록을 나열하십니다. 독
수리, 솔개, 어응, 매, 까마귀, 타조, 다호마스, 갈
매기, 새매,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올응, 학, 황새, 대승, 박쥐입니다. 공격적이고 오
염된 새를 배제하는 분별을 보여주십니다.

[레 11:13]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
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
리와 솔개와 어응과

[레 11:14] 매와 매 종류와

[레 11:15] 까마귀 종류와

[레 11:16]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
류와

[레 11:17]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레 11:18] 따오기와 당아와 올응과

[레 11:19]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하나님께서 ”새 중에 가증한<세케츠>즉 먹지 말
지니” 목록을 주십니다. 정결 법의 공중 생물이

육식과 시체 먹는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독수리는 사냥합니다. 어응은 물수리, 하얀 꼬리 독수리입니다. 다호마스는 쏙독새입니다. 당아는 펠리칸입니다. 어둠 거처로 상징되는 더러움입니다. 여기서 가증한<세케츠>은 "혐오" 또는 "피해야 할"을 의미합니다. 원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감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오염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서 <세케츠>은 단순한 싫음이 아닙니다. 이 새들의 먹이사슬 오염을 상징합니다. 플랑크톤에서 물고기, 새로 축적됩니다. 독소 농축(중금속, 기생충)이 심합니다.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영적 교훈으로 공격성과 죽음의 상징을 피합니다. 박쥐<아납>는 포유류지만 날개로 분류됩니다. 부정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새들은 영양원이나 오염원입니다. 이 법은 공동체의 온유와 평화를 위한 배려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공격적인 건 피하십시오"라고 가르치듯이요.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세상 폭력적 문화 속에서 순결한 음식을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잔인한 새를 넘어 평화의 새로 죄를 속죄하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식탁이 가증함의

그림자를 넘어 빛으로 나아갈 때, 그 온유를 기도로 구하십시오. 신명기 14장 12절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더러운 새들은 이러하니 곧 독수리와"라고 말씀하시며 이 목록을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개 곤충 중 뛰는 다리 있는 메뚜기 종류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기어다니는 생물을 허용하는 균형된 분별을 강조하십니다.

[레 11:20]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레 11:21]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레 11:22]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베팡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팻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레 11:23]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레메스> 곤충은 가증하되 뛰는 것은 먹을지니"라고 하십니다. 정결 법의 곤충 기준이 점프력으로 상징되

는 정결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기어 다니는<레메스>은 "땅 기는" 또는 "더러운"을 의미합니다. 원래 땅에 가까운 낮은 생물을 가리킵니다. 영적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서 <레메스>은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메뚜기<아르베> 종류를 광야 식량으로 허용합니다. 출애굽기 기적처럼 생존을 돕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곤충은 영양원이나 오염원(기생충)입니다. 이 법은 공동체의 건강과 영적 자유를 균형짓습니다. 점프처럼 세상을 초월하는 자유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허용과 금지의 조화를 지키십시오"라고 가르치듯이요.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세상 속 선택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어다니는 죽음을 넘어 뛰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증함의 땅을 넘어 점프로 나아갈 때, 그 자유를 소망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요한의 옷은 낙타털로 作되고 허리띠는 가죽으로 하고 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메뚜기 허용의 실천적 예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정 주검 만짐과 옷 빨기의 오염 규

정을 주십니다. 접촉 후 저녁까지 정결로 회복되는 과정을 강조하십니다.

[레 11:24]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1:25]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주검을 만지면 저녁<레보>까지 부정<타메>할 것이며 옷을 빨지니"라고 하십니다. 정결 법의 오염이 시간적·행동적 정화로 해결됩니다. 여기서 부정<타메>은 "더럽히다" 또는 "오염되다"를 의미합니다. 원래 몸이나 물이 더러워지는 상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오염을 가리킵니다. 레위기에서 <타메>은 단순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녁<레보>은 "일몰" 또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을 상징합니다. 부정 주검(새·곤충)의 접촉이 일시적 오염입니다. 세례처럼 정결 의식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의 이 규정은 공동체 위생을 위한 실천입니다. 전염 방지입니다. 영적 교훈으로 죄의 오

염이 회개로 씻김을 줍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오염 후 정화하십시오"라고 가르치듯이요.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세상 만짐 후 기도와 회개를 행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정의 저녁을 넘어 영원한 새벽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접촉이 오염 후 정결로 돌아갈 때, 그 회복을 기도로 구하십시오. 레위기 15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 침상을 만지면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정화 과정을 재확인하십니다.

[레 11:26]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레 11:27]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1:28]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레위기 11장 26-28절은 부정 짐승(쪽발 아니거

나 새김질 안 함, 발바닥 짐승)의 주검 만짐과 옷 빨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오염의 접촉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따를 때 건강하고 깨끗한 일상이 됩니다. 이전 1-25절에서 정결 법을 말씀하신 후입니다. 이제 부패·육식 짐승(개·고양이·곰·호랑이·사자·늑대 등)의 위험을 넘어 더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이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 주검은 만지지 마. 만지면 씻어야 해"하며 설명하듯이요. 지도자들이 우리 일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주검의 부정은 부패 오염을 상징합니다. 독소 축적입니다. 저녁까지 지속되는 정화는 하나님의 시간 속 회복을 드러냅니다. 가정주부인 우리는 요리할 때 부패한 재료를 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부정 주검의 오염을 넘어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부들은 주검 만짐처럼 일상에서 "하나님 기준 다 맞추기"로 건강 몸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쪽발 아니거나 새김질 안 하는 짐승의 주검 만짐을 부정하다 명하십니다. 제사장 가르침이 죽음의 오염으로 확장됩니다.

[레 11:26]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네벨라>은 부정<타메>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라고 하십니다. 정결 법의 기준이 불완전한 짐승의 죽음으로 백성의 접촉을 경계합니다. 여기서 주검<네벨라>은 "시체" 또는 "자연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떨어진 과일처럼 자연적으로 죽은 걸 가리킵니다. 부패와 죽음의 오염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서 <네벨라>은 단순한 시체가 아닙니다. 부정 짐승(약대·돼지 등)의 잔여 오염이 만짐으로 전염되는 걸 나타냅니다. 세상 죽음의 부패를 피하는 교훈입니다. 부정<타메>은 "더럽히다" 또는 "오염되다"를 의미합니다. 원래 몸이나 물이 더러워지

는 상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오염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 중 주검 부패가 박테리아와 독소를 생성합니다. 전염병을 초래합니다. 이 법은 공동체의 위생을 위한 보호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만짐의 위험을 경계하십시오"라고 가르치듯이요.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아이들 놀이에서 위험한 접촉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검의 부정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듯이요. 우리의 접촉이 부정의 주검을 넘어 정결로 나아갈 때, 그 분리를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레위기 5장 2절에서 "사람이 무릇 부정한 것과 무릇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의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하여 죄를 범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이 오염의 결과를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발 발바닥 짐승의 주검 만짐을 저녁까지 부정하다 명하십니다. 육식 짐승의 위험을 시간적 지속으로 경고하십니다.

[레 11:27]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네 발로 다니는 발바닥<카포드>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하니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레보>까지 부정할 것이며"라고 하십니다. 정결 법의 포유류 기준이 육식동물의 발바닥으로 부정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발바닥<카포드>은 "손바닥처럼" 평평한 발을 의미합니다. 원래 발톱을 숨긴 발을 가리킵니다. 사냥과 공격성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에서 <카포드>은 단순한 형태가 아닙니다. 개·고양이·곰·호랑이·사자·늑대 같은 짐승의 피와 시체 먹는 습성을 나타냅니다. 독소 축적(기생충·질병)이 심합니다. 저녁<레보>은 "일몰" 또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회복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막 야생동물의 주검은 전염 위험이 큼니다. 이 법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시간적 격리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습관의 위험을 경계하십시오"라고 가르치듯이요.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세상 폭력 속에서 온유를 추구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발바닥 짐승의 잔인함을 넘어 희생의 발자국을 주시듯이요. 우리의 만짐이 저녁

의 어둠을 넘어 새벽으로 회복될 때, 그 정화를
기도로 구하십시오. 레위기 7장 24절에서 "스스
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
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주검의 부정을 재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정 주검 옮기는 자의 옷 빨기와 저
녁 부정을 통해 오염이 행동적 정화로 해결되어
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레 11:28]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
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
니라

하나님께서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카
베스>지니 저녁까지 부정<타메>하리라 그것들
이 네게 부정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정결 법의
오염이 의식적 세척과 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빨<카베스>은 "씻다" 또는 "세척하다"를
의미합니다. 원래 물로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동
을 가리킵니다. 일상 보호(옷)를 정화하는 걸 상
징합니다. 레위기에서 <카베스>은 단순한 씻음

이 아닙니다. 부정 짐승의 부패가 옷으로 전이되는 오염을 제거합니다. 세상 오염의 잔여를 없애는 교훈입니다. 부정<타메>은 "오염되다"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더러움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검 처리(매장·소각)는 위생 의식입니다. 이 법은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실천입니다.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오염 후 정화하십시오"라고 가르치듯이요.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세상 만짐 후 삶을 씻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정의 옷을 넘어 흰 의복으로 입히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오염이 빨림의 물결로 정결해질 때, 그 새로움을 소망하십시오. 레위기 15장 6절에서 "침상 위에 앉은 자를 만지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옷 빨기의 정화 과정을 재확인하십니다.

[레 11:29]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레 11:30]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레위기 11장 29-30절은 여호와께서 땅에 기어 다니는 부정 생물들(쪽제비·쥐·도마뱀 종류·합개·육지 악어·수궁·사막 도마뱀·칠면석척)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더러운 오염에서 완전히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앞서 레위기 11:1-28의 정결 법을 이어가는 세부 내용입니다. 지도자의 가르침이 땅속이나 바닥에 사는 생물들의 부패 위험을 넘어, 백성의 건강과 영적 순결을 지키는 교훈을 줍니다. 이 동물들은 땅의 습기와 주검을 먹는 습성 때문에 오염(기생충·독소 축적)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합개(gecko: 푸르스름푸른 꼬리 도마뱀, 밤에 개구리 울음), 육지 악어(monitor lizard: 크노벨 또는 카멜레온류), 수궁(wall lizard 또는 도롱뇽 비슷), 사막 도마뱀(short-legged skink), 칠면석척(chameleon: 보호색 변화)처럼, 이들은 땅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삽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정,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희생

이 땅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는 땅의 오염을 넘어 하늘의 순결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1장 29절은 땅에 기어다니는 부정 생물의 첫 목록(쪽제비·쥐·도마뱀 종류)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땅의 작은 기는 생물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1:29]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부정한 것은... 쪽제비 <호페드>와 쥐<아크바르>와 도마뱀<레츠아드> 종류"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기준이 땅의 습하고 더러운 환경(주검·쓰레기 먹는 습성)에서 백성의 접촉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기어다니는"<레메스>은 "기어다니는" 낮은 생물을 가리킵니다. 쪽제비(weasel: 작은 포

유류), 쥐(rat: 전염병 매개), 도마뱀 종류(lizard varieties: 땅속 기어다님)으로 예시합니다. 이는 광야 생활 중 오염이 쌓이는 위험(페스트·기생충)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생물들은 공동체 위생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건강과 영적 구별(땅의 저주 초월)을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작은 습관) 속 더러움을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의 작은 오염을 멀리하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땅의 기어다니는 죄를 넘어 승리의 발자국을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땅의 기는 것을 넘어 하늘로 오를 때, 그 구별을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창 1:25] 하나님이 땅에 기는 생물과 땅에 있는 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그 몸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레위기 11장 30절은 부정 기는 생물의 후속 목록(합개·육지 악어·수궁·사막 도마뱀·칠면석척)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이

다양하고 은밀한 땅 오염을 모두 배제하는 분별
임을 보여줍니다.

[레 11:30]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
마뱀과 칠면석척이라

하나님께서 "합개<아나게>와 육지 악어<코아드>
>와 수궁<레츠아드 코>와 사막 도마뱀<케스>
와 칠면석척<틴세메스>"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
결 법의 기는 생물이 도마뱀류 중심의 땅 습성으
로 부정을 강조합니다. 원어로 합개(gecko: 푸
르스름.푸른 꼬리, 밤 울음), 육지 악어(monitor
lizard: 크노벨 또는 카멜레온, 근동 도마뱀), 수궁
(wall lizard 또는 도롱뇽 비슷, 벽 기어), 사막 도
마뱀(short-legged skink: 다리.꼬리 짧음), 칠면
석척(chameleon: 보호색 변화, 두더지류)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주검.습기 먹는 습성으로 오염
(피부 질환.독소)이 심함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
스라엘에서 사막집 안 기어다니는 이 생물들은
전염 위험(피부 접촉)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법
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세밀한 배려입니다. 지
도자일수록 은밀한 세상 오염(색 변화처럼 위장

된 죄)을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땅의 더러운 습관 속에서 순결을 유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카멜레온 같은 위장을 드러내 정결케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땅의 기어다니는 것을 넘어 자유로워질 때, 그 정화를 기도하십시오. 이처럼 부정한 기는 생물의 분리가 궁극적으로 이사야서의 미래 비전처럼 이어지는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사 11:6)라는 말씀처럼, 오늘의 철저한 구별이 내일의 평화로운 조화와 온유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레 11:31]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1:32]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

이며

[레 11:33]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레 11:34]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의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레 11:35]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레 11:36] 샘물이나 방축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레 11:37]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레 11:38]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레위기 11장 31-38절은 여호와께서 부정 기는 생물의 주검으로 인한 오염 규례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미

세한 부패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을 마무리하며, 주검의 접촉이 사람·물건·음식에 미치는 오염을 세밀하게 다룹니다. 이는 백성의 건강과 영적 순결을 지키는 교훈을 줍니다. 주검은 죽음의 상징으로 땅의 부패(기생충·병원균 축적)를 나타냅니다. 물 담그기·깨뜨리기·자연 정화 등의 방법은 오염의 침투를 막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작은 접촉) 속 부패를 분별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정·교회·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주검 같은 죄의 오염을 넘어 믿는 자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미세한 부패를 넘어 하늘의 정결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1장 31-32절은 부정 기는 생물의 주검 접촉으로 인한 사람과 물건의 오염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일상의 모든 접촉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1:31]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1:32]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부정하니<타메>... 주검<네벨라>을 만지는 자는 저녁<에레브>까지 부정할 것이며... 물에 담그라<츠바>"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기준이 죽음의 오염(부패·전염 위험)으로 백성의 신체와 소지품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부정하니"<타메>는 영적·신체적 불결을, "주검"<네벨라>은 자연적 죽음의 부패를, "저녁까지"는 일몰 후 정결 의식(물 세척)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주검 접촉은 페스트나 피부병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동체 위생과 영적 구별(죽음의 저주 초월)을 위한 보호입니다. 목기

(wooden vessels), 의복(cloth), 가죽(leather), 부대(skins) 등 일상 물건의 오염은 작은 접촉이 전체 삶을 더럽힘을 경고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소지품습관) 속 부패를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의 미세 오염을 물로 씻어내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검 같은 죄의 오염을 저녁의 정결처럼 씻어내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처럼 주검의 오염을 피하는 규례는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과 연결되는데,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손발을 씻을 것이니 이는 그들의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출 30:20)라는 말씀처럼, 작은 세척이 생명과 구별을 지키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접촉이 부패를 넘어 정결로 이끌릴 때 그 세척을 사랑으로 안아보십시오.

레위기 11장 33-34절은 부정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진 경우의 오염과 파괴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이 은밀한 침투(안쪽 오염)를 배제하는 철저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1:33]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레 11:34]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의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질그릇<헤레스>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그 그릇을 깨뜨리라<사바르>... 축축한<레레브> 식물... 마실 만한<세카>"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오염이 그릇의 내부(숨겨진 공간)로 스며들어 음식·물을 더럽힘을 강조합니다. 원어로 "질그릇"<헤레스>은 점토로 만든 불투명 용기를, "깨뜨리라"<사바르>은 완전 제거를, "축축한"<레레브>은 습기로 인한 오염 전파를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질그릇은 음식 보관에 필수적이었으나, 주검의 병균이 내부에 스며들어 피부병이나 소화불량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세밀한 배려입니다. 축축한 식물(곡물·채소)과 마실 물의 부정은 일상 영양원이 오염될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는 지도자일

수룩 은밀한 세상 오염(내면의 죄 침투)을 분별하고 파괴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마음의 그릇 속 더러움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면의 오염을 드러내 깨뜨리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규례의 내면 오염 강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닿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 15:11)라는 말씀처럼, 외부 접촉뿐 아니라 마음의 숨겨진 부패를 깨뜨리는 것이 진정한 정결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그릇이 부패를 넘어 새로워질 때 그 파괴를 기도하십시오.

레위기 11장 35절은 부정 주검이 화덕이나 질탕관에 떨어진 경우의 파괴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이 요리·보관 도구의 오염까지 포괄하는 실천적 분별임을 강조합니다.

[레 11:35]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화덕<탄누르>이든지 질탕관<키르>이든지 깨뜨려버리라<샤바르>... 부정한 것이 되리라<타메>"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오염이 가정의 핵심 도구(불보관)로 확산됨을 막습니다. 원어로 "화덕"<탄누르>은 빵 굽는 아궁이를, "질탕관"<키르>은 액체 담는 용기를 상징하며, 이는 주검의 부패가 열과 습기로 증폭되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화덕은 생존의 중심이었으나, 오염 시 전체 식사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파괴는 예방적 사랑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가정·공동체의 '불꽃'(열정)과 '저장'(기억) 속 부패를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습관이 삶의 도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오염된 화덕을 새롭게 태우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파괴의 필요성은 성경의 심판 비전과 연결되는데, "무서워할 것이요 믿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계 21:8)라는 말씀처럼, 오염된 도구를 깨뜨리는 것이 궁

극적인 정결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도구가 부패를 넘어 정결로 타오를 때 그 불꽃을 의지하십시오.

레위기 11장 36절은 샘물이나 방축물 웅덩이의 예외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이 자연의 정화 능력을 인정하는 균형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1:36] 샘물이나 방축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샘물<마안>이나 방축물<미크베>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타메>... 다닥치는<나가사>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오염이 방대한 자연수원(자정 능력)에는 미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원어로 "샘물"<마안>은 지속적 흐름을, "방축물"<미크베>은 모인 웅덩이를 상징하며, 이는 주검이 표면에만 영향을 미치고 전체가 정화됨을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샘물은 생명의 원

천이었으나, 작은 오염은 흐름으로 씻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자연 정화)를 존중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공동체의 '생명의 샘'(은혜) 속 작은 부패를 분별하되 전체를 잃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의 웅덩이에서 오염을 씻어내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샘처럼 모든 오염을 정화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자연 정화의 원리는 성전의 생수 비전과 맞닿는데, "저가 나를 다시 성전 문으로 인도하시매 그 문 앞을 보니 아래에서 물이 흘러 나와 동편으로 향하여 내려가니"(겔 47:1)라는 말씀처럼, 부패를 넘어 흘러넘치는 생명의 흐름이 공동체를 정결케 한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웅덩이가 부패를 넘어 흘러넘칠 때 그 흐름을 소망하십시오.

레위기 11장 37-38절은 부정 주검이 종자에 떨어진 경우의 조건적 오염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이 미래의 열매(희망)를 보호하는 선한 분별임을 강조합니다.

[레 11:37]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

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레 11:38]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심을 종자<자라><파르스>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타호르>... 종자에 물을<마암> 더할 때에... 부정하리라<타메>"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오염이 마른 잠재력(미래 성장)에는 미치지 않으나, 촉발된 과정(물·발아)에서만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원어로 "종자"<자라>은 농업의 희망을, "물을 더할 때"<마암>은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며, 이는 주검이 마른 상태에는 무해하나 습한 발아 시 오염됨을 경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 종자는 생존의 핵심이었으므로, 이 법은 수확의 약속을 지키는 배려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씨앗'(비전) 속 부패를 조건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오염이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좋은 종자가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조건적 보호는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되는데,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

저 실을 맺으니 이 것은 백 배요 저것은 육십 배
요 저것은 삼십 배니라”(마 13:8)라는 말씀처럼,
부패를 넘어 싹트는 종자가 풍성한 열매로 이어
진다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종자가 부패를 넘
어 싹들 때 그 성장을 기도하십시오.

[레 11:39]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1:40]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1장 39-40절은 여호와께서 정결한 짐
승의 주검으로 인한 오염 규례를 명하시는 장면
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부패
로부터 지속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1장의 정결 법을
마무리며, 정결한 짐승조차 죽음 후에는 오염의
상징이 되어 사람·옷·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
하게 다룹니다. 이는 백성의 건강과 영적 순결을
지키는 교훈을 줍니다. 주검은 자연적 죽음의 부
패(전염·부패물 축적)를 나타내며, 만짐·먹음·옮

김의 행위는 일상 접촉이 정결을 해침을 경고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작은 행위) 속 죽음의 그림자를 분별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정·교회·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주검 같은 죄의 오염을 넘어 믿는 자의 삶을 영원히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사소한 부패를 넘어 지속적인 정결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은 정결한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자의 오염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생명의 끝(죽음)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1:39]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먹을 만한<아칼> 짐승이 죽은<마벳> 때에 그 사체<네벨라>를 만지는 자는 저녁<에레브>까지 부정할<타메> 것이며"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기준이 생명(정결 짐승)의 죽음으로 백성의 접촉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먹을 만한"<아칼>은 허용된 음식(생명 상징)을, "죽은"<마벳>은 자연적 사망을, "사체"<네벨라>은 부패의 시작을, "저녁까지"<에레브>은 일몰 후 정결(물 세척)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결 짐승의 주검조차 분해되며 병균(피 부병·소화 장애)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동체 위생과 영적 구별(죽음의 저주 초월)을 위한 보호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생명의 끝자락) 속 부패를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의 죽음 같은 오염을 저녁의 정결로 씻어내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의 사체 같은 죄를 넘어 부활의 생명을 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죽음의 승리를 상기시키는 바울의 말씀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에 있느냐"(고전 15:54)라는 구절이 이 규례의 궁극적 소망을 보여주며, 주검의 부패를 넘어 영원한 생

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레위기 11장 40절은 정결한 짐승의 주검을 먹거나 옮기는 자의 오염과 세척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이 행위 전체(소바·이동)를 포괄하는 실천적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1:40]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아칼> 자는 그 옷을 빨 <카비스> 것이요 저녁<에레브>까지 부정할<타메> 것이며 그 주검<네벨라>을 옮기는<사발>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오염이 영양 섭취(먹음)와 노동(옮김)으로 확산됨을 막습니다. 원어로 "먹는"<아칼>은 생존 행위를, "옷을 빨"<카비스>은 외적 정결을, "옮기는"<사발>은 부담짓는 이동을 상징하며, 이는 주검의 부패가 몸과 소지품으로 스며드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고대 광야 생활에서 주검 처리(먹음·매장)는 필수적이었으

나, 오염 시 공동체 전염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세척은 예방적 사랑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가정·공동체의 '소비'(욕망)와 '이동'(여정) 속 부패를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사소한 죄가 삶의 옷자락을 더럽히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주검 같은 죄의 오염을 옷 씻김처럼 정결케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세척의 은혜는 교회의 정결 비전과 연결되는데, "너희가 말씀과 정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씻게 하사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니"(엡 5:26)라는 말씀처럼, 주검의 오염을 넘어 말씀의 물로 삶의 옷자락을 씻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행위가 부패를 넘어 새로워질 때 그 세척을 기도하십시오.

[레 11:41]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레 11:42]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레 11:43] 너희는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레위기 11장 41-43절은 여호와께서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의 부정을 최종적으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최저한 부패로부터 완전한 분리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1장의 정결 법을 절정으로 마무리하며, 기는 생물의 다양성(배·네 발·여러 발)을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백성의 건강과 영적 순결을 지키는 교훈을 줍니다. 기는 생물은 땅의 더러움(주검·오물 먹는 습성)과 가까운 존재로 죄의 낮은 본성을 상징하며, '가증함' <세케츠>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멀리할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최저한 접촉) 속 세상 부패를 분별하고 거부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정·교회·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땅의 기는 죄를 넘어 믿는 자의 삶을 거룩한 자유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

성들에게 세상의 가증한 더러움을 넘어 하늘의 거룩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1장 41-42절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의 부정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세상의 모든 낮은 형태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1:41]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레 11:42]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어<레메스>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세케츠>즉 먹지<아칼> 못할지니... 배로<게첸>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아르바> 걷는 것이나 여러 발<하레그><세세>을 가진 것이라... 가증함<세케츠>이니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기준이 땅의 최저 생물(오염 습성)로 백성의 섭취를 철저히 금지하라는 뜻입

니다. 원어로 "기어 다니는"<레메스>은 낮은 이동을, "가증한"<세케츠>은 역겹고 금기된 것을, "배로 밀어"<게첸>은 뱀·지렁이(주검 먹는 포식자), "네 발로"<아르바>은 도마뱀·악어(짧은 다리로 기듯 걷는), "여러 발"<하레그>은 지네·전갈·거미(다족으로 오물 기어)로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생물들은 페스트·독기 생충을 매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공동체 위생과 영적 구별(땅의 저주 초월)을 위한 보호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최저한 유흥) 속 가증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의 뱀 같은 속임수와 다리 짧은 위장, 다족 같은 혼란을 멀리하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땅의 기는 죄를 밟아 이기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금지의 뿌리는 창세기의 저주와 연결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했은즉 저주를 받아.. 네가 네 배로 지면과 네 평생에 먼지를 먹으리라"(창 3:14)라는 말씀처럼, 땅 기는 생물의 가증함이 죄의 시작을 상기시키며, 이를 넘어 승리의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레위기 11장 43절은 기는 생물로 인한 자아 오염을 금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이 내면의 거룩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적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1:43] 너희는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는바<레메스>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세케츠> 되게 말며... 스스로 더럽혀<타메> 부정하게<타메> 되게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오염이 외적 행위에서 내면(자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원어로 "가증하게"<세케츠>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스스로 더럽혀"<타메>은 자발적 불결을 상징하며, 이는 기는 생물의 접촉이 영혼의 더러움으로 증폭됨을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땅 기는 생물은 우상 숭배나 주술과 연관되어 영적 오염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는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세밀한 배려입니다.

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은밀한 세상 오염(내면의 가증함)이 자아를 더럽히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마음의 뱀과 거미 같은 죄를 버리고 거룩을 유지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아의 더러움을 씻어 거룩케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내면 정결의 부르심은 베드로의 권면과 맞닿는데,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벰전 1:15)라는 말씀처럼, 기는 생물의 가증함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이 진정한 자유임을 상기시킵니다.

[레 11:44]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 11:46]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레 11:47]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 11장 44-47절은 여호와께서 정결 법의 절정을 통해 거룩함의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여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1장의 모든 정결 지침을 요약하며, 하나님의 거룩 <카도시움>이 백성의 몸과 영혼을 구별케 하는 근본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는 건강과 영적 순결을 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한 교훈을 줍니다. 땅 기는 생물의 더러움은 세상의 낮은 죄를 상징하며, 애굽 구출은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분별의 삶) 속 세상 오염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가정·교회·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의 더러움을 넘어 믿는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부정을 넘어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

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1장 44-45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백성의 구별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영적 정체성으로 승화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1:44]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카도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핫 파랄> 거룩하게<카도시>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타메> 말라... 애굽<미츄라임> 땅에서 인도하여<아차> 낸 여호와라... 거룩할지어다<카도시>"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원어로 "거룩하니"<카도시>은 분리

되고 전적인 것을, "구별하여"<하트 파랏>은 세상
으로부터 떼어냄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야
차 미츨라임>은 속박에서 구원(은혜의 출발)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애굽은 세상의
노예상을 나타냈으므로, 이 명령은 구원의 은혜
가 거룩한 동행으로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몸의
구별은 외적 정결에서 영적 분리로 확장되며, 땅
기는 더러움은 세상의 사소한 죄를 경계합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몸과 마음)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거룩케 해야 한다는 교훈
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
도자가 애굽 같은 속박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도록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애굽 같은 죄의 더러움을 씻어 거룩한 자녀
로 만드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거룩의 부르심
은 신약의 권면과 직결되는데, "기록된 바 나의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대로"(벧전
1:16)라는 말씀처럼, 정결 법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 삶의 거룩한 기준이 됨을 상기시킵니다.

레위기 11장 46-47절은 정결 법의 규례와 분별
을 요약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법

이 실천적 지혜로 완성되는 분별의 삶을 보여줍니다.

[레 11:46]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레 11:47]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짐승<베헤마>과 새<오프>와 물에서 움직이는<세레츠>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레메스>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토라>... 부정<타메>하고 정한<타호르> 것과 먹을<아칼> 생물과 먹지 못할<타메 아칼> 생물을 분별한<바카르> 것이니라"라고 명하시는 것은, 정결 법의 포괄성을 강조하며 창조 질서(땅·하늘·물·기어다님) 속 분별을 요구합니다. 원어로 "규례"<토라>은 가르침의 길을, "분별한"<바카르>은 현명한 구별을 상징하며, 이는 부정(오염·죽음)과 정한(생명·구별)의 대조를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음식 분별은 생존과 신앙의 상징이었으므로, 이 요약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세밀한

지혜입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은밀한 세상 오염(생물의 다양성 속 죄)을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일상의 선택 속 정한 것만 취하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열매로 분별되는 거룩한 삶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 분별의 지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는데, "이로써 그들을 제자로 알리되 그 열매를 보고"(마 7:20)라는 말씀처럼, 정결 법의 규례가 우리의 선택과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구별을 강조합니다.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계명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줄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모두 10개의 계명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계명 중 처음의 네 계명은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입니다.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과 연관된 계명입니다. 처음 네 계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출 20:3-8)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계명이자 마지막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삼 사대에 걸쳐 벌을 받습니다. 왜 벌을 받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리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있는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상 종교의 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교의 부처는 사람입니다. 유교의 공자 역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종교의 신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부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자를 창조하신 분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갔을 때 그곳의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행 17:24-25)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한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 분께서는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견주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수 24:20)

여호수아는 덧붙여 이런 말을 백성에게 남겼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요

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수 24:19)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앓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저들이 어찌해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왕하 17:7-10)

저들이 이방인에 의해 멸망하게 된 것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좇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렘 25:6)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오늘날 돈은 하나님과 대적할만한 또 다른 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2천년 전부터 간파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셨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돈’에 대한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과 견줄만한 신(god)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에 유념하십시오. 돈은 더 이상 사람이 쓰고 부리는 종의 것이 아닙니다. 돈은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신(god)입니다. 돈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둘 중 하나를 경히 여겨야 할 것이며 또 다른 하나를 선택해 섬겨야 할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근심은 그 사람의 마음을 찢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저가 돈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 기회를 찾더

라”(막 14:11)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치리자의 죄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저들의 죄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샅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미 3:11)

미가 선지자가 언급한 죄는 모두 다 돈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두령은 뇌물을 좋아하고 제사장은 샅을 좋아하고 선지자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저들이 돈 때문에 재판하고 돈 때문에 가르치고 돈 때문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 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도 돈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풍성할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과 자녀

와 친척과 이웃을 살리는 풍성한 기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으며 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우상이 어떤 형상을 띄고 있던지 간에 우상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든 우상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있을 겁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더 많은 애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우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한 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컴퓨터로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몸쓸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씩 배우면서 컴퓨터라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신문 디자이너가 되면서부터 컴퓨터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으면서부터 컴퓨터와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져도 인터넷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루종일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고 컴퓨터와 동행했으며 컴퓨터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TV가 우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봅니다. 위성TV까지 설치해 놓고 봅니다. TV를 켜 놓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서 불안할 정도입니다. 아예 잠을 잘 때도 TV를 켜 놓고 잡니다. TV 앞 소파에서 누워 자면 그것이 천국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음식이 우상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면 뭣이든 먹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

이 들던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몸무게가 늘어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게 되어도 좋습니다. 약간의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그것이 음식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순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자녀가 우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잠을 잘 때로 자녀 걱정 때문에 좀처럼 잠을 들지 못합니다. 아예 자신의 인생을 자녀를 위해 내던졌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임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저들에겐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다. 오직 자녀뿐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우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학력일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온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직장일 수 있습니다. 진급을 위해서라면 주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척도는 시간과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저는 영성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TV와 컴퓨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오직 기도와 성경 읽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misuse)'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용' '악용' '남용'이라는 뜻입니다.

'오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악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며 잘못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참지 못할 치욕스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의 이름도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오용해서는 안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2)

하나님께 거짓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누군들 거짓으로 맹세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지켜지지 아닐 때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도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마 5:34-36)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도 상처를 입고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적을 땐 많은 손해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땅이라고 그 이유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교회나 목사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

을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치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막 7:11-12)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르반’이라고 규정된 예물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한 행위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 하기 위해서 부모를 위해 사용될 재물을 ‘고르반’이라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모임을 빙자해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

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는 욕설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욕설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용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선 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자녀들 이름 부르듯이 쉽게 불러선 안됩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귀한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는 않습니다(마 7:6).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하느니라”(마 6:7)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하루에 수 천 번 부른다고 나무랄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버지의 장난 삼아 이름을 부를 땐 화내지 않을 아버지도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 날’ 곧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단 어만 틀릴 뿐 그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킵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예배를 빼먹고 야유회에 참여한 사람 역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 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거룩하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빠져 지내는 것도 죄입니다. TV나 대중매체에 심취해 있는 것도 죄입니다. 물론 평일도 이런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마땅히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주일에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오락과 매매와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 하십시오. 이 계명을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

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가게 문을 열지 마십시오.

“불찌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 육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칠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출 16:29)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안식일 전날엔 정확하게 이틀분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하고 하루 양식만 준비한 사람은 안식일 날에 꼬박 굶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출 31:14)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도 안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과 가축 심지어 식물과 흙까지도 쉬를 누려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사 58:13)

하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저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저의 집안을 높이시고 저의 가문을 높일 것입니다. 저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했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저

레위기 12장 =====

[레 1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2: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 12:3] 제팔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레 12:4] 그 여인은 오히려 삼십삼 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레 12:5]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륙 일을 지나야 하리라

레위기 12장 1-5절은 여호와께서 출산 후 여인의 부정 기간과 정결 의식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기쁨 속에서도 세상의 부정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1장의 정결 법을 이어가며, 출산이라는 축복된 사건이

신체적·영적 정결을 요구함을 보여줍니다. 부정 기간(남아 7일, 여아 14일)은 월경과 유사한 자연 현상을, 정결 기간(남아 33일, 여아 66일)은 산혈(출산 후 출혈)의 회복을 고려한 배려입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생과 공동체 안위를 위한 지혜로, 남아와 여아의 기간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여아 출산 시 출혈이 더 길 수 있음)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원어 부정<타메>는 단순한 신체적 불결이 아닌, 영적 분리를 상징하며,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의 취약함을 상기시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준비 과정을 가르칩니다. 당시 남아선호가 강한 사회에서 여아 출산 시 더 긴 회복 기간을 주는 것은 오히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가족·출산) 속 세상 오염을 넘어 생명의 순결을 지키라는 교훈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세상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삶을 새 생명으로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시편 139:16의 "주의 손이 나를 지으시되 주의 눈이 나를 보셨나이

다”처럼, 태중 형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생명 부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출산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구별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2장 1-4절은 여인이 남아를 낳았을 때의 부정 기간과 정결 의식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생명의 탄생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2: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 12:3] 제팔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레 12:4] 그 여인은 오히려 삼십삼 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출산의 기쁨

이 신체적 회복과 영적 구별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원어 잉태하여<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를 상기시킵니다. 부정<타메>은 7일 격리를 통해 자연 순환의 부정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5:19의 "여인의 월경이 시작되면 이레 동안 부정하다"처럼, 잠재적 취약함을 넘어 정결 준비를 가르칩니다. 양피를 벨<말라>는 제8일 할례를 통해 언약 표징을 새깁니다. 창세기 17:12의 "너희 중에 난 남자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처럼, 영적 입성입니다. 누가복음 2:21의 "그가 팔째 날에 할례를 받으시고" 구원의 시작을 예표합니다. 깨끗하리니<타호르>는 33일 산혈 후 정결을 의미합니다. 출혈 상실이 죄의 피 흘림을 넘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산혈은 감염 위험이 컸습니다. 7일 부정은 위생 격리, 33일 정결은 회복 배려입니다. 제8일 할례는 언약 입성, 성소 금지는 예배 준비입니다. 지도자일수록 가족 삶(출산·회복) 속 부정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의 오염을 넘어 생명의 축복을 지킵니다. 당시 남아선호 사회에서 이 규례는 어머니의 건강을 최우선

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한국의 산 후조리 100일처럼, 총 40일(7+33)의 여유로운 회복 시간을 가집니다.

레위기 12장 5절은 여아를 낳았을 때의 부정과 정결 기간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생물학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머니의 안위를 고려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2:5]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칠 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됨은 육십륙 일을 지나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여아 출산 시 더 긴 기간(총 80일: 14+66)을 주어 어머니의 회복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원어 십사 일<아르바 아세르>은 부정 기간을 두 배로 합니다. 레위기 15:25의 "여인의 피가 정한 때가 아니어도 흐르면"처럼, 출혈 증가를 반영합니다. 갈라디아서 3:28의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처럼, 성별 구별 너머 공평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육십륙 일<시쉬임 이

쉬쉬>은 정결을 연장합니다. 부정<타메>의 불결이 세상의 취약함 속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3:1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구속자 됨이니라"처럼, 출산 고난이 영적 재생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남아 선호 사회에서 이 차이는 여아 어머니를 위한 위로입니다. 더 많은 휴식으로 건강을 배려합니다. 지도자 일수록 가족성별 속 차별을 넘어 공평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남녀 평등 맥락에서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상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별을 넘어 새 생명을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한국에서 여아 출산 안타까움을 위로하듯, 더 긴 조리 기간으로 어머니를 안아줍니다.

[레 12:6]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 12:7]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

레니라

[레 12:8]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
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
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
결하리라

레위기 12장 6-8절은 여호와께서 출산 후 정결
의식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명하시는 장면입니
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기쁨 속
에서도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하여 세상의 부정
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2장의 정결 기
간을 마무리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어머니
의 회복과 아이의 언약 입성을 축하합니다. 출산
과정의 취약함(신체적·영적)을 인정하고 하나
님 앞에 나아옵니다. 속죄제<하딧>는 죄의 속박
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상징으로, 시
편 127:3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처럼 출산을 축복으
로 여기되, 인간의 음욕이나 정욕이 섞인 현실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는 출산이 성스러운 창조

행위임에도 세상의 영향으로 더럽혀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정결케 되는 여정을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가족축복) 속 세상 오염을 넘어 하나님의 기업을 감사로 받드는 교훈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출산의 부정을 넘어 모든 자녀를 구속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생명의 선물 속에서 하나님의 속죄를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은 정결 기간 후 제사장 앞에 나아가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생명의 헌신으로 승화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2:6]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매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출산의 회복 후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정결의 완성임을 나타냅니다. 원어 나아갈<보오>은 제단 앞

헌신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4:20의 "네 모든 장자 곧 나귀를 낳은 것은 양으로 속하라"처럼,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적으로는 로마서 12:1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부르심을 미리 드러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나아감은 공동체 예배의 재입성입니다. 어머니의 회복이 가족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가족 삶(헌신·축복) 속 세상 오염을 넘어 하나님의 기업을 드리라는 교훈입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세상의 소유욕을 넘어 생명의 주인을 인정합니다.

레위기 12장 7-8절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속에서 영적 정결을 완성하는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2:7] 어린 양 한 살의 번제와 비둘기 새끼나 젊은 비둘기 한 마리를 속죄제<하딧>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리니 그녀의 부정이 깨끗하게 될지라

[레 12:8] 만일 제물을 드릴 만한 것이 없으면 양 두 마리를 드리지 못할진대 제사장에게 말하라 그가 그를 위하여 어린 비둘기 두 마리나 젊은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게 하라 하나는 번제라 하나는 속죄제<하딧>라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리니 그녀의 부정이 깨끗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번제<올라>와 속죄제<하딧>를 통해 출산의 부정을 속죄하고 정결케 하는데, 가난한 자를 위한 대안(비둘기 두 마리)을 주십니다. 모든 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원어 번제<올라>은 완전 소제를, 속죄제<하딧>은 죄의 속박을 풀어줍니다. 레위기 1:4의 "그가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으리니"처럼, 출산 과정의 음욕이나 세상 오염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는 히브리서 9:22의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처럼, 산혈의 상징적 피가 속죄의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깨끗하게<타호르>는 제사장의 중보로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2:24의 마리아 제사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드린 속죄제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물 선택은 경제적 배려입니다.
가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제사·가난) 속 차별을 넘어 하나님
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출산의 축
복 속에서 음욕의 오염을 고백하고 감사로 드립
니다.

레위기 13장 =====

[레 13: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
라사대

[레 13:2]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
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
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레위기 13장 1-2절은 여호와께서 피부병(문둥
병 등)의 진단과 격리 규례를 제사장에게 명하시
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
의 부패를 통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
례는 레위기 12장의 출산 정결을 이어가며, 피부
병의 증상(돋거나 딱지, 색점)을 세밀하게 분별
하여 제사장의 진단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
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원어 문둥병<사라
아트>은 '타격받음'이나 '불결 상태'를 의미합니
다. 단순한 의학적 질병(현대 Hansen's disease)
이 아닌 피부·옷·집의 불결을 포괄적으로 가리
킵니다. 영적으로는 죄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4:34의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을 알게 하리라"처럼,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건강)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피부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제사장의 진단을 초월한 즉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불결한 자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정결케 하는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육신을 함부로 더럽히는 행위(문신, 마약, 흡사, 환경 오염)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를 소중히 여기는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6:19-20의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처럼, 육신 학대는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레위기 13장 1-2절은 피부병 의심 시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육신의 증상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3:2]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피부에 돋음<사친>이나 색점<바햇>이 문둥병 의심 시 즉시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뜻입니다. 원어 데리고 갈<야바오>은 공동체적 책임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0:11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모든 규례를 가르치라"라는 제사장 사명처럼, 영적으로는 죄의 초기 징후를 중보자에게 드러내 회개의 문을 엽니다. 민수기 12:10의 "미리암의 살이 일시에 희어지며" 미리암의 나병처럼, 불순종

이 육신에 드러날 때 제사장의 진단이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문둥병<사라아트>은 의학적으로 Hansen's disease(현대 나병)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더 넓은 불결(피부, 옷, 집)을 가리킵니다. 죄의 부패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부병은 전염과 사회적 낙인을 초래했습니다. 제사장 진단은 위생적·영적 보호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육신(의심 증상·중보)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마약 주사나 문신 같은 육신 학대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 13:3]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 13:4]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칠 일동안 금고할 것이며

[레 13:5] 칠 일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칠 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레 13:6] 칠 일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얹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레 13:7]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레 13:8]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레위기 13장 3-8절은 여호와께서 피부병(문둥병)의 초기 증상 진단과 격리 절차를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부패를 통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시작하며, 환처(병변)의 털 변화, 우묵함, 퍼짐 여부를 세밀하게 검사하여 제사장의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환처의 희어짐과 우묵함은 단순한 육체적 증상이 아닌, 죄의 깊은 침투를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레위기 14:34의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팔을 붙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을 알게 하리라"처럼,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는 시편 38:3의 "주의 책망으로 인하여 상함을 입었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상함을 입었나이다"라는 고백처럼, 부정이 외적 증상으로 드러날 때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증상)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제사장의 진단을 초월한 즉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불결한 자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정결케 하는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육신을 함부로 더

럽히는 행위(문신, 혹사, 환경 오염)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를 소중히 여기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3-6절은 환처의 초기 증상(희어짐·우묵함)과 7일 격리 진단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육신의 세밀한 검사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3]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 13:4]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레 13:5] 칠 일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칠 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레 13:6] 칠 일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얹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

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환처의 털 희어짐<라반>과 우묵함<사파프>이 문둥병으로, 퍼짐 없으면 14일 격리 후 정결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진찰할<라아>은 제사장의 시각적 중보를 상징합니다. 잠언 20:5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끌어내느니라"처럼 깊은 우묵함이 죄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금고할<카넷>(칠 일)은 안식의 시간을 줍니다. 출애굽기 20:10의 "칠일째는 안식일이니"처럼, 격리가 회개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전염 위험이 컸습니다. 두 번의 7일 격리는 확실한 보호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초기 증상 격리)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환경 세균이나 혹사로 인한 육신 상처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3장 7-8절은 병색 퍼짐 시 부정 선언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확산된 부패를 즉시 격리하는 철저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3:7]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레 13:8]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정결 판정 후에도 병이 퍼지면 재진찰하여 부정으로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퍼지면<파라스>은 죄의 확산을 상징합니다. 야고보서 1:15의 "마음에 있는 정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느니라"처럼, 죄의 퍼짐을 경고합니다. 제사장의 다시 보일<아다>(재진찰)은 지속적 중보를 상징합니다. 고대에서 문둥병 퍼짐은 공동체 재앙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예방적 사랑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퍼짐·재진단)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마약이나 문신으로 인한 육신 확산 상처는 이 문둥병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23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전인적 정결

을 무시합니다.

[레 13:9]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레 13:10]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레 13:11]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제
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
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레위기 13장 9-11절은 여호와께서 오래된 피부병(문둥병)의 증상과 즉시 부정 선언을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깊은 부패를 통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심화하며, 흰 점, 희어진 털, 난육(새로운 살)의 조합을 검사하여 제사장의 즉각적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오래된 문둥병은 이미 침투한 부패를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다. 영적으로는 시편 38:3의 "주의 책망으로 인하여 상함을 입었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상함을 입었나이다"처럼, 부정이 외적 증상으로 드러날 때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깊은 상처)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제사장의 진단을 초월한 즉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육신을 함부로 더럽히는 행위(문신, 흡사, 환경 오염)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를 소중히 여기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9-11절은 오래된 문둥병의 증상(흰 점·희어진 털·난육)과 즉시 격리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깊은 부패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9]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레 13:10]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레 13:11]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문둥병<사라아트>이 이미 오래된 상태(흰 점<바햇>, 희어진 털<라반>, 난육<사르>)로 제사장에게 데려가 즉시 부정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데려갈<아바오>은 공동체적 책임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2:10의 "미리암의 살이 일시에 희어지며" 미리암의 나병처럼, 불순종이 육신에 드러날 때 제사장의 진단이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난육<사르>(새로운 살)은 부패 속 재생을 의미하나, 문둥병 맥락에서 오히려 깊은 침투를 나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세균 침투로 결절과 무감각을 초래했습니다. 환경 더러움이나 몸 상태 악화로 전염되며, 하나님의 형벌로 여겨졌습

니다. 구금 없이 진 밖 격리는 인생의 끝처럼 느껴지는 끔찍함이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오랜 부패·격리)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마약 같은 육신 학대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 13:12]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레 13:13]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레 13:14]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레 13:15]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레 13:16]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레 13:17]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

레위기 13장 12-17절은 여호와께서 온몸에 퍼진 피부병(문둥병)의 증상과 재진단 절차를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극한 부패를 통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절정으로 이끌며,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까지 퍼져 희어지면 정결로, 난육(새 살)이 생기면 부정으로, 다시 희어지면 재정결로 선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온몸 희어짐은 부패의 완전함 속 회복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는 시편 38:3의 "주의 책망으로 인하여 상함을 입었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상함을 입었나이다"처럼, 부정이 외적 증상으로 드러날 때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극한 상처)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제사장의 진단을 초월한 즉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육신을 함부로 더럽히는 행위(문신, 흡사, 환경 오염)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를 소중히 여기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12-13절은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 희어지면 정결 선언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부패의 전환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12]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레 13:13]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문둥병<사라아트>이 머리부터 발까지 퍼져 피부 전체가 희어지면 정결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퍼졌거든<파라스>은 확산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18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게 될 것이요"처럼, 희어짐<라반>이 속죄의 흰 옷을 예표합니다. 진찰할<라아>은 제사장의 중보를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온몸 문둥병은 치명적이었으나, 희어짐은 죽음 직전의 상태로 격리 대신 정결 가능성을 줍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전체 퍼짐·희어짐)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환경 오염이나 흑사로 인한 육신 상처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3장 14-17절은 난육 발생 시 부정과 재희어짐 시 재정결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재생의 증상 속에서 철저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3:14]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레 13:15]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
병이며

[레 13:16]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
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레 13:17]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
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난육<사르>(새로운 살)이 생기면 부정으로, 희어지면 제사
장에게 가 재정결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발생하면<아차츠>은 재생을 상징합니다. 야고
보서 1:15의 "마음에 있는 정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느니라"처럼, 재생
의 희어짐<라반>이 속죄의 완성을 예표합니다.
진단할<다카스>은 제사장의 권위를 강조합니
다. 고대에서 난육은 문둥병의 무감각 재발을 의
미했습니다. 희어짐 재발은 치유의 신호로 재진
찰을 줍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재생·재
희어짐)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날 마약이나 문신으로 인한 육신 상처 재발은 이 문둥병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23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전인적 정결을 무시합니다.

[레 13:18]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레 13:19]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레 13:20]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레위기 13장 18-20절은 여호와께서 종기 치유 후 재발 증상(흰 점·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의 진단을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상처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확장하며, 치유된 종기 자리에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의 검사와 부정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종기 후

재발은 죄의 잠재적 누룩을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작은 상처)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제사장의 진단을 초월한 즉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상처(문신, 흡사, 환경 오염)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를 소중히 여기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18-20절은 종기 치유 후 색점 재발의 진단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작은 상처의 재발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18]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레 13:19]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레 13:20]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치유된 종기 <사친> 자리에 흰 점<바헛>이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미하르>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 얇음<라출>과 희어짐<라반>으로 부정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진찰하여<라아>은 제사장의 세밀한 중보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6의 "너 희가 알지 못하느냐 조금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냐"처럼, 작은 상처의 재발이 전체 육신을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기 치유 후 재발은 전염 위험을 높였습니다. 제사장 보임은 위생적 보호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육신(작은 재발·부정)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마약 같은 작은 상처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 13:21]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얹으면 제사장은 그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레 13:22]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 아니라

[레 13:23]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레위기 13장 21-23절은 여호와께서 종기 후 색점의 재진단과 격리 절차를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재발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확장하며, 색점의 퍼짐 여부와 빛 얹음을 검사하여 제사장의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작은 색점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죄의 누룩처럼 퍼질 수 있는 틈을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

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삶(육신·작은 재발)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작은 틈의 부정을 초월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문신, 흡사, 환경 오염)를 조기 처리하여 마귀의 틈을 막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21절은 색점의 초기 검사와 7일 구금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세밀한 관찰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21]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다면 제사장은 그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흰 털 없고
얇지 않으며 빛 얇은 색점<바햇>을 7일 구금<카
넷>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보기에<마오르>은 제
사장의 시각적 중보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6의 "조금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냐"
처럼, 작은 색점이 전체 육신을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종기 후 색점은
전염 위험을 높였습니다. 7일 구금은 회개의 시
간을 줍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초기 색
점·구금)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
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
이나 혹사 같은 작은 상처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3장 22-23절은 7일 후 재검사와 퍼짐
여부 선언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재발 확산을 즉시 격리하는 철저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3:22]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
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
이니라

[레 13:23]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7일 후 색점이 크게 퍼지면 부정, 여전하면 정결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퍼졌으면<파라스>은 확산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4:27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처럼, 작은 색점이 마귀의 틈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대에서 종기 흔적<자카르>은 감염 재발을 초래했습니다. 제사장 진단은 조기 보호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퍼짐·여전함)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환경 오염이나 혹사로 인한 작은 상처를 조기 처리합니다.

[레 13:24] 피부를 불에 데었는데 그 덴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레 13:25]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레위기 13장 24-25절은 여호와께서 화상 후 색점의 진단 절차를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소한 상처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구체화하며, 화상<케비르> 후 불그스름·희거나 흰 색점<바헛>을 검사하여 제사장의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화상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닌, 마귀가 틈을 타 큰 부패로 번지는 위험을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작은 상처)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

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
짐은 제사장의 진단을 초월한 즉각적 정결을 상
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문신,
혹사, 환경 오염)를 조기 처리하여 마귀의 틈을
막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24-25절은 화상 후 색점의 초기 진
단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
이 사소한 상처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화상<케비르
> 후 불그스름·희거나 흰 색점<바햇>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희어짐<라반>과 우묵함<샤
파프>으로 부정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진
찰할<라아>은 제사장의 세밀한 중보를 상징합
니다. 에베소서 4:27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
게 하라"처럼, 하찮은 화상 틈이 마귀의 공격으
로 문둥병<사라아트>처럼 번질 수 있음을 경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상 후 색점은 감염
재발을 초래했습니다. 제사장 보임은 조기 보호
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화상 상처·우
묵함)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혹사 같은 작은 상처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
니다.

[레 13:26]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
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칠 일동안 금고할 것
이며

[레 13:27] 칠 일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
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레 13:28]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
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
이니라

레위기 13장 26-28절은 여호와께서 화상 후 색
점의 재진단과 격리 절차를 제사장에게 명하시
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작
은 흔적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
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
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지속하며, 색

점의 변화(퍼짐 여부, 빛 얇음)를 7일 후 재검사하여 제사장의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화상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닌, 잠재적 재발의 틈을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삶(육신·작은 흔적)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제사장의 재진단을 초월한 즉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문신, 흡사, 환경 오염)를 조기 처리하여 마귀의 틈을 막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26-28절은 화상 후 색점의 7일 재진단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지속적 검사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흰 털 없고
얇지 않으며 빛 엷은 색점<바헛>을 7일 구금<
카넛> 후 재진찰하여 퍼지면 부정, 여전하면 정
결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진찰할<라아>
은 제사장의 세밀한 중보를 상징합니다. 에베소
서 4:27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처럼,
작은 색점이 마귀의 틈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
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화상 후 색점은 감
염 재발을 초래했습니다. 7일 구금은 회개의 시
간을 줍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작은 혼
적·재진단)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
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
신이나 혹사 같은 작은 상처를 넘어 창조의 순결
을 지킵니다.

[레 13:29] 남자나 여자의 머리어나 수염에 환처
가 있으면

[레 13:30]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
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 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레위기 13장 29-30절은 여호와께서 머리카 수염의 환처(반점) 진단을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부패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확장하며, 환처의 우묵함과 누런 털을 검사하여 제사장의 부정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머리·수염 환처는 단순한 증상이 아닌, 죄의 뿌리 깊은 침투를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 <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작은 부패)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제사장의 진단을 초월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부패(문신, 흡사, 환경 오염)를 조기 분별하여 격리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머리카락 수염 환처<네체크>가 우묵함<사파프>과 누런 가는 털<사르>로 옴<네체크> 같은 문둥병<사라아트>으로 부정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진찰할<라아>은 제사장의 세밀한 중보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0:11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모든 규례를 가르치라"처럼, 영적으로는 작은 부패가 뿌리 깊게 침투한 죄를 분별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누런 털은 세균 감염으로 털 빠짐(백선병)을 의미했습니다. 의학 발달 부족으로 전염 우려가 컸습니다. 진 밖 격리는 공동체 보호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머리·수염 상처·누런 털)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흡사 같은 작은 부패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 13:31]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레 13:32] 칠 일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레 13:33]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레 13:34] 칠 일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레 13:35]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레 13:36]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레 13:37]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 지니라

레위기 13장 31-37절은 여호와께서 옴(머리수염 피부병) 환자의 재진단과 격리 절차를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작은 변화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구체화하며, 환처의 우묵함, 누런 털 변화, 퍼짐 여부를 두 번의 7일 검사와 모발 깎기로 확인하여 제사장의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옴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죄의 뿌리 깊은 침투를 상징합니다. 원어 옴 <네체크>은 '두드러짐'으로, 문둥병<사라아트>과 연계되어 털 빠짐(백선병)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는 시편 38:3의 "주의 책망으로 인하여 상함을 입었나이다"처럼, 부정이 외적 변화로 드러날 때 회개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작은 변화)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

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제사장의 재진단을 초월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변화(문신, 흡사, 환경 오염)를 지속 분별하여 마귀의 틈을 막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31-32절은 옴 환처의 초기 우묵함과 누런 털 검사 및 7일 구금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털 변화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31]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레 13:32] 칠 일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옴<네체크> 환처가 우묵하지 않고 검은 털<사르>이 없으면 7일 구금<카넛> 후 재진찰하여 퍼짐 없고 누런 털<아페프> 없으면 지속 검사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진찰할<라아>은 제사장의 세밀한 중보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4:27의 "마귀로 틴을 타지 못하게 하라"처럼, 작은 환처 변화가 마귀의 틴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누런 털은 세균 감염으로 털 빠짐(백선병)을 의미했습니다. 7일 구금은 회개의 시간을 줍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옴 환처·누런 털)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혹사 같은 작은 변화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3장 33-34절은 모발 깎기와 두 번째 7일 구금 후 재검사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변화의 지속적 관찰 속 철저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3:33]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칠 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레 13:34] 칠 일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환처 주변 모발<세아르>을 밀되 환처는 남기고 두 번째 7일 구금 후 퍼짐 없고 우묵하지 않으면 정결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밀되<갈라치>는 변화 관찰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5:8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처럼, 작은 옴 변화가 마귀의 공격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대에서 모발 깎기는 위생적 검사입니다. 옷 빨기<카비스>는 정결 의식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모발 변화재구금)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환경 오염이나 혹사로 인한 작은 변화를 지속 관찰합니다.

레위기 13장 35-37절은 정결 후 재발 시 부정과 검은 털 재생 시 재정결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재발 변화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35]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레 13:36]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레 13:37]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정결 후 옴이 퍼지면 부정, 검은 털<사르> 재생 시 재정결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퍼지면<파라스>은 재발 확산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4:27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처럼, 정결 후 작은 재발이 마귀의 틈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대에서 검은 털 재생은 치유 신호입니다. 제사

장 보임은 재정결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재발·검은 털)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혹사 같은 재발을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 13:38]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레 13:39]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히 있으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레위기 13장 38-39절은 여호와께서 피부의 흰 색점(어루러기)의 진단을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소한 피부 변화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완화하며, 부유히 있는 색점<바헛>을 검사하여 제사장의 정결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흰 색점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무해한 변화 속 구별의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다. 원어 어루러기<바헛>은 '부유히스름한 반점'으로, 문둥병<사라아트>과 달리 가벼운 피부병(주근깨나 무해한 발진)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는 시편 51:7의 "자가금으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흰 눈보다 희어지게 하소서"처럼, 작은 변화가 속죄의 흰 옷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육신·사소한 변화)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육신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소한 피부 변화처럼 작은 문제(문신, 흡사, 환경 오염)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를 소중히 여기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38절은 남녀 피부의 흰 색점 발생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사소한 변화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38]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남녀 피부<오르>에 흰 색점<바햇>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가라는 뜻입니다. 원어 색점<바햇>은 부유스름한 반점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6의 "조금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냐"처럼, 사소한 변화가 퍼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흰 색점은 무해한 발진(주근깨나 백선 초기)으로, 털 변화 없이 가버렸습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성별 무관 색점·사소함)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혹사 같은 작은 변화를 넘어 창조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3장 39절은 제사장의 부유스름 색점 검사와 정결 선언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해한 변화 속 온유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3:39]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 진찰 <라아>로 부유스름<파름> 색점이 어루러기<바헛>면 정결<타호르>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부유스름<파름>은 흐릿한 흰색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4:8의 "옷을 빨아 정결케 되리라"처럼, 가벼운 변화가 정결 의식으로 이어집니다. 고대에서 어루러기<바헛>은 무해한 피부병(주근깨나 무해 발진)으로, 털 변화 없이 정결 가능했습니다. NIV의 "harmless rash"나 KJV의 "freckled spot"처럼, 평범한 감염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부유스름 색점·어루러기)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환경 오염이나 혹사로 인한 사소한 변화를 온유히 다룹니다.

[레 13:40]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레 13:41]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레 13:42]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

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함이라

[레 13:43]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레 13:44]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레위기 13장 40-44절은 여호와께서 대머리와 이마 색점의 진단을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굴의 변화 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마무리하며, 자연 대머리는 정결로, 색점 발생 시 문둥병으로 검사하여 제사장의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대머리 색점은 단순한 증상이 아닌, 하나님 형상을 대표하는 얼굴의 부패를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얼굴·형상)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

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형상을 정결케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처럼, 얼굴 변화가 형상의 순결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굴처럼 드러난 부분(습관, 표현)을 넘어 하나님 형상을 지키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40-41절은 자연 대머리의 정결 선언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자연 변화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40]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레 13:41]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머리털<레아스> 빠짐(대머리<갈루트>)이나 앞머리 빠짐(이마 대머리<기베레치>)이 자연적이면 정결<타호

르>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빠지면<말레드>은 유전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3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머리는 하나님이시라"처럼, 머리 변화가 형상의 순결을 유지함을 가르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머리는 나이 듦의 자연 현상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자연 변화대머리)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혹사 같은 인위적 변화를 넘어 형상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3장 42-44절은 대머리 색점 발생 시 부정 선언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형상 부패 속 철저한 분별임을 보여줍니다.

[레 13:42]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함이라

[레 13:43]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레 13:44]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 색점<바햇>이 생기면 제사장 진찰<라아>로 문둥병<사라아트> 부정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돋은 색점<바햇>은 형상 부패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3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처럼, 이마(얼굴) 변화가 하나님 대표 형상을 더럽힘을 경고합니다. 고대에서 색점은 전염 우려로 격리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육신(대머리 색점·형상)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표현이나 습관의 작은 변화가 형상을 훼손하지 않게 합니다.

[레 13:45]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 13:46]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레위기 13장 45-46절은 여호와께서 문둥병자로 판정된 자의 외적 표현과 격리 생활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의 현실을 고백하며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마무리하며, 옷 찢음, 머리 풀음, 입술 가림, 외침, 진 밖 격리를 통해 부정의 고립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문둥병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죄의 상징으로 - 애통과 부끄러움의 표현이 죽음 같은 고립을 드러냅니다. 원어 부정<타메>은 영적 분리를 상징하며, 레위기 14:34의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을 알게 하리라"처럼, 죄의 저주가 육신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부정 고백, 격리)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를 공동체로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3의 "예

수께서 손을 펴서 그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라 깨끗이 되라 하시니 곧 그 나병이 낫더라”처럼, 예수님의 손 만짐은 격리의 고립을 초월한 포용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부정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은 문둥병자의 외적 표현(옷 찢음·머리 풀음·입술 가림·외침)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부정 고백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45]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문둥병<사라아트> 환자가 옷 찢음<카라>, 머리 풀음<파라>, 입술 가림<카베스>, 외침<카라오>으로 부정<타메>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외치기 <카라오>은 부끄러운 고백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0:11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모든 규례

를 가르치라”처럼, 영적으로는 죄의 부정을 드러내 회개의 문을 엽니다. 고대 근동에서 옷 찢음과 머리 풀음은 애통 표현으로, 죽음 같은 격리를 상징합니다. 입술 가림은 하나님·사람 앞 부끄러움을 밝힙니다. “부정하다<타메>” 외침은 전염 방지이자 고립 경고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외적 고백·애통)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문신이나 혹사 같은 부정을 넘어 형상의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은 문둥병자의 진 밖 격리 생활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부정 고립 속 거룩한 분리를 보여줍니다.

[레 13:46]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병 있는 날 동안 부정<타메> 상태로 진 밖<마하네> 혼자 살 <야샤브>라는 뜻입니다. 원어 진 밖에<마하네>은 고립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8:27의 “여호와

께서 애굽 사람의 문둥병으로 너희를 치시리라”
처럼, 영적으로는 죄의 분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를 막는 고립을 가르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문둥병 격리는 가족공동체 단절로, 죽음과 같았
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사랑으
로 치료하십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격리
고립)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환경 오염이나 혹사로 인한 작은 고립을 넘어 공
동체 순결을 지킵니다.

[레 13:47]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레 13:48] 베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족에
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에 있되

[레 13:49] 그 의복에나 가족에나 그 날에나 씨
에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
일 것이요

[레 13:50]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칠 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레 13:51] 칠 일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
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족에나 가족으

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레 13:52]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레 13:53]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레 13:54]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하고 또 칠 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레 13:55] 그 빨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레 13:56] 빨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얹으면 그 의복에서나 거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레 13:57]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레 13:58] 네가 빨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레 13:59]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레위기 13장 47-59절은 여호와께서 의복·가족의 문둥병(곰팡이 부패) 진단과 처리 규례를 제사장에게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물건조차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피부병 분별을 확장하며, 푸르거나 붉은 색점<네가>의 발생, 퍼짐, 엷어짐을 7일 관찰과 세척·불태움으로 검사하여 제사장의 선언을 요구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의복 부패는 단순한 곰팡이가 아닌, 죄의 누룩처럼 퍼지는 오염을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음'으로, 죄의 저주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일상 물건·부패)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이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숨겨진 많은 일상(옷·가구 오염)을 넘어 하나님의 순결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3장 47-50절은 의복·가족 색점 발생과 7일 관찰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일상 물건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47]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
옷에나 베옷에나

[레 13:48] 베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되

[레 13:49]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
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
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레 13:50]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칠
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털옷<세르>·베옷<페티스>, 날<세르>·씨<아로그>, 가죽<오르>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네가>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여 7일 관찰<사마르>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색점<네가>은 곰팡이 부패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6의 "조금의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냐"처럼, 습기 많은 일상 물건의 작은 색점이 전체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곰팡이는 전염성 부패로, 털·베·가죽에 흔했습니다. 7일 간직은 확산 확인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의복·가죽)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습기 오염을 넘어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3장 51-55절은 퍼짐 시 불태움과 세척 재관찰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부패 확산 속 철저한 제거를 보여줍니다.

[레 13:51] 칠 일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

것이 부정하니

[레 13:52]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베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레 13:53]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족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레 13:54]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하고 또 칠 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레 13:55] 뻥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치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7일 후 색점이 퍼지면 악성<마드> 문둥병<사라아트>으로 불태움<사라프>, 퍼지지 않으면 세척<카비스> 후 재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퍼졌으면<파라스>은 확산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4:8의 "옷을 빨아 정결케 되리라"처럼, 세척이 정결 의식입니다. 고대에서 곰팡이 퍼짐은 가정 전체 오염을 초래했

습니다. 불태움은 예방적 제거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퍼짐·세척)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습기 곰팡이처럼 작은 오염을 조기 제거합니다.

레위기 13장 56-59절은 얹어짐 시 찢음과 재세척 정결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변화 관찰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3:56] 뽕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얹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레 13:57]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레 13:58] 네가 뽕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레 13:59]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세척 후 색점이 얇으면 찢음<크라아>, 여전하면 불태움, 벗어지면 재세척으로 정결<타호르>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얇으면<다카스>은 변화 관찰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4:9의 "옷을 빨아 정결케 되리라"처럼, 재세척이 완성입니다. 고대에서 복발<샤부>은 재감염입니다. 규례<토라>는 일상 분별 지침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일상(찢음·재세척)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습기 오염을 넘어 순결을 지킵니다.

레위기 14장 =====

[레 1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4:2]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레 14:3]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레 14:4]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 오게 하고

레위기 14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문둥병(피부병) 환자의 정결 의식과 제사장의 역할을 명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의 고립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통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격리 명령을 이어가며, 제사장의 진 밖 진찰과 산새·백향목·홍색실·우슬초를 사용한 의식을 통해 환자의 재입성을 가능케 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

적 순결을 지킵니다. 정결<타호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닌, 부정<타메>의 고백 후 하나님과의 재회복을 상징합니다. 원어 정결케 되는<타호르>은 '순결 상태'로, 레위기 13:46의 "진 밖에 살지니라" 고립을 넘어 은혜의 재입성을 가르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회복의식)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를 공동체로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고립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재입성을 소망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4장 1-2절은 문둥병자의 정결 날 규례와 제사장 데려감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회복 의식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4:2]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

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문둥병<사라아트> 환자의 정결<타호르> 날에 제사장<코헨>에게 데려가라는 뜻입니다. 원어 데려갈<아바오>은 중보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3:46의 "진 밖에 살지니라" 고립을 넘어, 레위기 14:8의 "옷을 빨아 정결케 되리라" 재입성을 가르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환자는 진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제사장 데려감은 공동체 재통합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정결 날·데려감)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고립된 자를 인도합니다.

레위기 14장 3-4절은 제사장의 진 밖 진찰과 정결 물품 준비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회복의 희망 속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레 14:3]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레 14:4]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제사장이 진
밖<마하네>으로 나가 환처<네체크>를 진찰<라
아>하여 나음<나파> 확인 후 산 새<오프 타호르
>두 마리, 백향목<에츠 세메르>, 홍색실<토라 토
라>, 우슬초<에즈오브>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진찰할<라아>은 중보적 희망을 상징합니
다. 레위기 14:7의 "그 새를 살아 있는 물 위에 한
번 뿌리며"처럼, 물 위 의식은 정결의 시작입니다.
고대에서 새는 자유, 백향목·우슬초는 정화 도구
입니다. 홍색실은 피의 상징으로 속죄를 예표합
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진 밖 진찰·물품)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고립된
자의 회복을 세심히 돕습니다.

문둥병자란?

레위기 13장은 피부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부병이 걸렸을 때 제사장에게 그 피부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부병을 죄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 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병으로 육신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더럽힌 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 13:2]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यो”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 졌으면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부가 우묵해졌다는 것은 피부가 움푹파여 속으로 꺼져 들어간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털은 희나 피부가 우묵하지 않을 경우엔 그 사람을 7일간 구금시켰습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 사람의 피부를 살펴 보도록 하였습니다.

“[레 13:3]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희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의 피부에 병색이 퍼지지 않으면 다시 7일을 구금시켜서 피부에 병색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조사합니다. 그렇게 조사했을 때에도 더 이상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을 경우엔 그 사람은 정결하다란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색이 피부에 퍼졌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고 문둥병자로 취급 받았습니다.

“[레 13:5] 칠 일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칠 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신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걸린 사람은 철저하게 사람들과부터 격리시켰습니다. 문둥병자의 경우엔 진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철저하게 육신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강한 형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
님을 더럽히는 죄와 같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의 삶

“[레 13:45]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
다 할 것이요 [레 13:46]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
에 살지니라.”

이 부분은 문둥병자로 판명된 자들이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문둥병
자로 판명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
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
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동은 고대 근동 지역
에서 슬픔과 애痛的 표현이었습니다. 문둥병자
는 가족으로부터 떠나 진 밖에 격리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과 다를바 없었기때
문에 마치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취하는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윗 입술을 가리우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을 내 놓을 수 없는 지극히 부끄러운 존재

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타메! 타메!)"라는 말을 외침으로써 문둥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혼자진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정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더럽고 추악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는 다른 질병처럼 질병을 가진 환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기때문에 철저하게 문둥병자를 진 밖에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문둥병자들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를 사랑하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회복

"[레 14:4]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레 14:5]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

고 [레 14:6] 다른 새는 산 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레 14:7]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하나님은 문둥병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진 밖에 나가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레 13:46]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하지만 문둥병자의 병이 완쾌되어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진 밖으로 나가 문둥병자를 만나고 문둥병자의 환처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만일 문둥병자의 환처가 깨끗히 정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정결의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의식은 흐르는 물에서 가졌습니다. 문둥병자는 산 새 두 마리를 준비해야 했으며 그것과 함께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백향목’은 웅장하고 수려한 자태를 지닌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백향목은 만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향목은 뿌리가 땅 속 깊이 내려서

오랜 기간 동안 자라는 나무로써 영원한 생명과 성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홍색 실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색실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왕이신 하나님과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식물 중 가장 작은 것입니다. 출애굽 하기 전에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도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출 12:22]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솔로몬은 "[왕상 4:33]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고 말하면서 백향목과 우슬초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향목과 우슬초는 세상의 모든 식물을 상징하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

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집행할 때에 반드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세가지는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레 14:5]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레 14:6] 다른 새는 산 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레 14:7]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레 14:8]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칠 일을 거할 것이요

[레 14:9] 칠 일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레위기 14장 5-9절은 여호와께서 문둥병(피부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세부적으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의 고립 속에서도 은혜의 의식을 통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격리 명령을 이어가며, 흐르는 물 위 새 잡음, 피 뿌림, 새 놓음, 옷 빨기·털 밀기·몸 씻음, 7일 장막 밖 거함으로 재입성을 가능케 합니다. 공동체의 위생과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의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죽음 같은 고립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원어 정결<타호르>은 '순결 상태'로, 부정<타메>의 고백 후 하나님과의 재교제를 가르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회복·의식)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를 하나님 품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시편 51:7의 "자가금으로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며... 흰 눈보다 희어지게 하소서"처럼, 피 뿌림은 속죄의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립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교제의 기쁨을 소망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4장 5-7절은 새 잡음피 뿌림새 놓음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회복의 상징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4:5]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레 14:6] 다른 새는 산 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레 14:7]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새 하나를 흐르는 물<마암 하야> 위 질그릇<헤레스>에서 잡아 피를 우슬초<에즈오브>에 찍어 일곱 번 뿌리고, 다른 산 새<오프 타호르>를 들에 놓으라는 뜻입니다. 원어 일곱 번<세바>은 완전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4:7의 피 뿌림처럼, 죽은 새 피가 부정을, 산 새 자유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흐르는 물은 정화의 원천입니다. 백향목<에츠 세메르>·홍색실<토라 토라>은 속죄 도구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피 뿌림·새 놓음)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고립된 자를 재입성으로 인도합니다.

레위기 14장 8-9절은 옷 빨기·털 밀기·몸 씻음과 7일 장막 밖 거함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재입성의 단계적 정결을 보여줍니다.

[레 14:8]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칠 일을 거할 것이요

[레 14:9] 칠 일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옷 빨기<카

비스>, 털 밀기<갈라치>, 몸 씻음<라차츠> 후 진
<마하네> 입성하되 장막 밖 7일 거함, 재밀기.빨
기.씻음으로 완전 정결<타호르>하라는 뜻입니
다. 원어 칠 일<세바>은 안식의 완성을 상징합니
다. 레위기 14:8의 단계적 정결처럼, 영적으로는
로마서 12:1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처
럼, 부정에서 재입성의 기쁨을 예표합니다. 고대
에서 7일 장막 밖은 공동체 재적응입니다. 지도
자일수록 백성의 삶(재입성·7일 거함)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고립 후 가족
품 회복의 기쁨처럼, 하나님 교제의 감격을 상기
합니다.

[레 14:10] 제팔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
과 일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
루에바십분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
을 취할 것이요

[레 14:11]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레 14:12]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
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레 14:13]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위기 14장 10-13절은 여호와께서 문둥병(피부병) 환자의 두 번째 정결 제사(속건제·속죄제·번제)를 성막에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립의 아픔 속에서도 속죄의 은혜를 통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4장의 첫 의식을 이어가며, 제8일에 흠없는 수양 둘, 암양 하나, 소제물(에바 1/3 기름 섞음), 기름 한 록을 준비하여 제사장의 중보 속 공동체 재입성을 가능케 합니다. 에바(약 23리터 고체 단위), 록(약 0.32리터 액체 단위)은 풍성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속건제<아심>는 공동체 피해 속죄, 속죄제<하딧>는 하나님 앞 죄 용서, 번제<올라>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문둥병자의 재정적 부담에도 정결의 가치가 더 크다는 교훈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속죄·헌

신)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 죄가 문둥병의 부정을 넘어 믿는 자를 하나님 품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고립 후 재입성의 기쁨 속 하나님 교제를 소망하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4장 10-11절은 제8일 준비물과 제사장 앞 나아감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풍성한 헌신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4:10] 제팔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일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에바십분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룩을 취할 것이요

[레 14:11]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제8일에 흠없는 수양<케벱> 둘, 암양<케벱> 하나, 소제물<민

하>(에바 1/3 기름 섞음), 기름<세멘> 한 록을 준비하여 제사장 앞 회막문<페타치 오헬 모에드>에 두라는 뜻입니다. 원어 취할<라카치>은 풍성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4의 "손을 제물의 머리에 얹으리니"처럼, 준비물은 속죄의 시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자의 재정 부담은 컸으나, 정결의 가치가 더 큼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제8일 준비나아감)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고립 후 헌신을 인도합니다.

레위기 14장 12-13절은 속건제 드림과 희생 장소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속죄와 헌신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레 14:12]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며 요제를 삼고

[레 14:13]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수양 하나와 기름 록을 속건제<아심>로 흔들어 요제<테누파> 삼아 거룩한 장소<마코데쉬>에서 잡고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뜻입니다. 원어 속건<코퍼>은 공동체·하나님 속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22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처럼, 희생 피가 문둥병자의 피해와 죄를 용서합니다. 고대에서 속건제는 공동체 재입성입니다. 지극히 거룩한<코데쉬 코다심>은 헌신의 완성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속건제·희생)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재정 부담 속 정결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고체용량 측정 단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고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에는 호멜(Homer), 에바(Ephah), 스아(Seah), 오멜(Omer), 갑(Cab)이 있었습니다.

호멜(Homer)

호멜은 이스라엘 고체용량 측정 단위 중에서 최대 단위입니다. 대략적인 용량은 230리터입니다. '호멜'이라는 뜻은 '당나귀'를 뜻하는데 이는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쌀 한 가마는 80kg인데 이를 리터로 환산을 하면 대략 180리터가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호멜은 대략 쌀 한가마 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바(Ephah)

에바는 가루나 보리, 곡식 등의 양을 재는 단위로 약 22리터에 해당 됩니다.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인데 이는 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말합니다. 한 에바는 호멜의 1/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에바'는 고체용량 측정 단위이지만 액체용량 측정 단위 인 '밧'과 같은 용량에 해당됩니다. 거의 22리터 정도에 해당됩니다.

스아(Seah)

가루나 곡식을 측량할 때 사용되는 단위로 대략 7.3리터에 해당됩니다(쌀 4되에 해당됩니다).

보통 팬케이크는 대략 밀가루 0.3리터 정도가 소요됩니다. 1 스아로는 대략 25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오멜(Omer)

오멜은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으로 보통 성인의 하루 먹을 양식을 의합니다. '에바'의 10분이 1에 해당되는 양이며 보통 2.2리터 정도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보통 성인의 하루 양이 되는 것입니다.

갹(Cab)

'갹'은 고체측량 단위로 1.2리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쌀 반되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액체 용량 측정 단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액체의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에는 록(Log), 힌(Hin), 밧(Bath), 그리고

통(Firkin)이 있었습니다.

록(Log)

록은 액체의 용량을 재는 최소 단위로서 대략 0.3리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록’을 기름의 양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 14:10] 제 팔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일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레 14:11]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레 14:12]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레위기 14장은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 소개된 장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문둥병은 7일간 장막 밖에 거하다가 8일째 제사장에게 나아가 정결의식을 다시금 받았는데 그때 피를 바른 곳에 기름도 함께 발랐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사용한 기름은 문둥환자가 가져온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 문둥병자가 가져온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자신의 왼손 바닥에 바른 후에 손가락으로 기름을 찍어 하나님 앞에 일곱번 뿌렸습니다(레 14:15-16).

그런 다음 남은 기름을 문둥병자에게 발랐는데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각각 발
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을 문둥병자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힌(Hin)

힌은 약 3.6리터쯤 되는 양입니다. 성경에는 기
름의 양을 잴 때(출 30:24, 겔 46:14)나 포도주
양을 잴 때(출 29:40, 레 23:13) '힌'을 사용했습
니다. 그리고 물의 양을 잴 때(겔 4:11)에도 사용
했습니다.

밧(Bath)

밧은 약 22리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포도주의
양을 잴 때나 기름의 양을 잴 때에 사용되었습
니다(왕상 7:26, 스 7:22).

통(Firkin)

이것 역시 액체의 용량을 재는 단위로 사용되었
으며 약 38리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집에 있는 항아리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놓여

저 있었던 집안의 항아리를 말합니다. “[요 2:6]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요 2: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레 14:14]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 14:15]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레 14:16]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레 14:17]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레 14:18]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레 14:19]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레 14:20]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 14장 14-20절은 여호와께서 문둥병(피부병) 환자의 파·기름 바름과 속죄·번제 의식을 성막에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의 고립 속에서도 속죄의 은혜를 통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완전한 구별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4장의 첫 의식을 이어가며, 속건제 피와 기름을 우편 귓부리·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속죄제·번제를 통해 공동체·하나님 앞 속죄를 완성합니다. 피는 주님 보혈의 속죄, 기름은 성령 기름부음의 충만을 상징합니다. 이는 문둥병자의 형상(창 1:27)을 재정결하며, 제사장 위임식(레 8:23-24)처럼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속죄·헌신)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문둥병의 부정 을 넘어 믿는 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은 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권면 입니다.

레위기 14장 14-18절은 속건제 파·기름 바름과 머리 부음 의식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분별이 형상 재정결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4:14]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 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 14:15]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 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레 14:16]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레 14:17]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

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레 14:18]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속건제<아심> 피를 우편 귓부리·엄지가락·발가락에 바르고, 기름<세멘> 한 록을 좌손바닥에 따르고 우손가락으로 일곱 번 뿌린 후 피 위에 바르고 머리에 부으라는 뜻입니다. 원어 바를<나타치>은 형상 재정결을 상징합니다. 우편 귓부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신 6:4, "듣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엄지가락은 하나님 일 함(출 31:3,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발가락은 하나님 동행(마 28:20,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을 의미합니다. 피는 보혈 속죄, 기름은 성령 충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위임식(레 8:23-24, "모세가...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처럼 동일 의식이나, 문둥병자에게 기름 세 군데 바름+머리 부음(남은 기름<세비트> 머리에<레 14:18>)은 하나님의 세심

한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9:21의 "피와 관유를... 뿌리라"처럼 제사장에게는 옷 뿌림이지만, 문둥 병자에게는 직접 바름으로 더 깊은 회복을 줍니다. 고대에서 이 의식은 문둥병자의 재정 부담에도 정결의 가치가 크다는 교훈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파·기름 바름·형상)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작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레위기 14장 19-20절은 속죄제와 번제 드림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속죄 완성 속 헌신을 보여줍니다.

[레 14:19]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레 14:20]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속죄제<하딧

>로 부정<타메> 속죄 후 번제<올라>와 소제<민하>를 단에 드려 완전 정결<타호르> 선언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속죄<코퍼>는 용서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22의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처럼, 속죄제는 문둥병자의 더러움(공동체·하나님 앞 죄)을 용서합니다. 번제는 새 삶의 헌신입니다. 고대에서 이 제사는 재입성의 절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속죄제·번제)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작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레 14:21]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여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레 14:22]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레 14:23] 제팔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 14장 21-23절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문둥병(피부병) 환자를 위해 제물을 줄여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전에 많은 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14:10, 양 세 마리와 곡물 제물 많이, 기름 많이). 하지만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제물을 적게 줄여줍니다. 수양 한 마리, 곡물 제물 조금, 비둘기 두 마리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픈 사람이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제물은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속죄 제물은 죄 용서로, 아픈 상태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줍니다. 가족 리더나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들은 이런 공평함을 따라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세상의 나쁜 것(죄나 더러움)에서 멀어지게 이끌어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가 돈이나 나이 상관없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

나눔께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레위기 14장 21-22절은 가난한 사람의 제물 준비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공평하게 넓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 14:21]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여 자기를 속할 속죄 제물을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레 14:22]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힘들면 제물을 줄여도 된다고 하십니다. 수양 한 마리, 곡물 제물 조금(에바 1/10에 기름 섞음), 기름 한 록, 비둘기 두 마리(속죄 제물 하나, 번제 하나)로 충분합니다. 취하되<라카치>는 이런 공평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5:7처럼 “양이 없으면 비둘기로 대신하라”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고대에 아픈 환자는 돈이 없어

제사 드리기 힘들었지만, 이 줄인 제물 덕에 누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가족 리더나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세상의 나쁜 것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23절은 제8일 제사장 앞 가져감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동체 복귀를 완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 14:23] 제팔일에 그 정결 제물을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8일에 정결 제물 물건을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가져갈<아바오>은 공동체로의 복귀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4:10의 제8일처럼, 비싼 제물과 싼 제물이 똑같은 은혜를 줍니다. 고대에서 제8일은 새 출발의 날입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복귀를 도와 세상의 나쁜 것에서 지켜야 합니다.

[레 14:24]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

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레 14:25]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 14:26]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레 14:27]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레 14:28]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레 14:29]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레 14:30]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레 14:31]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레 14:32]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4장 24-32절은 하나님께서 문둥병(피부병) 환자의 파·기름 바름과 속죄·번제 제사를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아픈 사람이 고립에서 벗어나 속죄 은혜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4장의 첫 의식을 이어가며, 속죄 제물 피와 기름을 우편 귓부라·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속죄제·번제를 통해 공동체와 하나님 앞 죄를 용서합니다. 피는 예수님 피의 용서, 기름은 성령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는 환자의 몸 깨끗함을 회복하며, 제사장 임명식(레 8:23-24)처럼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죄 용서·헌신) 속 세상 더러움을 분별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가 문둥병 더러움을 넘어 우리를 하나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4장 24-29절은 속죄 제물 파·기름 바름과 머리 부음 의식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몸 깨끗함 회복으로 넓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 14:24] 제사장은 속죄 제물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레 14:25] 속죄 제물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 14:26]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레 14:27]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레 14:28]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죄 제물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레 14:29]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 제물 <아심> 피를 우편 귓부리·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기름<세멘> 한 록을 좌손바닥에 따르고 우손가락으로 일곱 번<세바> 뿌린 후 피 위에 바르고 머리에 부으라는 뜻입니다. 취하여<라카치>는 몸 깨끗함 회복을 상징합니다. 우편 귓부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엄지는 하나님 일 하기, 발가락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의미합니다. 피는 예수님 피의 용서, 기름은 성령의 힘을 나타냅니다. 제사장 임명식(레 8:23-24, "모세가...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처럼 비슷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자에게 기름 세 군데 바름+머리 부음(남은 기름 머리에<레 14:29>)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출애굽기 29:21의 "피와 관유를... 뿌리라"처럼 제사장에게는 옷에 뿌리지만, 문둥병자에게 직접 바름으로 깊은 회복을 줍니다. 고대에서 이 의식은 아픈 사람의 재정 부담에도 깨끗함의 가치가 크다는 교훈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파·기름 바름·몸 회복) 속 세상 더러움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가 작은 죄인으로
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레위기 14장 30-32절은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
번제 드림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용서 완성 속 헌신을 보여줍니다.

[레 14:30]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
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레 14:31]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
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
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
죄할지니

[레 14:32]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
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
람이 비둘기 하나 또는 새끼 하나로 속죄제<하
닷>와 소제<민하>를 번제<올라>와 함께 드리라
는 뜻입니다. 드리되<하카브>은 용서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22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처럼, 속죄제는 아픈 사람의

더러움(공동체·하나님 앞 죄)을 용서합니다. 번제는 새 삶의 헌신입니다. 고대에서 이 제사는 공동체 복귀의 절정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속죄제·번제) 속 세상 더러움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작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문둥병자의 피와 기름

문둥병자의 2단계 정결의식

하나님은 문둥병자에게 또 다시 의식을 행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두번째 의식은 첫번째 의식과는 매우 비교되는 것이었습니다. 첫번째 정결의식은 진 밖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정결의식은 성막에서 행해졌습니다. 첫번째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준비물은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가 전부였지만 두번째 정결의식 때는 매우 엄청난 준비물이 필요했습니다.

"[레 14:4]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

오게 하고 [레 14:5]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레 14:6] 다른 새는 산 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레 14:7]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두번째 정결의식은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속건제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행하는 제사입니다. 문둥병자는 그동안 자신의 더러움으로인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피해를 주었기때문에 그것에 대한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졌습니다. 또한 문둥병자는 자신의 더러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문둥병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기때문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면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레 14:10] 제팔일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둘과 일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문둥병자가 두번째 정결의식을 위해 준비해야만 했던 것은 흠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일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삼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이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준비물은 문둥병자에게는 매우 준비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문둥병자로 살았기때문에 문둥병자에게 그러한 희생제물을 준비할만한 여유금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들도 문둥병자의 공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은 희생제물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매우 힘들게 희생제물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정결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함을 인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누구든지 정결치 못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됨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임한 피와 기름

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취하여 문둥병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발랐습니다. 또한 기름을 취하여 같은 곳에 발랐습니다.

“[레 14:14]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레 14:15]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레 14:16]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레 14:17]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레 14:18]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희생제물의 피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며 기름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문둥병자로 하여금 모든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줍니다. 성령의 기름은 정결해진 문둥병자를 성령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편 귓부리에 피와 기름이 발라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편 손

엄지가락에 피와 기름이 발라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우편 발 엄지가락에 피와 기름이 발라진 것은 세상에 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때에도 똑 같은 의식이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 8:23]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레 8:24]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과 문둥병자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계층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문둥병자에게 똑같은 의식이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와 제사장에게 임한 기름부음의 차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

도록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출 29:20]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출 29:21]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피는 제사장에게도 같은 세 군데 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세 곳에 발라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옷에 뿌려졌습니다. 문둥병자에게 행한 의식과 제사장에게 행한 의식이 약간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 28:41]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라고 기름을 부어 위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포함하여 제사장들에게도 기름

을 부어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름부음은 문둥병자에게도 똑같이 행해졌습니다. 제사장은 세 군데 바르고 남은 기름을 문둥병자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레 14:18]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제사장에게 피를 발랐던 세 곳에다가 기름을 찍어 발랐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둥병자에게 피와 기름을 각각의 세 장소에 바르며 남은 기름은 문둥병자의 머리에 부어 바르도록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둥병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레 14:3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

라사대

[레 14:34]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룬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

[레 14:35]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
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레 14:36]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집물에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레위기 14장 33-36절은 하나님께서 집에 곰팡
이 반점(문둥병 같은 부패)이 생길 때 제사장의
확인과 집 비움 방법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집 같은 일상 공간도 세상의 더러움
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옷 부패를 이어가며,
반점 생기면 제사장에게 말하고 집을 비우게 해
서 오염이 퍼지지 않게 합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마음의 깨끗함을 지킵니다. 집 반점은 단순한 곰
팡이가 아니라, 죄처럼 슬며시 퍼지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받
음'으로, 죄의 나쁜 영향이 집에 미치는 것을 보

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집·작은 더러움) 속 세상 오염을 미리 분별하고 없애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깨끗함이 집 같은 일상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습기 곰팡이처럼 작은 문제를 빨리 처리해서 집을 깨끗하게 하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4장 33-34절은 가나안 땅 집 반점 발생과 제사장 말하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집 안으로 넓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 14:3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4:34]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집에 문둥병 같은 반점<네가>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일러 가라사대<다바르

>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3:47의 "의복에 문둥병 반점이 생기면"처럼, 집 더러움도 공동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고대에 집 곰팡이는 습기로 가족 전체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집(작은 반점. 발하게 하거든) 속 세상 더러움을 미리 분별합니다.

레위기 14장 35-36절은 집주인 말하기와 제사장의 집 비움·확인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러움 퍼짐 막기 속 친절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레 14:35]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말하기를 무슨 반점이 집에 생겼다고 할 것이요

[레 14:36] 제사장은 그 반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 물건에 더러움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말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아가드>로 반점<네가>을 알

리고, 제사장이 보러 가기<아라> 전에 집 비우게 <파라스> 말하여 더러움<타메> 피하게 한 후 확인<라아>하라는 뜻입니다. 비움 전에 말하기는 가족 물건 보호입니다. 레위기 14:8의 "옷을 빨아 깨끗케 되라"처럼, 집 비움은 가족 안전입니다. 고대에서 곰팡이 퍼짐은 집 전체를 망쳤습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집(말하기·비움) 속 세상 더러움을 분별합니다. 오늘날 습기 곰팡이처럼 작은 문제를 빨리 처리합니다.

[레 14:37]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레 14:38]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칠 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레 14:39] 칠 일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레 14:40]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레 14:41]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레 14:42]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레 14:43]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레 14:44]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
는 부정하니

[레 14:45]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재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
이며

[레 14:46]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 14:47]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
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레 14:48]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
어가 살펴 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
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레 14:49]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레 14:50]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
에서 잡고

[레 14:51]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레 14:52]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레 14:53] 그 산새는 성 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
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레 14:54]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
니 곧 옴과

[레 14:55]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레 14:56] 붉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레 14:57]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
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4장 37-57절은 하나님께서 집에 곰팡
이 반점(문둥병 같은 부패)이 생길 때 제사장의
확인 and 깨끗이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부분입
니다. 이 말씀은 "집 같은 일상 공간도 세상의 더
러움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 이 규례는 레위기 13장의 옷 부패를 이어가
며, 반점 생기면 제사장에게 말하고 집을 비우게
해서 오염이 퍼지지 않게 합니다. 공동체의 건강
과 마음의 깨끗함을 지킵니다. 집 반점은 단순한
곰팡이가 아니라, 죄처럼 슬며시 퍼지는 더러움

을 상징합니다. 원어 문둥병<사라아트>은 '타격 받음'으로, 죄의 나쁜 영향이 집에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집·작은 더러움) 속 세상 오염을 미리 분별하고 없애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깨끗함이 집 같은 일상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1:7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처럼, 피 뿌림은 모든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는 습기 곰팡이처럼 작은 문제를 빨리 처리해서 집을 깨끗하게 하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4장 37-40절은 집 벽 반점 확인과 폐쇄·돌 빼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집 안으로 넓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 14:37] 그 반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반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레 14:38]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칠 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레 14:39] 칠 일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반점이 벽에 퍼졌으면

[레 14:40] 그는 말하여 반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더러운 곳에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 벽 반점이 푸르거나 붉고 우묵함이면 제사장이 문으로 나와 폐쇄하고 7일 후 살펴보아 퍼지면 돌을 빼어 더러운 곳에 버리라는 뜻입니다. '볼 때에' <라야>은 세심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22의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피를 문 인방에 뿌리라"처럼, 공간 깨끗함은 가족 보호입니다. 고대에 집 곰팡이는 습기로 가족 전체를 아프게 했습니다. 폐쇄와 돌 빼기는 퍼짐 막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집(벽 반점·폐쇄) 속 세상 더러움을 미리 분별합니다.

레위기 14장 41-45절은 집 굵기·바름과 재발 시 험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러움 없애기 속 친절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레 14:41] 또 집 안 사면을 굵게 하고 그 굵은 흙을 성 밖 더러운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레 14:42]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레 14:43]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반점이 집에 다시 생기면

[레 14:44]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반점이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더
러운 것이니

[레 14:45]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재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더러운 곳으로 내어갈 것
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 사면 긁
기와 흙 쏟음, 새 돌흙 바름 후 다시 생기면 악성
<마드> 문둥병<사라아트>으로 헐기<나타츠>하
라는 뜻입니다. 살펴볼<라야>은 계속된 관심입
니다. 고대에서 재발 반점은 집 전체를 망쳤습니
다. 헐기는 가족 안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집(긁기·헐기) 속 세상 더러움을 분별
합니다. 오늘날 습기 곰팡이처럼 작은 더러움을
빨리 없앱니다.

레위기 14장 46-48절은 집 들어감 부정과 재확

인 깨끗함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접촉 더러움으로 넓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 14:46]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더러울 것이요

[레 14:47]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레 14:48]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반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반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깨끗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폐쇄<사거> 집 들어감은 저녁<에레브>까지 더러움<타메>, 자는 자먹는 자는 옷 빨기<카비스>하라는 뜻입니다. 고쳐 바른<아사르> 후 반점 퍼지지 않으면 깨끗하다<타호르> 선언합니다. 들어가<야보>는 복귀 상징입니다. 고대에서 접촉 더러움은 퍼짐 막기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집(접촉재확인) 속 세상 더러움을 분별합니다.

레위기 14장 49-53절은 새 피 뿌림 깨끗 의식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간 새로움 속 은혜 상징을 보여줍니다.

[레 14:49] 그는 그 집을 깨끗케 하기 위하여 새 두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레 14:50]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레 14:51]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번 뿌릴 것이요

[레 14:52]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깨끗케 하고

[레 14:53] 그 산새는 성 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새 둘,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피와 물을 일곱 번<세바> 뿌리고 산새 놓음<샤라치>으로 집 깨끗<타호르>하라는 뜻입니다. 취하고<라카치>는 새로움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2:22의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피를 뿌리라"처럼, 피 뿌림은 보혈 깨끗

함입니다. 백향목은 하나님 영광영원 생명, 홍색 실은 보혈 연결, 우슬초는 고난받은 작은 자(예수님)를 나타냅니다. 왕상 4:33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처럼, 세상 모든 것을 보혈로 묶습니다. 고대에서 새 피 뿌림은 집 오염 없애기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집(새 피 뿌림·상징) 속 세상 더러움을 분별합니다.

레위기 14장 54-57절은 문둥병 규례 요약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전체 가르침으로 완성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레 14:54]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
니 곧 옴과

[레 14:55]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레 14:56]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레 14:57] 언제는 더럽고 언제는 깨끗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둥병 환처, 옴, 의복·집 부패, 붓는 것, 피부병, 색점의 더러움·깨끗함을 가르치는<아다> 규례<토라>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야다>은 일상 지침입니다. 레위기 10:11의 "모든 규례를 가르치라"처럼, 깨끗 생활을 요약합니다. 고대에서 이 규례는 매일 분별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요약 규례·가르침) 속 세상 더러움을 분별합니다.

레위기 15장 =====

[레 15: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
라사대

[레 15: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
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
여 부정한 자라

[레 15:3]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
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 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
지 부정한즉

레위기 15장 1-3절은 하나님께서 남성의 유출
병(비정상 정액 유출) 더러움 상태를 말씀하시
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의
더러움조차 세상의 나쁜 것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4장
의 문둥병 정결을 이어가며, 유출병의 흐름과 엉
킴을 더러움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과 마음의 깨끗함을 지킵니다. 유출병은 단
순한 병이 아니라, 성적 깨끗함의 위반을 상징합
니다. 유출병은 '흘러나옴'으로, 죄의 나쁜 영향

이 몸에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몸깨끗함) 속 세상 오염을 미리 분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가 몸 더러움을 넘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적 깨끗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더러움 상태로 알리라는 뜻입니다. 일러 가라사대는 세심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말하기는 공동체 경고입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든 지<조브>"는 비정상 흐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어로, 문자적으로 '흐름'이나 '유출'을 의미하지만, 영적 깊이에서 보면 죄의 지속적이고 통제되지 않는 '넘침(overflow)'을 상징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7장의 홍수처럼(물의 넘침이 세상을 오염시킨 것처럼) 죄의 영향이 개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쳐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구체적으로, <조브>는 단순한 물리적 배출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나 영적 불안

정함이 '자동적으로' 새어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상태를 암시하죠. 이는 우리 삶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작은 죄의 습관(예: 은밀한 불순한 생각이나 관계의 균열)이 점차 쌓여 영적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과정을 상기시킵니다. 반대로, 이 흐름의 정결 의식(레위기 15:13)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영원한 세척'(히브리서 10:22)을 예표하며,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로 응답하라는 초대를 줍니다. 즉, <조브>는 죄의 '자유로운 오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얼마나 철저하고 지속적인지 대비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엉겼든지<자브>"는 흐름이 멈추고 뭉친 상태를 의미하는 원어로, '고착되다'나 '쌓이다'의 뉘앙스를 지니며, 이는 유출병이 몸에 쌓여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습관이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영적 차원에서 <자브>는 죄가 '정체(impacted)'된 상태, 즉 외부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 부패하고 굳어진 '영적 변비'나 '무기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에스겔 36:26의 "새 심령을 주시며"

라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내시는 필요성을 강조하죠. <자브>의 불결은 문둥병처럼(레위기 13-14장) 외적 격리를 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죄의 뿌리가 깊이 박힌 채로 영적 성장을 막는 '은밀한 독'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상태조차 제사장 앞에서 감사와 희생(레위기 15:14-15)을 통해 정결되도록 설계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쌓인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유로운 흐름(성령의 열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자브>는 결국, 죄의 고착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해독 과정'을 통해 영적 자유로 인도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민수기 5:2-3의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처럼, 유출병은 문둥병과 같아진 밖 격리입니다. 고대에 유출병은 성적 위반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몸(유출병 더러움-흘러나오든지)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합니다.

[레 15:4]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레 15:5]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6]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7]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8]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9]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레 15:10]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11]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12]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레위기 15장 4-12절은 유출병자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 상태와 그 정결 의식을 상세히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생 지침이 아니라, 더러움의 전염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이전 1-3절의 유출병 정의를 이어, 이제 그 영향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전염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문둥병(레위기 13-14장)처럼 격리와 세척을 통해 전염을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출병자를 '싫어하심'이 아니라, 죄와 오염의 상징인 더러움을 철저히 분리하여 백성의 영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세상의 오염이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침상·자리·접촉) 속 숨겨진 전염을 분별해야 하며, 오늘날 교회와 가정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의식은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완전한 정결'(히브리서 9:14)을 예표하며, 우리를 영원

한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레위기 15장 4절은 유출병자의 휴식과 활동 공간이 부정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러움의 확산을 미리 차단하는 공동체 보호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레 15:4]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이 구절은 유출병자의 일상적 휴식과 활동 공간(상과 자리)이 부정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상"은 휴식의 장소로, "자리"는 일상의 활동을 상징하며, 더러움이 단순히 개인 몸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환경으로 즉시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오염이 우리의 안식과 일상(예: 가정·직장)까지 침투하여 전체 삶을 더럽히는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건들을 '다 부정하니'라고 선언하심은, 공동체가 오염의 뿌리를 미리 끊어내야 한다는 강한 경고입니다.

레위기 15장 5-7절은 침상·자리·몸과의 직접적 접촉에 대한 정결 의식을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일상 행동 속 부정의 보편성을 통해 회복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레 15:5]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6]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7]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직접적 접촉(침상·자리·몸)에 대한 정결 의식을 반복적으로 규정합니다. "접촉하는 자", "앉는 자", "몸에 접촉하는 자"는 무심한 일상 행동과 가까운 관계를 통해 부정이 전염된다는 점을 드러내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은 외적 세척(의식적 정화)을 요구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시간 제한은 부정이 영원하지 않고, 일몰(어둠의 끝) 후 새벽처럼 회복의 희망을

상기시킵니다. 영적으로 이는 죄의 영향이 공간과 관계를 통해 퍼지지만, 회개와 세척(예수님의 피)으로 정결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복 구조는 전염의 보편성과 철저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5장 8절은 침 뱉음으로 인한 부정 전염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의 힘을 통해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레 15:8]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구절은 말의 오염(침을 뱉음)을 통해 부정이 전염된다는 독특한 경우를 다룹니다. "침을 뱉으면"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비방이나 거짓말처럼 '말의 독'이 타인을 더럽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정한 자"는 무고한 피해자를 나타내며, 세척 의식은 말의 상처를 치유하는 회개와 용서를 상기시킵니다. 영적으로 이는 야고보서 3:5-6의 "혀는... 불과 같으니"처럼, 말의 전염성

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라는 교훈입니다.

레위기 15장 9절은 안장 같은 소유물이 부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삶의 여정 속 오염을 보호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레 15:9]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이 구절은 동물과 관련된 소유(안장)를 다루며, 유출병의 오염이 일상 도구(말 타기)로 확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안장"은 이동과 노동을 상징하며, 더러움이 우리의 여정(삶의 길)을 오염시킨다는 영적 의미를 줍니다. "다 부정하며"는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며, 죄가 우리의 활동 영역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드러냅니다.

레위기 15장 10절은 몸 아래 물건의 접촉과 옮김으로 인한 부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의 법이 은밀한 확산을 막는 철저한 대처를 보여줍니다.

[레 15:10] 그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라

이 구절은 간접 전염(몸 아래 닿은 물건과 그 옮김)을 규정하며, 부정의 확산이 사물을 통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닿았던 것에 접촉"은 무해해 보이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 오염이 퍼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옮기는 자"의 추가 세척은 무심한 행동(전달)이 죄를 퍼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영향(물건처럼)이 우리의 삶을 간접적으로 더럽히지만, 의식적 정결로 막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5장 11절은 손 씻지 않은 접촉으로 인한 부정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일상 태도의 변화로 오염을 막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레 15:11]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구절은 무심함의 결과(손 씻지 않음)를 다루며, "아무든지 만지면"은 가장 보편적인 접촉을 통해 부정이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손을 씻지 아니하고"는 방종이나 무관심을 상징하며, 이는 시편 24:4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자"처럼, 일상적 위생이 영적 순결의 기초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척을 요구하심은, 작은 태도 변화로 오염을 막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레위기 15장 12절은 그릇과 기물의 정결 방법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 오염의 깊이에 따른 정결을 통해 새로움을 보여줍니다.

[레 15:12]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이 구절은 소유물의 차별적 처리(질그릇 깨뜨림 vs. 목기 씻음)를 명시하며, 더러움의 철저한 제거를 강조합니다. "질그릇은 깨뜨리고"는 영구적 오염(불가역적 파괴)을 상징하며, "목기는 물로 씻을지니라"는 회복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의 일부(깊이 박힌 습관)는 뿌리째 버려야 하고, 다른 일부(가벼운 오염)는 세척으로 정결케 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이는 우리의 삶 도구(습관·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정결을 추구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 "부정하다<타메>"는 히브리어 원어로, 문자적으로 '오염되다'나 '더럽혀지다'를 의미하지만, 영적 깊이에서 보면 죄의 영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하는 '영적 오염'을 상징합니다. 타메는 레위기 전체에서 100회 이상 등장하며(예: 레위기 11:24), 단순한 신체 불결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파괴(죽음과 분리)를 암시하죠. 이 단어는 출애굽기 19:10의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라"처럼,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타메의 부정 상태(저녁까지 지속)는 '일몰 후

새벽'처럼, 어둠(죄)의 끝과 빛(정결)의 시작을 상기시키며, 우리 삶에서 죄의 오염이 관계(접촉)와 물건(소유)을 통해 은밀히 퍼지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부정은 제사장 검사와 희생으로 해소되도록 설계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타메'를 완전히 소멸시키고(골로새서 2:14),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즉, <타메>는 죄의 '전염적 오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치유적인지 대비되게 합니다.

또한 "접촉하다<나가>"는 히브리어 원어로, '닿다'나 '만지다'를 뜻하지만, 영적 차원에서 '영적·관계적 연결'을 의미하며, 죄의 전염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교류'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가는 창세기 3:3(선악과 '만지지 말라')처럼 금지된 접촉의 위험을 상기시키며, 이사야 6:7(서방의 불로 입 만짐)처럼 정결된 접촉(하나님의 은혜)이 치유를 가져온다는 대조를 줍니다. <나가>의 반복(5-7, 10, 11절)은 무심한 일상 접촉(손·몸·물건)이 부정을 초래하지만, 세척(물로 씻음)을 통해 회복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 오염(부정적 영향유혹)과의 '접촉'을 경계하며, 성령의 불로 정결케 되는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며(마태복음 8:3) '나'를 통해 치유하신 것은, 이 규례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모든 부정을 초월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나가>는 결국, 죄의 연결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치유 접촉'을 통해 영적 자유로 전환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레 15:13] 유출병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칠 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레위기 15장 13절은 유출병이 깨끗해진 자의 정결 과정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의식적 회복을 통해 영적 새로움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유출병이 끝난 후 정결 의식의 첫 단계를 규정하며,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으로

부터 "칠 일 계산"을 시작합니다. "칠 일"은 완전한 정결(창조의 7일처럼)을 상징하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은 외적·내면적 세척을 요구합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의 원천(하나님의 은혜)을 나타내어, 정결이 단순한 시간 경과가 아니라 의식적 준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하면 정하리니"는 하나님의 선언적 약속으로, 유출병(비정상 정액 유출, 종종 성적 위반과 연결된 죄의 상징)이 문둥병처럼 진 밖 격리(민수기 5:2-3)를 초래했으나, 이 과정으로 공동체 복귀를 허락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죄의 습관(하나님의 창조 질서 부정)이 가슴 아픈 형벌(추방)을 가져오지만, 회개와 세척으로 거룩한 임재(진 가운데 거하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 백성의 삶(성적·영적 깨끗함)을 분별하며, 오늘날 가정과 교회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 "계산하다<마나>"는 히브리어 원어로, 문자적으로 '세다'나 '번호 매기다'를 의미하지만, 영적 깊이에서 보면 시간의 '기다림과 준비'를 상징하며, 정결이 즉각적이지 않고 의도

적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마나는 출애굽기 12:2의 유월절 달 세기처럼, 하나님의 구원 시기를 계산하는 행위를 암시하며,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 세기(레위기 1:2)와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칠 일 계산"은 죄의 오염(유출병, 창조 능력 부정)이 문둥병처럼 육신의 거룩함을 훼손한 후(민수기 5:3, 진 밖 추방),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성적·영적 불순(의지와 무관한 '저절로 흘러내림'처럼 은밀한 죄)이 형벌(하나님과의 분리)을 초래하지만, 칠 일처럼 완전한 기간 후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 계산은 희생(다음 절)으로 이어지며, 예수님의 부활(셋째 날 계산)이 우리의 영원한 정결을 이루신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즉, <마나>는 죄의 지속성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완전한 구원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대비되게 합니다.

또한 "정결하다<타호르>"는 히브리어 원어로, '깨끗케 하다'나 '분리하다'를 뜻하지만, 영적 차원에서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함'을 의미하며, 유출병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타호르는

레위기 11:44의 "너희는 거룩하라"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오염(창조 부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나타내며, 이사야 1:16의 "너희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라"와 연결됩니다. <타호르>의 "그리하면 정하리니"는 선언적 확언으로, 문둥병자 추방(하나님의 거룩한 육신 훼손)처럼 유출병도 형벌이지만, 흐르는 물 세척으로 공동체 복귀를 허락합니다. 이는 세상의 성적 위반이 하나님의 창조(생명의 질서)를 부정하나, 그리스도의 피로 '타호르'되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서 "너희가 깨끗하니라"(요한복음 13:10) 하신 말씀처럼, <타호르>는 십자가의 세척이 우리의 모든 오염(유출병 같은 은밀한 죄)을 영원히 정결케 하는 희망을 예표합니다.

[레 15:14] 제팔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레 15:15]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레위기 15장 14-15절은 유출병 정결의 제사 의식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난한 자를 배려한 작은 예물로 창조 질서의 회복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유출병이 깨끗해진 후 8일째(칠 일 계산 후)의 제사 의식을 규정하며,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라는 작은 예물을 "취하고" 제사장에게 가져가 "속죄제로"와 "번제로 드려" 속죄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제팔일"은 새 창조의 시작(창세기 1:1처럼)을 상징하며, 문둥병 정결(레위기 14:10, 양과 밀가루 등 큰 예물)에 비해 훨씬 작은 분량의 예물(비둘기)은 하나님의 배려(가난한 자를 위한 자비, 레위기 5:7)를 드러냅니다. "속죄제"는 유출병(비정상 정액 유출, 성적 위반으로 인한 창조 능력 부정)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회복을 의미하며, "번제"는 전소(하나님께 온전히 바침)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상징합니다. 이는 진 밖 격리(민수기 5:2-3)의 형벌 후 공동체 복귀를 위한 최종 단계로, 영적으로 우리 삶에서 은밀한 죄(의지와 무관한 '저

절로 흘러내림'처럼)가 창조의 부정을 초래하나, 작은 희생으로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의식을 통해 백성의 헌신을 분별하며, 오늘날 교회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 "속죄하다<카파르>"는 히브리어 원어로, 문자적으로 '덮다'나 '속죄하다'를 의미하지만, 영적 깊이에서 보면 죄의 오점을 '피로 덮어 지우는' 행위를 상징하며, 유출병의 창조 부정을 용서하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카파르>는 레위기 16:30의 속죄일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죄를 완전히 덮는 과정을 나타내며, 전 책에서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유출병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는 비둘기 피를 통해 성적·영적 오염(하나님의 생명 창조 부정)이 용서되며, 문둥병 격리처럼 형벌 받은 자가 작은 예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깊은 죄(유출병처럼 은밀한 위반)가 거룩함을 훼손하나, 그리스도의 피가 '카파르'되어 영원한 용서(히브리서 9:22)를 이루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 속죄는 번제 헌신과

쌍으로,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 삶의 시작임을 강조하죠. 즉, <카파르>는 죄의 부담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덮음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회복적인지 대비되게 합니다.

또한 "드리다<칼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올리다'나 '바치다'를 뜻하지만,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의미를 지니며, 번제의 서약을 강조합니다. 칼라는 레위기 1:9의 번제처럼, 제물이 불타오르는 헌신을 상징하며, 시편 51:17의 "부서진 마음"과 연결됩니다. <칼라>의 "하나를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는 비둘기 두 마리의 쌍으로, 속죄(과거 용서)와 헌신(미래 서약)의 균형을 드러내며, 유출병자(가난한 자를 위한 작은 예물)가 문둥병자처럼 큰 희생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의 성적 불순이 헌신을 막으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으로 '칼라'되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서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버리노라"(마태복음 26:26) 하신 말씀처럼, <칼라>는 십자가의 전적 헌신이 우리의 작은 예물을 넘어 영원한 속죄와 헌신을 완성하는 희망을 예표합

니다.

[레 15:16]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17]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 15:18]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15장 16-18절은 하나님께서 정상 설정(정액 방출) 시 몸과 물건의 더러움 규칙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의 자연 흐름조차 세상의 나쁜 것에서 멀리 떨어져 깨끗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5:1-3의 유출병 부정을 이어가며, 설정 후 몸 씻기, 옷 빨기, 저녁까지 더러움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과 마음의 깨끗함을 지킵니다. 설정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쾌락 추구가 하나님 창조(자손 낳음) 목적을 어기는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몸자연 흐름) 속 세상 오염을 미리 분별하고 깨끗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가 몸 더러움을 넘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설정처럼 자연스러운 일도 깨끗함으로 다루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5장 16절은 개인 설정 시 전신 세척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의식적 방출조차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 다루는 자비로운 회복을 보여줍니다.

[레 15:16]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구절은 정상 설정(정액 체외 방출, 무의식적 또는 꿈 중 포함)의 부정 상태를 다루며, "설정한 자"가 "전신을 물로 씻을" 즉각적 세척을 요구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시간 제한은 부정이 영원하지 않고, 일몰 후 새벽처럼 회복의 희망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유출병(비정상)과 구분되지만, 창조 질서(창세기 1:28, 자손 번성)

의 목적을 위배한 쾌락 중심 행위가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영적으로 이는 우리 삶에서 은밀한 욕망(무의식적 '저절로 흘러내림'처럼)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그릇되이 행하나, 세척으로 순결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5장 17절은 설정으로 오염된 옷과 가죽의 세척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오염의 확산을 막는 철저한 정화를 보여줍니다.

[레 15:17]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구절은 설정으로 인한 간접 오염(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을 다루며, "물에 빨" 세척과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를 명시합니다. "무릇"은 모든 사물의 포괄성을 강조하며, 부정이 개인 몸을 넘어 일상 물건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이는 쾌락 중심 성적 행위가 공동체(소유물)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영적으로 우리의 습관(옷처럼 외적 표현)이 욕망의 흔적으로 더럽혀지지만, 세척으로 정결케 될 수 있음을 가르

칩니다. 하나님의 지침은 작은 오염도 무시하지 않는 사랑의 세심함입니다.

레위기 15장 18절은 부부 성관계 후 공동 세척을 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결혼 내 성적 행위조차 창조 목적을 지키는 순결을 강조합니다.

[레 15:18]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구절은 정상 부부 성관계(동침하여 설정)에서의 부정을 다루며,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공동 세척을 요구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이전 구절처럼 일시성을 강조하나, 결혼 안에서도 쾌락이 자손 낳기 목적을 초월하면 오염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성적 친밀함이 하나님의 창조(생명의 은혜)를 위한 것이지, 순전한 쾌락이 아님을 상기시키며, 영적으로 부부 관계가 욕망의 오용으로 변질될 때 공동체 순결을 훼손하나, 세척으로 회복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 "나오다<아차>"는 히브리어 원어로, 문자적으로 '나오다'나 '방출되다'를 의미하지만, 영적 깊이에서 보면 생명의 씨(정액)가 통제되지 않고 '새어나오는' 상태를 상징하며, 창조 질서의 왜곡을 드러냅니다. 아차는 창세기 1:11의 "땅이 풀을 나랴"처럼 창조의 생산성을 나타내지만, 레위기 15:16의 '정액이 나오다'<쉬크밧 제라 예체>에서 쾌락 중심 방출로 변질된 과정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아차의 부정 상태(꿈·자위·성관계)는 자손 낳기 목적(창조 능력)을 초월한 자기 쾌락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오용하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 삶에서 은밀한 욕망이 '아차'처럼 통제되지 않으면 영적 오염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 방출 후 세척(물로 씻음)은 회개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왜곡된 욕망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예표하죠. 즉, <아차>는 쾌락의 '자유로운 왜곡'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은혜가 얼마나 순결하고 목적 지향적인지 대비되게 합니다.

또한 "부정하다<타메>"는 히브리어 원어로, '오염되다'나 '더럽혀지다'를 뜻하지만, 영적 차원

에서 '창조 질서의 분리와 회복'을 의미하며, 설정의 부정을 강조합니다. 타메는 레위기 전체에서 100회 이상 등장하며(예: 레위기 11:24), 단순한 신체 불결이 아니라 생명의 순환(자손 창조)을 방해하는 상태를 암시하죠. <타메>의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6,17,18절 반복)는 어둠(죄)의 끝과 빛(정결)의 시작을 상기시키며, 부부 성관계조차(18절) 부정으로 취급되는 것은 쾌락이 창조 목적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오염을 경고합니다. 이는 세상의 성적 자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나, 시간 제한 세척으로 공동체 복귀를 허락하는 자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서 "너희가 깨끗하니라"(요한복음 15:3) 하신 말씀처럼, <타메>는 십자가의 세척이 우리의 모든 설정 오염을 영원히 정결케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레 15:19]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칠 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 15:20]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레 15:21]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5:22]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5:23]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
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5:24]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
결에 전염되면 칠 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니라

레위기 15장 19-24절은 하나님께서 여성의 월경 시 몸과 물건의 더러움 규칙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자연 순환조차 세상의 오염에서 멀리 떨어져 깨끗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이전 16-18절의 설정 부정을 이어가며, 월경 흐름 후 몸 씻기, 옷 빨기, 접촉자 세척, 저녁 또는 7일까지 더러움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과 마음의 깨끗함을 지킵니다. 월경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손 낳음)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상징하며, 그 흐름이 통제되지 않으면 오염으로 여겨집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삶(몸·생명 순환) 속

세상 오염을 미리 분별하고 깨끗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나라 리더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가 몸 더러움을 넘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월경처럼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도 거룩함으로 다루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은 여성 월경의 기본 부정 기간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생명 순환의 자연 흐름을 통해 구별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레 15:19] 여자가 월경이 되어 몸에 더러운 혈액이 흐르면 그녀는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녀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구절은 여성의 월경 시작 시 "몸에 더러운 혈액이 흐르면" 부정 상태를 명시하며, "이레 동안 부정할 것"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누구든지 그녀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접촉 전염을 강조하며, 월경 혈액은 생명의 씨앗(자손

창조)을 상징하나, 그 흐름이 통제되지 않으면 오염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창조 질서(창세기 1:28, 번성하라)에서 여성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임을 상기시키며, 영적으로 우리 삶에서 생명 현상(월경처럼)이 세상의 왜곡(오염) 없이 순결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규정은 자연 순환을 무시하지 않고 보호하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레위기 15장 20-21절은 월경 중 물건과 침상의 오염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부정의 확산을 막는 세심한 분리를 보여줍니다.

[레 15:20] 그녀가 앉는 모든 것은 부정할 것이요

[레 15:21] 그녀가 앉은 곳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두 구절은 월경 중 "그녀가 앉는 모든 것"의 부정과 접촉 시 세척을 규정하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의식을 반복합니다. "모든 것은"은 일상 공간(자라침상)의 포괄성을 강조하며, 부

정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퍼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는 시간 제한은 오염이 영구적이지 않고 회복 가능성을 상기시킵니다. 영적으로 이는 생명 순환(월경 혈액)의 거룩함이 세상의 오염(접촉처럼 무심한 상호작용)으로 훼손되지만, 세척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규칙을 통해 가족의 순결을 보호해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22절은 월경 중 옷과 가족의 오염을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소유물의 정화를 통해 생명 현상의 구별을 강조합니다.

[레 15:22] 그녀가 만지는 침상의 모든 물건은 부정할 것이며 그녀가 만지는 침상 위의 물건도 다 부정할 것이요

이 구절은 월경 중 "침상의 모든 물건"과 "침상 위의 물건"의 부정을 명시하며, 직접·간접 오염을 포괄합니다. "그녀가 만지는"은 여성의 일상 활동이 부정을 전파할 수 있음을 드러내며, 침상(휴식 공간)은 생명 순환의 친밀함을 상징합니

다. 이는 창조의 거룩한 몸(여성 육신)이 월경처럼 자연 현상으로 오염되지만, 분리와 세척으로 보호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에서 생명의 흐름(가족·관계)이 세상의 영향으로 더럽혀지나, 하나님의 법이 이를 막는 사랑입니다.

레위기 15장 23-24절은 월경 중 의자·침상 접촉의 부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공동체 상호작용 속 오염 전염을 차단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레 15:23]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 닿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레 15:24] 그녀가 만진 물건에 닿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두 구절은 월경 중 "그녀가 앉았던 의자"나 "만진 물건" 접촉 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을 규정하며, 간접 전염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의자"는 공공·사회적 공간을 상징하며, 부정이 가족을 넘어 공동체로 확산될 위험을 경고합니다. "저녁

까지”의 반복은 부정이 지속되지 않고, 어둠 끝의 빛처럼 정결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줍니다. 영적으로 이는 생명 순환의 거룩함(월경처럼)이 무심한 접촉으로 오염되지만, 세척 의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킬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 “흐르다<자바>”는 히브리어 원어로, 문자적으로 ‘흐르다’나 ‘유출되다’를 의미하지만, 영적 깊이에서 보면 생명의 피(월경 혈액)가 ‘자연적으로 새어나오는’ 상태를 상징하며, 창조 순환의 거룩한 흐름을 드러냅니다. 자바는 레위기 15:19의 ‘피가 흐르다’<담 이히예 자바>에서 여성의 월경을 통해 자손 낳음의 잠재력을 나타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오염으로 변질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바의 부정 상태(이레 지속)는 생명의 창조(하나님의 능력)가 세상의 왜곡 없이 순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삶에서 자연 현상(월경처럼)이 쾌락이나 무관심으로 오용되면 영적 분리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 흐름 후 세척은 회개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 순환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예표하죠. 즉, <자바>는 순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은혜가 얼마나 거룩하고 보호적인지 대

비되게 합니다.

또한 "부정하다<타메>"는 히브리어 원어로, '오염되다'나 '더럽혀지다'를 뜻하지만, 영적 차원에서 '생명 질서의 분리와 회복'을 의미하며, 월경 부정을 강조합니다. 타메는 레위기 전체에서 100회 이상 등장하며(예: 레위기 11:24), 단순한 신체 불결이 아니라 창조의 순환(자손·혈액)을 방해하는 상태를 암시하죠. <타메>의 "이레 동안 부정" (19절)과 "저녁까지" (20-24절 반복)는 어둠의 기간 후 빛의 정결을 상기시키며, 여성의 월경이 생명의 축복이지만 오염 전염으로 공동체를 위협할 때 발생하는 경고를 줍니다. 이는 세상의 무지(생명 현상 무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나, 세척과 시간으로 복귀를 허락하는 자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서 "너희가 깨끗하니라"(요한복음 15:3) 하신 말씀처럼, <타메>는 십자가의 세척이 우리의 모든 생명 오염을 영원히 정결케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레 15:25]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레 15:26]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레 15:27]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 15:28] 그의 유출이 그치면 칠 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레 15:29] 그는 제팔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레 15:30]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레위기 15장 25~30절은 여성의 월경 외에 비정상적으로 피가 흐를 때, 그 부정 상태와 정결 의식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통해 생명의 흐름이 어그러진 상황에서도 백

성이 깨끗함을 유지하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된 순간조차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월경 부정(15:19~24절)을 이어가며, 피가 지속될 때의 부정 기간, 침상과 자리의 오염, 접촉 시 세척, 그리고 7일 기다림 후 제사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통해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영적 순결을 지키려 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비정상적인 피 흐름은 병 이상의 의미를 지니죠 - 생명의 창조(자손을 낳는 질서)가 어그러진 오염을 상징합니다. 월경이 끝났는데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더럽혀진 상태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회복의 문을 여는 자비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지도자들은 이 원리를 따라 사람들의 삶 속 오염을 미리 분별하고, 깨끗함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 교회, 사회 리더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하듯, 여기서도 작은 제물로 큰 용서를 받는 은혜가 빛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정상 유출'처럼 지속되는 죄나 마음의 오염을 정결케 하라는 부드러운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생명의 흐름이 왜곡될 때 구별의 원리를 통해 보호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레 15:25]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 구절은 월경("불결기") 외에 피가 비정상적으로 여러 날 흐르거나 기간을 넘어설 때를 다룹니다. 그 흐름이 지속되는 동안 월경 때처럼 부정상태가 유지되죠. "여러 날이 간다든지"나 "불결기를 지나든지"라는 말은 이 오염의 끈질김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유출하다<자바>'는 단순히 물

리적 흐름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 생명의 피가 비정상적으로 지속되는 영적 왜곡을 깊이 상징합니다. 레위기 15:25의 '피의 유출'처럼, 이는 월경 외 흐름이 자손 낳음의 창조적 잠재력을 오염시키는 과정을 드러내죠. 영적으로 자바는 우리의 삶에서 은밀한 죄나 영적 상처가 끊임없이 흘러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 마치 에덴의 순결이 타락으로 왜곡된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병들어 영적 분리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사랑이 그 흐름을 통해 치유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은혜로운 신호입니다. 이는 생명의 창조 질서가 병이나 고통으로 훼손된 상태를 상징하며, 월경 규칙처럼 분리와 세척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의 은밀한 죄가 지속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듯 회복의 희망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왜곡된 생명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염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심한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이는 공동체의 순결

을 위한 따뜻한 보호입니다.

[레 15:26]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피가 흐르는 동안 그녀의 침상과 앉는 자리가 월경 때처럼 부정하다고 합니다. "유출이 있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은 이 부정의 연속성을 드러내죠. 휴식과 일상의 공간이 오염된다는 건, 부정이 개인을 넘어 주변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비정상 피 흐름은 공동체 생활을 위협하지만, 구별 규칙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상이 지속 죄로 물들어도, 하나님의 지침이 보호의 울타리가 됩니다. 작은 오염조차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염의 위험을 통해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의 순결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관계 속 회개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레 15:27]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
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대면 누구나 부정해지며, 옷
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
다. "무릇 부정한즉"은 이 부정이 보편적임을 강
조하죠. 무심코 스며든 오염이지만, 즉각 세척으
로 정화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 유출처럼 생명의
왜곡이 관계를 통해 퍼지지만, 회개와 정결로 하
나님의 질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의식을 통해 백성을 부드럽게 인도해야 합니
다. 세상의 영향이 우리를 더럽혀도, 희망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정결을 위한 시간을 주시며, 회복
의 은혜를 천천히 펼쳐 보이십니다. 이는 새로워
짐의 약속입니다.

[레 15:28] 그의 유출이 그치면 칠 일을 센 후에
야 정하리니

피 유출이 멈추면 7일을 세고 나서야 정결이 시작됩니다. "칠 일"은 완전한 준비를 상징하죠 - 창조의 7일처럼 성찰과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염의 끝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죄의 흐름이 멈춘 후, 이 기간처럼 은혜를 통해 마음을 정비하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왜곡 후에도 정결의 문을 여는 부드러운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통해 왜곡된 생명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는 새 출발의 은혜입니다.

[레 15:29] 그는 제팔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레 15:30]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여덟째 날에 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

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립니다.” 제팔일”은 새 창조의 시작을 상징하며, 작은 예물은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여기서 ‘속죄하다<카파르>’는 히브리어 원어로 ‘덮다’라는 기본 의미를 넘어, 죄의 오점을 피로 영원히 가리고 지우는 깊은 영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이 단어는 16장의 속죄일처럼, 하나님의 무한 자비가 왜곡된 생명의 모든 틈새를 메우는 과정을 드러내죠 - 30절의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처럼, 비둘기 피가 지속 오염을 덮는 순간, 문둥병 격리처럼 고립된 영혼이 공동체로 복귀하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영적으로 카파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 용서가 아닌 ‘새 창조’의 문을 여는 구원적 행위입니다; 세상의 병(비정상 유출처럼)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지만, 이 속죄는 지속되는 죄의 무게를 넘어 영원한 자유와 헌신의 새 삶을 약속하죠(히브리서 9:22 참조). 속죄제는 비정상 유출의 죄를 용서받고, 번제는 미래의 순결을 서약하죠. 월경 정결과 비슷하지만, 지속 오염의 깊이를 더 반영합

니다. 영적으로 지속 죄가 형벌을 부르지만, 희생으로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의식을 통해 백성의 회복을 따뜻하게 안내합니다.

[레 15:31]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레 15:32]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레 15:33]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레위기 15장 31~33절은 이 장 전체의 부정 규례(유출병, 설정, 여성 불결기)를 요약하며, 그 깊은 목적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부정에서 멀어져 장막(하나님의 임재)을 오염시키지 않고,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정결함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규칙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염

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지침입니다. 부정은 생명의 창조 질서(순결과 생명 순환)를 어그러뜨린 더러움을 상징하죠 - 유출병자나 설정자, 지속 불결 여성처럼 은밀한 오염이 장막을 더럽히면 전체 공동체가 위협받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지도자들은 일상 속 이런 오염을 미리 분별하고, 정결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족 리더,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가 모든 부정을 넘어 우리를 영원한 정결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정 규례의 목적을 통해 장막의 보호와 생명의 구원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거룩함의 원리를 부드럽게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레 15:31]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이 구절은 제사장(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부정이 "내 장막을 더럽히고" 죽음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죠.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유출병이나 설장, 월경 같은 부정이 이를 오염시키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처합니다. "죽음을 면케 하라"는 표현은 형벌(분리와 죽음)을 피하는 정결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타메>'는 히브리어 원어로 단순히 '오염되다'라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하나님 임재를 침범하는 깊은 영적 오염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타메(예: 레위기 11:24)는 창조 질서의 파괴를 암시하죠 - 출애굽기 19:10의 "옷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라"처럼, 시내산 언약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강조합니다. 31절의 "그 부정에서 떠나게하여"처럼, 유출·설장·월경 같은 오염이 장막을 더럽히고 죽음을 부르지만, 떠남(분리·세척)으로 면케 된다는 과정은 영적으로 우리 삶의 은밀한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으나, 회개로 구원을 경험하

라는 교훈입니다. 타메는 부정의 '전염적 오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생명 주는가 대비되며,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타메를 완전히 소멸시켜(골로새서 2:14), 영원한 임재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이는 지속 오염처럼 은밀한 부정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만, 더남으로 보호받는다 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백성을 위한 따뜻한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부정 규례의 적용 대상을 나열하며, 다양한 현상을 통해 포괄적인 순결을 강조하십니다.

[레 15:32]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이 구절은 전체 규례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에게 적용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유출병"은 남성의 비정상 정액 흐름(성적 위반을 상징), "설정함"은 정상 정액 방출(쾌락 중심 왜곡)을 포괄하죠. 부정이 주로 남성

현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는 생명의 창조 질서 위배가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의 은밀한 욕망(유출·설정처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나, 규례 준수로 구별된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나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분리되다'라는 기본 의미를 넘어, 부정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함을 깊이 상징합니다. 레위기 16:26의 속죄일 염소처럼 오염을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나타내고, 민수기 5:3의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와 연결되죠. 31절의 "그 부정에서 떠나게하여"처럼, 유출병·설정 같은 현상이 임재를 위협하나, 의식적 분리로 죽음을 면케 한다는 것은 세상 오염과의 '떠남'을 통해 성령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나자는 예수님의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태복음 26:28)처럼, 십자가의 분리가 모든 부정을 넘어 영원한 교제로 인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요약은 모든 부정을 아우르는 자비로운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규례를 여성과 관계 적용으로 마무리하며, 생명 순환의 전체를 통해 구별의 완성

을 보여주십니다.

[레 15:33]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규례가 "불결을 앓는 여인"(월경·비정상 유출 여성), "유출병이 있는 남녀"(남녀 비정상 흐름),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부정 전염 관계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남녀"는 부정의 보편성을, "동침한 자"는 성적·가족 관계의 오염 확산을 강조하죠. 생명의 창조(자손·순환)가 왜곡되면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지만, 규례로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영적으로 부정(지속 불결 처럼)이 관계를 통해 퍼지나, 정결 의식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타메와 나자의 원어가 여기서 빛나듯, 오염의 전염이 공동체를 위협하나, 떠남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무리는 포괄적인 사랑의 초대입니다.

레위기 16장 =====

[레 16:1]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레위기 16장 1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죽음(레위기 10장)을 언급하며, 속죄일 의식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이 구절은 제사장 안수 의식 직후 벌어진 사건을 회상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시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맏아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 향을 피우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나온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배의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열정은 있었지만, 지침을 어겼어요. 그 결과, 공동체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비극은 속죄일 규례의 시작으로, 제사장들이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영적으로 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명한 길을 벗어나면 영적 죽음(하나님과의 단절)이 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심판이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이 사건으로 예배를 더 진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 제사장들의 접근을 제한하십니다. 이전에는 제사장 안수 중 자유롭게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비극 후 지성소(가장 거룩한 곳)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레위기 10장 1-2절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른 불'은 히브리어 '<에쉬 자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불이 아닌 '낯선 불'을 뜻합니다. '<에쉬>'는 하늘에서 온 거룩한 불을 상징하지만, '<자라>'는 세상적·잘못된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내 맘대로 불' - 하나님 규칙을 무시한 열정이에요. 이 불은 에덴의 금지된 열매처럼, 순수

함을 더럽히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처럼, 예배에 '낯선 것'을 섞지 말라는 가르침과 같아요. 우리 삶에서 세상 욕심이 하나님 예배를 흉내낼 때, 영적 위험(멀어짐)이 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잘못을 '삼켜' 정결케 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잘못된 열정)가 삼켜집니다. 그 덕에 새 생명의 불(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은 소비는 불이시라"라고 해요. 이 비극은 제사 규칙(출애굽기 30:7-8)을 어긴 오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려다 실패한 예입니다.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무시로 지성소에 들어오지 레위기 16장 2절은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 구절은 아론에게 "언제든지" 지성

소(회막 안 가장 거룩한 곳, 속죄소가 있는 성소)에 무심코 드나들지 말라는 경고예요. 이전 제사장 안수 의식(레위기 8~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유롭게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사용해 죽은 사건(레위기 10장)으로 하나님은 지성소를 자신의 임재 장소로 더 엄격히 구별하십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얼굴(임재)이 머무르는 곳으로, 부정한 자가 가까이하면 죽음이 옵니다. 이 제한은 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 아론만 특별 의식으로 한 번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세만 무시로 드나들었고, 아론조차 매일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규정은 인간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처럼, 형식적 접근은 재앙을 부르지만, 이 제한은 자비로운 경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임재(기도와 교제) 앞에 죄 없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매일의 삶이 속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으로 제사장들의 접근을 제한하십니다. 이전에는 자유로웠지만, 비극 후 지성

소는 엄격해집니다. 레위기 10장 1-2절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른 불'은 히브리어 '〈에쉬 자라〉'로, 하나님의 특별한 불이 아닌 '낯선 불'을 뜻합니다. '〈에쉬〉'는 하늘에서 온 거룩한 불을 상징하지만, '〈자라〉'는 세상적·잘못된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내 맘대로 불' - 하나님 규칙을 무시한 열정입니다. 이 불은 에덴의 금지된 열매처럼, 순수함을 더럽히는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처럼, 예배에 '낯선 것'을 섞지 말라는 가르침과 같아요. 우리 삶에서 세상 욕심이 하나님 예배를 흉내낼 때, 영적 죽음(멀어짐)이 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잘못을 '삼켜' 정결케 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잘못된 열정)가 삼켜집니다. 그 덕에 새 생명의 불(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하나님은 소비는 불이시라"라고 합니다. 이 비극은 제사 규칙(출애굽기 30:7-8)을 어긴 오만

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려다 실패한 예입니다.

2절의 '삼키매'는 사건의 절정입니다. '삼키다<아칼>는 히브리어로 '꿀꺽 삼키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애는 '소화 불가능한 불'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처럼, 반역자들이 땅에 삼켜진 사건과 비슷합니다. 욥기 2장 3절 "사탄이 나를 삼키고자 하도다"처럼, 악이 위협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불이 잘못된 불을 삼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이 '삼킴'은 파괴가 아니라 새 시작의 문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여호와께서 큰 고기를 명하시매 그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더라"처럼, 요나가 고래에 삼켜져 회개하고 새로워집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불만 의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권세를 삼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승리를 예표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로 끝나지만, 이 죽음은 교훈으로 예배를 새롭게 합니

다.

이 규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51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합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외방을 가르는 장벽으로, 대제사장의 유일한 통로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구든지 - 제사장도, 백성도 -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십자가 희생)가 휘장을 찢으신 새 길입니다. 영원한 속죄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는 은혜입니다.

지도자들은 이 원리를 따라, 공동체가 거룩함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가족, 교회, 사회 리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가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덕에 언제든지,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장벽이 사라진 이 길을 통해, 매일의 기도와 교제가 산 경험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제 우리를 초대하는 사랑의 문입니다.

[레 16: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레위기 16장 3~4절은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의 준비를 설명합니다. 아론은 속죄일에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린 후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평소 대제사장 겹옷과 우림뿔뿔을 벗고 오직 세마포

속옷만 입습니다. 세마포 고의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씁니다. 먼저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 옷차림은 지성소의 거룩함을 위해 필수입니다. 세마포는 흰 천으로 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론은 이 옷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평소 화려한 옷은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지성소에서는 순수한 세마포만 허락됩니다. 이 규정은 인간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처럼 부정한 접근은 죽음을 부르지만 이 준비는 자비로운 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매일 죄를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옷 씻기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마포를 입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마포는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 입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누구든지 이 옷 없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마포는 아론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의를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세마포는 <바드>입니다. 얇은 린넨으로 순수와 빛을 뜻합니다. 이 옷은 제사장의 육체적·

영적 정결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8장처럼 세마포는 거룩함의 옷으로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씻습니다. 우리 삶에서 세상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론조차 매일 입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이 제한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로움만이 길입니다.

이 규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합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 장벽으로 세마포 옷 같은 제한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

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영원한 세마포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제 매일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 원리를 따라 공동체가 거룩함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가족 교회 사회 리더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가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 덕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장벽이 사라진 길을 통해 매일 기도와 교제가 산 경함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제 우리를 초대하는

사랑의 문입니다.

[레 16:5]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레 16:6]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레 16:7]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레 16:8]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레 16: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레 16: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 16: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레위기 16장 5-11절은 여호와께서 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 의식을 세부적으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 년간의 모든 죄를 통해 공동체의 오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재입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0장의 나답·아비후 사건을 이어가며, 수송아지·두 염소·수양 준비, 제비 뽑기, 속죄제 드림, 안수·광야 보내기로 죄의 대가와 제거를 완성합니다. 공동체의 영적·신체 건강을 지킵니다. 제사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죽음으로 속죄하고 제거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원어 아사셀 <아자젤>은 '죄 제거자'로, 부정의 고백 후 하나님과의 재교제를 가르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죄 전가·제비 뽑기)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두 염소처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과 제거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28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으니"처럼,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회개로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 교제의 자유를 누리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6장 5-7절은 제물 준비와 두 염소 세우기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공의로운 시작이 공동체 회복의 상징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6:5]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레 16:6]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레 16:7]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백성 회중을 위한 수염소 둘(속죄제)과 수양 하나(번제)를 취하고, 아론의 수송아지로 자신·권속 속죄 후, 두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라는 뜻입니다. 원어 취하다<라카드>는 '모으다·준비하다'로,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강조하며, 일 년 죄를 모아 제

물로 드리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라카드는 부정의 산물을 모아 정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영적으로 매일 죄를 '모아' 회개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비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제물 취함 두 염소 세움)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공동체 죄를 공의롭게 다룹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회개 모임처럼, 하나님 선택의 은혜를 상기합니다.

레위기 16장 8-11절은 제비 뽑기, 속죄제 드림, 안수·광야 보내기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죄의 대가와 제거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보여줍니다.

[레 16:8]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레 16: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레 16: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 16:11]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제비 뽑기로 한 염소를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다른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산 채로 두었다가 안수로 속죄 후 광야로 보내, 아론의 수송아지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원어 뽑다<골랄>은 '던지다.결정하다'로, 주사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뜻하며, 레위기 16:8처럼 공의로운 분리를 상징합니다. 골랄은 민수기 26:55의 토지 분배처럼, 인간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공평함을 드러내, 영적으로 죄 용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교훈을 줍니다. 원어 드리다<히크리브>는 '가까이 데려오다'로, 희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레위기 1:2처럼 제사의 핵심 동사입니다. 히크리브는 출애굽기 29:1의 안수처럼, 동물을 '희생'으로 전환하며,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원어 보내다

<살라크>는 '던지다·내보내다'로, 죄를 멀리 쫓아내는 행위로, 레위기 16:10처럼 영원한 제거를 뜻합니다. 살라크는 민수기 5:2의 부정자 추방처럼, 공동체로부터 오염을 분리하며, 영적으로 죄가 우리로부터 '영원히 던져지는' 자유를 예표합니다. 원어 잡다<사하트>는 '도살하다'로, 제물을 죽이는 행위로, 레위기 1:5처럼 피 흘림의 시작을 뜻합니다. 사하트는 출애굽기 29:11의 속죄처럼, 제사장의 죄를 먼저 치르는 순서로, 영적으로 리더의 희생이 공동체 회복의 기반임을 드러냅니다. <아사셀>은 '죄 제거자'로, 광야 보내기를 예고합니다. 영적으로 죄 용서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제비 뽑기·안수)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 기도처럼,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누립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란?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규례가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수염소 두 마리가 준비되었는데 한 만마리는 속죄제로 쓰이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냈습니다.

“[레 16:8]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레 16: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레 16: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혔고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혔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죽음을 당하였지만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광야로 내 보내졌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해 내 보내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옮긴 후에 그 염소를 진 밖으로 떠나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깨끗히 없앴던 것입니다.

“[레 16:21]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레 16: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사셀은 누구인가?

아사셀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사셀'(히브리어 아자젤[Azazel])은 영어로 '도망의 염소'(Scapegoat)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아사셀이라는 것이 어떠한 주체가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서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사셀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황폐한 곳'이나 '귀신'으로도 생각하지만 단순히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사

셀'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염소 그 자체를 의미하며 '죄악 처리소'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레 16:12]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레 16:13]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레위기 16장 12-13절은 여호와께서 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를 들고 분향하여 속죄소를 가리우라는 의식을 세부적으로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의 거룩함 앞에서 부정한 상태로 나아가지 말고, 향연의 구름으로 하나님 임재를 보호받아 죽음을 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을 이어가며, 향로에 피운 불과 향을 채

워 장 안에 들어가 일곱 번 분향하여 증거궤 위 속죄소를 덮는 행위로 제사장의 생명을 지킵니다.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향연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아론의 부정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원어 분향하다 <히크티르>는 '피우다·바치다'로, 향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 6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로, 출애굽기 30:7의 매일 향 제사처럼 하나님과의 지속 교제를 상징하며, 영적으로 회개와 예배가 부정을 덮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향연·분향) 속 세상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향연처럼 우리의 부정을 덮으시고, 하나님 임재로 나아갈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16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처럼, 분향은 예수의 피로 담대한 접근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로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레위기 16장 12-13절은 향로 채우기와 분향으

로 속죄소 가리움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역의 자비로운 보호가 공동체 재입성의 상징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향로에 단 위 불을 채워 두 손에 향기로운 향을 들고 장 안에 들어가 분향하다<히크티르>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분향하다<히크티르>는 '피우다·바치다'로, 향을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 6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로, 출애굽기 30:7의 매일 향 제사처럼 하나님과의 지속 교제를 상징하며, 영적으로 회개와 예배가 부정을 덮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히크티르는 출애굽기 29:18의 번제처럼, 제물이 타오르며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으로, 아론의 부정을 가리는 구름이 제사장의 생명을 지키는 자비를 드러냅니다. 원어 가리우게<카사>는 '덮다·숨기다'로, 연기로 속죄소를 덮는 행위로, 레위기 16:13처럼 하나님 임재를 보호하는 동사로, 창세기 7:19의 물이 땅을 덮듯 부정을 가리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카사는 출애굽기 25:17의 속죄소처럼, 피와 향이 죄를 '덮는' 과정

으로,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부정을 숨기고 생명을 주는 교훈을 줍니다. 레위기 16:2의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처럼, 향연은 아론의 부정을 가려 죽음을 면케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향은 기도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향로 채우기·분향)속 세상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가 공동체 예배를 자비롭게 인도합니다. 오늘날 기도 모임처럼, 향연의 구름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받습니다.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레위기 16장 14-15절은 여호와께서 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하는 의식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

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피로 씻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을 이어가며, 수송아지 피를 동편과 앞에 일곱 번 뿌리고, 백성 염소 피를 그와 같이 뿌려 언약궤 위 속죄소를 정결케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피 뿌림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죄의 오염을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원어 '뿌리다<자라크>'는 '뿌리다.뿌려지다'로, 피를 흘뿌려 정결케 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8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4:6의 언약 피 뿌림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피 뿌림·속죄소 정결)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죄소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케루빔(두 그룹)처럼 막힌 길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12의 "그의 피

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사”처럼, 피 뿌림은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로 ‘피를 뿌리듯’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레위기 16장 14-15절은 속죄소에 피 뿌림 의식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의 자비로운 정결 사역이 공동체의 재입성 상징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레 16:14]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레 16:15]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수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앞에 일곱 번 뿌린 후, 백성 염소 피를 잡아 지성소에 들어가 그와 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

는 뜻입니다. 원어 '뿌리다<자라크>'는 '뿌리다 뿌려지다'로, 피를 흘뿌려 정결케 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8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4:6의 언약 피 뿌림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자라크'는 출애굽기 29:21의 속죄 피처럼, 손가락으로 정밀하게 뿌림으로써 죄의 오염을 세밀히 씻는 과정을 드러내며,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뿌려' 없애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속죄소<카포레트>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으로, 케루빔(두 그룹)이 지키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일곱 번 뿌림은 완전한 정결을 뜻합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의 죄(수송아지)를, 다음 백성의 죄(염소)를 씻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 뿌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피 뿌림·속죄소 정결)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례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피 뿌림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속죄소의 은혜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래 구절 때문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언약궤만이 놓여져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히 9:4)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에 금향로와 언약궤가 함께있다고 설명한 것은 이 땅의 지성소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성막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좇아 지으라 하셨느니라”(히 8:5)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는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일년에 하루동안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누구든

지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향로는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막에는 금향로가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과 만나 금향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상에서 바라 봤을 때의 의미와 천국에서 바라봤을 때의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언약궤 속의 성물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돌판은 말씀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 만나 향아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바라본 언약궤의 성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판은 인간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말씀을 상징하며 그것은 곧 언약을 뜻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없는 것을 있게 하며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 만나 향아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과 믿음, 그리고 사랑은 천

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언약궤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로 2규빗 반과 세로 1규빗 반 높이 1규빗 반으로 만들어진 박스입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했을 때 언약궤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이 규빗 반, 광이 일 규빗 반, 고가 일 규빗 반이 되게 하고”(출 25:10)

사람이 직접 그 궤를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짐승을 통해서 이동해서도 안됩니다. 사람이 함부로 만지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

으니라”(삼하 6:6-7)

웃사는 레위지파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언약궤를 만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궤어서 궤를 매게 하며”(출 25:14)

언약궤는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궤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출 40:20)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이고 언약궤를 덮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들을 수 있는 양쪽 막대기가 그 하나입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은 속죄소입니다. 이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소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위해 피를 뿌렸으며 백성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두 그룹이 날개를 치켜 세운 형상으로 지성소를 감싸고 있

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출 25:20)

속죄소의 그룹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언약궤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는 두껍습니다. 그 속죄소는 언약궤의 크기와 똑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2.5규빗이고 세로가 1.5규빗입니다. 그리고 약간 높이가 올라가 있어서 그곳에 피를 뿌려도 피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속죄소 양 끝에 두 그룹이 놓여져 있는데 날개를 최대한 활짝 편 상태에서 고개는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 마치 속죄소를 경배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에다가 금을 씌워 만들었는데 속죄소는 100%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룹은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은 사뭇 놀라움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장 흔하고 천한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이 이곳에서 만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천한 자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은 불순물이 1%도 없는 금을 말합니다. 1%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1%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한번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잘 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죄소와 언약궤 사이를 지키고 있는 그룹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 쫓았을 때 에덴동산에 무엇을 두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화염검과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섭습니다. 악한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사입니다.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두려운 천사입니다. 에덴동산은 곧 천국을 의미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을 통해 천국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궤에 들어가면 실제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천국의 세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 16:16]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레 16: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레 16:18]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레 16: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레 16:20]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레위기 16장 16-20절은 여호와께서 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와 회막, 번제단을 속죄하는 의식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피로 씻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을 이어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와 회막을 속죄하고,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뿌려 성결케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피 바름과 뿌림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죄의 오점을 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원어 '카파르'는 죄를 덮어 용서받게 하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7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9:36의 제사장

속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속죄·정결)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성소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번제단처럼 헌신의 자리를 열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14의 "그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케 하사"처럼, 피 뿌림은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로 '피를 바르듯' 죄를 씻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은 아론이 백성의 모든 부정과 죄를 대속하여 지성소와 회막을 정결케 하는 속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장면입니다.

[레 16:16]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타메>(더러움의 상태로, 죄로 인한 영적 오염을 가리킴)과 범한 모든 죄<페샤>(반역적인 죄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의 태도를 뜻함)를 인하여 지성소(하나님의 임재 자리)와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성막 전체)을 속죄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카파르'는 죄를 덮어 용서받게 하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7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9:36의 제사장 속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카파르'는 레위기 17:11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처럼, 피의 희생으로 죄의 무게를 보호막처럼 덮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화해의 문을 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속죄일에서 이 동사는 지성소의 오염을 씻고, 백성의 모든 범죄를 덮어 영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카파르는 피의 희생을 통해 두 당사자 사이에 긍정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보호와 회복의 커버를 제공합니다. 마치 폭

풍 속에서 피난처를 덮어주는 지붕처럼, 이 속죄는 죄의 후유증을 완전히 가려주고 새로운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카파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은혜를 미리 그려냅니다. 이 덮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화해의 기반이 되어 매일의 삶에서 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유를 줍니다. 또한, 카파르는 속죄소 자체의 이름인 카포레트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리에서 죄가 덮여지는 장면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카파르는 속죄일의 핵심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의지하는 영적 여정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하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속죄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속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17절은 아론의 지성소 속죄 과정의 엄숙함을 강조하는 장면으로, 중보의 고독을 드러냅니다.

[레 16:17]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권속,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를 마칠 때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머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어 '<카파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죄를 덮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행위로, 여기서는 아론의 개인적·공동체적 중보를 완성합니다. 이 규정은 의식의 은밀함을 상징하며, 마치 하나님과 대제사장만의 만남처럼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를 그려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카파르는 예수님의 고독한 십자가 고난처럼,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를 예표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하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속죄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속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18절은 지성소 속죄 후 아론이 번제단으로 나와 피를 바르는 장면으로, 헌신의 장소 정결을 시작합니다.

[레 16:18]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여호와 앞 단(번제단)으로 나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다는 뜻입니다. 원어 '<카파르>'는 앞서처럼 죄를 덮는 행위로, 번제단의 오염을 씻습니다. 원어 '<마샤크>'는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짓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왕이나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9:7의 제사장 기름 붓기처럼, 피를 통해 영적 기름 붓기를 상징하며, 헌신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마사크'는 레위기 8:12의 대제사장 구별처럼, 피를 귀통이 뿔에 바름으로써 단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짓는 과정을 드러내며,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헌신을 '바르고'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매일 제물이 드려지는 일상적인 곳이지만, 이 속죄로 새로워집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 바름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피 바름·번제단 정결)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피 바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19절은 번제단 위에 피를 뿌려 성결케 하는 마무리 장면으로, 완전한 정결을 강조

합니다.

[레 16:19]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손가락으로 피를 단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자라크>'는 피를 세밀하게 흘뿌려 정결케 하는 동사로, 레위기 전체 80회 이상 등장하며 출애굽기 언약 피 뿌림처럼 새 교제를 예표함. '<자라크>'는 출애굽기 24:8의 언약 피처럼, 손가락으로 일곱 번 뿌림으로써 죄의 오점을 세밀히 씻는 과정을 드러내며,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정을 '뿌려' 없애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다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로 만드는 동사로, 레위기에서 제사 도구를 정결케 하는 핵심 개념임. 레위기 20:7의 백성 거룩케 하라처럼, 단을 성결케 함으로써 헌신의 장소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카다쉬>'는 출애굽기 19:6의 제사장 나라처럼, 부정에서 벗어

나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과정을 드러내며,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일상을 '성결케' 하여 영원한 헌신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일곱 번은 완전한 정결을 뜻합니다. 이는 제 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 뿌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피 뿌림·번제단 정결)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피 뿌림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20절은 전체 속죄를 마친 후 산 염소를 드리는 전환점으로, 죄 제거의 절정을 예고합니다.

[레 16:20]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지성소, 회막, 단의 속죄를 마친 후 산 염소(아사셀 염소)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원어 '<카파르>'는

앞서처럼 죄를 덮는 완성된 행위로, 의식의 마무리를 상징합니다. 원어 '야하브'는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상하고 넘겨드리는 동사로, 레위기 전체에 제물 바침 때 쓰이는 핵심 동사입니다. 창세기 22:12의 아브라함 헌상처럼, 산 염소를 드림으로써 죄를 광야로 보내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야하브'는 창세기 1:29의 창조 주심처럼, 헌신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이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속죄의 완성으로서 죄를 영원한 제거의 장소로 보내는 헌상을 뜻합니다. 이 드림은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사라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야하브는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야하브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드러지신 희생을 상기시킵니다. 이 바침은 일방적인 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죄가 제거된 자리에 평안과 회복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야하브는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에서 반복되는 주제인데, 아브라함의 이삭 헌상

처럼 순종의 절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속죄일에서 산 염소의 아하브는 죽은 제물(피 흘림)과 대비되어, 죄의 제거가 생명의 지속으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처럼 아하브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드러야 할 헌신의 모델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채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가르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 바름과 뿌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피 뿌림·번제단 정결)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피 바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번제단의 영적의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번제단은 성막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장 처음 나타나는 성물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장(길이)이 오 규빗(2.5미터), 장(폭)이 오 규빗(2.5미터)이며, 고(높이)가 삼 규빗(1.5미터)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음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은 죄인인 인간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은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교회에는 불평이 많은 성도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조각목은 단단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조각목은 삐쩍 말라 있습니다. 이 역시 바쁜 생활로 인해 심신의 여유가 없고 기쁨과 만족이 없는 성도를 뜻하합니다. 조각목의 가시때문에 서로 부딪히다 보면 상처가 많습니다. 교회내의 성도끼리 서로 싸우면서 상처가 많습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싸여졌음

번제단은 솥으로 싸여져 있습니다.

“[출 38:2]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솥으
로 쌀찌며”

솥은 모세가 광야에서 치켜들었던 뿔뿔을 상징
합니다. 뿔뿔을 쳐다 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뿔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
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뿔뿔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뿔뿔에게 물
린 자마다 뿔뿔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러한 뿔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
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번제단에 쓰이는 짐승에게 안수가 행해졌음

번제단에 쓰이는 짐승에게는 반드시 안수가 행
해졌습니다.

“[레 1:4]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찌

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로 바치고자 짐승을 가지고 나온 당사자가 직접 그 짐승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죄가 사해지고 당사자의 헌신이 직접적으로 요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수를 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죄가 짐승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완전히 죽어야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물이 완전히 죽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리게 될 경우엔 성막이 더럽혀지며 성전의식을 방해하게 됩니다.

번제단의 뿔은 속죄와 구원을 상징함

번제단에는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속죄를 위한 피가 번제단에 뿌려졌듯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번제단의 뿔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왕상 1:50]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왕상 1:51]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야가 솔로몬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또한 번제단의 뿔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제물은 번제단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완전히 주님께 묶여 있듯이 친밀하게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쓰임

번제단에 쓰인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불을 사용했습니다.

”[레 9: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레 9:24]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번제단에는 인간의 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레 6:12]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여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사를찌며 [레 6:13]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찌니라”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을 뜻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불로 타 올라야 합니다. 인간의 불은 인간의 생각, 능력, 의지, 노력,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 10: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레 10: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번제단에는 그물이 쳐져 있음

번제단의 길이 반 정도에 낮으로 만든 그물이 사면 기둥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그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서 주님께 헌신을 약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번제단에는 네 개의 고리가 있음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리는 번제단을 이동할 때 유익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고리는 번제단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고리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에는 고기 대야가 있음

번제단에 있는 고기 대야는 각이 떠진 고기들을 고기 대야를 통해 번제단으로 운반되어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이 떠진 고기를 담아 운반한 것은 전도를 의미합니다. 대야에 고기를 담아 번제단으로 가져다듯이 모든 성도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번제단에는 고기 갈고리가 있음.

대야에 담은 고기를 갈고리로 찍어서 번제단 위로 올려 놓았습니다. 갈고리가 없으면 그 무거운 고기를 번제단에 쉽게 올려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갈고리는 교회로 전도된 사람을 믿음의 성도 자리까지 올려 놓게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번제단에는 불 옮기는 그릇이 있음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기 위해 불을 옮길 때 사용되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을 교회에 있도록 만드는 성령충만한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불로 충만한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번제단에는 부삽이 있음

부삽은 번제단에서 태워진 제물의 재를 긁어 낼 때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재는 교회부흥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가 많으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이러한 재가 많으면 교

회부흥에 지장을 줍니다. 이러한 재를 굶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마다 앞장서서 일하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음

번제단에는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민 19:9]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찌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처럼 재를 담는 통은 교회에 문제가 되는 성도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희생적으로 헌신적이며 사랑이 많은 성도입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이웃과 나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회개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

르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레 16:21]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레 16: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 지니라

레위기 16장 21-22절은 여호와께서 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산 염소(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광야로 보내는 의식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을 마무리하며, 아론이 산 염소의 머리에 불의와 죄를 고하고 미

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무인지경 광야로 보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자유를 회복합니다. 죄 고백과 염소 보내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죄의 짐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상징입니다. 원어 '<삼악>'은 '손 없다. 전가하다'로, 죄를 제물에 옮겨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9:10의 제사장 안수처럼, 죄의 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죄 고백·자유 회복) 속에 세상의 짐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산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멀리 보내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28의 "자기 몸으로 죄를 담당하러 나아오시리라"처럼, 죄 전가는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회개로 '죄를 고백하듯'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유를 구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올 때

반드시 향로의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속죄소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레 16: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거룩하지 못한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영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은 아론이 산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하고 광야로 보내는 의식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레 16:21]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뜻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고합니다. 그 죄를 염소 머리에 둡니다.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무인 지경 광야로 보냅니다. 원어 '<삼악>'은 '손 없다. 전가하다'로, 죄를 제물에 옮겨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9:10의 제사장 안수처럼, 죄의 부담을 대신 짊어지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삼악>'은 레위기 1:4의 번제 안수처럼, 손을 얹음으로써 죄를 고백하고 제물로 전가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수받듯' 짊어지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아다>'는 '고백하다. 인정하다'로, 죄를 솔직히 드러내는 행위로, 레위기에서 제사 고백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5:5의 속죄 고백처럼, 죄

를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자유를 얻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아다〉'는 시편 32:5의 "내 죄를 여호와께 고하노라"처럼, 고백으로 죄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고백을 받아 영원한 용서를 주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먼저 자신의 죄를 씻은 후 백성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수와 고백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죄 전가광야 보내기) 속에 세상의 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죄 전가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22절은 산 염소가 죄를 지고 광야로 가 사라지는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레 16:22]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에 놓여 사라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원어 '〈나사〉'는 '짐어지다'부담하다'로, 죄의 무게를 대신 짐어지는 동사로, 이사야 53:4의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처럼 예수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나사〉'는 레위기 10:17의 제사장 죄 짐어짐처럼, 염소가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가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무인지경 광야는 죄의 영원한 제거를 뜻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수와 고백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죄 전가광야 보내기) 속에 세상의 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죄 전가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6:23]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

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레 16:24]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레 16:25]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레 16:26]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레 16:27]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레 16:28]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레위기 16장 23-28절은 여호와께서 속죄일(7월 10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은 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제물을 불사르는 의식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성소의 거룩함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지속적인 헌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을 마무리하며, 아론이 지성소 세마

포 옷을 벗고 거룩한 물로 씻은 후 번제를 드리고,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져간 후 가죽고기똥을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정결을 완성합니다. 옷 벗음과 씻음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평생 정결을 유지하는 상징입니다. 원어 '라카츠'는 '씻다.정결케 하다'로, 몸을 물로 씻어 영적 오염을 제거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30:21의 제사장 씻음처럼, 지속적인 거룩함을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정결.헌신)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마포 옷처럼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영원한 정결을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22의 "마음에 성결케 하여"처럼, 씻음은 예수의 영원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로 '몸을 씻듯'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의식을 수행할 때 항상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옷 위에 대제사장 겹옷을 걸쳤으며 그 위에 에봇과 함께 흉패를 걸쳐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겹옷을 벗어야만 했으며 오직 세마포 옷만 입고 의식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왕도 들어갈 수 없고 권력자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23-24절은 아론이 지성소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은 후 번제를 드리는 마무리 장면으로, 낮아진 헌신을 강조합니다.

[레 16:23]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레 16:24]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 지성소 세마포 옷을 벗어 두라는 뜻입니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자기 옷을 입고 나옵니다. 자기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세마포 옷은 지성소에만 입는 낮은 겸손의 상징입니다. 겹옷(에봇·흉패)은 왕권과 권위를 뜻하나, 지성소에서는 벗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어 '라카츠'는 '씻다·정결케 하다'로, 몸을 물로 씻어 영적 오염을 제거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30:21의 제사장 씻음처럼, 지속적인 거룩함을 예표합니다. '라카츠'는 레위기 16:4의 입장 씻음처럼, 지성소 출구에서 재씻음으로써 평생 정결을 유지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낮아짐을 씻어 영원한 헌신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파르'는 '덮다·누그러뜨리다'로, 번제로 죄를 덮는 행위로, 여기서는 중보의 완성을 뜻합니다. 아

론은 지성소 정결 후 일상 헌신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옷 벗음과 씻음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정결·헌신)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정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25절은 속죄제 기름을 단에 불사르는 장면으로, 제물의 완전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레 16:25]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이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르다는 뜻입니다. 기름은 제물의 귀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상징입니다. 이는 속죄 후 헌신의 지속을 뜻합니다. 원어 '<카타르>'는 '불사르다·태우다'로, 제물을 연기로 올려 헌상하는 행위로, 레위

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1:9의 번제 불사름처럼, 기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카타르'는 레위기 4:10의 속죄제 기름처럼, 죄 씻은 후 귀한 것을 드리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을 '불사르듯' 하나님께 올리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사름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헌신·불사름)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헌신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26절은 아사셀 염소 보낸 자의 정결을 명하는 장면으로, 죄 전가 후 회복을 강조합니다.

[레 16:26]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사셀 염소 보낸 자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진에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죄 짊어짐 후 정결을 통해 공동체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원어 '<라카츠>'는 앞서처럼 '씻다·정결케 하다'로, 몸 씻음으로 오염 제거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5:5의 부정 씻음처럼, 죄 접촉 후 회복을 예표합니다. '<라카츠>'는 레위기 16:28의 불사른 자처럼, 모든 사역자가 정결을 통해 자유를 얻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죄 짐을 씻어 공동체로 인도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씻음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정결·회복)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정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27절은 속죄제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져간 후 가죽고기똥을 밖에서 불사르는 장면으로, 제물의 완전한 소멸을 강조합니다.

[레 16:27]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가 속죄한 후 가죽고기똥을 밖으로 내어 불사르다는 뜻입니다. 제물의 모든 부분을 소멸시켜 죄의 흔적을 없앴을 뜻합니다. 원어 '<사라프>'는 '불태우다·소멸하다'로, 제물을 완전히 태워 제거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4:12의 속죄제 불사름처럼, 죄의 완전 제거를 예표합니다. '<사라프>'는 레위기 16:28의 밖 불사름처럼, 성소 밖에서 제물을 소멸시켜 영적 자유를 주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불태우듯' 영원히 없애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사름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

성의 삶(소멸·자유)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없애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제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28절은 불사른 자의 정결을 명하는 장면으로, 사역 후 회복을 강조합니다.

[레 16:28]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사른 자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 진에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제물 소멸 후 정결을 통해 공동체로 돌아감을 뜻합니다. 원어 '<라카츠>'는 앞서처럼 '씻다·정결케 하다'로, 몸 씻음으로 오염 제거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1:25의 부정 씻음처럼, 사역 후 회복을 예표합니다. '<라카츠>'는 레위기 16:26의 염소 보낸 자처럼, 모든 사역자가 정결을 통해 자유를 얻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

적으로 예수의 피가 사역의 흔적을 씻어 공동체로 인도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씻음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정결·회복)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정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대제사장의 예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성막의 의식을 집행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예복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예복과 대제사장의 예복은 달랐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은 단순한 세마포 예복만을 입었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에다가 띠를 두르고 머리에 하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출 28:40]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

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런데 대제사장 예복은 달랐습니다. 위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예복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겹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속옷은 평범한 베실로 된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일반 제사장과 같은 옷입니다. 일명 세마포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위의 그림처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일년에 하루 대 속죄일 때(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겹옷과 에봇과 흉패와 띠를 벗어 두고서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습니다. 세마포 속옷만 입었습니다. "[레 16:3]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레 16: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찌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겹옷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그리고 베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었습니다. "[출 28:6]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살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베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은 생명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홍색실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흰베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에봇에 쓰인 네가지 색깔의 실로 띠와 흉패도 만들어졌습니다. 흉패에는 판결할 수 있는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습니다. "[출 28:30]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

와 앞에 들어 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찌니라" '우림과 둠림'은 판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옹고 그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 전쟁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삼상 30: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삼상 30: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 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

홍패에는 가로 세 개와 세로 네 줄로 모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은 매우 단단하게 홍패에 부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출 28:21]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 둘이라 매 보석에 열 두 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요한이 바라보았던 천국의 거룩한 성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과 거룩한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은 동서남북 각 세 개의 문이 있어서 모두 12개의 문이 있습

니다. 그런데 그 문마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계 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마치 홍패에 박혀 있는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패에 사용된 보석들과 거룩한 성의 12개의 문에 사용된 보석들은 거의 같은 보석입니다(출 28:17-20과 계 21:19-20을 비교하세요).

이처럼 홍패에 사용되는 12개의 보석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거룩한 성의 12개의 문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또 다른 단서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144000명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144000명은 모두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을 상징적으로 더해진 수입니다. $12,000\text{명} \times 12\text{지파} = 144,000\text{명}$ 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12지파와 연관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셈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이고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참감람나무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충만한 이방인의 수를 채우셨습니다.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돌감람나무를 통해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참감람나무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롬 11: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썩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롬 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또한 대제사장은 머리에 금패를 댔습니다. 그 금 패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이 쓰여졌습니다. "[출 28:36]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이라 하고 [출 28:37]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은 정결과 거룩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식을 집행해야 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마땅히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레 16:29]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지니라 칠월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레 16: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 16:31]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 16:32]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레 16:33]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레 16:34]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 일 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16장 29-34절은 여호와께서 속죄일(7월 10일)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시고, 대제사장이 세대를 이어 속죄 의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년 죄를 씻고 안식으로 거룩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의식을 마무리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고 노동하지 말며,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회막·단·제사장·백성을 속죄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안식을 지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함과 속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징입니다. 원어 '<아나>'는 '괴롭게 하다 금식하다'로, 자신을 낮춰 회개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10:3의 애굽 괴롭게 함처럼, 속죄일의 겸손을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안식속죄) 속에 세상의 피로를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일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9의 "안식일이 여전히 남아 있도다"처럼, 안식은 예수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년 회개로 '스스로를 낮추듯' 안식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속죄일은 매년 7월 10일에 행해졌습니다.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거나 노동을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날에는 본토인이든 객이라 할지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영히 지켜야 할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권속을 위해 속죄의식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뒤이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31절은 속죄일을 영원한 안식일로 정하는 규례를 보여줍니다.

[레 16:29]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칠월 곧 그 달 십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레 16:30]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레 16:31]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7월 10일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스스

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토인이나 우거하는 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날 속죄로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됩니다. 이는 큰 안식일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며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원어 '<아나>'는 '괴롭게 하다·금식 하다'로, 자신을 낮춰 회개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10:3의 애굽 괴롭게 함처럼, 속죄일의 겸손을 예표합니다. '<아나>'는 레위기 23:27의 금식처럼, 노동 금지와 함께 영적 안식을 주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피로를 '괴롭게 하듯' 씻어 안식을 주시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파르>'는 '덮다·누그러뜨리다'로, 이 날 속죄로 모든 죄를 덮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70회 이상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9:36의 제사장 속죄처럼, 연례 정결을 예표합니다. '<카파르>'는 레위기 16:30의 정결처럼, 안식일 속죄가 영원한 자유를 주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여호와 앞에 서게 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속죄일은 노동 금지로 안식을 강조합니다. 본토인과 객이 함께 지킵니다. 이는 제

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안식·속죄) 속에 세상의 피로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쉬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안식의 따스한 은혜를 다 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32-33절은 대제사장의 세대 이어 속죄 역할을 보여줍니다.

[레 16:32]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레 16:33] 지성소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된 제사장이 아비를 대신 속죄하라는 뜻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지성소와 회

막, 단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합니다. 대제사장은 세대를 이어 의식을 행합니다. 세마포 옷은 낮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파르〉'는 앞서처럼 '덮다' '누그러뜨리다'로, 세대 속죄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4:20의 제사장 속죄처럼, 지속적인 정결을 예표합니다. '〈카파르〉'는 레위기 16:33의 다중 속죄처럼, 지성소부터 백성까지 포괄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영원한 중보가 세대를 '속죄'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비를 대신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위임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세대 속죄·겸손)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중보의 따스한 은혜를 다 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은 속죄일을 일 년에 한 번 영원히 지키는 규례를 마무리합니다.

[레 16:34]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 일 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속죄일을 영원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속죄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는 연례 규례로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원어 '<카파르>'는 앞서처럼 '덮다·누그러뜨리다'로, 연례 속죄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23:28의 안식 속죄처럼, 영원한 규례를 예표합니다. '<카파르>'는 레위기 16:34의 일 년 속죄처럼, 모든 죄를 포괄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단번 속죄가 연례를 넘어 영원한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순종으로 의식이 완성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규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영원 규례·순종)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

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례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규례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7장 =====

[레 1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7:2]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레 17:3]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레 17:4] 먼저 희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와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17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물을 희막 앞에서 드리지 않고 잡는 자를 피 흘림으로 여겨 끊침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 제물 잡음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7장의 제사 규정을 시작하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 안 밖에서 잡을 때 희막 앞에서 예

물로 드리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끊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순종을 지킵니다. 제물 드림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 삶의 상징입니다. 원어 '자바흐'는 '잡다.제물로 드리다'로, 동물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0:24의 제단 제물처럼, 하나님 중심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제물 드림. 순종) 속에 세상의 욕심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진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33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처럼, 우선순위는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듯' 순종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길 누구

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후에 먹도록 하셨습니다. 만일 이것
을 어길 경우엔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물로 드리지 않는 것이 그토록 나쁜 행위인 것
은 매사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선적인 삶
을 원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죄악스
런 행위인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백성에게 제사 규정을 전하는 서두를 보
여줍니다.

[레 1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7:2]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
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
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명하시고 아론과 아들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게 고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

다. 이는 제사 규정의 시작입니다. 원어 '<다바르>'는 '말하다·명령하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2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6:28의 모세 명령처럼, 백성에게 순종을 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다바르>'는 레위기 17:2의 고하듯, 명령을 통해 공동체를 인도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말씀처럼 백성의 삶을 '명령' 하여 구원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중보자로 명령을 전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명령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명령·순종) 속에 세상의 혼란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명령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7장 3-4절은 제물을 희막 앞에서 드리지 않고 잡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7:3] 무릇 이스라엘 집의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밖에서 잡든지

[레 17:4] 먼저 희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집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 안 밖에서 잡을 때 희막 앞에서 예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여깁니다.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진 안 밖 모두 적용됩니다. 희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원어 '자바흐'는 '잡다.제물로 드리다'로, 동물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0:24의 제단 제물처럼, 하나님 중심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자바흐'는 레위기 17:3의 잡음처럼, 제물을 희막 앞에서 드리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희생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나카트'는 '끊다'

제거하'다'로,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행위로, 레위기에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레위기 20:3의 끓침처럼, 피 흘림의 심각성을 예표합니다. '나카트'는 레위기 17:4의 끓쳐짐처럼, 순종 위반으로 자유를 잃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끓김을 피하게 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우선 드려야 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물 드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삶(제물·순종) 속에 세상의 욕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헌신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7:5]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레 17:6]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레위기 17장 5-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에서 잡은 희생을 회막 앞에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드리라는 규정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 제물 잡음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7장의 제사 규정을 이어가며, 들에서 잡은 소나 양을 회막문으로 끌어와 제사장에게 주고 피를 뿌리며 기름을 불사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희생 드림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상징입니다. 원어 '<자바흐>'는 '제사하다.희생하다'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0:24의 제단 제사처럼, 하나님 중심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희생 드림.우선순위) 속에 세상의 욕심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생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진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33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처럼, 우선 헌신은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듯' 헌신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화목제는 일반적인 화목제가 아닙니다. 짐승을 잡을 때 드려지는 특별한 화목제였습니다. 일반 화목제에서는 드려진 짐승의 고기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짐승 잡기 위한 화목제에서는 모든 고기가 드린 사람에게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배우자를 생각하거나 자녀를 우선적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처를 생각하고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삶을 살 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레위기 17장 5-6절은 들에서 잡은 희생을 회막 앞에서 화목제로 드리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7:5]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희생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레 17:6]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은 희생을 회막문으로 끌어와 제사장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제사장은 피를 회막문 단에 뿌립니다. 기름을 불사릅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들에서 잡은 희생도 하나님께 우선 드려야 합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원어 '자바흐'는 '제사하다·희생하다'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

기 20:24의 제단 제사처럼, 하나님 중심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자바흐'는 레위기 17:5의 화목제처럼, 잡은 희생을 회막으로 드리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희생처럼 우리의 삶을 '화목제' 하여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자라크'는 '뿌리다.흩뿌리다'로, 피를 세밀하게 흩뿌려 정결케 하는 동사로, 레위기 전체 80회 이상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4:8의 언약 피처럼, 새 교제를 예표합니다. '자라크'는 레위기 17:6의 피 뿌림처럼, 희생의 정결을 드러내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헌신을 '뿌리다'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타르'는 '불사르다.태우다'로, 기름을 연기로 올려 헌상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1:9의 번제 불사름처럼, 향기로운 헌신을 예표합니다. '카타르'는 레위기 17:6의 기름 불사름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희생이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화목제 고기는 드린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 우선의 축복을 뜻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희

생 드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희생·우선순위) 속에 세상의 욕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세례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헌신의 따스한 은혜를 다 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7:7]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 17:8]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레 17:9]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17장 7-9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수염소 제사를 금지하고, 모든 번제·희생을 회막 앞에서 드리라는 영원한 규례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김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우선 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7장의 제사 규정을 이어가며, 수염소 제사를 끊고 모든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충성을 지킵니다. 우상 금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상징입니다. 원어 '자바흐'는 '제사하다·희생하다'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0:24의 제단 제사처럼, 충성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우상 금지·하나님 우선) 속에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수염소 우상처럼 우리의 잘못된 섬김을 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로마서 12:1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처럼, 제사는 예수의 영원한 예배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듯' 우상을 버리고 헌신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히 섬기는 수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수염소를 음란히 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수염소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신성하게 여겨졌던 짐승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음란히 섬기는 수염소와 같은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염소를 음란한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지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수

염소 제사를 영원히 금지하는 규례를 보여줍니다.

[레 17:7]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수염소는 이방 악마나 염소 우상을 상징합니다. 음란히 섬김은 영적 불충성을 뜻합니다. 원어 '<자바흐>'는 '제사하다·희생하다'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0:24의 제단 제사처럼, 충성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자바흐>'는 레위기 17:7의 우상 제사처럼, 잘못된 섬김을 끊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을 '제사하지 말라' 하여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사'이르>'는 '수염소·염소 악마'로, 이방 우상을 가리키며, 레위기에서 영적 오염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4:23의 속죄 염소

처럼, 우상을 버리고 정결을 예표합니다. '〈사〉이르'는 이사야 34:14의 광야 악마처럼, 음란 섬김을 끊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규례는 세대 이어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우상 금지·하나님 우선) 속에 세상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우상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충성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7장 8-9절은 모든 번제·희생을 회막 앞에서 드리지 않으면 끊침을 받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7:8]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레 17:9]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우거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릴 때 회막문으로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여호
와께 드리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타
국인도 포함됩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입니다. 원어 '<올라>'는 '번제하다·올리다'로, 제
물을 태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행위로, 레위
기 전체에 28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
다. 레위기 1:3의 번제처럼, 완전 헌신을 예표합
니다. '<올라>'는 레위기 17:8의 드림처럼, 회막
앞에서 올리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
수의 희생처럼 우리의 삶을 '번제' 하여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나카트>'는 '끊다·제거하다'
로,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행위로, 레위기에서 불
순종의 결과입니다. 레위기 20:3의 끊침처럼, 제
사 위반의 심각성을 예표합니다. '<나카트>'는 레
위기 17:9의 끊쳐짐처럼, 순종 위반으로 자유를
잃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끊김을 피하게 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모든 제

사는 하나님께 우선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제사·순종) 속에 세상의 욕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헌신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7:10]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17: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레 17:13]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
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흠으로 덮을지니
라

[레 17: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
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
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
는 끊쳐지리라

[레 17:15]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
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
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레 17:16]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
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레위기 17장 10-1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과 타국인에게 피를 먹지 말라
는 영원한 규례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
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상징인 피를 존중
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
다. 이 규례는 레위기 17장의 제사 규정을 이어

가며, 피를 먹는 자를 끊치고, 사냥한 짐승 피를 흙으로 덮으며, 죽은 짐승 고기를 먹은 자도 씻음으로 정결케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피 금지는 단순한 식이 규칙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원어 '<다마>'는 '피'로, 생명의 원천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창세기 9:4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라"처럼, 피를 통해 생명의 거룩함을 예표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피 금지·정결)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22의 "피 흘림이 없는 중에 사함이 없느니라"처럼, 피는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생명을 존중하듯' 정결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9:4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

지 말라”처럼, 심지어 새의 피조차 금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명하신 이유는 피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어, 그것을 먹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창세기 9:5의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처럼, 피를 먹는 자는 난폭해질 수 있습니다. 피에는 더러운 세균이 많아 신체에 해롭습니다. 또한 짐승의 유전적 성향도 함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7장 10-12절은 피를 먹는 자를 백성 중에서 끊치는 규례를 보여줍니다.

[레 17:10]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 17: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
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
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우거하는 타국인이 어떤 피든지 먹
으면 진노를 받아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뜻
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단
에 뿌려 생명을 속죄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
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를 먹
지 말아야 합니다. 타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어 '<네페쉬>'는 '생명·영혼'으로, 피와 연결된 생
명의 본질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7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창세기 9:4의 생명
피처럼, 피의 거룩함을 예표합니다. '<네페쉬>'는
레위기 17:11의 생명 피처럼, 속죄의 원리를 드
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속죄' 하여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파르>
'는 '속죄하다·덮다'로, 피를 통해 죄를 덮는 행위

로, 레위기 전체에 7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16:30의 정결 속죄처럼, 피의 속죄를 예표합니다. '카파르'는 레위기 17:11의 피 속죄처럼, 생명을 통해 화해를 주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다' 영원한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으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타국인도 포함되어 공동체 전체 규칙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피 금지·속죄)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속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7장 13-14절은 사냥한 짐승 피를 흘리고 흠으로 덮는 규례를 보여줍니다.

[레 17:13]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

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흠으로 덮을지니라

[레 17:14]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 잡을 때 피를 흘리고 흠으로 덮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과 일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입니다.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집니다. 사냥도 피를 존중합니다. 흠 덮음은 생명을 땅에 돌리는 상징입니다. 원어 '다마'는 '피'로, 생명의 원천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창세기 9:4의 생명 피처럼, 피의 거룩함을 예표합니다. '다마'는 레위기 17:13의 피 흘림처럼, 사냥 후 정결을 드러내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흘리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네페쉬'는 앞서처럼 '생명·영혼'으로, 피와 일체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14의 생명 피처럼, 끊임의 이유를 예표합니다. '네페쉬'는 레위기 17:11의 생명처럼, 피 먹음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일체'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타국인도 포함되어 보편 규칙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피 흘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사냥 정결·생명 존중)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생명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7장 15-16절은 죽은 짐승 고기를 먹은 자의 정결 규례를 보여줍니다.

[레 17:15]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

나 물론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
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레 17:16]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
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죽
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자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뜻입니다. 저녁까
지 부정하다가 정결케 됩니다. 빨지 않거나 씻지
않으면 죄를 당합니다. 본토인이나 타국인 모두
해당됩니다. 죽은 고기는 부정의 상징입니다. 씻
음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원어 '<라카츠>'는 '빨
다씻다'로, 오염을 제거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
체에 8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
기 11:25의 부정 씻음처럼, 정결 회복을 예표합
니다. '<라카츠>'는 레위기 17:15의 옷몸 씻음처
럼, 부정 후 자유를 주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
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오염을 '씻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타메>'는 '부정하다'로, 죽은
고기로 인한 오염을 의미하며, 레위기에서 영적
불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1:39의 죽은 짐승처
럼, 정결 필요성을 예표합니다. '<타메>'는 레위

기 17:15의 부정처럼, 저녁 정결을 통해 안식을 주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타국인도 포함되어 포괄 규칙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씻음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부정 정결·회복)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정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8장 =====

[레 1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8: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레 18:3]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레 18:4]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18:5]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1-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는 규례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규례로 살아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8장의 성적·도덕적 순결을 시작하며, 애굽·

가나안 풍속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법도 준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원어 '<호크>'는 '법도·규례'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신명기 30:16의 "그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처럼, 순종으로 생명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풍습을 끊고 하나님의 법도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10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처럼, 법도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듯' 세상 풍속을 버리라는 따듯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명하시면서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좇거나 규례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2절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며 명령을 전하는 서두를 보여줍니다.

[레 1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8: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명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 명령을 전합니다. 원어 '<다바르>'는 '말하다·명령하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2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6:28의 모세 명령처럼, 백성에게 순종을 전하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다바르>'는 레위기 18:2의 고하듯, 주권 선언을

통해 공동체를 인도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말씀처럼 백성의 삶을 '명령' 하여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선언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은 애굽과 가나안의 세상 풍속을 명확히 금지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레 18:3]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은 노예와 우상, 가나안은 타락한 도덕을 상징합니다. 세상 풍속은 영적 오염을 가져옵니다. 원어 '<미쉬파트>'는 '풍속규례'로, 세상 관습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4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23의 가나안 풍속처럼, 타락을 금지하는

과정을 예표합니다. <미쉬파트>는 레위기 18:3의 행하지 말라처럼, 하나님의 길로 분리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 풍속을 '금지'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과거와 미래 풍속 모두 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8장 4-5절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생명을 얻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레 18:4]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18:5]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법도를 좇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를 행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법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입니다. 순종은 생명의 약속입니다. 원어 '<호크>'는 '법도·규례'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신명기 30:16의 "그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처럼, 순종으로 생명을 예표합니다. '<호크>'는 레위기 18:4의 좇으며처럼, 세상에서 분리되어 따르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법도를 '지키라'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하야>'는 '살다·생명 얻다'로, 순종으로 생명을 누리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300회 이상 등장합니다. 에스겔 20:11의 "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살리라"처럼, 법도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하야>'는 레위기 18:5의 살리라처럼, 하나님의 규례로 풍성한 생명을 주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순종을 '살리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반복 강조합니다. 순종은 생명의 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법도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생명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8:6]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8:7]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너는 범치 말지니라

[레 18:8]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레 18:9]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레 18:10]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레 18:11]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레 18:12]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지친이니라

[레 18:13]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지친이니라

[레 18:14]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모니라

[레 18:15]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레 18:16]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레 18:17]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레위기 18장 6-1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육지친과의 근친상간을 엄격히 금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 가족 내 순결을 지켜 생명의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8장의 도덕적 순결을 이어가며, 어머니·계모·자매·손녀·고모·이모·백숙모·자부·형수 등 골육지친과의 음행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가족적 순결을 지킵니다. 근친상간 금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원어 '〈에르와〉'는 '골육지친·가까이 함'으로, 혈연 관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17의 근친 금지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타락 풍습을 끊고 가족 사랑의 순결을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3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금지처럼, 순결은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가족을 존중하듯' 순결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좇지 말라 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골육지친과의 음행을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골육지친과의 음행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퍼져있는 풍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골육지친과의 음행을 범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골육지친이라 함은 혈통적으로 연결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은 부모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머니와 음행을 저질렀을 때는 아버지의 몸을 범하는 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음행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도 함께 취하는 것과 같은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모와도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형제와

도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또한 손녀나 외손녀와
도 음행을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부모의 형제와
도 음행을 행치 말라 하셨으며 자녀의 배우자와
도 음행을 행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
람은 골육지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음행의 죄가
더 크다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6-8절은 어머니와 계모와의 근친
상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6]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
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8:7]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
체를 너는 범치 말지니라

[레 18:8]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골육지친
을 가까이하여 하체를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입니다. 어머니를 범치 말

아야 합니다. 계모의 하체도 아버지의 하체입니다. 계모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와 계모는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은 가족 생명을 파괴합니다. 원어 '〈에르와〉'는 '골육 지친·가까이 함'으로, 혈연 관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17의 근친 금지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에르와〉'는 레위기 18:6의 가까이처럼, 가족 내 금지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가족을 '범치 말라' 하여 보호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로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는 가족 순결의 기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근친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가족 순결·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8장 9-11절은 자매와 손녀, 계모 딸과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9]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레 18:10]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레 18:11] 네 계모가 네 아비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매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딸 모두 해당됩니다. 집에서나 타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이는 너의 하체입니다. 계모가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누이입니다. 그 하체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자매와 손녀는 직계 혈연입니다. 계모 딸은 혼인 혈연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은 세대 파괴입니다. 원어 '<벤테>'는 '자매-누이'로, 형제자매 관계를 뜻하며, 레위기에서 가족 금지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20:17의 누이 금지처럼, 혈연 순결을 예표합니다. '<벤테>'는 레위기 18:9의 자매처럼, 출생 여부 상관없이 금지의 범위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가족을 '범치 말라' 하여 보호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세대와

출생 여부 무관 금지입니다. 이는 가족 순결의 확장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혈연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혈연 순결·세대 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8장 12-14절은 고모·이모·백숙모와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12]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지친이니라

[레 18:13]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지친이니라

[레 18:14]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숙모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골육지친입니다. 이모의 하체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이모는 어머니의 골육지친입니다. 아비 형제의 아내(백숙모)를 가까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백숙모의 하체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고모·이모는 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백숙모는 아버 형제의 아내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은 확대 가족 파괴입니다. 원어 ‘<바사르>’는 ‘골육지친·육체’로, 혈연을 뜻하며, 레위기에서 근친의 근거입니다. 레위기 18:6의 골육처럼, 가족 보호를 예표합니다. ‘<바사르>’는 레위기 18:12의 골육지친처럼, 확대 혈연 금지의 범위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 사랑이 가족을 ‘범치 말라’ 하여 보호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부모 형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가족 순결의 확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확대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확대 순결·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8장 15-16절은 자부와 형수와의 근친 상간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15]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레 18:16]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자부는 아들의 아내입니다. 형제의 아내(형수)의 하체도 범치 말아야 합니다. 형수의 하체는 형제의 하체입니다. 아버지와 형수는 혼인 혈연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은 후손과 형제 파괴입니다. 원어 '<칼라>'는 '아버지·형수'로, 혼인 관계를 뜻하며, 레위기에서 가족 금지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20:21의 형수 금지처럼, 혈연 순결을 예표합니다. '<칼라>'는 레위기 18:15의 아버지처럼, 후손 보호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가족을 '범치 말라' 하여 보호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형제와 아들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가족 순결의 혼인 확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혼인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혼인 순결·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8장 17절은 어머니와 딸, 손녀 등 복합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17]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과 그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라는 뜻입니다. 손녀
나 외손녀도 아울러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의 하체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골육지친
입니다. 이는 악행입니다. 어머니와 딸은 세대 복
합입니다. 손녀는 확대 혈연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은 가족 전체 파괴입니다. 원어 '<에르와>'는
앞서처럼 '골육지친'으로, 혈연을 뜻하며, 레위기
에서 근친의 근거입니다. 레위기 20:14의 어머
나·딸 금지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에르와>'는 레위기 18:17의 골육지친처럼, 복
합 금지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
의 사랑이 가족을 '악행' 하지 말라 하여 보호하
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악행"은 중죄를 강조합

니다. 이는 가족 순결의 절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복합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삶(복합 순결·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8:18]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8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내 생존 시 처제나 처형과의 근친상간을 금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족 내 충성스러운 사랑을 지켜 세상 타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8장의 도덕적 순결을 이어가며,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형제(처제·처형)를 취하지 말아 투기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가족적 화합을 지킵니다. 근친 금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결혼의 충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원어 '〈야카스〉'는 '투기케 하다·질투케 하다'로, 형제 사랑을 깨뜨리는 질투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민수기 5:14의 질투처럼, 관계 파괴를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타락을 끊고 가족 사랑의 충성을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3:4의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니라"처럼, 투기 금지는 예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배우자를 존중하듯' 충성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그 형제를 취한다"는 것은 처제나 처형을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내의 형제를 탐하여 형제와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처제나 처형을 취하는 자는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방인에게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죄악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18장 18절은 아내 생존 시 처제·처형과의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18]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가 생존할 동안 형제를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체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기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는 처제나 처형을 의미합니다. 아내 생존 시 금지입니다. 투기케는 질투와 관계 파괴를 뜻합니다. 원어 '<야카스>'는 '투기케 하다·질투케 하다'로, 형제 사랑을 깨뜨리는 질투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민수기 5:14의 질투처럼, 관계 파괴를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야카스>'는 레위기 18:18의 투기케처럼, 결혼 충성을 보호하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가족을 '투기케 하지 말라'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아내 사랑이 우선입니다. 이방 풍속과 대비됩니다. 이는 가족 순결의 확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투기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충성·화합)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충성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8:19]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레 18:20]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레위기 18장 19-2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월경 중 여인과의 성관계와 타인 아내와의 간음을 금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쾌락 중심의 타락에서 벗어나 생육과 번성의 거룩한 성적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8장의 도덕적 순결을 이어가며, 월경 불결 시 가까이하지 말고 타인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가족적 순결을 지킵니다. 성관계 금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생육번성)을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원어 '<니다>'는 '경도·불결'로, 월경 오염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15:19의 월경 규정처럼, 정결을 통해 생명의 거룩함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타락 쾌락을 끊고, 결혼의 거룩한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창세기 1:28의 "생육하고 번성하여"처럼, 성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듯' 순결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월경할 때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자녀를 낳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오직 쾌락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적 행위는 이방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더러운 행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적 능력은 본질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획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6-28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럼,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물론 월경 중 피로 인한 불결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 정결이 아니라 성적 타락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 중 월경 중 욕구를 발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월경 중 관계를 맺는 자를 백성 중에서 끊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0:18의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처럼, 이는 중죄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은 월경 중 여인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19] 너희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이 월경 불결할 동안 가까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체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월경은 생명의 순환입니다. 불결 시 관계는 쾌락 중심 타락입니다. 원어 '<니다>'는 '경도·불결'로, 월경 오염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15:19의 월경 규정처럼, 정결을 통

해 생명의 거룩함을 예표합니다. '〈니다〉'는 레위기 18:19의 불결처럼, 관계 금지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타락을 '범치 말라' 하여 순결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방 풍속과 대비됩니다. 이는 생육 계획의 보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결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순결·생명)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순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8장 20절은 타인 아내와의 간음을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20]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인 아내와 통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은 결혼의 충성을 깨뜨립니다. 더러움은 영적 오염입니다. 원어 '〈나아프〉'는 '간음하다·통간하다'로, 불충성 관계

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0:14의 "간음하지 말라"처럼, 충성을 보호하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나아프〉'는 레위기 18:20의 통간처럼, 더러움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간음을 '더럽히지 말라'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타인 아내는 공동체 파괴입니다. 이는 결혼의 거룩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간음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충성·화합)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충성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8:21]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2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를 몰렉 우상에게 불로 통과케 하지 말라는 엄격한 금지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며 하나

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8장의 도덕적 순결을 이어가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꾸짖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가족적 순결을 지킵니다. 우상 제사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하나님 중심의 충성을 상징합니다. 원어 '<몰렉>'은 '몰렉 우상'으로, 가나안의 아돔 희생 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회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2의 몰렉 금지처럼, 타락한 숭배를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우상을 끊고 자녀 사랑의 순결을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 줍니다. 요한복음 10:18의 "아무도 내 몸에서 빼앗지 못하리라"처럼, 생명 보호는 예수의 영원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자녀를 보호하듯' 우상을 버리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를 몰렉 우상에게 불로 통과케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몰렉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으로, 유아를 희생 제물

로 삼는 신입니다. 머리는 황소 모양, 몸은 사람 모양, 재료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팔은 어린아이를 안는 듯 뻗어 있으며, 전면에 불이 타서 아이를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거나 던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 이유는 가정에 복이 임하고 남은 자녀에게도 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하스 시대 벤힌놈 골짜기에서 아이를 불태우는 유아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35의 "자기들의 자녀를 몰렉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처럼,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레위기 20:4-5의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처럼, 몰렉 섬김은 음행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자녀를 몰렉 우상에게 불로 통과케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21]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몰렉은 가나안 아동 희생 우상입니다. 불로 통과케는 아이를 불에 던지는 의식입니다. 이는 세상 타락 풍속입니다. 원어 '<몰렉>'은 '몰렉 우상'으로, 가나안의 아동 희생 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회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2의 몰렉 금지처럼, 타락한 숭배를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몰렉>'은 레위기 18:21의 주어처럼, 자녀 희생의 공포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을 '통과케 하지 말라' 하여 생명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하아바르>'는 '통과케 하다. 지나가다'로, 불 사이로 아이를 지나가게 하는 행위로, 레위기에서 우상 의식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32:35의 지나가게처럼, 가증한 타락을 예표합니다. '<하아바르>'는 레위기 18:21의 불로처럼, 생명 파괴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희생이 우리의 타락을 '지나가다'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녀 희생은 가족 복을 믿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욕보림은 주권 모독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상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자녀 보호·우상 버림)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8:22]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와의 동성 교합을 가증한 일로 금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타락 풍습에서 벗어나 창조 질서(남녀 결합으로 생육·번성)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8장의 도덕적 순결을 이어가며, 남자가 여자와 같은 교합을 남

자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창조적 순결을 지킵니다. 동성 교합 금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원어 '〈토에바〉'는 '가증한 일·혐오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역겨운 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13의 동성 금지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타락을 끊고 남녀 사랑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로마서 1:26-27의 "남자가 남자로 더 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처럼, 가증함은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창조 질서를 따르듯' 순결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동성연애를 가증한 죄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가나안 땅에 성행하였으며, 가나안은 이로 인해 더럽다 여김을 받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동성연애가 극심했기 때문

입니다. 창세기 19:5-8의 소돔 백성들이 천사와 성관계를 요구하며 롯의 딸을 제안받았을 때, 이는 타락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6-27에서 "여인들도 순리대로 바꾸어 역리로 쓰며, 남자들도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여 동성죄를 지적합니다. 오늘날 동성연애 합법화는 세상의 악과 더러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남자와의 동성 교합을 가증한 일로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22] 너희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가 여자와 같은 교합을 남자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입니다. 동성 교합은 창조 질서(남녀 결합)를 어깁니다. 가나안 소돔의 타락 풍습입니다. 원어 '<토에바>'는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역겨운 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13의 동성 금지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토에바>는 레위기 18:22의 가증함처럼, 세상 타락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동성죄를 '가증함'으로 여기며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소돔 멸망(창세기 19:5-8)은 동성 요구로 인한 형벌입니다. 로마서 1:26-27은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보응으로 지적합니다. 현대 합법화는 세상 악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증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순결·창조)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순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8:23]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 18장 2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과의 교합(수간)을 문란한 악행으로 금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우상 타락에서 벗어나 창조 질서(인간·동물 구분)를 지켜 생명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8장의 도덕적 순결을 이어가며,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창조적 순결을 지킵니다. 수간 금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더럽히는 악행을 막는 상징입니다. 원어 '토에바'는 '문란한 일·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역겨운 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15의 수간 형벌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타락을 끊고 창조 질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18의 "모든 죄는 몸 밖에 범하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범하느니라"처럼, 문란함은 예수의 영

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창조를 존중하듯' 순결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월경할 때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자녀를 낳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오직 쾌락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적 행위는 이방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더러운 행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적 능력은 본질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획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6-28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처럼,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물론 월경 중 피로 인한 불결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 정결이 아니라 성적 타락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방인 중 월경 중 욕구를 발하여 죄를 범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월경 중 관계를 맺는 자를 백성 중에서 끊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0:18의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처럼, 이는 중죄입니다. 고대 시대에 짐승과의 성관계가 자주 있었습니다. 우

상을 섬길 때 문란한 성행위가 행해졌는데, 그때 짐승과의 교합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여인들은 종묘 숭배 시 수염소와 교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짐승과의 교접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더럽히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수간 행위에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레위기 20:15의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처럼, 이는 생명 파괴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은 짐승과의 교합(수간)을 문란한 악행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8:23]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짐승과 교합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교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문란한 일입니다. 수간은 창조 질서(인간·동물 구분)를 어깁니다. 고대 우상 의식에서 흔한

타락입니다. 원어 '<토에바>'는 '문란한 일·가증한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역겨운 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15의 수간 형벌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토에바>'는 레위기 18:23의 문란함처럼, 창조 더러움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수간 타락을 '더럽히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굽 종모 숭배에서 수염소 교합이 있었듯, 우상과 연결됩니다. 레위기 20:15의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처럼, 형벌은 생명 보호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수간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창조 순결·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순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8:24]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

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레 18:25]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
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
하여 내느니라

[레 18:26]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
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도 행하
지 말라

[레 18:27]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
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
라

[레 18:28]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레 18:29]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
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 18:30]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좃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
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24-3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의 타락으로 인한 땅의 더러움과 토함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영원한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증한 행위에서 벗어나 규례를 지켜 땅과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8장의 도덕적 순결을 마무리하며, 가나안의 음행·우상으로 더럽혀진 땅이 토함을 받고, 이스라엘도 같은 악을 행하면 끊쳐지고 토함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땅의 순결을 지킵니다. 더러움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순종으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라는 상징입니다. 원어 '<토메>'는 '더럽히다·오염시키다'로, 죄로 인한 영적 불결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7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20:25의 더러움 금지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더러움을 씻고 땅 같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14의 "거룩함을 구하라"처럼, 규례는 예수의 영원한 정결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땅을 더럽히지 않듯' 순종하라는 따

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싫어하신 이유는 그들의 악행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행은 주로 음행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골육지친과의 음행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짐승과의 음행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란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음란한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음란한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음란한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28절은 가나안의 더러움과 토함 경고를 보여줍니다.

[레 18:24]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레 18:25]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

하여 내느니라

[레 18:26]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
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도 행하
지 말라

[레 18:27]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
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
라

[레 18:28]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
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족
속이 음행 등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그 땅도 더러
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벌하셔서 땅이
거민을 토하였습니다. 너희와 동족, 우거하는 타
국인도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증
한 일 하나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 땅 거
민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더러워졌습니다. 너희
도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할 것입니다. 가나안
의 음행.우상은 땅 오염의 원인입니다. 토함은 하
나님의 심판 상징입니다. 원어 '<토메>'는 '더럽

히다오염시키다'로, 죄로 인한 영적 불결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7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20:25의 더러움 금지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토메>'는 레위기 18:24의 더럽히지 말라처럼, 가나안 오염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다' 하여 땅 같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라>'는 '토하다·쫓아내다'로, 땅이 죄인을 토하는 심판을 뜻하며, 레위기에서 형벌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8:25의 토하여 내느니라처럼, 순종의 필요성을 예표합니다. '<카라>'는 레위기 18:28의 토할까 하노라처럼, 경고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토함을 '회복'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타국인 포함 포괄 규칙입니다. 이전 거민의 예로 경고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함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순결·경고)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회복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
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8장 29절은 가증한 일 행하는 자의 끊임
침을 보여줍니다.

[레 18:29]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
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뜻입니다. 가증한 일은 음행·우상 등 타락입니다.
끊침은 공동체 배제 형벌입니다. 하나라도 행하
면 중죄입니다. 원어 '<나카트>'는 '끊다·제거하
다'로, 불순종의 결과로 배제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
위기 20:3의 끊임처럼, 타락 형벌을 예표합니다.
'<나카트>'는 레위기 18:29의 끊쳐지리라처럼,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끊임을 '피하게' 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가증한 일은 세상 풍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
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끊임은 생

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형벌·순종)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자유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8장 30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세상 가증 풍속을 버리라는 마무리 명령을 보여줍니다.

[레 18:30]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명령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전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좇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명령은 생명의 길입니다. 가증 풍속은 세상 타락입니다. 원어 '<미쓰바>'는 '명령·계명'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신명기 30:16의 "내 계

명을 지키라'처럼, 순종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미쓰바'는 레위기 18:30의 명령처럼, 가증 풍속을 버리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계명이 우리의 더러움을 '지키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전 풍속은 가나안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명령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명령·버림)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순종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

[레 19: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세상 오염에서 벗어나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백성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거룩함 명령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상징입니다. 원어 '<카두쉬>'는 '거룩하다 구별되다'로,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4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형용사입니다. 출애굽기 19:6의 "거룩한 나라"처럼, 백성의 구별된 삶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오염을 씻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16의 "너희는 거룩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라"처럼, 거룩함은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본받듯' 순결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백성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보여줍니다.

[레 19: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명하시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근거를 밝히십니다. 온 회중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델입니다. 원어 '<카두쉬>'는 '거룩하다.구별되다'로,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4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형용사입니다. 출애굽기 19:6의 "거룩한 나라"처럼, 백성의 구별된 삶을 예표합니다. '<카두쉬>'는 레위기 19:2의 거룩하라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오염을 '구별' 하여 거룩한 삶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온 회중 대상으로 보편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거룩 명령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거룩.본받음)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거룩케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거룩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생각 시간 5s레위기 19장 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기본적인 거룩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오염에서 벗어나 부모 공경과 안식 준수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부모 경외가 하나님 경외의 기초가 되고, 안식일 지킴이 세상 이별의 상징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가족적 순결을 지킵니다. 공경과 안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위한 상징입니다. 원어 '<아레>'는 '경외하다·공경하다'로,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0:12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처럼, 생명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

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타락을 끊고 부모 사랑의 순결을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 줍니다. 에베소서 6:2-3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처럼, 공경은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부모를 경외하듯' 하나님을 섬기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먼저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경외함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1-3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처럼, 이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의 이별을 뜻합니다. 세상과 이별하지 못할 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럽히는 곳이지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세상의 더러움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안식일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날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유지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부모 경외와 안식일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부모 경외는 가족의 기초입니다. 안식일 지킴은 세상 이별의 상징입니다. 원어 '<아레>'는 '경외하다·공경하다'로,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출애굽기 20:12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처럼, 생명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아레〉'는 레위기 19:3의 경외처럼, 하나님 경외의 기초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모 사랑을 '경외' 하여 영원한 가족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사바트〉'는 '안식일·쉬다'로, 하나님의 안식 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출애굽기 20:8의 "안식일을 기억하라"처럼, 세상 이별을 예표합니다. '〈사바트〉'는 레위기 19:3의 지키라처럼, 날마다 거룩한 안식을 주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안식이 우리의 피로를 '쉬다'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연장입니다. 안식일은 일상 적용으로 세상 구별입니다. 에베소서 6:1-3처럼 복의 약속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경과 안식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공경·안식)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듯

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쉬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안식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4]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것을 위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허무한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겨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우상 섬김을 금지하여 하나님과의 독점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지킵니다. 우상 금지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자유로운 선택을 상징합니다. 원어 '<엘>'은 '헛것·우상'으로, 무가치한 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출애굽기 20:3의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처럼, 충성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우상을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를 주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24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처럼, 선택은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만 섬기듯' 우상을 버리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섬기는 우상은 '재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24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처럼, 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14-16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

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처럼, 빛과 어두움은 사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정해집니다.

레위기 19장 4절은 헛것과 신상 숭배를 금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4]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헛것을 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헛것은 무가치한 우상입니다. 신상 부어 만듦은 우상 제작입니다. 이는 하나님만 섬기는 충성을 요구합니다. 원어 '<엘>'은 '헛것.우상'으로, 무가치한 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출애굽기 20:3의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처

럼, 충성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엘〉'은 레위기 19:4의 헛것처럼, 세상 허무를 버리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을 '위하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사마스〉'는 '부어 만들다·주조하다'로, 신상을 부어 만드는 행위로, 레위기에서 우상 금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44:10의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처럼, 허무를 예표합니다. '〈사마스〉'는 레위기 19:4의 신상처럼, 제작 금지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여 순결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으로 독점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우상 섬김은 재물·권력 등 현대 형태입니다. 마태복음 6:24처럼 두 주인 불가입니다. 고린도후서 6:14-16처럼 빛과 어둠 불일치입니다. 선택은 자유의지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상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충성·선택) 속에 세상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

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충성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5]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열납되도록 드리고

[레 19: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삼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레 19:7]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지 못하고

[레 19: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
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레위기 19장 5-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
스라엘 백성에게 화목제 희생의 제육을 2일까지
먹고 3일째 불사르라는 규정을 명하시는 장면입
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후 화목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세상 오염에서 벗
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
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화목제 제물을
열납되도록 드리고 남은 제육을 3일째 가증한 것

으로 불사르며, 먹는 자는 더럽힘으로 꾸침을 받 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제사적 순결을 지 킵니다. 제육 제한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 님과의 화목이 지속적 회개를 통해 새로워져야 한다는 상징입니다. 원어 '세렘'은 '화목제·평화 제사'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희생을 뜻하며, 레위 기 전체에 8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3:1의 화목제처럼, 관계 회복을 예표합 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목제 처럼 우리의 화목을 영원히 새롭게 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10의 "한 번 드린 예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처럼, 제사 는 예수의 영원한 화목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 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화목을 새롭게 하듯' 회개 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 희생을 드린 후의 남은 제육 을 3일 동안만 먹게 하셨습니다. 3일이 지난 제육 은 불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제 육을 3일 동안만 먹게 하신 이유는 화목제사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정도 로 짧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목제사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3일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하여 그렇게 드러진 회개로 인해 다시 회개할 이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5-8절은 화목제 제육을 3일 한정으로 먹고 불사르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5]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열납되도록 드리고

[레 19: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삼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레 19:7]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지 못하고

[레 19: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화목제 희생을 열납되도록 드리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습니다. 제3일까지 남으면 불사릅니다. 3일째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입니다. 열납되지 못합니다. 먹는 자는 성물을 더럽혀 죄를 당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제사입니다. 제육 제한은 화목 기간의 짧음을 상징합니다. 원어 '<세렘>'은 '화목제·평화 제사'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희생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8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3:1의 화목제처럼, 관계 회복을 예표합니다. '<세렘>'은 레위기 19:5의 열납처럼,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화목을 '열납' 하여 영원한 평화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타마>'는 '불사르다·태우다'로, 제물을 소멸시켜 정결케 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4:12의 불사름처럼, 오염 제거를 예표합니다. '<타마>'는 레위기 19:6의 불사르라처럼, 3일 후 소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희생이 우리의 오염을 '태우

다' 하여 새로움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토에바〉'는 '가증한 일'로, 3일째 먹음의 역겨움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18:22의 가증처럼,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토에바〉'는 레위기 19:7의 가증한 것처럼, 성물 더러움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가증 죄를 '열납'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3일 제한은 자주 회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성물 더럽힘은 화목 파괴입니다. 끊임은 공동체 배제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육 제한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화목·회개)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화목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화 목 제

화목제란?

레위기 2장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 소, 양, 염소였습니다. 이 모든 예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제물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상한제물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흠 있는 예물은 헛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레 3:1]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 역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스스로 예물 머리 위에 안수하였습니다. 이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마치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화제로 드려져 하나님께 화목제물

로 사용되기를 소원함을 뜻합니다.

“[레 3:2]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죽여진 짐승의 피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습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십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함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출 12: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로 드려지고 남은 음식은 누가 취하였나?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3장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곳 레위기 7장에서는 화목제를 지내고 남은 음식에 대한 규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 7:12] 만일 그것을 감사하므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레 7:13]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레 7:14]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 지니라.”

화목제사에는 소, 양, 염소로 예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그리고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함께 겸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로 드려지는 짐승과 함께 드려졌습니다. 화목제사로 사용된 예물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 중 하나씩만 사용되었기때문에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모두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병과류는 거제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제'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드려지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제사 방법으로는 '화제', '거제', '

요제, '전제'가 있었습니다.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방식이며, '요제'는 양 옆으로 흔들면서 드려지는 제사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술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방법입니다. 이러한 제사방법은 제사종류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제사종류에는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제 1장은 '번제', 제 2장은 '소제', 제 3장은 '화목제', 제 4장은 '속죄제', 그리고 제 5-6장은 '속건제'가 차례대로 언급되었습니다.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그릇되이 취하는 경우는?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낙헌제)'로 구분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제(낙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달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레 7:15]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 7:16]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

은 이튿날에도 먹되 [레 7:17] 그 희생의 고기가 제삼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레 7:18]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삼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열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당일에 모두 먹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이처럼 신속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뒤로 미루지도 말며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미루게 되면 감사의 마음이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제에 비해 훨씬 시간적인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심령은 오래도록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서원제와 자원제의 희생고기를 이튿날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제사장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의 희생고기를 제삼일까지 남겨두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화목제는 열납되지 않

았으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그렇게 죄를 범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원하여 드린 성도의 헌금을 저축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드린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곧장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삼일까지 고기를 남겨두어 먹은 제사장에게 죄가 임하듯이 성도의 드린 서원헌금이나 자원헌금을 오래도록 저축하고 남겨둔다면 하나님의 죄가 없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드러지는 서원헌금과 자원헌금은 작정헌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레 7:19]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레 7:20]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레 7:21]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화목제로 사용된 희생고기는 정결한 고기여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다면 그 누구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먹지 말고 고기를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또한 화목제 희생고기는 오직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자’라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육적으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 제사장은 희생 고기를 취할 수 없습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 희생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쳐졌습니다. 백성에서 끊쳐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내 버려짐을 뜻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육적으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만 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야 하며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도 안 되며 먹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짐승은 인간에게도 부정한 것입니다. 또한 가증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며 지녀도 안 됩니다. 우상적인 물건이나 가증한 짐승의 형상

은 버려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음란한 것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물건이나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정결한 육신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온전히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스스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화목제 희생고기를 취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레 19:9]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않으며

[레 19:10]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않으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9-1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 시 밭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 포도원 열매를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해 남겨두라는 구제 규정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이기심에서 벗어나 약자를 돌보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수확의 일부를 버려두어 가난한 자와 타국인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사회적 순결을 지킵니다. 구제 실천은 단순한 관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는 상징입니다. 원어 '아니'는 '가난한 자·약자'로, 사회적 약자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신명기 24:19의 "네 땅의 곡식을 거두어 들일 때에"처럼, 구제를 통해 생명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이기심을 끊고 약자 사랑의 자비를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2의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처럼, 구제는 예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약자를 돌보듯' 자비를 실천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구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구제와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구제에는 병을 치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1-2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처럼, 진심 어린 구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자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15:10의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처럼, 아끼지 않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구제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잠언 11:24의 "훔쳐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처럼, 나누는 자가 풍성합니다.

레위기 19장 9-10절은 수확 시 약자를 위한 구

제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9]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
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
지 말며

[레 19:10]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
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곡물
을 벨 때 밭 모통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뜻입
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원
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야 합니다. 떨어진 열매
도 줍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
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밭 모통이와
떨어진 이삭은 수확 일부를 남김입니다. 포도원
열매는 약자 몫입니다. 타국인 포함 포괄 구제입
니다. 원어 '<아니>'는 '가난한 자·약자'로, 사회적
약자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
는 핵심 명사입니다. 신명기 24:19의 "네 땅의 곡

식을 거두어 들일 때에”처럼, 구제를 통해 생명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아니>’는 레위기 19:10의 가난한 사람처럼, 타국인과 함께 자비를 드러내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이기심을 ‘버려 두라’ 하여 약자 사랑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게르>’는 ‘타국인·나그네’로, 외인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8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19:34의 “타국인을 네 땅 거민과 같이 대접하라”처럼, 포괄 사랑을 예표합니다. ‘<게르>’는 레위기 19:10의 타국인처럼, 구제의 보편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외인을 ‘위하여’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자비 본받음입니다. 마태복음 6:1-2처럼 진심이 핵심입니다. 신명기 15:10과 잠언 11:24처럼 나누는 자가 복 받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제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자비·공동체) 속에 세상의 이기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자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11]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1-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둑질·속임·거짓말·거짓 맹세를 금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불신과 타락에서 벗어나 진실과 충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서로의 관계에서 정직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사회적 순결을 지킵니다. 진실 준수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로운 교제를 상징합니다. 원어 '<샤케르>'는 '거짓말·속임'으로, 불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출애굽

기 20:16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처럼, 관계 회복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거짓을 끊고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44의 "거짓말하는 자의 아버지"를 이기신 예수처럼, 정직은 예수의 영원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듯' 진실을 지키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7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처럼, 십계명에서 이미 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진실한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19장 11-12절은 도둑질·속임·거짓·맹세

금지로 진실한 관계를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둑질은 이웃 재물을 뺏는 불의입니다. 속임과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원어 '<샤케르>'는 '거짓말·속임'으로, 불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출애굽기 20:16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처럼, 관계 회복을 예표합니다. '<샤케르>'는 레위기 19:11의 거짓말처럼,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

는 결과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진리가 우리의 거짓을 '하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사바>'는 '맹세하다'서약하다'로,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30회 이상 등장합니다. 민수기 30:2의 맹세 지킴처럼, 충성을 예표합니다. '<사바>'는 레위기 19:12의 거짓 맹세처럼, 하나님 이름 모독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맹세를 '욕되게 하지 말라' 하여 신뢰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0:7처럼 십계명과 연결됩니다. 진실은 공동체 화합의 기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직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진실·신뢰) 속에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진리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세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misuse)’이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가 ‘오용하다’ ‘악용하다’ 그리고 ‘남용하다’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악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되어서도 안되며 잘못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거나 악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참지 못할 치욕스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되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2)

하나님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거짓되이 맹세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맹세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이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마 5:34-36)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도 상처를 입고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 이유를 정직하게 적을 땐 많은 손해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땅이라고 그 이유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록 교회나 목사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서 얼마나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간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치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막 7:11-12)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르반'이라고 규정된 예물은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한 행위로 사용되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효도를 게을리 하기 위해서 부모를 위해 사용될 재물을 '고르반'이라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모임을 빙자해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는 욕설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런 욕설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용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선 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자녀들 이름 부르듯이 쉽게 불러선 안됩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귀한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는 않습니다(마 7:6).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마 6:7)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하루에 수천 번 부른다고 나무랄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버지의 장난 삼아 이름을 부를 땐 화내지 않을 아버지도 없을 것입니다.

[레 19:13]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능탈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레 19:14]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

라나는 여호와니라

[레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 19:16]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19:17]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레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생각 시간 7s레위기 19장 13-1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에 대한 공의·자비·사랑을 실천하라는 생활 규정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불의와 미움에서 벗어나 정의로운 관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압제·늑탈·불공평 재판·논단·미움·원수 갚음을 금지

하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사회적 순결을 지킵니다. 이웃 사랑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연장으로 생명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원어 '〈아하브〉'는 '사랑하다·자비롭게 하다'로, 실천적 사랑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4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신명기 6:5의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처럼, 관계 회복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불의를 끊고 이웃 사랑의 자비를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37-40의 "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처럼, 사랑은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듯' 자비를 실천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형제를 네 몸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37-40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처럼, 이는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온 율법"은 모세오경을, "온 선지자"는 구약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14절은 이웃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공의를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13] 너희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레 19:14] 너희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늑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

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압제와 늑탈은 약자 착취입니다. 샅 지연은 빈곤 악화입니다. 귀먹은 자와 소경은 취약 계층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공포의 실천입니다. 원어 '<라카스>'는 '압제하다·착취하다'로, 불의한 억압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25:43의 압제 금지처럼, 공의를 예표합니다. '<라카스>'는 레위기 19:13의 압제처럼, 이웃 착취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불의를 '하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아레>'는 '경외하다·공포하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레위기 전체에 7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19:14의 경외하리처럼, 약자 보호의 동기를 예표합니다. '<아레>'는 레위기 19:3의 부모 경외처럼, 실천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약자를 '경외' 하여 보호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취약자 보호는 사회 정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의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

(공의·보호) 속에 세상의 불의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공의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15절은 재판 시 공평을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불의는 편파입니다. 가난한 자 편애는 역차별입니다. 세력 두호는 부패입니다. 공의는 균형입니다. 원어 '<디안>'은 '재판하다·판단하다'로, 공평한 심사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신명기 1:17의 "작은 소송이나 큰 소송이나 차별하지 말라"처럼, 정의를 예표합니다. '〈디안〉'은 레위기 19:15의 재판처럼, 편파 금지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심판이 우리의 불의를 '공의로'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공의는 사회 화합의 기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판 공의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공평·정의) 속에 세상의 부패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정의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은 이웃을 논단·대적하지 말라는 관계 보호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16] 너희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논단은 험담·중상입니다. 대적은 증언·행동으로 해침입니다. 죽을 지경은 생명 위협입니다. 원어 '<라카드>'는 '논단하다·중상하다'로, 이웃을 해치는 말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19:16의 논단처럼, 관계 파괴를 금지합니다. '<라카드>'는 시편 15:3의 "이웃을 험담하지 아니하는 자"처럼, 사랑의 보호를 예표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중상을 '하지 말라'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웃 대적은 공동체 해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논단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관계 보호·화합) 속에 세상의 해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화합의 따

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은 형제 미움 금지와 책선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레 19:17] 너희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반드시 책선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음의 독입니다. 책선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죄 당침은 공유 책임입니다. 원어 '<토케하>'는 '책선하다·훈계하다'로, 사랑으로 바로 잡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19:17의 책선처럼, 관계 회복을 예표합니다. '<토케하>'는 잠언 27:5의 "숨기는 사랑보다 드러내는 책선이 나으니라"처럼, 진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교정이 우리의 미움을 '책선'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형제 미움은 공동체 분열입니

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책선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미움 금자교정) 속에 세상의 독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교정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웃 사랑의 절정으로 원수 갚지 말고 몸처럼 사랑하라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원수 갚음은 복수입니다. 원망은 마음의 앙금입

니다. 몸 같은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원어 '아하브'는 '사랑하다'로, 실천적 사랑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4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신명기 6:5의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처럼, 관계 회복을 예표합니다. '아하브'는 레위기 19:18의 이웃 사랑처럼, 원수까지 포괄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2:39처럼 율법 강령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랑 명령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사랑·화합) 속에 세상의 미움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사랑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19]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레위기 19장 19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축 교합, 밭 종자 섞음, 옷 직조 섞음을 금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혼합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본받아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서로 다른 종류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창조적 순결을 지킵니다. 섞음 금지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세상과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두쉬>'는 '거룩하다·구별되다'로,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4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형용사입니다. 레위기 19:2의 "너희는 거룩하라"처럼, 세상과 분리된 삶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혼합을 끊고 거룩한 구별로 인도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2:15-16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처럼, 구별은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듯'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밭에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옷을 직조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따르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과 섞이지 않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세상은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더러움이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요한 일서 2:15-16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처럼, 세상 사랑

은 하나님 사랑과 상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14-16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처럼, 빛과 어두움의 불일치를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은 육축·종자·옷 섞음을 금지하며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을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19]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규례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을 상

징합니다. 육축 교합은 창조 종류 혼합입니다. 종자 섞음은 수확 불순합니다. 옷 직조는 일상 혼합입니다. 원어 '〈미쉬파트〉'는 '규례·법도'로, 하나님의 지시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18:4의 "나의 법도를 좇으며"처럼, 순종의 삶을 예표합니다. '〈미쉬파트〉'는 레위기 19:19의 지킬지어다처럼, 섞음 금지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혼합 타락을 '지키라' 하여 구별된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라카트〉'는 '교합시키다·섞다'로, 종류 혼합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19:19의 육축처럼, 창조 질서 보호를 예표합니다. '〈라카트〉'는 창세기 1:24의 종류대로처럼, 섞음 금지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세상 섞임을 '섞지 말라' 하여 순결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2:15-16처럼 세상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상반됩니다. 고린도후서 6:14-16처럼 빛과 어둠 불일치입니다. 섞음 금지는 거룩한 구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구별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구별·순결) 속에 세상의 혼합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구별케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구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20]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레 19:21]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레 19:22]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19장 20-2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인이 속한 정혼 여종(아마)과의 행음 규정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세 남용에서 벗

어나 약자 보호와 속죄의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속량해방되지 않은 정혼 여종과의 행음은 형벌을 받으나 사형은 면하고 속건제 수양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사회적 순결을 지킵니다. 속죄 실천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권세의 오용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상징입니다. 원어 '〈파다〉'는 '속량하다·구속하다'로, 돈으로 자유를 사는 행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25:47의 속량처럼, 약자 해방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권세 오용을 속죄하고 약자 사랑의 공의를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 줍니다. 히브리서 9:15의 "그의 죽음으로... 속량"처럼, 속건은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약자를 보호하듯' 회개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정혼한 씨종(여종)과 행음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속량되지 못했다'함은 돈으로 종 신세로부터 해

방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해방되지 못했다'함은 법적 안식년이나 희년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씨종'이라 함은 주인에게 속한 여종을 말합니다. 만일 주인이 정혼 여종과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습니다. 비록 주인의 권세에 속한 여종이라 할지라도 행음은 큰 죄악입니다. 일반 간음은 사형이지만, 여종과의 경우 사형은 면합니다. 주인은 속건제 수양을 드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레위기 19장 20-22절은 정혼 여종과의 행음 규정과 속건 속죄를 보여줍니다.

[레 19:20]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레 19:21]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레 19:22]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혼한 씨
종(여종)과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죽임을 당치 아니합니다. 여인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으로 끌어올립니다. 제사장은 그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합니다. 그리하면 범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씨종은 주인 소유 여종입니다. 정혼은 약혼 상태입니다. 속량은 돈으로 자유 사는 것, 해방은 법적 자유입니다. 형벌은 매형이나 벌금입니다. 사형 면함은 여종 지위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죄의 보상 제사입니다. 원어 '<파다>'는 '속량하다·구속하다'로, 돈으로 자유를 사는 행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25:47의 속량처럼, 약자 해방을 예표합니다. '<파다>'는 레위기 19:20의 속량되지 못한처럼, 권세 오용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속량을 '구속'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아삼>'은 '속건제·죄값 제사'로, 보

상 희생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4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5:15의 속건처럼, 회개 회복을 예표합니다. '＜아삼＞'은 레위기 19:21의 속건제처럼, 사함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속건' 하여 용서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주인 권세에도 죄 적용입니다. 사함은 회개 조건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속건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보호·회개) 속에 세상의 오용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속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사함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23]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레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되 곧 삼 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레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레 19:24] 제사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레 19:25] 제오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
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
가서 3년 동안 과목을 먹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이는 "그 열매는 아직 할레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과목이 할레받지 못한 것은
정결치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과목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4
년째에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졌습니다. 결국 4
년 동안 과목을 먹지 못했으며, 제5년째에야 비
로소 과목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5
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25절)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4년 동안 과목을 먹지 못했을
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킨 자에게는 5년째
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23-25절은 가나안 입성 후 과수원 열매의 정결 과정과 풍성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과목을 심을 때 3년 동안 열매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할레받지 못한 것으로 여깁니다. 4년째에는 모든 과실을 여호와께 찬송 제물로 드립니다. 5년째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소산이 풍성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3년 금지는 정결 과정입니다. 4년 제물은 감사 헌상입니다. 5년 풍성은 믿음 보상입니다. 원어 '<아랄>'은 '나무·과목'으로, 심은 열매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3:40의 과실처럼, 감사와 풍성을 예표합니다. '<아랄>'은 레위기 19:23의 심거둔처럼, 시험 후 열매의 과정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기다림을 '풍성' 하여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야카>'는 '할레받지 못한·정결치 못한'으로, 불결 상태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12:3의 할레처럼, 정결 필요성을 예표합니다.

'<야카>'는 레위기 19:23의 할례받지 못한처럼, 3년 정결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불결을 '정결케'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4년 시험은 믿음 성장입니다. 풍성 약속은 순종 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실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믿음·풍성) 속에 세상의 조급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풍성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26]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레 19:27]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
을 손상치 말며

[레 19: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6-2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먹음, 복술·술수, 머리
가름·수염 손상, 죽은 자 애도 풍습 금지를 명하
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
상 미신·타락 풍습에서 벗어나 생명의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피
금지로 생명을 존중하고, 미신·애도 풍습 금지로
우상 타락을 막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문
화적 순결을 지킵니다. 금지 명령은 단순한 규칙
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소중함
을 상징합니다. 원어 '〈다마〉'는 '피'로, 생명의 원
천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50회 이상 등장하
는 핵심 명사입니다. 창세기 9:4의 "고기를 그 생
명 되는 피채 먹지 말라"처럼, 피의 거룩함을 예
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타락을 끊고 생명의 순결을 회복하는 은혜
를 미리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22의 "피 흘림
이 없는 중에 사함이 없느니라"처럼, 생명 존중
은 예수의 영원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
리에게는 매일 삶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듯' 미
신을 버리라는 따듯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9:4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라"처럼, 심지어 새의 피조차 금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못하게 명하신 이유는 피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창세기 9:5의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처럼, 피를 먹는 자는 난폭해질 수 있습니다. 피에는 더러운 세균이 많아 신체에 해롭습니다. 또한 짐승의 유전적 성향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술'은 주무를 외우며 장래 일을 점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술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힘에 의지하여 점치는 우상 숭배 행위에 속하는 죄악입니다. '술수'는 사악한 눈으로 상대방에게 마법을 걸어 넋을 홀리는 비술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술수라는 히브리어 '<아난>'은 원래 눈(<아인>)에서 왔다는 점이 그 뜻을 선명하게 합니다.

레위기 19장 26절은 피 먹음, 복술, 술수 금지로 생명과 미신 타락을 막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26]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지 피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술을 하지 말
아야 합니다. 술수를 행치 말아야 합니다. 피 먹
음은 생명 오염입니다. 복술은 점술·주술 미신입
니다. 술수는 마법·예언 타락입니다. 이는 우상과
연결됩니다. 원어 '<다마>'는 '피'로, 생명의 원천
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35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창세기 9:4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라"처럼, 피의 거룩함을 예표
합니다. '<다마>'는 레위기 19:26의 피채처럼, 생
명 삼킴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오염을 '먹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
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나하쉬>'는 '복술·
점술'로, 미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
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신명기 18:10의 "
점술하지 말라"처럼, 하나님 의존을 예표합니다.
'<나하쉬>'는 레위기 19:26의 복술처럼, 우상 숭
배의 결과를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진리

가 우리의 미신을 '하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아난>'은 '술수·마법'으로, 사악한 눈으로 홀리는 행위로,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합니다. '<아난>'은 눈(<아인>) 뿌리에서, 시각적 타락을 뜻합니다. 레위기 19:26의 술수처럼, 낯 홀림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행치 말라' 하여 구원을 상징합니다. 피는 생명 상징으로 금지입니다. 미신은 우상 의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생명 존중·자유) 속에 세상의 미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자유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27-28절은 머리 가름, 수염 손상, 살 베기, 무늬 놓기 금지로 우상 애도 풍습을 막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27]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레 19: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염 끝을 손상치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
아야 합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둥근 머리
가름은 이방 상복입니다. 수염 손상은 우상 표시
입니다. 살 베기는 애도 자해입니다. 무늬 놓기
는 문신 우상입니다. 원어 ‘<가타프>’는 ‘손상치
말다·베다’로, 몸 해침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5
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21:5
의 제사장 금지처럼, 순결 보호를 예표합니다. ‘<
가타프>’는 레위기 19:27의 손상치처럼, 우상 풍
습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리의 해침을 ‘하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
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카아카>’는 ‘무늬 놓다·
문신’으로, 몸 장식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회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19:28의 무
늬처럼, 우상 표시 금지를 예표합니다. ‘<카아카
>’는 이방 애도처럼, 몸 오염의 결과를 강조합니

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표시를 '놓지 말라' 하여 순결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도 풍습은 우상 연결입니다. 몸 보호는 생명 존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몸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보호·순결) 속에 세상의 풍습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 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29]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9-3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딸을 기생으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식일 지키고 성소 공경으로 거룩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음란 타락에서 벗어나 가족 보호와 예배 순결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딸의 타락이 전국 음풍으로 퍼지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안식·성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영적·가족적 순결을 지킵니다. 가족 보호와 예배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음란 전염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원어 '<자녀>'는 '더럽히다·기생케 하다'로, 가족 오염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21:9의 딸 기생 처벌처럼, 순결 보호를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타락을 끊고 가족 사랑의 순결을 회복하는 은혜를 미리 보여 줍니다. 에베소서 5:3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금지처럼, 보호는 예수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삶에서 '자녀를 보호하듯' 예배를 소중히 하라는 따뜻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여기셨습니다. '음풍이 전국에 퍼진다'는 말은 음란한 것이 전염병처럼 옮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무책임이 가족과 공

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안식일과 성소 공경은 이러한 타락을 막는 영적 방어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사랑과 예배를 통해 세상 오염에서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9절은 딸을 기생으로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며 가족 타락의 위험을 경고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29]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딸 기생은 가족 파괴입니다. 음풍은 음란 전염입니다. 죄악 가득은 공동체 심판입니다. 원어 '〈자네〉'는 '더럽히다. 기생케 하다'로, 가족 오염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21:9의 딸 기생 처벌처럼, 순결 보호를 예표합니다. '〈자네〉'는 레위기 19:29의 더럽히처럼, 전국 오염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영적으

로 예수의 사랑이 가족을 '더럽히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부모 책임은 자녀 정결 유지입니다. 음풍 전염은 타락 확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족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보호·예방)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위기 19장 30절은 안식일 지키고 성소 공경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내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세상 이별입니다. 성소 공경은 하나님

임재 존중입니다. 원어 '<사바트>'는 '안식일·쉬다'로, 하나님의 안식 날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출애굽기 20:8의 "안식일을 기억하라"처럼, 구별된 삶을 예표합니다. '<사바트>'는 레위기 19:30의 지키고처럼, 일상 거룩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안식이 우리의 피로를 '공경'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성소는 하나님 거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삶(안식·공경) 속에 세상의 오염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공경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31]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는 거룩한 경계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

는 미신 추종이 스스로를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킨다고 경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결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며,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거짓된 영적 행위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신접한 자”는 영매나 점술가, 즉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거나 미래를 예언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박수”는 마술사나 주술사로, 초자연적 힘을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방 종교적 관습이 만연했으며, 이는 하나님 외의 다른 존재나 힘에 의존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자들을 믿거나 따르는 것을 금지하시며,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훼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염시킨다고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

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선언은 이 명령의 근거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접한 자나 박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거짓된 세력에 마음을 빼앗기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와 권능의 근원이시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현대의 “신접한 자와 박수”는 점술, 미신, 또는 돈, 권력, 세속적 지혜와 같은 하나님 외의 것에 의존하려는 태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해법이나 즉각적인 답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거짓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앙을

다짐하게 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은 신접한 자와 박수 추종 금지로 거룩한 신앙을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31]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접한 자는 영매나 죽은 영혼 소환자입니다. 박수는 마술사나 주술자입니다. 추종은 미신 의존입니다. 더럽힘은 영적 오염입니다. 이 금지는 가나안 이방 관습에 대한 직접적 대응입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자 영혼과 교통하여 미래를 예언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수는 초자연적 힘으로 사람을 홀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추종은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니다. 더럽힘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으로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구별된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원어 '<오브>'는 '신접한 자·영혼 소환자'로, 죽은 자 영혼과 교통하는 미신가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5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6의 신접 금지처럼, 우상 타락을 막는 순결을 예표합니다. '<오브>'는 레위기 19:31의 신접한처럼, 하나님 주권 부정의 위험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진리가 우리의 미신을 '민지 말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아다>'는 '박수·주술자'로, 초자연 현혹자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1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20:27의 박수 처벌처럼, 거짓 의존을 예표합니다. '<아다>'는 레위기 19:31의 박수처럼, 추종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권능이 우리의 현혹을 '추종하지 말라' 하여 참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미신은 우상 숭배의 일부입니다. 추종은 하나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으로 구속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미신 금지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의지·순결) 속에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순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술, 점성술, 또는 세속 권력에 의지하는 태도는 이 금지의 현대적 형태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해법을 찾는 유혹이 큼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확신을 줍니다. 순종은 신앙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다짐하게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 19:31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레 19:32]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인 앞에 일어서며 공경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레위기 19장의 생활 규정을 이어가며, 세대 존중이 하나님 경외의 실천임을 강조합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라는 뜻은 나이 든 분을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세대 간 존중과 하나님 경외를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노인 공경은 가족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본받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은 노인 앞 일어서기와 공경으로 하나님 경외를 실천하라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32]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센 머리는 노인 상징입니다. 일어서기는 존중 태도입니다. 공경은 마음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실천적 사랑입니다. 원어 '<아레>'는 '경외하다. 공경하다'로,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7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19:3의 부모 공경처럼, 세대 사랑을 예표합니다. '<아레>'는 레위기 19:32의 공경처럼, 하나님 경외의 연장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노인을 '일어서'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세대 존중은 공동체 안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경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삶(존중·화합) 속에 세상의 무시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존중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레 19:33]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레 19:34]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3-3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몸처럼 사랑하라는 자비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타국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애굽 객 경험을 통해 공감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인도하시며, 타국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

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들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베푼다는 깊은 도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환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의 근거로 하나님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이방인으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소외와 고통의 시간을 알기에, 타국인을 향한 공감과 연민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타국인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선언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성품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현대의 타국인은 이주민, 난민, 혹은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께 소외된 자였으나, 그리스도

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3-34절은 타국인에 대한 자비로운 사랑과 환대를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33]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레 19:34]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타국인이 땅에 우거하면 학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는 타국인을 낳은 자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라고 근거를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타국인은 나그네·이주민입니다. 학대 금지는 적극 존중입니다. 낳은 자 같음은 동등 대우입니다. 자기 사랑처럼 포괄적입니다. 애굽 객 경험은 공감의 뿌리입니다. 원어 '<게르>'는 '타국인·나그네'로,

외인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8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레위기 19:10의 타국인 구제처럼, 사랑의 포괄성을 예표합니다. '〈게르〉'는 레위기 19:33의 우거처럼, 학대 금지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외인을 '같이 사랑하라'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아하브〉'는 '사랑하다.자비롭게 하다'로, 실천적 사랑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4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동사입니다. 레위기 19:18의 이웃 사랑처럼, 타국인까지 확대합니다. '〈아하브〉'는 신명기 10:19의 "타국인을 사랑하라"처럼, 애굽 경험으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외를 '애굽 객'처럼 공감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거는 공동체 내 거주입니다. 학대는 착취·배제입니다. 낯은 자 같음은 혈연 동등입니다. 애굽 기억은 은혜 공유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으로 구속자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타국인 사랑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자비·공감) 속에 세상의 배제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

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환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
식에서처럼, 그 사랑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
올리게 해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주민·난민은
타국인입니다. 차별 대신 환대가 필요합니다. 우
리도 죄로 소외된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공감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줍니다. 타국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실천입니다. 애굽 경
험은 공감의 교훈입니다. 자비로운 공동체는 하
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9:33-
34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확장
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레 19:35]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
의를 행치 말고

[레 19:36]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
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니라

[레 19:37]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5-3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과 상거래의 공의, 그리고 모든 규례 준수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일상 속 정직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반영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재판과 상거래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추, 에바와 힌을 사용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거래의 규칙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저울, 추, 에바, 힌은 당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도구이자 단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혹을 멀리하고, 정직과 공정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의한 저울은 단지 물질적 손익을 넘어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고, 하나님

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반면, 공평한 저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기에,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공의와 정직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해방자이시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19장 35-36절은 재판과 도량의 공평을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19:35]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레 19:36]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

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이나 도량형에 불의를 행치 말라는 뜻입니다. 공평한 저울추에바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온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불의는 편파입니다. 공평은 정의입니다. 애굽 구원은 공의 근거입니다. 저울추에바힌은 일상 무역 도구입니다. 불공평은 이웃 착취입니다. 공평은 신뢰 기반입니다. 원어 '<미쉬칼>'은 '저울·도량'으로, 공정한 무게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신명기 25:15의 "공평한 저울"처럼, 정의로운 생활을 예표합니다. '<미쉬칼>'은 레위기 19:36의 공평한처럼, 불의 금지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심판이 우리의 불의를 '공평'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원어 '<미쉬파트>'는 '재판·판단'으로, 공정한 심사를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0회 이상 등장합니다. 레위기 19:15의 재판 공의처럼, 편파 금

지를 예표합니다. '〈미쉬파트〉'는 레위기 19:35의 재판처럼, 일상 정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공의가 우리의 편견을 '행치 말라'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굽 해방은 은혜 기억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공평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정의·신뢰) 속에 세상의 부패를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공의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정의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공평한 거래는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애굽 경험은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19장 37절은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마무리 명령을 보여줍니다.

[레 19:37]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규례는 생활 전체입니다. 법도는 실천적 순종입니다. 이는 제 19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토라>'는 '규례·법도'로, 하나님의 지침을 뜻하며, 레위기 전체에 200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 명사입니다. 신명기 30:16의 "내 지시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처럼, 순종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토라>'는 레위기 19:37의 모든처럼, 생활 전체 준수를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계명이 우리의 규례를 '행하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전체 준수는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법도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준수·축복)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준수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

줍니다. 모든 법도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19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레위기 20장 =====

[레 2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0: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도로 칠 것이요

[레 20:3]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레 20:4]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레 20:5]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레 20:6]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레 20:7] 너희는 스스로 깨끗케 하여 거룩할지 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20:8]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

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의 시작은 가장 극악한 종교적 죄악인 몰렉 숭배에 대한 엄중하고 즉각적인 심판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족속의 풍습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예배를 훼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몰렉 숭배는 "[레 20:2]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이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인신공양) 가장 잔인하고 가증한 형태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레 20:2]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라는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통한 사형을 명령하셨습니다. 몰렉 숭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궁극적인 반역 행위였으며, 하나님은 "[레 20:3]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심판도 함께 집행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몰렉 숭배를 방관하는 행위와 영적인 죄까지도 엄격히 다루셨습니다. "[레 20:4]그 지방 사람이 못본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죄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곧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또한 신접한 자와 박수(점술가)를 따르는 행위 역시 "[레 20:6]음란하듯" 행하는 영적인 간음으로 규정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규율의 근본적인 목적은 "[레 20:7]너희는 스스로 깨끗케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20:8]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니라"는 선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만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확증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자녀를 물질적인 탐욕(현대의 몰렉)에 바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하며, 영적인 거룩함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죄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는 생활의 실천을 통

해 이루어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레 20:9]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 20:11]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12]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14]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레 20:15]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레 20:16]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
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0:17]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
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레 20:18]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
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
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 20:19] 너의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골육지친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 죄
를 당하리라

[레 20:20] 누구든지 백숙모와 동침하면 그 백숙
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그 죄를 당하여 무
자히 죽으리라

[레 20:21]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이 무자하리라

이 단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족 및 성(性) 윤리의 거룩함을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엄격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순결한 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가르치시는 데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레 20:9]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규정하며 부모 공경의 의무를 최고의 윤리적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함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간음(v. 10), 근친상간(v. 11, 12, 17, 19, 20, 21), 동성애(v. 13), 수간(v. 15, 16) 등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가증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레 20:13]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규정은 성(性)의 영역에서의 창조 질서의 준수가 공동체의 거룩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엄중한 심판(반드시 죽일지니, 끊어지리라, 무자히 죽으리라)은 "[레 20:14]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이 개인의 복수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위한 정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레 20:13]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문구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죄의 자기 귀결성을 강조합니다.

이 규례들은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악하고 가증한 풍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구별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성적인 문란과 가정 질서 파괴를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에 비추어 단호히 거부하고, 가정과 성 생활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결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레 20:22]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

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레 20:23]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좇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레 20:24]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레 20:25]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레 20:26]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 20:27]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단락은 앞서 언급된 모든 윤리적, 종교적 규

례를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요약하고 입증하는 언약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조건이 됨을 선언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레 20:22]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순종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장치임을 가르칩니다.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는 경고는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배척하여 멸망했음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풍속(v. 23)을 좇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레 20:24]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선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진리는 구별(거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구별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이스

라엘은 "[레 20:25]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까지도 엄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종교적, 윤리적, 식생활적 규례를 지켜야 하는 가장 높은 이유는 "[레 20:26]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필수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거룩)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사랑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영적인 땅(교회와 구원의 영역)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레 21: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 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레 21:4]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레 21:5]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레 21:6]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레 21:7]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레 21:8]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

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
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
이니라

[레 21:9]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
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
사를지니라

레위기 21장 1-9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거룩함을 명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이 하나
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상 속 더러움과 불결을 멀리하고 하나님
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
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
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순결과 분리를 실천하
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만지
는 행위, 외모의 변형, 부적절한 결혼은 단순한
위생 규칙이 아닙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삶이 하
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

입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그들의 더러움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제사장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순결과 분리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1장 1-6절은 제사장들의 더러움 금지와 거룩한 외모를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

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 21:2] 그의 골육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레 21:3] 처녀인 누이에게는 더럽힐 수 있느니라

[레 21:4] 그 백성 중에 남자가 된 후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 21:5] 그 머리를 길게 기르지 말며 수염을 깎지 말며

[레 21:6]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백성 중 죽은 자를 만져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친인 부모·자녀·형제·처녀 누이에게만 예외를 두시며, 백성 중 남자가 된 후에는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수염을 깎지 말고, 제물을 드릴 때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더러움은 불

결입니다. 거룩은 분리입니다. 제물은 예배의 상징입니다. 죽음 접촉은 불결<타메> '불결'이나 '더럽힘'을 의미하며 죽음과 관련된 의식적 불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사장들의 중보를 방해하는 영적 장벽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으키는 분리와 고립을 예표하며 타메의 본질은 영혼의 타락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 불결을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타메의 불결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불결은 세상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죽음을 나타내고 제사장의 순결은 그리스도의 무죄한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신명기 14:1의 "머리 깎지 말라"처럼 이는 이방 풍습 금지의 예표입니다. 불결<타메>는 레위기 21:1의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처럼 제사장의 순결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원어 제사장<코헨> '제사장'을 의미하며 사제의 중보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를 놓는 영적 사명을 나타냅니다. 코헨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전하는 살아 있는 제단으로 레위기 21:6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매일의 헌신으로 이어지며 코헨은 아론 자손처럼 백성 거룩화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이 우리의 불결을 '존귀히'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세상의 고독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헨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영원한 화평을 이루는 구원의 모형으로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죽음 예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순결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분리·예배) 속에 세상의 죽음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순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

리게 해줍니다. 제물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죽음 금지는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1장 7-9절은 제사장들의 결혼과 딸의 순결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1:7] 창녀나 더럽힌 여인이나 쫓겨난 여인과 결혼하지 말며

[레 21:8] 너는 백성을 거룩하게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레 21:9]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행하거든 그를 불사르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백성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창녀나 더럽힌 여인이나 쫓겨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면 그를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결혼 금지는 순결입니다. 거룩화는 사명입니다. 음행 처벌은 공

동체 보호입니다. 이는 제21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거룩<칸다카> '거룩하게 하다'를 의미하며 성별과 분리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칸다카의 깊은 의미는 내적 변화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신명기 7:6의 "거룩한 백성"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칸다카는 레위기 21:8의 백성처럼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움을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칸다카의 성화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음행<찬나> '음행하다'를 의미하며 도덕적 불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영적 배반을 나타냅니다. 찬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불충성을 상징하며 레위기 21:9의 딸처럼 가족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주변을 더럽히는 파괴적 힘을 예표하고 찬나는 레위기 19:29의 창녀처럼 백성 더럽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타락을 '불사름' 없이 용서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영적 불결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찬나의 음행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전체 순결은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순결·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거룩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결혼 규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결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

리는 제21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레 21:10]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
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레 21:11]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
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레 21:12]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
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1:13]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레 21:14]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
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레 21:15]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
라

레위기 21장 10-1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거룩함을 명하시는 장
면입니다. 이 규례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
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도

와 결혼에서 더욱 엄격한 분리를 지키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완전한 순결과 헌신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머리 풀기나 옷 찢기 금지, 모든 죽은 자 접촉 금지, 처녀와의 결혼은 단순한 의식 규칙이 아닙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완벽히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그의 불결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대제사장은 백성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대제사장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완전한 분리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1장 10-15절은 대제사장의 특별 애도와 결혼 규정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1:10] 대제사장 곧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받고 의복을 입은 자는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레 21:11] 어떤 죽은 자의 몸을 더럽히지 말며 그 부모의 몸도 더럽히지 말라

[레 21:12] 여호와와 성소와 그 하나님의 머리에서 떠나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레 21:13] 그 처는 처녀를 취하여 결혼할 것이며

[레 21:14]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쫓겨난 여자 곧 창녀에게는 결혼하지 말고 오직 처녀 중에 자기 백성의 딸과 결혼할 것이며

[레 21:15] 그는 그 자손 중에 그 백성 중에 흠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의복을 입은 자로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죽은 자의 몸도, 심지어 부모의 몸도 더럽히지 말며, 여호와와 성소와 하나님의 머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는 처녀를 취하여 결혼하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쫓겨난 여자나 창녀와 결혼하지 말며, 오직 자기 백성의 처녀 딸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손 중에 그 백성 중에 흠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애도 금지는 완전한 분리입니다. 결혼 규정은 순결입니다. 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애도 금지는 불결<타메> '불결'이나 '더럽힘'을 의미하며 죽음과 관련된 의식적 불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중보를 방해하는 절대적 장벽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으키는 영원한 분리를 예표하며 타메의 본질은 영혼의 타락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 불결을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타메의 불결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불결은 세상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히 멀어지게 하는 영적 사망을 나타내고 대제사장의 순결은 그리스도의 무죄한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원어 대제사장<코헨 하갓돌> '대제사장'을 의미하며 사제의 최고 중보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완전한 다리를 놓는 영적 사명을 나타냅니다. 코헨 하갓돌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살아 있는 제단으로 레위기 21:12의 성소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 헌신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 매일의 완전한 헌신으로 이어지며 코헨 하갓돌은 기름 부음처럼 백성 거룩화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이 우리의 불결을 '흠 없게'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세상의 고독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영원히 회복시키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헨 하갓돌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영원한 화평을 이루는 구원의 모형으로 대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결혼 순결은 자손 흠 없음의 상징입니다. 성소 머무름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순결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분리·헌신) 속에 세상의 죽음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순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결혼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애도 금지는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 21: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1:17]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레 21:18]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레 21:19]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레 21:20]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레 21: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아와 여호와와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아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레 21:22]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레 21:23]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 21:24]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레위기 21장 16-2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신체 흠에 대한 제사 제한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단에서의 완전함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

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흠 없는 헌신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장애나 흠은 단순한 신체적 제한이 아닙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몸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그들의 흠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통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제사장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흠 없는 헌신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1장 16-24절은 장애 제사장의 제사 제한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1: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21:17]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몸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되지 못하리니

[레 21:18] 몸에 흠이 있는 자 곧 장님이나 절뚝발이거나 코가 비뚤어진 자나 사지가 더 붙은 자나

[레 21:19] 손발이 꺾인 자나

[레 21:20] 혹이나 눈이 풀린 자나 코가 찌그러진 자나 손발이 온전치 못한 자나

[레 21:21] 아론 자손 중에 몸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의 일부를 먹지 못하리라 그러나 회막 안에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의 음식은 먹을 수 있으리라

[레 21:22] 그러나 장막 휘장 앞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 곁에도 나아가지 못할 것은 그 몸에

흠이 있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1:23] 모세가 이와 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 21:24]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론 자손 중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장님, 절뚝발이, 코가 비뚤어진 자, 사지가 더 붙은 자, 손발이 꺾인 자, 혹이나 눈이 풀린 자, 코가 찌그러진 자, 손발이 온전치 못한 자를 예로 들며, 제단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막 안 성소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장막 휘장 앞이나 제단 곁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몸에 흠이 있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흠은 불완전입니다. 제사 제한은 거룩 상징입니다. 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흠<몸> '흠'이나 '결함'을 의미하며 신체적 불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사장들의 헌신이 하

나님의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뭍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내는 영적 흠결을 예표하며, 이는 세상의 불완전이 제단에서의 접근을 막는 영적 장벽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무흠한 희생이 우리의 흠을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구원을 상징하며, 뭍의 결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흠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염시키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제사장의 제한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원어 제사장<코헨> '제사장'을 의미하며 사제의 중보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를 놓는 영적 사명을 나타냅니다. 코헨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전하는 살아 있는 제단으로 레위기 21:17의 제물처럼 흠 없는 헌신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매일의 완전한 헌신으로 이어지며 코헨은 아론 자손처럼 백성 거룩화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대

제사장 직분이 우리의 흠을 '제단에 오르게' 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세상의 불완전함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헨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결함을 대신 짊어지시며 영원한 화평을 이루는 구원의 모형으로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성소 음식 허용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제단 제한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흠 없음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헌신·분별) 속에 세상의 불완전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완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제사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흠 제한은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2장 =====

[레 2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2:2]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
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3]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
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4]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레 22:5]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
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레 22:6]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
정하니 몸을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
할지며

[레 22:7]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레 22:8]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9]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 22:10]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레 22:11]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레 22:12]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레 22:13]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는 그 아버지의 응식을 먹을 것이나 외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레 22:14] 사람이 부지 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레 22: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레 22:16]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2장 1-1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성물을 다루는 규례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물을 더럽히지 말고 구별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성물의 순결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부정할 때 성물 금지, 외인 참여 제한은 단순한 식사 규칙이 아닙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그들의 불결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제사장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성물의 구별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2장 1-9절은 제사장들의 부정 시 성물 금지를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2:2]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레 22:3] 너희 중에 몸이 부정한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으려 할진대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4] 아론 자손 중에 제사장 중에 몸이 부정한 자가 어떤 죽은 짐승으로 말미암아든 사람으로 말미암아든 스스로 더럽히고 성물을 먹으려 할진대 그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하리라 그 몸이 깨끗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을지니라 이는 그 성물을 먹는 자가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5] 짐승이나 벌레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거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스스로 더럽히고

[레 22:6] 몸이 부정한 자는 그 몸이 부정한 동안에 성물을 먹지 못하리라

[레 22:7] 해가 질 때에 몸이 깨끗케 되면 그 후에 먹을지니라 이는 성물을 먹는 자가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8] 고기 잡아 죽은 것과 찢긴 것은 먹지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9] 그들은 내 계명을 지켜 범죄하지 아니 할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성물을 더럽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몸이 부정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은 짐승이나 사람으로 더럽혀지면 해 지기까지 기다려 깨끗케 된 후에 먹고, 고기 잡아 죽은 것과 찢긴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계명을 지켜 범죄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부정은 더러움입니다. 성물은 구별입니다. 계명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부정<타메> '부정'이나 '더럽힘'을 의미하며 의식적 불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사장들의 중보를 방해하는 영적 장벽을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일으키는 분리와 고립을 예표하며 타메의 본질은 영혼의 타락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부정 불결을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타메의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부정은 세상의 죽음과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사망을 나타내고 제사장의 순결은 그리스도의 무죄한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원어 성물<코데쉬> '거룩한 것'을 의미하며 구별과 성별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코데쉬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물질적 제물이 아니라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2:2의 성호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코데쉬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리의 성물을 '온전'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데쉬의 구별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계명 순종

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순결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구별·예배) 속에 세상의 더러움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순결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 줍니다. 성물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부정 금지는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2장 10-16절은 제사장 집안 외인의 성물 금지를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2:10] 제사장의 손님이나 그와 함께 사는 품꾼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레 22:11] 제사장이 그 돈으로 산 자 곧 그의 집안에 속한 자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으리라

[레 22:12] 제사장의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으나 제사장의 딸이 남편이

죽고 남편 없이 지내면 자기 아버지의 성물을 먹을 수 있으리니 이는 제사장의 자녀라

[레 22:13] 만일 제사장의 딸이 과부나 이혼하여 자녀 없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어린 시절에 먹던 것 같이 자기 아버지의 성물을 먹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못하리라

[레 22:14] 사람이 무심코 그 성물을 먹으면 그 가치를 더하여 그날에 더하고 그 먹은 성물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레 22:15]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더럽히지 말고

[레 22:16]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손님이나 품꾼은 성물을 먹지 못하나, 돈으로 산 자나 집안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먹지 못하나, 과부나 이혼하여 자녀 없이 돌아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으면 가치를 더하여 제사장에게

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외인 금지는 구별입니다. 헌납은 속죄입니다. 성물은 공동체 보호입니다. 이는 제22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성물<코데쉬> '거룩한 것'을 의미하며 구별과 성별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코데쉬의 깊은 의미는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2:15의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코데쉬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리의 성물을 '온전'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데쉬의 구별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형벌<아삼> '죄책'이나 '벌'을 의미하며 속죄의 필

요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무심코 범한 죄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영적 배반을 나타냅니다. 아삼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불충성을 상징하며 레위기 22:16의 형벌처럼 가족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주변을 더럽히는 파괴적 힘을 예표하고 아삼은 레위기 22:14의 헌납처럼 백성 더럽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타락을 '속죄' 없이 용서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영적 불결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아삼의 죄책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전체 구별은 거룩함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구별·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

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거룩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성물 규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결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22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레 22: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2:18]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레 22:19] 열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레 22:20]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열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레 22:21]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열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레 22:22]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베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레 22:23]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
을 값음으로 드리면 열납되지 못하리라

[레 22:24]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
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레 22:25]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
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
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열납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레위기 22장 17-2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결함을 금
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이 하
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
기 위해, 제물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

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흠 없는 헌신을 실천 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맹한 소나 흠 있는 제물은 단순한 동물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제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결함 있는 제물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제사장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흠 없는 제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2장 17-25절은 제물 결함 금지를 명하

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2: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2:18] 아론에게와 그의 아들들에게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족속이나 너희 중에 머물러 거류하는 자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서원 제물과 모든 아름다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레 22:19]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실 제물로 받아들일 것은 수송아지나 양이나 염소가운데 흠이 없는 것이니라

[레 22:20] 그 몸에 흠이 있으면 여호와께 받지 받을 것이니라

[레 22:21] 사람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평안제물을 드리려면 서원대로 하든지 자원으로 드리든지 흠이 없는 소나 양을 드려야 받을 것이요

[레 22:22] 맹한 것이나 소경이거나 다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궤양이나 딸건만 그 몸에 있는 흠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레 22:23]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려면 온전하지 아니한 소나 양을 드릴 수 있으나 서원대로는 받지 아니하리라

[레 22:24] 절단된 자나 찢은 자나 잘린 자나 살을 찢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지도 말라

[레 22:25]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도 이와 같이 그 몸에 흠이 있는 것을 외인으로부터 받아 드리지 말라 이는 그 몸에 흠이 있음이니 불사르기를 위하여 드리는 화제물에 받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류민이 드리는 서원 제물과 예물이 흠 없는 소나 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에 흠이 있으면 받지 않으며, 평안제물도 흠 없는 것이어야 하고, 맹한 것, 소경, 다친 것, 더러운 것, 궤양, 딸건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물에만 온전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나, 서원대로는 받지 않으며, 절단된 자나 찢은 자는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몸에 흠이 있음이니 불사르기를 위하여 드리는 화제물에 받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결함은 불완전입니다. 제물은 구별입니다. 화제물은 예배의 상징입니다. 결함<몸> '흠'이나 '

결함을 의미하며 신체적 불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물의 헌신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뭍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드러내는 영적 흠결을 예표하며, 이는 세상의 불완전이 제단에서의 접근을 막는 영적 장벽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무흠한 희생이 우리의 흠을 '완전'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구원을 상징하며, 뭍의 결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흠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염시키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제물의 제한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원어 제물<코르반> '제물'이나 '헌상'을 의미하며 헌신과 속죄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코르반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2:19의 흠 없음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코르반은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리의 제물을 '온전'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르반의 구별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서원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흠 없음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헌신·분별) 속에 세상의 불완전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완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제물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결함 금지는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 22: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2:27]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칠 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팔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열납되리라

[레 22:28] 암소나 암양을 무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레 22:29]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열납되도록 드릴지며

[레 22:30]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31]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32]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레 22:33]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2장 26-3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나이와 절기 순종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물의 완전함과 명령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제물의 성숙과 절기 순종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새끼 동물의 희생 금지나 어미와의 동시 도살 금지는 단순한 동물 보호가 아닙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생명 존중과 언약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이 규례 위반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킵니다. 제사장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제물의 성숙과 순종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2장 26-30절은 제물의 나이와 어미 보호를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2: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2:27]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낳은 날 제 칠일째까지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못할 것이요 제 팔일 이후에 그를 기쁘신 대로 받으시리라

[레 22:28] 그러나 어미 짐승을 낳은 날에 그 새끼와 그 어미를 같이 죽이지 말라

[레 22:29] 만일 평안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기쁘신 대로 드릴 것이니라

[레 22:30] 그날에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남기는 것은 두지 말고 다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나 양이

나 염소 새끼를 낳은 날 제 칠일까지 제물로 드리지 말고 제 팔일 이후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어미 짐승을 낳은 날 새끼와 어미를 같이 죽이지 말며, 평안제물을 드릴 때 그날에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남기는 것은 두지 말고 다 먹을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나이 제한은 성숙입니다. 어미 보호는 생명 존중입니다. 평안제물은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새끼<벤> '새끼'나 '자손'을 의미하며 생명의 연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물의 헌신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벤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동물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내는 성장 과정을 예표하며, 이는 세상의 미숙함이 제단에서의 접근을 막는 영적 장벽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성육신이 우리의 미숙한 영혼을 '성숙'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는 구원을 상징하며, 벤의 새끼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새끼는 인간의 타락이 생명의 흐름을 끊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제물의 제한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

키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원어 제물<코르반> '제물'이나 '헌상'을 의미하며 헌신과 속죄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코르반의 깊은 의미는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2:27의 제 팔일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코르반은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리의 제물을 '온전'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르반의 구별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어미 보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성숙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생명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헌신·분별) 속에 세상의 미숙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성숙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제물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나이 금지는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2장 31-33절은 모든 규례 준수와 구원 선언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2:31]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2:32] 너희는 내 큰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22:33] 나 여호와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애굽 사람의 종노릇에서 너희를 건져낸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내 큰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

게 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애굽 사람의 종노릇에서 너희를 건져낸 자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규례 준수는 순종입니다. 이름 거룩은 증언입니다. 구원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는 제22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규례<토라> '규례'나 '법도'를 의미하며 지침과 가르침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토라의 깊은 의미는 내적 변화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신명기 30:16의 순종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토라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계명이 우리의 규례를 '행하라'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토라의 순종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구원<야차> '건져내다'나 '구원하다'를 의미하며

해방과 회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애굽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영적 배반을 나타냅니다. 야차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불충성을 상징하며 레위기 22:33의 건져냄처럼 가족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주변을 더럽히는 파괴적 힘을 예표하고 야차는 출애굽기 20:2의 인도처럼 백성 더럽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타락을 '건져내' 용서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영적 불결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야차의 구원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전체 순종은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순종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 일수록 백성의 삶(순종·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

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거룩의 따스한 은혜
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규례 준수는 하나
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22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레위기 23장 =====

[레 2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 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 23:4]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 23:5] 정월 십사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레 23:6] 이 달 십오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칠 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레 23:7]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레 23:8] 너희는 칠 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칠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23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절기들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안식과 해방의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념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안식과 절기를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쉼과 유월절·무교절의 희생은 단순한 휴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성품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 절기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며,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백성들은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심과 기념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3장 1-3절은 안식일의 심을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땅에서 거할 때에 여호와와 절기 곧 내 절기를 선포하라

[레 23:3]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곧 안식의 안식일이라 여호와와 절기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의 안식일로 심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안식일을 지

키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은 쉼입니다. 절기는 기념입니다. 쉼은 창조의 상징입니다. 안식<샤밧> '쉬다'나 '멈추다'를 의미하며 창조 후의 휴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샤밧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성화 과정이며, 창세기 2:2의 창조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성별되어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샤밧은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노동 피로를 '쉼'으로 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샤밧의 쉼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쉼 준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쉼

예배) 속에 세상의 번잡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쉬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심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안식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심 명령은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3장 4-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기념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의 십사일에 유월절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레 23:5] 그 달의 십오일에 유월절이니 여호와께 드릴 무교절이 시작되나니

[레 23:6] 이레 동안은 여호와께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레 23:7] 첫째 날에 거룩한 소집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도 하지 말지니라

[레 23:8] 이레 동안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이레째 날에도 거룩한 소집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달 십사 일에 유월절을, 십오일부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첫째 날과 이레째 날은 거룩한 소집으로 무슨 일도 하지 말며, 무교병을 먹고 화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해방입니다. 무교절은 정결입니다. 소집은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이는 제23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유월 <페사흐> '건너뛰다'나 '보호하다'를 의미하며 애굽 재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페사흐의 깊은 의미는 내적 변화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출애굽기 12:13의 피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페사흐은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재앙을 '건너뛰어'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페사흐의 보호는 성령의 열매로 우

리를 영원한 해방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무교<마초트> '무교병'이나 '급히 떠남'을 의미하며 정결과 순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애굽 탈출의 영적 배반을 나타냅니다. 마초트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불충성을 상징하며 레위기 23:6의 이레처럼 가족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주변을 더럽히는 파괴적 힘을 예표하고 마초트는 출애굽기 12:15의 정결처럼 백성 더럽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리의 타락을 '정결케' 용서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영적 불결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마초트의 무교병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전체 기념은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해방은 생명의 상징입

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기념·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해방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절기 준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결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23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이 구절들은 안식과 절기 규례가 노예 생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기념된 생활은 지도자들이 세상의 피로와 죄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월 피처럼 우리의 타락을 보호하고 모든 규례처럼 막힌 길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하는 그 따뜻한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이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죄의 흔적을 넘어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안아가게 됩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의 법을 제정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이 6일 후에 7일째에 안식하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6년 후에 7년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안식하였습니다. 이 해에는 사람도 안식했으며 토지도 안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함이며 이로 인해 더욱 소득이 증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 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 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 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 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레 25:1-5) ”

하나님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제 7년째 땅을 쉬게 할지라도 6년째에 3년 동안 취할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6일째에 만나를 갑절로 내려 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7년째 땅을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 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육 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팔 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 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레25:18-22)

안식년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림으로 땅 주인과 일반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기간

에는 토지 주인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종이나 나그네나 들짐승까지 안식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레25:6-7)

또한 안식년에는 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은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7년 안식년에는 모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와 면제 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

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 할지라도 너는 치리 함을 받지 아니하리라.”(신 15:1-6)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39가지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느질 2) 밭가는 일 3)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4) 곡식단을 묶는 일 5) 타작하는 일 6) 곡식을 까부는 일 7) 곡식이나 거두어 들인 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8) 곡식을 가는 일 9) 체질하는 것 10) 반죽하는 것 11) 빵을 굽는 일 12) 양털을 깎는 일 13) 양털을 빼는 일 14) 양을 치는 일 15) 양털을 물들이는 일 16) 실을 짓는 일 17) 실 따위를 엮는 일 18) 두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19)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20)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21) 실을 묶는 일 22) 실을 푸는 일 23) 두 조각
을 꼬매는 일 24)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25) 사슴을 덮으로 잡는 일 26) 사슴을 도살
하는 일 27)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일 28) 사슴
의 고기에 소금을 치는 일 29) 사슴 가죽을 가
공하는 일 30) 사슴 가죽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31) 사슴의 가죽을 자르는 일 32) 두 글자를 쓰
는 일 33) 두 글자를 쓰기 위해 두 글자를 지우
는 일 34) 건물을 짓는 일 35) 건물을 부수는
일 36) 불을 끄는 일 37) 불을 켜는 일 38) 망
치질 39)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안식일의 법규를 어기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
고 여겼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법입니다. 안식
일의 법규에 대해서는 미쉬나에서 보다 구체적
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엷세나파 사람들은 일
반 유대인들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안식일 법규
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500m 이
상 움직여서는 안되었으며, 마실물을 길어다 항
아리에 붓는 것, 무엇을 집에서 밖으로 나가거나
밖에서 집으로 들여오는 것, 닫힌 항아리를 여는
것, 새끼를 낳는 짐승을 도와주는 것, 집안 청소,
아이를 안아 주거나 업어 주는 것도 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 가까이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을 구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법규를 어겼을 경우엔 7년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하는 엄격한 안식일법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된 것이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매우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의 기적은 선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나 소경같은 경우엔 안식일이 지난 평일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마 12:11)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것은, 안식일의 법규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양을 잃는 것이 아까워 법규를 쉽게 어기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절대적인 이유는 "왜 평일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8년동안 귀신걸렸던 여인을 고쳐 주셨을 때도 안식일이었는데(눅 13:10-17) 이때에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이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반박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중요시 여긴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생명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었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일련의 노동이라고 정죄했지만 배고파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했던 행위임을 내세우면서 제사장만 먹었던 진설병 음식을 다윗이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내용으로 반박했습니다(삼상 21:1-6).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

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27). 이처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얽매어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아니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레 23: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10]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레 23:11]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레 23:12]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 23:13]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
바 십분 이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
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힌 사분
일을 쓸 것이며

[레 23:14]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
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
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
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 9-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실절(첫 열매 제사)을 명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
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땅의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과 부흥을 기념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순종을 실천하라는 깊
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보리 첫 열매의 제사와
불로 구운 삶은 단순한 수확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반영

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 절기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며,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백성들은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니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첫 열매 헌신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3장 9-14절은 초실절(첫 열매 제사)의 기념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10]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준 너희 땅에 들어

가서 그 땅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레 23:11]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드리되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여 드릴 보리 이삭 한 오
이발을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가 그 이삭을 여호
와께 너희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을 제물로 흔들
여 드리되 안식일 다음 날에 드리리라

[레 23:12] 너희가 그 이삭을 흔들여 드리는 날
에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전향 제
물로 드릴 것이며

[레 23:13] 그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레
의 소제라 화제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릴 것이요 전주 제물은 한 힌의 포도주라

[레 23:14] 너희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새 보
리의 고운 가루나 그 첫 열매를 먹지 말고 너희
가 드리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까지 온 이
스라엘 각 족속이 이 날까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들어
가 첫 열매를 드릴 때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이삭
한 오이발을 흔들여 드리고, 흠 없는 어린 양을
전향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소제와 전주를

더하며,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새 보리를 먹지 말고 제물을 드릴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까지 온 이스라엘 각 족속이 이 날까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첫 열매는 공급입니다. 흔들어 드림은 헌신입니다. 제물은 부흥의 상징입니다. 첫 열매<비쿠림> ‘첫 열매’나 ‘초기 수확’을 의미하며 땅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비쿠림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첫 열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내는 감사와 성화 과정이며, 신명기 26:2의 헌상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비쿠림은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첫 열매를 ‘부흥’으로 하여 영원한 풍성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비쿠림의 헌신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공급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결핍 속에서 하

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제물<코르반> '제물'이나 '헌상'을 의미하며 헌신과 속죄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코르반의 깊은 의미는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3:11의 흔들어 드림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코르반은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리의 제물을 '온전'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르반의 구별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흔들어 드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헌신·감사) 속에 세상의 빈곤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

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공급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 줍니다. 제물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첫 열매 금지는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 23:15]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칠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레 23:16] 제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레 23:17] 너희 처소에서 에바 십분 이로 만든 떡 두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레 23:18]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일곱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레 23:19]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
이요

[레 23:20]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
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레 23:21]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
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 23:22]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
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진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15-2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칠칠절(오순절)을 명하시
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
원 역사를 기억하며, 땅의 새 열매를 통해 하나
님의 부흥과 공동체 사랑을 기념하라는 부르심
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새 열매 헌신과 가난한 자 돌봄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초실절 후 7주만의 떡 제사와 소집은 단순한 수확 축제가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웃 사랑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 절기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며,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백성들은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부흥과 나눔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3장 15-21절은 칠칠절의 계산과 제사 규정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15]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드린 이삭에서부터 오십 일까지를 채운 날 곧 다음 날에 여호와께 소제를 드릴새 고운 가루에 새 보리 떡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레 23:16] 너희가 그 떡 두 덩이를 제사장에게 흔들어 드리되 여호와께 드릴 제물로 새 보리 떡을 드리라

[레 23:17] 제사장들이 그 떡을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흔들어 드릴 것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라

[레 23:18] 그 날에 너희가 그 떡과 함께 흠 없는 어린 양 일곱과 수송아지 일, 숫양 일, 그리고 어린 양 일곱을 여호와께 화제물로 드리며 그 소제와 전주와 함께 드릴 것이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니라

[레 23:19] 또 숫염소 하나와 어린 양 두 마리를 드려 속죄제와 평안제물로 드리되 제사장들이 이들을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흔들어 드릴지니라

[레 23:20] 제사장이 그 떡과 함께 그 새끼 양 두 마리를 여호와께 흔들어 드릴 것이니 이는 제사장에게 성물을 삼을지라

[레 23:21] 그 날에 너희는 거룩한 소집을 행하고 무슨 일도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초실절 다음 날부터 50일을 세어 새 보리 떡 두 덩이를 제사장에게 흔들어 드리고, 흙 없는 어린 양 일곱, 수송아지 일, 숫양 일, 숫염소 하나와 어린 양 두 마리를 화제물, 속죄제, 평안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 날에 거룩한 소집으로 무슨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너희는 거룩한 소집을 행하고 무슨 일도 하지 말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칠칠절은 부흥입니다. 떡 제사는 공동체입니다. 소집은 심의 상징입니다. 새 열매<비쿠림> '새 열매'나 '초기 수확'을 의미하며 땅의 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비쿠림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첫 열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

러내는 감사와 성화 과정이며, 신명기 26:2의 헌
상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빈곤
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비쿠림
은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의 첫 열매를 '부흥'
으로 하여 영원한 풍성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비쿠
림의 헌신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공급
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영
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제물<코르반> '제물'이나 '헌상'을 의미하며 헌신
과 속죄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
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코르반의 깊은 의미
는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
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3:16의 떡처럼 선택
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
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미숙함에서 벗어
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코르반은 제사장
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몸이 우
리의 제물을 '온전'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코르반의 구별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소집 씬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새 열매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헌신·감사) 속에 세상의 빈곤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부흥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떡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소집 명령은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은 가난한 자 돌봄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22] 수확할 때에 너희 땅의 경작물을 다

수확하지 말며 남은 것을 거두지 말고 그것을 가
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남겨 두라 나는 너희 하나
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확할 때
땅의 경작물을 다 수확하지 말고 남은 것을 가
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남겨 두라는 뜻입니다. ”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
다. 남김은 나눔입니다. 가난한 자는 공동체입니
다. 여호와는 공급의 상징입니다. 이는 제23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남김<페아> '남은 것'이나 '가
난한 자 몫'을 의미하며 자비와 공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
징합니다. 페아의 깊은 의미는 내적 변화로 하나
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신명
기 24:19의 남김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결핍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
내며, 페아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
으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나눔을 '풍성'하게 하
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
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폐아의 남김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자비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나그네<게르> '나그네'나 '외인'을 의미하며 환대와 보호를 가리키는 것으로 애굽 경험의 영적 배반을 나타냅니다. 게르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불충성을 상징하며 레위기 23:22의 남김처럼 가족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주변을 더럽히는 파괴적 힘을 예표하고 게르는 출애굽기 23:9의 공감처럼 백성 더럽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타락을 '환대'로 용서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영적 불결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게르의 나그네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전체 나눔은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

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김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나눔·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자비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남김 규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눔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 23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1.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열번째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절기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유

월절을 생각할 때 다음의 두가지 절기를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유월절은 종교력의 1월 14일(민간력의 7월)에 지켜졌으며, 무교절은 14일부터 1주일간 지켜졌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것 역시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후 첫번째 안식일 다음날에는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2.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오순'이라는 뜻은 50을 의미합니다. 한 주가 7일로 구성되어 있고 오순절은 모두 일곱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 \times 7 = 49$ 다음날인 50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은 오순절이 밀추수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강림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오순절 절기때였습니다.

3.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생활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의 7월(민간력의 1월) 15일부터 1주간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켜집니다.

단순히 광야생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만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포도나 무화과열매의 결실이 풍성한 절기여서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기는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절기이며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는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에 참여하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이라는 설교를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레 23: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2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곧 그 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레 23:25]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

제를 드릴지니라

레위기 23장 23-2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절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나팔 소리를 통해 회개와 부흥의 소망을 기념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나팔절의 심과 소집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칠월 초하루의 나팔 소리와 거룩한 소집은 단순한 경보가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심판의 은혜를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 절기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며,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백성들은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선언하시

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회개와 소망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3장 23-25절은 나팔절의 기념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2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에 일곱째 달 이레째는 너희에게 안식일이요 나팔 터는 안식일이라 기념의 절기니라

[레 23:25] 그 날에 화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평안제물을 드리며 무슨 일도 하지 말고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칠월 일곱째 달 이레째를 나팔 터는 안식일로, 기념의 절기로 지키라는 뜻입니다. 화제와 평안제물을 드리고 무슨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화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평안제물을 드리며 무슨 일도 하지 말고 대대로 지킬지니라”라고 선언 하십니다. 나팔절은 회개입니다. 안식은 쉼입니다. 기념은 소망의 상징입니다. 나팔<쇼파르> ‘나팔’이나 ‘경보’를 의미하며 부르심과 경고를 가 리키는 것으로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 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쇼파르의 깊은 의미 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의 부르심 앞에서 깨어나는 회개와 성화 과정이 며, 민수기 10:2의 경보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 별되어 세상의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 정을 드러내며, 쇼파르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재림이 우리의 나팔 소 리를 ‘부흥’으로 하여 영원한 소망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 니다. 쇼파르의 소리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 원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안식<미크라 코데쉬> ‘거룩한 소집’ 이나 ‘안식일을 의미하며 쉼과 회의를 뜻하는 것

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미크라 코데쉬의 깊은 의미는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3:24의 안식일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미크라 코데쉬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을 '온전'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미크라 코데쉬의 소집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화제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회개·소집) 속에 세상의 무관심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깨우쳐야 합니다. 오늘날 세례

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회개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나팔 소리는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안식 명령은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 23: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27]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레 23:28]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레 23:29]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레 23:30] 이 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레 23:31]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 23:32] 이는 너희의 쉼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구일 저녁 곧 그 저녁

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레위기 23장 26-3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검비와 속죄를 통해 죄의 용서와 회복을 기념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금식과 쉼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칠월 십일에 속죄일의 소집과 고난은 단순한 금식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죄를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 절기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며,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백성들은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검비와 용서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3장 26-32절은 속죄일의 기념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27] 칠월 십일에 너희에게 속죄일이 있으니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호와께 드릴 화제를 드리며

[레 23:28] 그 날에 무슨 일도 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용서하리라

[레 23:29] 그 날에 무슨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레 23:30] 무슨 일을 행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레 23:31] 너희는 무슨 일도 하지 말고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는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너

희가 거할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지니라
[레 23:32] 이는 너희에게 안식의 안식일이요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날이라 이레째 되는 날부터 저물 때에 저물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칠월 십일에 속죄일을 지키며 화제를 드리고 무슨 일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날에 속죄하여 깨끗케 되고, 무슨 일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며, 안식의 안식일로 저물 때부터 저물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깨끗케 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용서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속죄일은 용서입니다. 금식은 겸비입니다. 안식은 회복의 상징입니다. 속죄<욥 카뿌르> '속죄'나 '덮다'를 의미하며 죄의 용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욥 카뿌르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내는 흠결을 덮는 성화 과정이며, 레위기 16:30의 정결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죄책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욥

카뿌르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어' 용서하여 영원한 회복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욥 카뿌르의 속죄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안식<야옴 코데쉬>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을 의미하며 쉼과 소집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야옴 코데쉬의 깊은 의미는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3:32의 안식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피로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야옴 코데쉬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쉼을 '온전'하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야옴 코데쉬의 소집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겸비 헌신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속죄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겸비·용서) 속에 세상의 죄책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용서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속죄 소집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금식 명령은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 23: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3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 십오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지킬 것이라

[레 23:35]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레 23:36] 칠 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

께 드릴 것이요 제팔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레 23:37]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레 23:38]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레 23:39]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칠월 십오일부터 칠 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팔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레 23:40]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 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레 23:41] 너희는 매년에 칠 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칠월에 이를 지키지니라

[레 23:42] 너희는 칠 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

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레 23: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23:44]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위기 23장 33-4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절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장막 생활을 통해 보호와 풍성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장막과 수확의 기쁨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칠월 십오일부터 이레 동안의 장막 거주와 소집은 단순한 수확 축제가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풍성한 공급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이 절기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며,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백성들은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보호와 감사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3장 33-36절은 장막절의 시작과 제사 규정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3:34]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칠월에 그 달의 십오일에 여호와의 절기 곧 장막절이 이레 동안 있으리니

[레 23:35] 첫째 날에 거룩한 소집이 있을 것이

요 무슨 일도 하지 말고

[레 23:36] 이레 동안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यो 팔째 날에도 거룩한 소집이 있을 것이니
화제를 드리고 대소제와 소제와 전주를 드리며
대대로 지키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칠월 십오
일부터 이레 동안 장막절을 지키며, 첫째 날과
팔째 날에 거룩한 소집으로 무슨 일도 하지 말고
화제, 대소제, 소제, 전주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레 동안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यो”라고
선언하십니다. 장막절은 보호입니다. 소집은 기
쁨입니다. 화제는 헌신의 상징입니다. 장막<수코
트> '장막'이나 '임시 거처'를 의미하며 광야 생활
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
를 인정하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수코트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는 성화 과정이
며, 민수기 14:14의 구름기둥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로 성별되어 세상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수코트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

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성육신이 우리의 장막 생활을 '풍성'으로 하여 영원한 보호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수코트의 장막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화제<올라> '화제'나 '올려 드림'을 의미하며 헌신과 향기로운 제물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올라의 깊은 의미는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레위기 23:36의 이레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올라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희생이 우리의 제물을 '향기롭게'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올라의 구별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거룩함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

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소집 기쁨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호는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막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헌신·감사) 속에 세상의 불안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화제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소집 명령은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3장 37-44절은 장막절의 전체 규례와 장막 거주를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3:37] 이는 여호와와 절기라 너희가 여호와께 거룩한 소집을 행하고 화제와 대소제와 소제와 전주를 드릴 날이라

[레 23:38] 안식일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외에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드릴 날이라

[레 23:39]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열매를 거둔 후에 이레 동안 장막절을 여호와께 지킬지니라 첫째 날에 안식일이 있을 것이요 팔째 날에도 안식일이 있을 것이라

[레 23:40] 첫째 날에 아름다운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시내 가지를 취하여 이레 동안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레 23:41] 매년 이레 동안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니라

[레 23:42] 대대로 너희가 장막에 거주할 이레 동안에 장막에 거주하라

[레 23:43] 이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장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레 23:4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와의 절기를 이와 같이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막절을 화제와 예물, 서원 제물로 지키며, 땅의 열매를

거둔 후 이레 동안 장막에 거주하고 아름다운 가지를 취하여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첫째 날과 팔째 날에 안식일로 무슨 일도 하지 말며, 대대로 장막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장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장막 거주는 기억입니다. 가지 기쁨은 감사입니다. 안식은 풍성의 상징입니다. 이는 제23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장막<수코트> '장막'이나 '임시 거처'를 의미하며 광야 생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수코트의 깊은 의미는 내적 변화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신명기 16:13의 수확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수코트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성육신이 우리의 장막을 '영원한 집'으로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수코트의 거주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기쁨<심차> '기뻐하다'나 '환호하다'를 의미하며 감사와 찬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애굽 탈출의 영적 배반을 나타냅니다. 심차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불충성을 상징하며, 레위기 23:40의 가지처럼 가족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주변을 더럽히는 파괴적 힘을 예표하고 심차는 신명기 16:14의 축제처럼 백성 더럽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타락을 '기쁨'으로 용서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영적 불결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심차의 기쁨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전체 기억은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장막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기억·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보호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장막 규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쁨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23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레위기 24장 =====

[레 2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4: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지며

[레 24:3]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레 24:4]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레 24:5]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열둘을 굽되 매 덩이를 에바 십분 이로 하여

[레 24:6]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레 24:7]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레 24:8]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레 24:9]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

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 1-9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의 등잔 기름과 진설병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소의 빛과 떡을 통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공급을 상징하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빛과 양식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순전한 기름과 매일의 떡은 단순한 유지 규칙이 아닙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생명의 공급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이 규례의 소홀은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제사장들은 백성에

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집을 밝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고 선언 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제사장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빛과 떡의 헌신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4장 1-4절은 성소 등잔 기름의 유지와 빛을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4: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순전한 기름 곧 궤양한 것을 등잔에 켜는 기름으로 네게 명하라

[레 24:3]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를 회막의 장막 앞 휘장 앞에 여호와 앞에 항상 켜놓으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

라

[레 24:4] 제사장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정금 등잔대 위의 등잔을 점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순전한 기름을 등잔에 켜는 기름으로 명하라는 뜻입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회막 장막 앞 휘장 앞에 항상 켜놓고, 정금 등잔대 위의 등잔을 점등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등잔 기름은 빛입니다. 점등은 지속입니다. 성소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기름<세멘 자카> '순전한 기름'이나 '올라올라한 기름'을 의미하며 정결과 지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사장들의 중보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상징하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세멘 자카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밝혀지는 성화 과정이며, 이는 세상의 어둠이 성소에서의 접근을 막는 영적 장벽을 예표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항상' 밝히며 영원한 인도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세멘 자카의 순전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기름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제사장의 점등은 그리스도의 무죄한 희생으로 우리를 밝히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원어 등잔<네르> '등잔'이나 '빛'을 의미하며 조명과 증언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를 놓는 영적 사명을 나타냅니다. 네르의 본질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전하는 살아 있는 증거로, 레위기 24:2의 아침 저녁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매일의 빛으로 이어지며, 네르는 아론 자손처럼 백성 거룩화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점등'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세상의 고독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깊은 은혜입니다. 네르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영원한 빛을 이루는 구원의 모형으로,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점등 지속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빛은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

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빛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 수록 백성의 삶(빛·예배) 속에 세상의 어둠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밝혀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빛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등잔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기름 유지 금지는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4장 5-9절은 성전 떡(진설병)의 준비와 헌상을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4:5] 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오륙에 십 분면을 두르고 열두 덩이를 만들고

[레 24:6] 정금 상 앞에 여호와 앞에 진열하라

[레 24:7] 그 위에 순전한 유향을 두어 그 떡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 제물이 되게 하고

[레 24:8] 매 안식일에 항상 여호와 앞에 진열하라 이는 이스라엘 사람과의 영원한 언약이라

[레 24: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 성소에서 먹을지니 이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성물 중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운 가루로 열두 덩이 떡을 만들어 정금 상 앞에 진열하고, 순전한 유향을 두어 기념 제물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매 안식일에 항상 진열하며, 아론과 아들들이 성소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에게 거룩한 성물 중의 성물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진설병은 공급입니다. 진열은 언약입니다. 성물은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이는 제24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떡<레헴 판임> '얼굴 떡'이나 '진설병'을 의미하며 생명과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레헴 판임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내적 헌신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신명기 8:3의 생명의 양식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기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레헴 판임은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

수의 몸이 우리의 떡을 '항상' 공급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레헴 판임의 진열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유향<레보나> '유향'이나 '향기'를 의미하며 기념과 찬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애굽 탈출의 영적 배반을 나타냅니다. 레보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불충성을 상징하며, 레위기 24:7의 기념처럼 가족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주변을 더럽히는 파괴적 힘을 예표하고 레보나는 출애굽기 30:34의 향처럼 백성 더럽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타락을 '향기롭게' 용서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영적 불결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레보나의 유향은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미

리 보여줍니다. 전체 공급은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떡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공급·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공급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떡 규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언약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24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레 24:10]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 중에서 싸우다가

[레 24:11]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레 24:12]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레 24: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4:14]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 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레 24:1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레 24: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레 24:17]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레 24:18]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레 24:19]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레 24:20]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레 24:21]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레 24:22]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 이니라

[레 24: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 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4장 10-2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예훼손(신의 이름 모독)의 죄와 형벌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동체 속 모독의 심각성과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은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제

사장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모독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통해 백성들은 공의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존중과 공의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4장 10-16절은 명예훼손 사건과 형벌 명령을 보여줍니다.

[레 24:10]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된 자 곧 다소 출신의 자가 장막에 있는 무리 중에서 사람과 다투다

가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니

[레 24:11] 그 모독하는 자가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매 무리가 그를 모세에게 끌고 가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라 단의 딸로 다소 사람이더라

[레 24:12] 그를 지옥에 가두어 여호와께서 명하실 말씀을 기다리니라

[레 24: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24:14] 그 모독하는 자를 그 들으던 모든 자가 손을 그 머리에 얹고 온 회중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치라

[레 24:15]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죄를 담당하리라

[레 24:16]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내 땅 거류민이나 토착민이나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다소 출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

독하고 저주한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치라는 뜻입니다. 온 회중이 손을 그 머리에 얹고, 내 땅 거류민이나 토착민이나 모독자는 죽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죄를 담당하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모독은 불경입니다. 형벌은 공의입니다. 회중 참여는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모독<나카브> ‘모독’이나 ‘저주하다’를 의미하며 신성모독을 가리키는 것으로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영적 기준을 나타냅니다. 나카브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러내는 배반을 예표하며, 이는 세상의 무관심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영적 장벽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독을 ‘용서’로 덮어 영원한 화평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나카브의 불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모독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심각성을 드러내고, 형벌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무죄한 희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원어 형벌<스코타> ‘돌로 치다’나 ‘심판하다’

를 의미하며 공동체 처벌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다리를 놓는 영적 사명을 나타냅니다. 스코타의 본질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전하는 살아 있는 증거로, 레위기 24:14의 회중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매일의 공의로 이어지며, 스코타는 아론 자손처럼 백성 거룩화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이 우리의 불경을 '돌로 치지' 않고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세상의 분쟁을 넘어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깊은 은혜입니다. 스코타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며 영원한 공의를 이루는 구원의 모형으로,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회중 참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성품 반영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독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존중·공의) 속에 세상의 불경과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

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 처럼 그 공의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형벌 헌신은 공동체 화합의 기반입니다. 모독 금지는 공감의 교훈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4장 17-23절은 생명에 대한 형벌 원리를 명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4:17] 사람을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되

[레 24:18] 짐승을 치는 자는 그것으로 보상하되 짐승대로 하라

[레 24:19]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그에 상해를 입힐지니

[레 24:20] 부러운 대로 부러울 것이요 이의 대로 이를 대신할 것이요 치는 대로 치리라

[레 24:21] 짐승을 치는 자는 그것으로 보상하되 사람을 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레 24:22] 너희는 한 법도를 두어 토착민과 내 땅 거류민에게 적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

님이시라

[레 24: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을 밖으로 끌고 나와 돌로 쳐서 죽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 짐승을 치는 자는 보상하라는 뜻입니다. 상해에 상해를, 부러운 대로 부러울 것을, 한 법도를 토착민과 거류민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법도를 두어 토착민과 내 땅 거류민에게 적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생명 형벌은 공평입니다. 보상은 정의입니다. 한 법도는 포용의 상징입니다. 이는 제24장의 총결입니다. 원어 형벌<나파쉬> '생명'이나 '영혼'을 의미하며 처벌의 본질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영적 구별을 상징합니다. 나파쉬의 깊은 의미는 내적 변화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르게 하는 영적 성화이며, 신명기 19:21의 눈에는 눈처럼 선택의 축복을 예표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별되어 세상의 불의에

서 벗어나는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며, 나파쉬는 제사장의 헌신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보상'으로 하여 자유를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깊은 은혜입니다. 나파쉬의 형벌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영원한 공의로 인도하며, 세상의 혼잡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원어 한 법도<미쉬파트> '법도' 나 '공의'를 의미하며 정의와 포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애굽 경험의 영적 배반을 나타냅니다. 미쉬파트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불충성을 상징하며, 레위기 24:22의 토착민처럼 가족 영향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의 죄가 주변을 더럽히는 파괴적 힘을 예표하고 미쉬파트은 출애굽기 23:3의 공평처럼 백성 더럽힘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타락을 '한 법도'로 용서하여 화합을 주는 구원을 상징하며, 이는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영적 불결을 정결케 하고 공동체를 치유하는 구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미쉬파트의 공의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하나

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영적 전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랑이 이를 이겨내는 승리의 길을 미리 보여줍니다. 전체 공의는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법도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도자일수록 백성의 삶(공평·보호) 속에 세상의 타락을 분별해야 합니다.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가족과 공동체의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세레나 성찬식에서처럼 그 정의의 따스한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형벌 규례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공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24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레위기 25장 =====

[레 25:1]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레 25:3]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레 25:4] 제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 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레 25:5]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레 25:6]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레 25:7]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레위기 25장 1~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 곧 땅의 쉬를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농사를 쉬라는 지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과 생명 위에 가지신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해방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새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섯 해 동안 일하고 일곱째 해에 땅을 쉬게 하는 이 명령은, 인간의 손과 마음이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돕는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 25:1]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장소로, 땅의 안식 규례는 바로 그 거룩한 자리에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년이 인간의 경험이나 경제 논리

에서 비롯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가능한 거룩한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은 율법이 주어진 곳이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은,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인간이 땅을 소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회복시키는 구원의 언어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은 땅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레 25: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여 준 땅에 들어가서 땅이 안식하게 하여 여호와께 쉬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땅이 안식하게 하라”는 말은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여, 땅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쉬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식하다(사빳)”는 단순히 일을 중단하는 의미를 넘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창조의 완성을 상기시킵니다. 인간이 멈추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땅을 새롭게 하고, 백성을 다시 정결케 하십니다. 땅이 쉼을 누릴 때, 백성의 마음도 쉼을 얻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생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안식은 “땅의 주인은 여호와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입니다.

레위기 25장 3절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노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 25:3] 이레 동안은 네 땅을 파종하고 네 포도원을 가지치고 그 소산을 거둘 것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섯 해 동안 성실히 일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이 노동은 탐욕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하며 얻는 열매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산물입니다. “파종하고 가지치고 거두라”는 명령은 노동의 존귀함을 인정하시되, 그 목적이 자기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그 결실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속에서도 심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손을 통해 자신의 창조 질서를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은 땅을 거룩하게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레 25:4]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 나무를 가지치지 말며 그 땅을 여호와께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땅의 주인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일곱째 해는 하나님께 드려진 해입니다. 인간이 일을 멈추는 동안,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히브리어 ‘땅(아레츠)’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거룩한 공간을 뜻합니다. 아레츠의 쉼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시간이며, 인간의 탐욕을 멈추는 영적 행위입니다. 땅이 쉴 때, 그 땅은 다시 생명을 품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산을 멈추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멈춤 속에서 참된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땅의 안식은 곧 창조의 회복이며, 인간이 창조 질서에 순복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해방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25장 5절은 탐욕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레 25:5] 땅 소산은 너희가 거두지 말고 거둔 것을 따로 모으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소유욕을 다루십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이 쌓으려 하고,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안식년의 법은 '쌓는 신앙'에서 '말기는 신앙'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

습니다. 땅의 소산은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두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의 요청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들의 꽃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땅을 쉬게 하라는 명령은 “너희의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강력한 선언입니다.

레위기 25장 6절은 나눔과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 25:6] 땅의 안식 소산은 너희와 네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네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먹게 하라

하나님은 안식년의 소산을 특정한 사람의 소유로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 해의 열매는 주인과 종, 이방인과 나그네가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이 아닌 ‘나눔의 질서’로 세워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안식년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경험하는

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쉼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질서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이며, 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손이 멈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평이 흐릅니다.

레위기 25장 7절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급에 참여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레 25:7] 네 가축과 네 땅에 머무는 짐승도 먹게 하라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땅의 소산을 허락하십니다. 땅의 열매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년의 정신은 사람만의 쉼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함께 누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손을 멈추면, 들의 짐승과 새들도 그 은혜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자비는 모든 생명에게 미칩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의 소유 개념을

내려놓을 때,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조화로운 리듬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식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의 법을 제정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의 연장이었습니다. 안식일이 6일 후에 7일째에 안식하는 것이라면 안식년은 6년 후에 7년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안식하였습니다. 이 해에는 사람도 안식했으며 토지도 안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놔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땅으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함이며 이로 인해 더욱 소득이 증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 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레 25:1-5)”

하나님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제 7년째 땅을 쉬게 할지라도 6년째에 3년 동안 취할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6일째에 만나를 갑절로 내려주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7년째 땅을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 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육 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팔 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구 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레25:18-22)

안식년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땅이 안식을 누림으로 땅 주인과 일반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기간에는 토지 주인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며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 모든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종이나 나그네나 들짐승까지 안식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레25:6-7)

또한 안식년에는 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종은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었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7년 안식년에는 모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 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 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 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 할지라도 너는 치리 함을 받지 아니하리라.”(신 15:1-6)

[레 25: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레 25: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레 25:10]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 25:11]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레 25: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레위기 25장 8~1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빌년, 곧 희년을 선포하라고 명하신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히 시간의 계산이나 제도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만나는 언약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 질서의 종이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자유와 회복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년이 땅의 쉼이라면, 희년은 사람의 자유를 위한 해방의 해였습니다. 칠 년의 안식년을 일곱 번, 곧 49년을 세고, 그 다음 해인

50년에 나팔을 불어 전국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적 은혜 안에서 평등과 정의를 회복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과 9절은 유빌년의 계산과 나팔 공포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 25: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레 25: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하나님은 “일곱 안식년을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룩한 질서의 리듬입니다.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 속죄일에 전국에서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날에 참된 자유를 선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쇼파르)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신호이며, 백성들을 새 생명의 질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려 퍼졌던 나팔처럼, 희년의 나팔은 인간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초대의 울림이었습니다. 이 나팔은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은 희년의 핵심 주제인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레 25:10]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나님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자유’는 단순히 사회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상징입니다. 이 해에는 노예가 자유를 얻고, 잃었던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며,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안에서 실현되는 장면이며, 모든 사람

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피조물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돌아가라”는 명령은 물리적인 귀환을 넘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회개의 상징입니다. 희년은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누가복음 4:19) 하신 것도,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제도나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1절과 12절은 희년의 경작 금지와 거룩한 성격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레 25:11]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레 25: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희년의 해에는 경작을 멈추고, 땅이 스스로 내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해는 ‘거룩하다’고 하셨는데, 거룩은 단순히 분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손을 멈출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는 약속은,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희년은 결핍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다스리시는 충만의 해입니다.

희년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탐욕과 경쟁으로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멈추라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그 멈춤 속에서 인간은 자유를 배우고, 관계는 회복되며,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세워집니다. 희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자유하라.”

희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을 제정하셨습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로써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칠월 십오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레 25:8-10)

희년의 명칭

'희년'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쥬빌리(Jubilee)'번역한 말입니다. 영어의 '쥬빌리'는 히브리어의 <요벨>을 음역한 말로써 이는 '수양'이나 '수양의 뿔'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희년'이란 명칭이 유래된 것입니다.

제 50년째 되는 해의 7월 10일 대 속죄일의 날에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을 불었는데 희년 때는 곧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요벨'을 가지

고서 불었습니다. 보통 절기 때는 굵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희년의 성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을 제정하신 것은 '자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 원하시는 자유는 '노예 해방'과 '재산권의 복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때문에 몸을 팔고 가난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는데 희년이 되면 원래대로 되돌려주라는 것입니다.

1) 땅의 해방

"[레 25: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 25:24]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레 25: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레 25: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

든 [레 25: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 25: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토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때문에 누구든지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토지를 영원히 팔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소작인에 불과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토지를 매매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줘야만 했습니다. 50년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준다는 조건으로 매매를 해야만 했습니다. 50년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땅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희년이 1년밖에 안남은 땅과 희년이 49년이나 남은 땅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2) 주택의 해방

“[레 25: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 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레 25:30] 주 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 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레 25:31] 그러나 성벽이 둘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 도 할 것이니라.”

위의 본문은 일반인들의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은 “ 땅의 해방”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주택이 성곽 안에 있느냐 성곽 밖에 있느냐였습니다. 성곽 밖의 가옥은 희 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주인의 소유가 되었으 나 성곽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내에 무르지 않으 면 영원히 산 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팔았다가 다시 무를 수 있었으며 희년이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희년법에 따라 원주인에게 되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제한이 있었는데, 성읍의 사면 에 있는 밭은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레 25: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레 25: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을 기업이 됨이니라 [레 25: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받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원래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48 곳의 성읍을 분배 받았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48개의 성읍은 그들의 전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분배받았던 성읍 사면의 토지를 팔게 되면 그들의 고유한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3) 노예의 해방

가. 노예해방과 희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형제나 동족 사이에서는 결코 노예나 종으로 삼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었을 경우엔 그를 종처럼 심하게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대우하라고 했습니다. 주인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 노예된 자를 가족처럼 돌봐 주어야만 했습니다.

"[레 25:39]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레 25: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레 25: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레 25: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레 25: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기때문에 민족 간에 주인과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입니다.

나. 이방인인과 희년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희년의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민족을 노예로 살 수 있었으며 이들을 평생 주인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노예는 자손대대로 상속까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과의 차이를 두신 것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 25: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레 25: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레 25: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희년

1)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갈릴리 지역의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내용은 누가를 통해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눅 4: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원래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사 61:1]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사 61:2] 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신 것은 스스로 희년이 되어 백성에게 '은혜의 해'를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희년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희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희년은 실로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년은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령학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씀을 놓고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난한 자를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희년은 노예된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부여되었습니다. 물질의 포로된 자들은 모든 빚에서 해방되었으며 속박과 억압된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포로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가정문제도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포로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포로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눌린 자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적인 영역에서 포로가 된 자들은 영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마귀는 혼적인 영역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짓누릅니다. 물질 문제나 가정문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곤고해지고 맙니다.

이렇듯 눌린 상태가 되면 인생의 그 어떠한 의미를 갖지 못하며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런 행복과 기쁨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지못

해 살아갑니다. 이렇게 눌린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모든 마귀의 굴레는 벗겨졌으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마귀의 채운 족쇄가 풀어진 것입니다.

[레 25: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레 25: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레 25:15]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레 25:16]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레 25:17]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5장 13~1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빌년의 소유 회복과 거래의 공의, 그리고 형제 석방의 원리를 명하신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공의와 자비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상기시키시며, 인간이 서로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며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 법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게 하며, 구속받은 백성답게 자유와 평등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은 유빌년의 회복 원리를 제시합니다.

[레 25: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이 말씀은 유빌년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단순히 땅의 반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땅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희년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회복의 시간이며, 곧 하나님 께로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영원히 그분의 것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은 단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4절부터 16절은 유빌년의 거래와 공정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레 25: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레 25:15]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레 25:16]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하나님은 유빌년 사이의 기간 동안 땅을 사고팔 때, 남은 해 수에 따라 값을 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땅 자체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앞으로 낼 열매의 수확량에 따라 값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 원칙은 '속이다' <아샤크> 하지 말라는 명령과 연결됩니다. '아샤크'는 억누르거나 착취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백성 간의 거래 속에서도 탐욕과 불공평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유빌년의 거래는 이윤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 관계의 정의임을 강조하십니다. 남은 해 수를 기준으로 공정히 값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거래에서 '속이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한 금전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손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거래란 단순히 값의 균형이 아니라, 마음의 정직입니다.

레위기 25장 17절은 유빌년의 모든 규례를 아우르는 핵심 말씀입니다.

[레 25:17]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

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서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유킴년의 정신을 완성하는 한 구절입니다. 인간의 경제와 관계 속에서도 경외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다’<아샤크> 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사기나 부당한 거래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형제를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아래 평등하게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거래의 목적이 이윤이 아니라 경외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래는 언제나 불의로 흐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는 선언은 그 모든 관계와 재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제 질서 속에까지 자신을 드러내시며,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레 25: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레 25:19]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하리라

[레 25:20]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레 25:21] 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레 25:22] 너희가 제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레위기 25장 18-2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빌년 순종의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과 유빌의 명령이 단순한 심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믿음의 훈련임을 밝히십니다. 이 구절들은 순종이 평안을 낳고, 하나님이 친히 풍성함을 명하신다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이 약속은 애굽의 굶주림과 광야의 불확실함을

지나 가나안의 풍요를 경험하는 백성에게, “너희의 공급자는 오직 나 여호와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순종은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며, 공급은 그 신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은 순종의 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레 25:18]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며 내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 땅이 평안을 누리며 너희가 먹을 거친 음식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땅이 평안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평안’<shalom>은 단순한 전쟁 없음이 아니라 온전함, 충만함, 안정된 삶을 뜻합니다. <shalom>의 어근은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주어지는 영적 조화와 창조 질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행위 속에서 인간이 참된 평안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평안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입니다.

순종은 억압된 노동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 안에서 참 심을 누리는 믿음의 열쇠였습니다.

레위기 25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인간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레 25:19] 너희가 내게 묻기를 가을에 무엇을 먹을꼬 하여 두 해 곡식에 매여 있으리라 하리니
[레 25:20] 내가 유빌년 다음 해에 땅에 명령하여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리니 너희가 유빌년까지 먹을 것이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고 묻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두려움, 곧 눈에 보이는 공급이 멈출 때 생기는 불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땅에 명령하여 풍성한 소산을 내게 하리니.” 여기서 ‘명령하다’는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을 뜻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땅은 순종합니다. ‘소산’<테부아>은 ‘열매’, ‘수확’을 의미하며,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와 같이 인간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공급을 상징합

니다. 이 풍성함은 단지 곡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걱정을 미리 아시고, 유빌년이 되기 전 해에 풍성함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해의 양식을 채워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인간의 계산과 대비를 넘어선 은혜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소산을 내게 하리니”라고 하신 것은, 땅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선언입니다.

레위기 25장 21절과 22절은 유빌년 후에도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공급을 약속합니다.

[레 25:21] 유빌년 다음 해에도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 있을지라 유빌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거둘 것도 없으리라

[레 25:22] 유빌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거둘 것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안식과 유빌의 기간 동안 땅을 경작하

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작하다' <아바드>는 '일하다', '섬기다'의 뜻으로, 본래 인간의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행위였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멈추라 하시며, "너희의 생명은 너희 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인간의 손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기업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염려와 하나님의 신실함이 맞닿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쉬어도, 나는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빌년의 심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공급하십니다.

[레 25: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 25: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레 25: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레 25: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
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레 25: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레 25: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
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25장 23-2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소유의 주권과 속량의
질서를 명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라”라고 선언하시며, 인간의 소유욕을 제어
하고 공동체의 평등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십니
다. 이 규례는 단순한 경제 법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서로
를 형제로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법이었
습니다. 속량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행위가 아
니라, 하나님의 공훈이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은

혜의 통로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언합니다.

[레 25:23]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너희는 나의 임차인이나 나의 손님이 되리라

이 구절은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땅은 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드러냅니다. 땅의 주인<아도나이>은 ‘주권자’나 ‘소유주’라는 뜻으로, 시편 24:1의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라”는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너희는 나의 임차인이나 손님이 되리라”에서 임차인<게르>은 ‘나그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영구적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임시로 맡겨진 손님임을 상기시킵니다. 따라서 땅을 다스림은 소유의 특권이 아니라, 거룩한 위탁의 책임입니다.

레위기 25장 24절은 땅의 매매 제한을 명하십니다.

[레 25:24] 너희 땅의 모든 소유를 통하여 너희는 그 땅을 돌려 팔지 못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땅을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신앙의 장치입니다. 땅은 한 가문이나 개인의 영구적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의 기업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막는 언약적 보호 장치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5-27절은 가난한 형제의 땅을 친족이나 제사장이 대신 속량하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레 25: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네 소유 중

에 있는 땅 일부를 팔면 그 땅의 주인이나 친족이 와서 그 땅을 속할지니라

[레 25:26] 만일 그 속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팔 값이 남아 그 속할 때까지 이르면 제사장들이 그 값을 매겨 그 남은 해 수대로 하여 그에게서 제하여 줄지니라

[레 25:27] 만일 그 해 수가 많으면 그 값도 많을 것이요 적으면 그 값도 적을 것이니라 남은 해 수대로 그 값을 정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가난하여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제를 위해 속량자<가알>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속량하다’<가알>는 ‘되찾다’, ‘해방하다’의 뜻으로, 룻기 4장의 보아스가 나오미의 유업을 되찾은 사건과 연결됩니다. 속량은 단순히 재산의 회복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과 공동체의 존엄을 지켜주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가 완전히 소외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그 값을 공정히 매기게 하신 것은, 속량이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

거한 사랑의 질서임을 보여줍니다. 남은 해 수에 따라 값을 정하라는 명령은, 거래 속에서도 신앙적 균형과 정의가 유지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경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가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28절은 유빌년에 회복되는 땅의 속량 원리를 마무리합니다.

[레 25:28] 만일 그가 속하지 못하고 유빌년에 이르면 그 땅은 유빌년에 돌아가고 그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

유빌년이 되면 모든 땅이 본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불평등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속량<가알>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유빌이 오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는 회복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토지 회복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표징이었습니다. 땅이 돌려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 백성은 자신들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그네<게르>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레 25: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레 25:30]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레 25:31] 그러나 성벽이 돌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 25: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레 25: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

손 중에서 얻을 기업이 됨이니라

[레 25: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받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5장 35-3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형제를 돕고 이자를 금하라고 명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율년의 회복 정신을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실천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생겼을 때 그를 버려두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구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형제애를 사회적 구조 속에 심으신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은 가난한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명령입니다.

[레 25:3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 곁에서 쇠약하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되 거류인이나 동거인처럼 그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

와 일으키라<하자크> 하십니다.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 ‘붙들다’의 뜻으로,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아 세우는 적극적 도움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거류인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살게 하라”는 말씀은, 그를 공동체 밖으로 밀어 내지 말고, 가족처럼 품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보십니다. 이 말씀은 경제적 정의 이전에 관계의 정의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6-37절은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레 25:36]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가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며

[레 25: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이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취하지 말라<나샤크> 하십니다. ‘나샤크’는 본래 ‘물다’라는 뜻으로, 이자가 형제를 상처 입히

는 ‘물림’이 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형제 사이의 거래를 이익이 아닌 경외의 관계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모든 경제 행위의 기준이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사랑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을 착취할 수 없으며, 형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자를 금한 것은 단지 경제적 불평등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은 이 명령의 근거를 밝히는 절정입니다.

[레 25:38]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

와”로 소개하십니다. ‘인도하다’<아차>는 ‘끌어내다’, ‘구원하다’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의 시작부터 해방시키신 분임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땅과 자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구속받은 백성이니, 다른 이에게는 속박을 주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한 절은 유빌년 전체의 정신을 요약합니다 - 하나님이 해방하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해방하라.

[레 25:35]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레 25: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레 25: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레 25: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토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25:39] 네 동족이 반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레 25:40]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레 25: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레 25: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레 25: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 25: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레 25: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레 25: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

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레위기 25장 39-4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브리 종의 석방과 이방 종의 규례를 명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를 영구한 노예로 삼지 말고 일정 기간만 고용된 종처럼 대하되, 유별년에 자유롭게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 종은 영구 소유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하나님 경외 안에서만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규례는 자유와 공의, 자비의 균형을 세우는 언약 공동체의 기본 원리를 드러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은 가난한 형제를 영구 노예로 삼지 말고, 일정 기간만 고용된 종처럼 섬기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레 25:39] 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함께 사는 동료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리

지 말라”는 표현은 ‘섬기다’<아바드>의 부정형으로, 형제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이 지배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주는 관계임을 가르치십니다.

레위기 25장 40-41절은 가난한 형제가 일정 기간만 섬기고 유빌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명령합니다.

[레 25:40]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유빌년까지 섬기게 하라

[레 25:41] 그때에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로 나가며 그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다’<슈브>는 ‘회복되다, 되돌아가다’의 뜻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로 되돌리는 회복의 상징입니다. 종의 자유는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유빌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제도이며,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회복되는 거룩한 기념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4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

로서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레 25:42] 그들은 내 종인즉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자니 그들이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은 내 종이라” 선언하시며, 이스
라엘의 주권자가 오직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인
도하여 내다”<가알>는 ‘속량하다, 되찾다’의 뜻으
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속하신 사건
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사
람이 다시 종으로 삼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부정
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뿐이며,
모든 인간 관계의 기준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레위기 25장 43-44절은 히브리 형제와 이방 종
의 구별을 설명합니다.

[레 25: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
나님을 경외하라

[레 25:44] 네 종 남녀는 너희 사방의 이방인 중
에서 사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를 억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하십니다.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명령은 통제의 방식이 아니라 경외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반면, 언약 밖의 이방인에게서는 종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팎의 구별을 보여주는 상징적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마저도 경외 안에서 행하라고 하심으로, 권리가 자비로 제한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5-46절은 이방 종의 소유와 경외의 경계를 가르칩니다.

[레 25:45]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그들의 자손 중에서 너희와 함께 사는 자 중에서 사서 소유할 수 있고, 너희 뒤에 기업으로 물려줄 수도 있으나

[레 25:46] 너희는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으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엄하게 부리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 종의 소유를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 형제를 영구히 종으로 삼는 것은 금지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다는 선언입니다.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라”는 명령 속에는 경외의 원리가 흐릅니다. 경외 없는 소유는 탐욕이 되고, 탐욕은 곧 억압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의 생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유빌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레 25: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레 25:48]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레 25: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레 25: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레 25: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레 25: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레 25: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샅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레 25: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레 25: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5장 47-5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에게 팔린 히브리 종의 속량과 석방 원리를 명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가 이방인에게 팔릴 때, 가까운 친족이나 본인이 속량하여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며, 유빌년에는 반드시 풀어주어 영구 종으로 삼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규례는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모든 형제를 자비와 공의로 대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은 히브리 형제가 가난하여 이방인에게 몸을 팔게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레 25:47] 만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나 거류민이 부자가 되고,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에게 몸을 팔거나 나그네의 자손에게 팔리면

하나님은 현실적인 가난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그 속에서의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으십니다. 형제가 이방인에게 팔릴 수 있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속량의 기회로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종속도 유벌의 자유로 끊어낼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8-49절은 가난한 형제를 구출할 속량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레 25:48] 그가 팔린 후에 그의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혹은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집에서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혹은 그 자신이 넉넉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속량하다”<가알>는 ‘되찾다, 구속하다’는 뜻으로, 단순한 거래가 아닌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속량은 물질의 보상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속량자 되심을 예표하며, 롯기 4장의 보아스처럼 가족의 끈을 잇는 구속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5장 50-52절은 속량할 때의 공정한 계산 원칙을 제시합니다.

[레 25:50] 그는 자신이 팔린 때로부터 유빌년까지를 계산하여 그 해 수대로 그 값을 매기고, 그 날 품꾼의 값을 따라 그 값을 환산하라.

속량은 감정이 아니라 공의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품꾼의 값대로”라 하시며, 억압도, 착취도 없는 공정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속량은 은혜의 행위이지만, 그 은혜는 언제나 정의의 질서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를 예표하며, 신명기 15장의 “형제를 억누르지 말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합니다.

레위기 25장 53절은 히브리 종이 유빌년까지 종으로 있더라도, 그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는 경계를 둡니다.

[레 25:53] 그는 해마다 품꾼과 같이 네 곁에 있을 것이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명령은 ‘억압하다’<아샤크>의 금지형으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폭력이 용납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경외 없는 권력을 가장 큰 부정의로 보십니다. 이 말씀은 권력의 한계를 세우는 경외의 울타리입니다.

레위기 25장 54절은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빌년에 자동으로 해방된다는 약속을 전합니다.

[레 25:54]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였으면 유

빌년에 나가리니,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로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무능이 은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속량하지 못해도 유빌년이 되면 해방은 이루어집니다. “자유롭게 하다”<드라르>는 ‘풀다, 놓아주다’의 뜻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굴레를 푸시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 자유는 인간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해방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은 이 모든 규례의 신학적 결론을 제시합니다.

[레 25:55] 이스라엘 자손은 다 나의 종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은 내 종이라” 말씀하시며, 인간의 주권을 완전히 배제하십니다. 속량의 근거는 경제나 혈연이 아니라 출애굽의 은혜, 곧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

시며, 이스라엘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명령하십니다. 경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해방을 지탱하는 신앙의 근본 태도입니다.

레위기 26장 =====

[레 26: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레 26:2]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6:3]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레 26:4]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레 26:5]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레 26: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 26:7]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레 26:8]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레 26:9]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레 26:10]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레 26:11]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 26:12]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 26:13]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레위기 26장 1-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금지와 순종의 복을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일상 속에서 우상 금지와 순종을 실천하라는 깊은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조각상과 우상은 단순한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과 은혜로운 복을 반영하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제사장들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맡았기에, 우상 숭배는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백성들은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시며, 이 명령의 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순종과 복의 증언으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깁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은 우상 금지와 안식·성소 경외를 명령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6:1]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조각한 신을 만들지 말며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은 상이나 정목을 세우지 말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절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6:2]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각한 신이나 돌은 상, 정목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우상 금지는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모험입니다. 안식은 쉬면서 힘 모으기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특별한 집입니다. 우상<엘림> - '우상'은 가짜 영웅처럼, 진짜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엘림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만 믿으면 진짜 강해져"라는 거예요. 마치 게임에서 치트키

대신 공정하게 플레이해 승리하는 것처럼, 우상을 멀리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영적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짜 영웅을 없애고 진짜 모험(구원)을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 우상은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속이는 함정인데,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진짜 영웅이 돼요. 원어 안식<샤밧> - '쉬다'는 말로, 매주 일요일처럼 피곤할 때 쉬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샤밧의 본질은 "쉬면서 충전하면 더 세게 달려!"예요. 레위기 26:2처럼, 쉬는 날 친구들과 놀며 하나님 생각하면 기운이 솟아요. 영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쉬어라, 내가 도와줄게"라는 약속으로, 세상의 바쁨 속에서 진짜 휴식을 줍니다. 이는 세상의 "계속 달려"라는 압박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휴가예요. 샤밧의 심은 예수님의 손잡기가 되어 우리를 안정되게 합니다. 성소 경외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저씨의 "지도자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소년들은 우상 금지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은 소년들의 삶(선택·쉬기) 속에 가짜 영웅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가정 아빠, 교회 선생님, 나

라 리더도 가족 상처를 안아주고 용기 주며 웃게 합니다. 오늘 세레나 성찬처럼, 쉬는 날의 따뜻한 모험을 떠올려봅니다. 쉬는 날 놀이는 친구들 웃음의 기반입니다. 우상 버리기는 "나도 너처럼 실수해"라는 공감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모험을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6장 3-5절은 순종의 복으로 땅의 풍성을 약속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6:3]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레 26:4] 내가 너희에게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하여 땅이 그 소산을 내고 땅의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하리라

[레 26:5] 너희의 타작하는 것이 광종하는 때까지 미치며 광종하는 것이 포도 거두는 때까지 미치며 포도 거두는 것이 파종하는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먹을 거친 음식이 충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비를 적당히 내려 땅의 소산과 열매

를 주시고, 타작이 광종 때까지, 광종이 포도 거두 때까지, 포도 거두가 파종 때까지 미치게 하여 먹을 음식이 충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보물 사냥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선물 비입니다. 소산은 맛있는 열매 바구니입니다. 순종<사마르> - '잘 듣기'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사마르의 깊은 의미는 "잘 들으면 보물이 쏟아져"예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코치 말 들으면 팀이 이기는 것처럼, 순종하면 땅이 웃으며 열매를 줍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의 "잘 안 돼"를 "풍성한 모험"으로 바꿔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는 세상의 "혼자 해보자"가 문을 닫는 걸 열어요. 순종은 타락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원어 소산<테부아> - '열매'는 땅이 주는 파티 초대장입니다. 테부아의 본질은 "하나님 덕분에 먹을 게 넘쳐!"예요. 레위기 26:4처럼, 비가 오면 나무가 춤추듯 열매 맺어요. 이는 예수님의 몸으로 매일 맛있는 걸 나누는 팀워크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배고프면 나 먹어, 충분해"라고 하세요. 테부아의 많음은 예수님의 손잡기로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잘 듣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미

소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저씨의 "팀 리더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소년들은 순종으로 배부르게 됐습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은 소년들의 삶(잘 듣기·먹기) 속에 나쁜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가정 아빠, 교회 선생님, 나라 리더도 가족 배고픔을 안아주고 채워줍니다. 오늘 세레나 성찬처럼, 맛있는 빵의 따뜻함을 떠올려봅니다. 열매 나누기는 친구들 웃음의 기반입니다. 순종 선물은 "나도 너처럼 배고팠어"라는 공감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를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6장 6-8절은 순종의 복으로 평강과 승리를 약속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6:6] 내가 너희 땅에 평강을 주리니 너희가 누워도 두려울 자가 없으리라 땅의 맹수로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땅의 칼이 너희 땅을 지나지 못하게 하며

[레 26:7] 너희가 너희 대적을 쫓아 그들이 너희 칼에 멸망하리라

[레 26:8] 너희 중 오십 명이 백 명을, 백 명이 십

천 명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칼에 너희 앞에서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면
땅에 평화가 와서 밤에 무섭지 않고, 야생 동물
이나 나쁜 칼이 안 다치게 해주시고, 나쁜 적을
쫓아 물리며, 소수가 다수를 이기게 하신다는 뜻
입니다. 평화는 안전한 캠프파이어입니다. 강함
은 슈퍼히어로 팀입니다. 나쁜 적은 게임 보스
입니다. 평강<shalom> - '평화'는 모두가 함께 웃는
야영지예요. 샬롬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면 무섭지 않아"예요. 마치 친구들과 캠핑할 때
불꽃 보며 안심하는 것처럼, 평화는 팀 전체의
보호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게
임 보스를 '평화'로 바꿔 영원한 승리를 줍니다.
이는 세상의 무서움이 문을 닫는 걸 열어요. 평
강은 타락한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정되
게 합니다. 원어 대적<오예브> - '나쁜 적'은 게
임 속 적이에요. 오예브의 본질은 "하나님 도우
면 레벨업!"예요. 레위기 26:7처럼, 작은 팀이 큰
보스를 이겨요. 이는 예수님의 몸으로 매일 용감
해지는 어드벤처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나쁜

적 물려, 내가 도울게"라고 하세요. 오예브의 쫓음은 예수님의 손잡기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동물 피함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강함은 하나님 미소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저씨의 "팀 코치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소년들은 평화로 강해졌습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은 소년들의 삶(포용용기) 속에 무서운 보스를 버리라고 합니다. 가정 아빠, 교회 선생님, 나라 리더도 가족 무서움을 안아주고 웃게 합니다. 오늘 세레나 성찬처럼, 평화의 따뜻함을 떠올려봅니다. 적 쫓기는 친구들 웃음의 기반입니다. 평화 선물은 "나도 무서웠어"라는 공감입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게임 승리를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26장 9-13절은 순종의 복으로 언약과 자유를 약속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레 26:9]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레 26:10] 너희가 오래된 것을 먹어 새 것을 치우고 오래된 것을 다 못 먹으리라

[레 26:11]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두고 내 마

음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레 26:12] 내가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 26:13] 나는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의 종노릇에서 건져낸 자라 너희
를 더 이상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너희를 풀어
준 자유의 나팔을 불었노라 너희는 사람의 멍에
를 메고 굴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면
너희를 돌아보아 번성하게 하고 언약을 맺으시
며, 오래된 것을 먹어 새 것을 치우게 하시고, 장
막을 두시며 마음이 미워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
에 행하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애굽 종노릇
에서 건져내신 자유의 나팔을 상기시키시며 멍
에를 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최고 친구
약속입니다. 장막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자유는
모험 시작입니다. 이는 제26장의 총결입니다. 원
어 언약<베릿> - '약속'은 “영원한 팀 되기”예요.
베릿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손잡고 대모험”이
예요. 신명기 7:9처럼, 약속은 항상 지켜요. 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일 팀워크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내 피로 약속 지킬게"라고 하세요. 베릿의 포옹은 성령으로 우리를 안아줘요. 원어 자유<드롭> - '자유'는 "노예 짐 버리고 달리기"예요. 드롭의 본질은 "하나님 손 잡고 자유롭게"예요. 레위기 26:13처럼, 나팔 소리로 모험 시작이에요. 이는 예수님의 몸으로 매일 자유롭게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타락 짐 내려놔"라고 하세요. 드롭의 해방은 성령으로 우리를 웃게 합니다. 전체 팀워크는 거룩 삶의 결실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로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 아저씨의 "팀 리더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소년들은 언약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은 소년들의 삶(팀워크·모험) 속에 타락을 버리라고 합니다. 가정 아빠, 교회 선생님, 나라 리더도 가족 상처를 안아주고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세레나 성찬처럼, 자유의 따뜻함을 떠올려봅니다. 장막 놀이는 친구들 웃음의 기반입니다. 해방은 "나도 너처럼 자유워"라는 공감입니다. 이 마무리는 제26장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레 26:14]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레 26:15]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
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레 26:16]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
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
을 것임이며

[레 26:17]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
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
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하리라

레위기 26장 14-17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첫 번째 저주를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백성들이 하
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임할 재앙을 통해, 순
종의 중요성과 회개의 길을 강조합니다. 불순종
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
는 행위로, 질병과 패배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통

해 공동체 전체의 파괴를 예고합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아야 할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강조되듯, 불순종은 예배를 더럽히지만, 이 경고는 자비로운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내가"라고 선언하시며, 징계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훈계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축복(1-13절)과 저주(14-39절)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6장 14-17절은 불순종의 조건과 첫 번째 저주로 질병과 패배를 경고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불순종이 초래하는 개인적·사회적 파괴를 단계적으로 그려내며,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과 저주라는 양면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불순종의 뿌리는 마음속 싫어함

과 배반에 있으며, 이는 질병(생명 쇠약), 경제적 실패(농작물 약탈), 군사적 패배(도망과 굴욕)로 나타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이 생명의 길임을 상기시키는 경고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의 영적·실제적 결과를 일깨웁니다. 궁극적으로 이 저주는 회개를 위한 자비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예고합니다. 불순종은 어두운 동굴처럼 자유를 잃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빛을 비추는 치유와 회복의 길입니다.

레위기 26장 14-15절은 불순종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청종 부재와 마음의 싫어함이 언약 배반으로 이어지며, 재앙의 전제를 세웁니다.

[레 26:14-15]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을 청종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며 계명을 싫어하고 언약을 배반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은 어두운 동굴 모험입니다. 배반은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고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마음으로 싫어하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파라르>할 때를 가리킵니다. 배반<파라르>은 '찢다'나 '파기하다'라는 폭력적 이미지를 불러일으켜, 시내산에서 맺은 신성한 약속을 저버리는 중대성을 부각합니다. 이 배반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버지-자녀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로, 후속 재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되며,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강조된 마음의 순결을 상기시킵니다. 이 조건은 전체 저주의 출발점으로, 순종이 언약의 생명줄임을 드러내며, 불순종된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예고합니다. 제사장 아들들이 회막에서 중재하듯, 이 경고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할 사명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구절들은 어두운 동굴 같은 불순종의 함정을 피하고 빛의 길로 돌

아오라는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배반을 용서하고 새 언약을 맺는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가정과 교회 리더들이 후손들에게 이 교훈을 전수해야 합니다. 오늘 세레나 성찬 예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순종 모험을 상기시키며, 배반의 공감("나도 실수했어")을 통해 치유의 문을 엽니다.

레위기 26장 16절은 첫 번째 재앙의 세부 내용을 제시합니다. 놀라운 재앙과 질병, 농업 실패가 불순종의 직접적 결과를 나타내며, 생명의 쇠퇴를 통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레 26:16]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재앙으로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시며, 파종이 헛되게 하고 대적이 먹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재앙은 갑작스러운 폭풍입니다. 쇠약은 생명의 꺼짐입니다.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아사> 것이며, 파종이 헛되리니 대적이 먹을 것임을 밝힙니다. 생명을 쇠약하게 할<아사>은 '만들다'라는 창조적 동사로, 불순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결과를 생생히 그립니다. 이는 오늘날 영적 무기력과 생산성 상실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치유 기적(눈 멀은 자를 고치심)처럼 회복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재앙은 개인적 고통(질병)과 경제적 파괴(농업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훈계로,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너질 때 공동체 예배가 위협받음을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열매를 빼앗는 함정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분 안에서만 진짜 열매가 맺히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즉각적 결과를 통해, 애굽 탈출

의 자유를 유지하려면 지속적 순종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재앙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빵을 나눌 때, 헛된 파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수확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재앙 속 공감("나도 아팠어")으로 치유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치유받는 팀워크를 상기시키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합니다.

레위기 26장 17절은 패배와 공포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군사적 굴욕과 무기력한 도망이 불순종의 사회적 파국을 나타내며, 하나님 의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레 26:17]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적에게

패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다스림을 받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패배는 팀의 실수입니다. 도망은 무서운 그림자입니다. 너희를 치리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미워하는 자가 다스릴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누스>하리라 선언하십니다. 도망<누스>하리라는 표현은 무기력한 공포를 상징하며, 누스<누스> 동사는 '도망치다'로, 실제 위협 없이도 마음의 두려움이 행동을 지배함을 나타냅니다. 이 무의미한 도망은 정신적 쇠약을 강조하며, 시편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다'와 대비되어 하나님 피난처의 필요성을 부각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 없이는 평화가 없음을 깨닫게 하며, 십자가 승리를 통해 자유를 회복하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은 재앙이 회개를 위한 도구임을 암시하며, 지도자들의 책임이 공동체의 강함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소년들이 패배 속에서 약해지듯, 오늘날 교회 리더들은 후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세례 예배에서물로 씻김처럼, 이 도망의 공포를 예수의 손으로 안아주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 게임을 미

리 보여주며, 패배 속 공감("나도 도망쳤어")으로 강함의 길을 열어줍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용감해지는 어드벤처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안정시킵니다.

[레 26:18]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 배나 더 징치할지라

[레 26:19]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레 26:20]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26장 18-20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두 번째 저주를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첫 번째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을 때 칠배의 징계를 통해 자연의 마름과 헛된 수고를 묘사하며, 교만의 파괴를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땅의 불모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결과를 드

러냅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에서 자만에 빠질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강조되듯, 불순종은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이 경고는 자비로운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반복하시며, 징계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훈계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축복(1-13절)과 저주(14-39절)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6장 18-20절은 불순종의 두 번째 저주로 가뭄과 불모를 경고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첫 번째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을 때 칠배의 징계를 통해 자연의 마름과 헛된 수고를 묘사하며, 교만의 파괴를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땅의 불모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영적 건조함과 무의미한 노력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저주는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물"처럼 회복의 은혜를 예고합니다. 가뭄은 메마른 사막처럼 영혼을 갈라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생명의 비를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은 불순종 지속 시 칠배 징계를 선언합니다. 첫 재앙에도 청종하지 않을 때 죄를 인한 더 강한 벌이 임하며, 회개의 기회를 반복적으로 줍니다.

[레 26:18]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배나 더 징치할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재앙에도 청종하지 않으면 죄를 인하여 칠배나 더 징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징계는 점점 세지는 파도입니다. 청종 부재는 고집의 벽입니다. 첫 재앙에도 청종하지 않으면 죄를 인하여 칠배나 더 징

치<야사르>할찌라 선언하십니다. 징치<야사르>는 '교정하다'나 '훈계하다'라는 의미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채찍질처럼 불순종을 바로잡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잠언서에서 자녀 양육의 맥락으로 자주 등장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파괴가 아닌 성숙을 위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칠배의 증가는 재앙의 누적성을 보여주며, 신명기 28장의 병행 구절과 연결되어 언약의 엄중함을 부각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라는 표현은 자비로운 인내를 드러내며, 첫 번째 질병과 패배(14-17절)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탈출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부르심으로, 제사장들의 중보가 무너지는 위기를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 더 큰 시련이 따름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는 초대처럼 순종의 평안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속이 어떻게 자비의 문을 닫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유일한 탈출구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징계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무릎 꿇는 계기가 됩니

다. 오늘 세례 예배에서 물로 씻김처럼, 죄를 인
한 징계를 예수의 피로 씻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교정 모험을 미리 보여
주며, 고집 속 공감("나도 고집부렸어")으로 부드
러운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
일 교정받는 팀워크를 상기시키며, 타락한 마음
을 사랑으로 바로잡습니다.

레위기 26장 19절은 교만의 꺾임과 자연의 딱딱
함을 묘사합니다. 세력의 오만이 무너지며, 하늘
과 땅의 불모가 불순종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레 26:19]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
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
과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력을 인
한 교만을 꺾고 하늘을 철처럼 땅을 놋처럼 만드
시겠다는 뜻입니다. 교만은 부푼 풍선입니다. 딱
딱함은 닫힌 문입니다.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
사바르>고 하늘을 철처럼 땅을 놋처럼 만드십니
다. 꺾<사바르>은 '부수다'나 '파괴하다'라는 강렬

한 의미로, 교만의 뿌리를 뽑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사무엘상에서 골리앗의 패배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만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사용되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후 발생할 세력 자랑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세력을 인한 교만"은 첫 번째 저주(17절 패배)의 역설적 결과를 지적하며, 패배 속에서도 여전한 오만이 더 큰 재앙을 부름을 드러냅니다. 하늘을 철처럼, 땅을 놋처럼 만드는 비유는 자연의 딱딱함과 불투과성을 통해 비와 열매의 차단을 상징하며, 창조의 축복(4-5절 풍성)이 저주로 뒤집히는 역설을 생생히 그립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제사 생활조차 위협받음을 암시하며, 회막의 번제와 소제물이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성공 추구가 영적 메마름을 초래하는 함정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부요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씀처럼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속이 자연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림을 통해, 애굽 해방의 자유를 유지하려면 즉각적 회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

듯, 이 꺾임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겸손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빵을 나눌 때, 부푼 교만이 아닌 낮아진 예수의 몸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겸손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오만 속 공감("나도 자랑했어")으로 낮아지는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매일 부서지는 교만을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재건합니다.

레위기 26장 20절은 헛된 수고와 불모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땅과 나무의 무산물이 불순종의 경제적 파국을 나타내며, 하나님 의존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

[레 26:20] 너희 수고가 헛될찌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가 헛되게 하고 땅이 산물을 내지 않으며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불모는 빈 손입니다. 헛됨은 회전하는 바퀴입니다. 수고가 헛

될찌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수고가 헛되다는 표현은 농업 사회에서 절망의 절정을 의미하며, 창세기 3장의 타락 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리라"는 저주와 연결되어 원죄의 연장임을 드러냅니다. 땅의 산물 부재는 공동체 전체의 기아와 쇠퇴를 예고하며, 제사장 제도의 번영(레위기 1-7장의 제물)이 무너질 위기를 경고합니다. 나무의 열매 맺지 않음은 개인적 열매(시 1:3의 의인)까지 상실을 상징하며, 불순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를 생생히 그립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유사한 농업 저주와 병행되어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노력만으로는 영적 열매가 없음을 깨닫게 하며,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비유처럼 그분 안에서의 의존을 촉구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속이 어떻게 생명의 기반을 앗아가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유일한 회복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헛됨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과실을

상기할 때, 무산물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헛된 노력 속 공감("나도 헛돌았어")으로 충만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열매 맺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웁니다.

[레 26:21]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칠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레 26:22]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감소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레위기 26장 21-2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세 번째 저주를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두 번째 재앙에도 거스르지 않을 때 칠배의 재앙을 통해 야생동물의 침입과 공동체의 쇠퇴를 묘사하며, 가족과 번영의 파괴를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자연과 사회의 위협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할 때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에서 반항할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강조되듯, 불순종은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이 경고는 자비로운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반복하시며, 징계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훈계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 상에서, 축복(1-13절)과 저주(14-39절)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6장 21-22절은 불순종의 세 번째 저주로 야생동물의 침입을 경고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두 번째 재앙에도 청종하지 않을 때 칠배의 재앙을 통해 들짐승의 공격과 황폐를 묘사하며, 가족과 번영의 파괴를 강조합니다.

다. 지속된 불순종이 공동체의 안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할 때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영적 위협과 고립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저주는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목자"처럼 보호의 은혜를 예고합니다. 야생동물은 숲 속 괴물처럼 자유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를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은 불순종 지속 시 칠배 재앙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가 더 강한 벌을 초래하며, 죄에 합당한 응징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레 26:21]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칠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청종하지 않으면 죄대로 칠배나 더 재앙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재앙은 점점 커지는

파도입니다. 거스름은 벽에 부딪히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청종하지 않으면 죄대로 칠배나 더 재앙<케레>을 내리십니다. 재앙<케레>은 '죽음'이나 '파괴'를 뜻하며, 불순종이 가져오는 생명의 쇠퇴를 생생히 그립니다. 이 명사는 출애굽기 애굽 재앙에서 사용되며,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역설적 교훈을 줍니다. 칠배의 증가는 이전 저주(18절)와 연결되어 재앙의 누적성을 강조하며, 신명기 28장의 병행 구절과 함께 언약의 엄중함을 부각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라는 표현은 적극적 반항을 지적하며, 두 번째 가뭄(18-20절)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고집을 경고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중보가 무시될 때 공동체 예배가 위협받음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할 때 더 큰 영적 죽음이 따름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처럼 순종의 생명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속이 어떻게 자비의 문을 좁히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유일한 피난처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재앙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세례 예배에서 물로 씻김처럼, 죄의 재앙을 예수의 피로 씻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회개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거스름 속 공감("나도 반항했어")으로 포옹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보호받는 팀워크를 상기시키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안정시킵니다.

레위기 26장 22절은 들짐승 침입의 결과를 제시합니다. 자녀와 가축의 멸함, 도로의 황폐가 불순종의 가족적 파국을 나타내며, 하나님 보호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

[레 26:22]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효를 감소케 할찌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들짐승을 보내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며 수효를 감소케 하여 도로를 황폐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야생동물은 숲 속 괴물입니다. 황폐는 텅 빈 길입

니다. 들짐승<하야>을 보내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멀하며 수효를 감소케 하여 도로를 황폐하십니다. 들짐승<하야>은 '야생 짐승'으로, 통제되지 않은 자연의 위협을 상징하며,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가 뒤집힌 혼란을 연상시킵니다. 이 명사는 욕수아에서 가나안 정복 시 동물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불순종 시 보호의 상실을 경고합니다.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멀하는 표현은 가족과 경제의 파괴를 생생히 그려, 이스라엘의 번영 약속(9-10절)이 무너지는 역설을 드러냅니다. 수효감소는 공동체의 쇠퇴를 의미하며, 제사장 제도의 후손 전승이 위협받음을 암시합니다. 도로의 황폐는 고립과 두려움을 상징하며, 여행과 무역의 중단으로 사회적 붕괴를 예고합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유사한 동물 저주와 병행되어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괴물 같은 유혹이 가족을 삼키는 함정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약속처럼 보호의 울타리를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속이 어떻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유일한 안전망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

르치듯, 이 황폐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피난처를 찾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공동체를 나눌 때, 멸함의 공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무리를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위협 속 공감("나도 무서웠어")으로 안전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지키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회복합니다.

[레 26:23]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레 26:24]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칠 배나 더 칠지라

[레 26:25]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레 26:26]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라

레위기 26장 23-2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네 번째 저주를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세 번째 재앙에도 대항할 때 칠배의 징계를 통해 전쟁과 기근을 묘사하며, 사회적·경제적 붕괴를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공동체의 안정과 양식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할 때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에서 반항할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강조되듯, 불순종은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이 경고는 자비로운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반복하시며, 징계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훈계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축복(1-13절)과 저주(14-39절)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6장 23-26절은 불순종의 네 번째 저주로 전쟁과 기근을 경고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세 번째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을 때 칠배의 징계를 통해 칼과 염병, 양식 끊김을 묘사하며, 사회적·경제적 붕괴를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공동체의 안정과 양식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할 때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영적 갈등과 영양실조 같은 빈곤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저주는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빵의 인생"처럼 만족의 은혜를 예고합니다. 전쟁은 칼의 춤처럼 혼란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평화의 빵을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23-24절은 불순종 지속 시 대항의 결과를 선언합니다.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고 대항할 때 칠배의 응징이 임하며, 하나님과의 상호 대결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레 26:23]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찐대

[레 26:24]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칠배나 더 칠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고 대항하면 죄를 인하여 칠배나 더 치신다는 뜻입니다. 대항은 벽에 부딪히기입니다. 응징은 거울 같은 반사입니다.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고 대항<라다크>하면 죄를 인하여 칠배나 더 치십니다. 대항<라다크>은 '거스르다'나 '뿌리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손을 밀어내는 적극적 반항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불평처럼 공동체적 반발을 나타내며, 여기서는 세 번째 야생동물 재앙(21-22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고집을 경고합니다.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라는 대칭적 표현은 하나님의 응답이 백성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임을 드러내며, 자비로운 인내가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을 생생히 그립니다. 칠배의 증가는 이전 저주(21절)와 연결되어 재앙의 누적성을 강조하며, 신명기 28장의 병행 구절과 함께 언약의 엄중함을 부각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중보가 무시될 때 공동체 전체가 대적의 손에 넘겨질

위기를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고난 속 하나님을 거역할 때 더 큰 영적 대결이 따름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교훈처럼 화해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속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유일한 화해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대항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돌아서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세례 예배에서 물로 씻김처럼, 대항의 죄를 예수의 용서로 씻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화해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반항 속 공감("나도 뿌리쳤어")으로 포옹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화해하는 팀워크를 상기시키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입니다.

레위기 26장 25-26절은 전쟁과 기근의 세부 결과를 제시합니다. 칼과 염병, 양식 끊김의 공포가 불순종의 사회적·경제적 파국을 나타내며, 하나님 의존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

[레 26:25]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

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
일찌라도 너희 중에 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
의 손에 붙일 것이며

[레 26:26]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
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
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칼을 가져
와 원수를 갚고 염병을 보내 대적의 손에 붙이
시며, 양식을 끊어 떡을 저울에 달아도 배부르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칼의 춤입니다.
기근은 빈 접시입니다. 칼<하레브>을 가져와 원
수를 갚고 염병<데베르>을 보내 대적의 손에 붙
이며, 양식을 끊어 떡을 저울에 달아도 배부르지
않게 합니다. 칼<하레브>은 '검'으로, 전쟁의 공
포를 상징하며, 여호수아에서 승리의 도구로 쓰
이던 것이 여기서는 패배의 원인으로 역전되어
순종 없이는 보호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 명사
는 출애굽기 애굽 재앙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손
길이 축복에서 저주로 변하는 역설을 강조합니
다. 염병<데베르>은 '전염병'으로 도시를 덮는 안

개를 나타내, 성읍 모임조차 위험해지는 공동체 붕괴를 생생히 그립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너질 때 예배 집회가 재앙의 온상임을 경고합니다. 대적의 손에 붙임은 굴복의 수치를, 양식 끊김은 경제적 절망을 상징하며,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저울에 달아도 배부르지 않음은 기근의 절정으로, 창세기 요셉 이야기의 풍성(창 41장)과 대조되어 언약의 파기 결과를 부각합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유사한 전쟁·기근 저주와 병행되어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갈등과 빈곤이 영적 영양실조를 초래하는 함정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내가 생명의 떡이니” 선언처럼 만족의 빵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숙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안식을 앗아가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유일한 포만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기근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떡을 나눌 때, 빈 접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만족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만족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굶주림 속 공감(“나도 배고팠어”)으로 포만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채워지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만족시킵니다.

[레 26:27]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레 26:28]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칠 배나 더 징책하리니

[레 26:29]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레 26:30]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레 26:31]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랑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향치 아니하고

[레 26:32]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레 26:33]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 26:34]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

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
이라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레 26:35]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레위기 26장 27-3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다섯 번째 저주
를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네 번째
재앙에도 대항할 때 진노의 칠배 징계를 통해 최
악의 파괴와 유배를 묘사하며, 공동체와 성소의
황폐를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언약의 완
전한 파기와 땅의 안식을 초래하며, 하나님의 주
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에서 반항할 백성에
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강조되듯,
불순종은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이 경고
는 자비로운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
내가”라고 반복하시며, 징계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훈계로, 이스라엘의 선
택받은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축복(1-13절)과 저주(14-39절)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6장 27-35절은 불순종의 다섯 번째 저주로 최악의 파괴와 유배를 경고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네 번째 재앙에도 청종하지 않을 때 진노의 칠배 징계를 통해 식인, 우상 파괴, 성읍 황폐, 흠어짐을 묘사하며, 공동체와 성소의 붕괴를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땅의 안식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할 때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영적 황폐와 고립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저주는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회복의 은혜를 예고합니다. 파괴는 무너지는 성처럼 안정을 빼앗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안식의 땅을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27-28절은 불순종 지속 시 진노의 응징을 선언합니다. 재앙에도 대항할 때 칠배의 징책이 임하며, 하나님의 노여움이 절정에 달함을 통해 회개의 최후 기회를 줍니다.

[레 26:27] 너희가 이같이 될찌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찐대

[레 26:28]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칠배나 더 징책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에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면 진노로 대항하시며 죄를 인하여 칠배나 더 징책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노는 뜨거운 불입니다. 대항은 불꽃에 던져지기입니다. 재앙에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면 진노<아프>로 대항하시며 죄를 인하여 칠배나 더 징책하십니다. 진노<아프>는 '코'나 '코로 숨쉬는 열기'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이 타오르는 아픔을 상징합니다. 이 명사는 출애굽기 애굽 재앙에서 사용되며,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역설적 교훈을 줍니다."

내게 대항할진대'라는 표현은 네 번째 전쟁기근(23-26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반항을 지적하며, 자비로운 인내가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을 생생히 그립니다. 칠배의 증가는 이전 저주(24절)와 연결되어 재앙의 누적성을 강조하며, 신명기 28장의 병행 구절과 함께 언약의 엄중함을 부각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중보가 무시될 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는 위기를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고난 속 하나님을 거역할 때 더 큰 영적 불이 타오름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교훈처럼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속이 어떻게 사랑의 불을 노여움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유일한 식힘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진노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무릎 꿇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세례 예배에서 불로 상징되는 성령처럼, 진노의 열기를 예수의 평안으로 식히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화해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반항 속 공감("나도 화냈어")으로 식힘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매

일 불꽃을 평화로 바꾸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식힙니다.

레위기 26장 29-33절은 파괴와 흠어짐의 절정을 제시합니다. 식인과 우상 혈음, 성읍 황폐, 열방 유배가 불순종의 종교적·사회적 파국을 나타내며, 하나님 거룩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

[레 26:29]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레 26:30]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레 26:31]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랑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향치 아니하고

[레 26:32]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레 26:33]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게 하시며, 산당과 주상을 헐고 시체를 우상 위에 던지시며, 성읍과 성소를 황폐케 하고 땅을 황무케 하여 대적들이 놀라게 하시며, 열방에 흠으시고 칼로 따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파괴는 무너지는 성입니다. 흠어짐은 바람에 날리는 잎입니다.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게 하시며, 산당을 헐<나타츠>고 시체를 우상 위에 던지시며, 성읍을 황폐케 하고 땅을 황무케 하여 열방에 흠으십니다. 헐<나타츠>은 '부수다'나 '파괴하다'라는 강렬한 의미로, 우상 숭배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에서 사용되며, 여기서는 불순종 시 그 약속이 역으로 적용되는 역설을 드러냅니다. 식인(29절)은 기근의 절정으로, 왕하 6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처럼 절망의 상징이며, 제사장 제도의 가족 보호가 무너지는 위기를 경고합니다. 산당과 태양 주상(30절)의 파괴는 이교 예배의 종말을, 시체를 우상 위 던짐은 더러움의 극치를 나타내어, 회막의 거룩함이 모독됨을 생생히 그립니다. 성소 황량과 향기로운 향 거부(31절)는 제사 중단을, 대적들의 놀람(32

절)은 약속의 땅이 저주의 증거가 됨을 강조합니다. 열방 흠어짐과 칼 추격(33절)은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며, 신명기 28장의 유사한 유배 저주와 병행되어 언약의 연속성을 부각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성소 역할이 완전 붕괴할 때 공동체 정체성이 상실됨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우상이 가족을 삼키는 함정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성찬처럼 새 생명의 제사를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숙이 어떻게 거룩한 유산을 황폐화하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유일한 재건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황폐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재건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피와 몸을 나눌 때, 식인의 절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만족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재건 모형을 미리 보여주며, 파괴 속 공감("나도 무너졌어")으로 회복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로 매일 성소를 세우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재생합니다.

레위기 26장 34-35절은 유배 중 땅의 안식을 제시합니다. 흠어짐 속 황무한 땅이 쉬는 역설이 불순종의 종교적 파국을 나타내며, 하나님 안식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레 26:34]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때에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레 26:35]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배 중 본토가 황무할 때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유배는 먼 땅 여행입니다. 안식은 아이러니한 휴식입니다. 유배 중 본토가 황무할 때 땅이 안식<샤밧>을 누리게 하십니다. 안식<샤밧>은 '쉬다'나 '중단하다'라는 의미로, 매주 안식일처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 명령되며, 여기서는 불순종 시 강제된 안식을 통해 백성의 무시를 바로잡는 역설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

에 거할 동안”이라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며, 네 번째 기근(26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불순종의 결과로 땅이 인간의 착취에서 해방됨을 생생히 그립니다. 땅의 안식은 2역대 36:21과 연결되어, 안식년 무시의 업보를 강조하며, 언약의 생태적 차원을 부각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성소 안식이 무시될 때 창조 전체가 쉬는 아이러니를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바쁨이 영적 안식을 빼앗는 함정을 지적하며, 예수님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처럼 진짜 쉼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지속이 어떻게 강제된 안식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며, 회개가 자발적 휴식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안식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쉬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안식의 빵처럼, 황무한 땅이 아닌 영원한 쉼의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유배 속 공감(“나도 피곤했어”)으로 휴식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로 매일 쉬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안정

시킵니다.

[레 26:36]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레 26:37]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레 26:38]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레 26:39]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

레위기 26장 36-39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최종 결과를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다섯 번째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을 때 남은 자의 마음 약함과 쇠잔을 통해 완전한 쇠퇴를 묘사하며, 죄의 세대적 유산을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정신적·

신체적 파국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에서 반항할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의 결과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강조되듯, 불순종은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이 경고는 자비로운 회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고 반복하시며, 징계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훈계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사명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축복(1-13절)과 저주(14-39절)의 대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6장 36-39절은 불순종의 최종 결과로 두려움과 쇠잔을 경고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다섯 번째 재앙에도 돌아오지 않을 때 남은 자의 마음 약함과 열방 망함을 통해 완전한 쇠퇴를 묘사하며, 죄의 세대적 유산을 강조

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정신적·신체적 파국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보호를 무시할 때의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경고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영적 무기력과 유산의 위험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저주는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처럼 회복의 은혜를 예고합니다. 두려움은 떨리는 잎처럼 약함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강함의 새싹을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36-39절은 남은 자의 쇠잔을 제시합니다. 유배 중 마음 약함과 세대적 죄로 인한 망함이 불순종의 최종 파국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의존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

[레 26:36]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것ियो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레 26:37]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

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레 26:38]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레 26:39]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은 자에게 대적 땅에서 마음을 약하게 하여 앞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게 하고 쫓는 자 없이 엎드러지게 하시며,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게 하고, 열방에서 망하여 대적 땅에 삼키우게 하시며, 남은 자가 죄와 열조의 죄로 쇠잔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떨리는 것입니다. 쇠잔은 서서히 지는 꽃입니다. 망함은 삼켜지는 그림자입니다. 남은 자에게 대적 땅에서 마음을 약하게 하여 앞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누스>하게 하고, 열방에서 망하여 죄로 쇠잔<마카크>하십니다. 도망<누스>하리라는 표현은 무기력한 공포를 상징하며, 누스<누스> 동사는 '도망치다'로, 실제 위협 없이도 마음의 두려움이 행동을 지배함을 나타

냅니다. 이 무의미한 도망은 정신적 쇠약을 강조하며, 시편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다'와 대비되어 하나님 피난처의 필요성을 부각합니다. 쇠잔 <마카크>은 '지쳐감'으로, 세대적 죄의 유산을 상징하며, 열조의 죄로 인한 반복 쇠퇴를 통해 출애굽기의 은혜가 잊힌 결과를 생생히 그립니다. 이 명사는 신명기 28장의 유사한 쇠퇴 저주와 병행되어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엎드려짐(36-37절)은 내부적 약함을, 열방 망함과 삼킴(38절)은 외부적 파국을 나타내, 제사장 제도의 남은 자 보호가 무너질 위기를 경고합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후의 귀환 희망(스 1장)을 예고하며, 불순종의 최종 단계에서조차 회개의 씨앗을 심습니다. 영적으로 이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예수님 없이는 강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며, 십자가 승리를 통해 자유를 회복하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은 재앙이 회개를 위한 도구임을 암시하며, 지도자들의 책임이 남은 자의 회복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소년들이 두려움으로 떨듯, 오늘날 교회 리더들은 후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세례 예배에서 물로 씻김

처럼, 이 죄잔의 공포를 예수의 손으로 안아주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싹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약함 속 공감("나도 떨어졌어")으로 강함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피어나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세웁니다.

[레 26:40]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레 26:41]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레 26:42]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레 26:43]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레 26:44]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

며 아주 멀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이 됨이라

[레 26:45]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6:46]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6장 40-4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 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불순종의 저주(14-39절) 후 회개와 자복을 통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희망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세대적 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던 백성에게,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자비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강조되듯, 회개는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회복하지만,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반복하시며, 언약의 주체가 자신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 선상에서, 저주와 축복의 순환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회개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6장 40-46절은 회개 시 언약 회복과 자비를 약속하는 규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저주 후 자복과 언약 기억을 통해 땅의 안식과 영원한 자비를 묘사하며, 세대적 죄의 고백이 구원의 문임을 강조합니다. 지속된 불순종이 황폐를 초래하나, 회개가 하나님의 맹세를 깨우며 회복의 길을 엽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약속으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죄의 유산을 넘어 영적 안식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자비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처럼 영원한 생명을 예고합니다.

다. 회개는 어두운 동굴 끝의 빛처럼 자유를 되 찾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합니다.

레위기 26장 40-42절은 회개의 자복과 언약 기억을 제시합니다. 세대적 죄 고백이 하나님의 맹세를 깨우며, 애굽 해방의 은혜를 통해 회복의 문을 엽니다.

[레 26:40] 그들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열조의 죄를 자복하리니 곧 그들이 내게 대항하여 나를 거스른 죄악이라

[레 26:41] 이러므로 내가도 그들을 대적의 땅에서 대접한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내 규례를 싫어한 것과 그들이 내 언약을 버린 것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들을 대적하였으므로

[레 26:42]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열조와 세운 언약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땅을 가리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과 열조의 죄를 자복하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열린 문입니다. 자복은 깨진 거울 고치기입니다. 죄악과 열조의 죄를 자복<아다>하면 언약<베릿>을 기억하십니다. 자복<아다>은 '고백하다'나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세대적 죄를 드러내는 용기 있는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레위기 5장의 속죄 제에서 사용되며, 여기서는 유배 후 바벨론 포로의 회개를 예고하며, 제사장들의 중보가 회복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완악한 마음과 규례 싫어함(41절)은 불순종의 뿌리를 지적하며, 애굽 탈출의 은혜를 배반한 결과를 생생히 그립니다. 언약<베릿> 기억은 '맹세'의 영원성을 강조하며,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되어 구원의 연속성을 부각합니다. 이는 제사장 제도의 회복이 언약 재확인임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조상 죄의 유산을 고백할 때 예수의 피로 씻김을 상기시키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부르심처럼 새 출발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저주의 끝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회개가 유일한 기억의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

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자복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세례 예배에서 물로 씻김처럼, 세대적 죄를 예수의 용서로 씻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고백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죄 속 공감("나도 숨겼어")으로 용서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매일 언약 새로워지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정결케 합니다.

레위기 26장 43-45절은 땅의 안식과 영원한 자비를 제시합니다. 황폐 중 강제된 쉼과 버리지 않음이 불순종의 종교적 파국을 넘어 자비의 주권을 나타내며, 맹세의 불변성을 강조합니다.

[레 26:43] 땅이 그들 없이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그 안식일을 만족하게 하고 그들이 거역하였은즉 그 땅이 그 안식을 즐기리라

[레 26:44]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레 26:45]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 열조를 애

굽 땅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가 된 맹세를 기억하
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배 중 땅
이 안식을 누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애굽
맹세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아이러
니한 휴식입니다. 자비는 끊임없는 손길입니다.
유배 중 땅이 안식<샤밧>을 누리고 그들을 버리
지 않으시며 애굽 맹세를 기억하십니다. 안식<
샤밧>은 '쉬다'나 '중단하다'라는 의미로, 매주 안
식일처럼 창조 질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동
사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 명령되며, 여
기서는 불순종 시 강제된 안식을 통해 백성의 무
시를 바로잡는 역설을 드러냅니다. "땅이 그 안
식일을 만족하게" (43절)은 2역대 36:21과 연결
되어 안식년 무시의 업보를 강조하며, 언약의 생
태적 차원을 부각합니다. 버리지 않음과 멸하지
않음(44절)은 자비의 절정을, 애굽 맹세 기억(45
절)은 아브라함 언약의 영원성을 생생히 그립니
다. 이는 제사장 제도의 성소가 황폐해도 하나
님의 임재가 지속됨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
는 세상의 바쁨이 영적 안식을 빼앗는 함정을 지

적하며, 예수님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진짜 쉼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저주의 끝에서 자비의 빛을 비추며, 회개가 자발적 안식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안식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쉬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안식의 빵처럼, 황무한 땅이 아닌 영원한 쉼의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유배 속 공감("나도 피곤했어")으로 휴식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로 매일 쉬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안정시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은 전체 언약의 마무리를 제시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규례와 법도의 총결이 불순종과 회개의 순환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강조합니다.

[레 26:46] 이는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법률이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

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규례와 법도 법률이 시내산 언약임을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총결은 빛의 마무리입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 법률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베릿>임을 밝히십니다. 언약<베릿>은 '맹세'나 '영원한 약속'으로,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되어 구원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이 명사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계시에서 시작되며, 여기서는 저주와 회복의 순환을 통해 언약의 완전성을 부각합니다. "모세를 통해"는 중보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사장 제도의 모세적 계승을 암시합니다. 이는 전체 26장의 축복-저주-회복 구조를 요약하며, 신명기 28-30장의 병행 언급과 함께 모세오경의 통일성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며, "새 언약"의 은혜를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불순종의 어둠 속에서도 언약의 빛이 비추는 마무리로, 회개가 영원한 약속의 열쇠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총결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언약을 기억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모세의 중보처럼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는 약속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언약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총결 속 공감("나도 약속 지켰어")으로 충성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언약 새로워지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영원케 합니다.

레위기 27장 =====

[레 2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 27: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레 27:3] 너의 정한 값은 이십 세로 육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레 27:4]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레 27:5] 오 세로 이십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레 27:6] 일 개월로 오 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레 27:7] 육십 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

[레 27: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위기 27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 서원의 가치를 매기는 규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서원한 사람을 여호와께 바칠 때 제사장이 매기는 표준 가치를 통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귀중함을 강조합니다. 서원은 자발적 헌신으로, 나이와 성별에 따라 구분되며, 가난한 자를 위한 유연성을 더합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핵심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단순한 금전 평가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공의와 자비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속한 자의 가치를 매기되”라고 선언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소유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사명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쳐진 완전한 제사를 예고합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헌물(1-33절)의 경제적·영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헌신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7장 1-8절은 사람 서원의 평가를 규정합니다. 이 구절들은 서원 시 나이·성별에 따른 표준 가치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제사장의 중재로 가난한 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서원은 자발적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적 공의를 일깨우는 규례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삶의 헌신이 금전적 가치가 아닌 영적 헌신임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규정은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부르심처럼 완전한 헌신을 예고합니다. 서원은 귀중한 보석처럼 빛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가난한 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은혜를 약속합니다.

레위기 27장 1-2절은 서원의 개요와 가치를 제시합니다. 사람이 서원할 때 여호와께 속한 자의 가치를 매기는 기본 원리를 세우며,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레 2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되

[레 27:2]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라 사람이
너희에게 서원할 때에 여호와께 속한 자의 가치
를 매기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서
원할 때 여호와께 속한 자의 가치를 매기라는 뜻
입니다. 서원은 자발적 약속입니다. 가치는 생
명의 무게입니다. 사람이 서원<네데르>할 때 여
호와께 속한 자의 가치를 매기<아라>합니다. 서
원<네데르>은 '맹세'나 '자발적 헌신'으로, 민수
기 30장에서 가족적 맥락에서 강조되며, 여기서
는 개인의 하나님께 바침을 상징합니다. 이 명사
는 출애굽기 21장의 노예 서원과 연결되어, 자유
로운 선택의 헌신임을 드러냅니다. 매기<아라>
는 '평가하다'나 '추정하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의
공정한 중재를 요구합니다. 이 동사는 열왕기상
에서 솔로몬의 지혜 평가처럼 공의의 기준을 부
각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모든 생명이 하
나님의 소유임을 상기시키며, 제사장들의 회막
역할이 헌신의 문지기임을 암시합니다. 영적으

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삶의 헌신이 평가받을 때 예수의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부르심처럼 영적 가치를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서원의 출발점으로, 헌신이 언약의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서원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약속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세례 예배에서 물로 헌신처럼, 서원의 가치를 예수의 피로 완성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헌신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약속 속 공감("나도 맹세했어")으로 충성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바쳐지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헌신케 합니다.

레위기 27장 3-7절은 나이·성별에 따른 표준 가치를 제시합니다. 남녀와 연령별 세겔 가치가 생명의 단계적 소중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정한 평가를 강조합니다.

[레 27:3] 서른에서 오십 세까지의 남자는 오 세겔은이 성소의 일 세겔로 매기되

[레 27:4] 오십에서 육십 세까지의 남자는 삼십

세겔 여인도 오십에서 육십 세까지는 십 세겔

[레 27:5] 이십에서 삼십 세까지의 남자는 이십

세겔 십에서 이십 세까지의 남자는 십 세겔

[레 27:6] 다섯 살에서 한 달까지의 남자는 오 세

겔 다섯 살에서 오 년까지의 남자는 이십 세겔

여자도 그 나이에 따라

[레 27:7] 육십 세 이상의 남자는 십다섯 세겔 여

자도 십 세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이와 성
별에 따라 세겔 가치를 매기는 표준을 정하신다
는 뜻입니다. 가치는 생명의 단계입니다. 남자는
50세겔, 여인은 30세겔 등으로 구분됩니다. 나이
별 남녀 가치를 매기며, 성소의 일 세겔로 환산
합니다. 매기<아라>는 '평가하다'나 '추정하다'라
는 의미로, 제사장의 공정한 중재를 요구합니다.
이 동사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지혜 평가처
럼 공의의 기준을 부각합니다. 20-60세 남자 50
세겔은 생산성 절정의 가치를, 여성은 30세겔로
상대적 차이를 반영하나,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
을 강조합니다. 어린이(5-20세)와 노인(60세 이
상)의 낮은 가치는 취약함을 인정하나, 모든 연

령이 귀중함을 드러냅니다. 이는 출애굽기 30장의 성소 세금과 연결되어 언약 공동체의 평등성을 부각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가난한 자의 부담을 고려하는 자비를 더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헌신할 가치임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 교훈처럼 순전한 헌신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생명의 가치를 통해, 헌신이 연령 초월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가치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평가받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연령별 빵처럼, 모든 생명의 가치를 예수의 몸으로 인정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가치 속 공감("나도 소중해")으로 헌신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매일 모든 연령이 바쳐지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귀중케 합니다.

레위기 27장 8절은 가난한 자의 유연성을 제시합니다. 감당 못 할 때 제사장의 재평가가 불순종의 경제적 파국을 넘어 자비의 주권을 나타내

며, 공의의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레 27:8] 만일 그 사람이 가난하여 그 가치를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 앞에 나아와 제사장이 그 가치를 매겨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감당 못 할 때 제사장이 재평가하여 그 대로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운 손입니다. 재평가는 공정한 저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감당 못 할 때 제사장 앞에 나아와 그 가치를 매겨<아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하게 합니다. 매겨<아라>는 '평가하다'나 '추정하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의 자비로운 중재를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지혜 평가처럼 공의의 기준을 부각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대로"는 출애굽기 23장의 가난한 자 보호와 연결되어 언약의 사회적 자비를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회막 역할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문지기임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헌신의 부담이 능력 초월

적임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 부르심처럼 은혜의 평등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서원의 완성으로, 헌신이 공의와 자비의 조화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자비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부담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가난한 자의 빵처럼, 감당 못 할 서원을 예수의 은혜로 채우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자비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부담 속 공감("나도 무거웠어")으로 평안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능력 내 헌신하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가볍게 합니다.

[레 27:9]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레 27:10] 그것을 번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레 27:11]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 갈

것이요

[레 27:12]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레 27:13]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오 분 일을 더할지니라

레위기 27장 9-1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물 서원의 규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깨끗한 짐승의 서원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부정함을 바꾸지 못하고 제사장의 평가로 속죄하는 원리를 통해, 모든 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동물 서원은 자발적 헌신으로, 깨끗한 것은 직접 제물로, 부정한 것은 평가 후 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제사를 상기시킵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핵심으로, 평가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공의와 거룩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이 거룩하니라”라고 선언하시며, 헌물의 신성함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사명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쳐진 완전한 제사를 예고 합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헌물(1-33절)의 경제적·영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거룩한 헌신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7장 9-13절은 동물 서원의 평가를 규정합니다. 이 구절들은 깨끗한 짐승의 거룩함과 부정한 짐승의 제사장 평가를 통해 헌물의 신성을 강조하며, 바꾸지 못하고 속죄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하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서원은 자발적 헌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적 거룩을 일깨우는 규례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삶의 헌신이 불가역적임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규정은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양"처럼 완전한 제물을 예고합니다. 동물은 귀중한 제물처럼 빛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부정한 것조차 속죄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레위기 27장 9-10절은 깨끗한 짐승의 서원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만한 짐승의 헌신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바꾸려 하지 말라는 원리를 세웁니다.

[레 27:9] 만일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여호와께 드릴 만한 짐승이면 서원한 것이 거룩하니라

[레 27:10]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려 아니할찌니라 만일 한 짐승을 다른 짐승으로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한 짐승의 서원이 거룩하며, 바꾸려 하면 둘 다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헌신은 불가역적 약속입니다. 거룩은 빛나는 봉인입니다. 깨끗한 짐승<타호라>의 서원<네데르>이 거룩<카다스>하며, 바꾸려 하면 둘 다 거룩하니라 선언하십니다. 거룩<카다스>은 '구별하다'나 '신성케 하다'라는 의미로, 헌물의 불가침성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레위기 1장의 번제에서 사용되며, 여기서는 소·양·염소처럼 제물로 적합한 동물이 하나님의 소

유로 영구히 봉인됨을 강조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라는 금지는 민수기 18장의 제사장 소유와 연결되어, 헌신의 순전함을 부각합니다. 만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는 역설은 제사장의 중재 없이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며, 회막의 제단 역할이 헌물의 가치를 보증함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헌신의 불가역성을 상기시키며, 예수의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부르심처럼 영적 순결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깨끗한 헌물의 출발점으로, 서원이 언약의 표현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거룩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봉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제물의 빵처럼, 바꿀 수 없는 헌신을 예수의 피로 완성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순결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약속 속 공감("나도 바꾸려 했어")으로 충성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거룩해지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구별합니다.

레위기 27장 11-13절은 부정한 짐승의 서원을

제시합니다. 제사장 앞에 끌고 와 평가받아 속할 때 다섯분의 일을 더하는 원리를 세웁니다.

[레 27:11] 만일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 부정하게 여호와께 드릴 만하지 아니한 짐승이라도 그것을 제사장 앞에 끌고 올 것이라

[레 27:12] 제사장이 그것이 좋은 나쁜지 너희가 보는 대로 매겨 주며 제사장의 매긴 값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레 27:13] 만일 그것을 속하려 하면 그 값에 그 다섯분의 일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한 짐승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와 매겨 속할 때 다섯분의 일을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평가는 공정한 저울입니다. 속죄는 추가된 은혜입니다. 부정한 짐승<타메>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와 매기<아라> 속할 때 다섯분의 일을 더하십니다. 매기<아라>는 '평가하다'나 '추정하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의 자비로운 중재를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지혜 평가처럼 공의의 기준을 부각합니다. 부정한 짐승<타메>은 '더럽다'나 '금

기로, 레위기 11장의 식물 규정과 연결되어 제물 불가의 동물을 헌신의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제사장의 "좋은 나쁜" 평가는 출애굽기 30장의 성소 세금처럼 공정한 가치를 부여하며, 다섯분의 일 추가는 레위기 5장의 속죄 제와 병행되어 자비의 원리를 더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회막 역할이 부정한 것조차 속죄의 문으로 여는임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우리 삶의 '부정함'을 예수의 피로 속죄할 때 추가 은혜를 상기시키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부르심처럼 새 출발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부정한 헌물의 완성으로, 서원이 공의와 자비의 조화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속죄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평가받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추가된 포도주처럼, 부정한 서원을 예수의 은혜로 채우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속죄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더러움 속 공감("나도 부정했어")으로 정결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속죄받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깨끗케 합니다.

[레 27:14]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레 27:15]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레위기 27장 14-1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 서원의 규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집을 여호와께 헌할 때 제사장의 평가를 통해 가치를 매기고,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하는 원리를 통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집 서원은 자발적 헌신으로, 거주와 안식의 상징인 집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던 백성에게, 일상적 공간마저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핵심으로, 평가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공의와 거룩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구별하되”라고 선언하시며, 헌물의 신성함

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사명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쳐진 완전한 제사를 예고합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헌물(1-33절)의 경제적·영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거룩한 헌신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7장 14-15절은 집 서원의 평가를 규정합니다. 이 구절들은 집을 성결하게 구별할 때 제사장의 매김을 따르고,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하는 원리를 통해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서원은 자발적 헌신의 표현으로, 집이라는 안식 공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적 거룩을 일깨우는 규례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삶의 터전이 헌신의 대상임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규정은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처럼 영원한 안식을 예고합니다.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속죄의 은혜

를 약속합니다.

레위기 27장 14-15절은 집 서원의 평가와 속죄를 제시합니다. 제사장의 매김과 다섯분의 일 추가가 헌물의 불가침성과 자비를 나타내며, 소유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레 27:14] 사람이 그 집을 여호와께 성결하게 구별하되 제사장이 그것이 좋은 나쁜든 매김 값대로 있을 것이며 제사장의 매김 값이 그대로 있을지라

[레 27:15] 사람이 그 성결하게 구별한 집을 속하고자 하거든 그 값에 그 다섯분의 일을 더하여 그에게 주되 그 값이 그대로 있을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집을 성결하게 구별할 때 제사장의 매김 값대로 하고,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헌신은 영원한 봉인입니다. 속죄는 추가된 사랑입니다. 집을 성결하게 구별<카다스>할 때 제사장의 매김 값대로 하고, 속할<파다>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하십니다. 구별<카다스>은 '구별하다'나 '신성

케 하다'라는 의미로, 일상 집이 제단처럼 거룩해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레위기 20장의 거룩함 명령과 연결되어, 가나안 땅의 주거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매긴 값은 출애굽기 30장의 성소 세금처럼 공정한 평가를, 다섯분의 일 추가는 레위기 5장의 속죄 제와 병행되어 자비의 원리를 더합니다. "좋은 나쁜"은 제사장의 중립성을, "그 값이 그대로 있을지라"는 불가침성을 부각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회막 역할이 가정 공간마저 거룩의 문으로 여는임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우리 집의 '부정함'을 예수의 피로 속죄할 때 추가 은혜를 상기시키며, "네 집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라" 부르심처럼 안식의 터전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집 헌물의 완성으로, 서원이 공의와 자비의 조화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속죄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평가받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집의 빵처럼, 구별된 터전을 예수의 은혜로 채우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헌신 속 공감("나도 집 지켰어")으로 평안의 문을 엽니다. 궁극

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구별되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성결케 합니
다.

[레 27:16]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
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지
며

[레 27:17]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
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레 27:18]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
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레 27:19]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
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지니 그리
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레 27:20]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레 27:21]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레 27:22]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레 27:23]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레 27:24]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 갈지니라

[레 27:25]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레위기 27장 16-25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 서원의 규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유업 밭과 산 밭의 헌신 시 제사장의 평가와 유빌년의 반환 원리를 통해, 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밭 서원은 자발적 헌신으로, 조상 유업의 영속성과 유빌의 공의를 반영하며,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합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던 백성에게,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핵심으로, 평가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공의와 거룩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

하게 구별하거든”이라고 선언하시며, 헌물의 신성함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사명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쳐진 완전한 제사를 예고합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헌물(1-33절)의 경제적·영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거룩한 헌신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7장 16-25절은 밭 서원의 평가를 규정합니다. 이 구절들은 유업 밭의 영구 헌신과 산 밭의 유빌 반환을 통해 땅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를 강조하며, 제사장의 매김과 다섯분의 일 추가 원리를 제시합니다. 서원은 자발적 헌신의 표현으로, 조상 유업의 영속성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적 공의를 일깨우는 규례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삶의 터전이 영원한 주권 아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규정은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땅”처럼 영원한 유업을 예고합니다. 밭은 풍성한 들판처럼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유빌의 자유를 약속합니다.

레위기 27장 16-21절은 유업 받 서원을 제시합니다. 조상 유업의 헌신 시 곡식 가격 매김과 유빌 반환, 속할 시 다섯분의 일 추가가 영속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레 27:16] 사람이 그 조상의 유업 받 중에서 여호와께 성결하게 구별하거든 그 가치는 성소의 일 세겔에 오르백 세겔 곡식 종자 거가격대로 매길 것이라

[레 27:17] 만일 그가 유업 받을 여호와께 성결하게 구별한 다음에 곧 팔지 아니하려거든 그 가격이 그대로 있을 것이요

[레 27:18] 만일 그가 유업 받을 성결하게 구별한 지 오래되어 팔고자 하거든 제사장이 그 가격을 유빌년으로부터 그 남은 해 수대로 매겨서 그에게서 제하여 줄 것이라

[레 27:19] 만일 그가 성결하게 구별한 그 받을 속하고자 하거든 그 가격에 그 다섯분의 일을 더하여 주되 그 가격이 그대로 있을지라

[레 27:20] 그러나 만일 그 성결하게 구별한 받

을 속하지 아니하고 팔리면 속할 수 없으리라
[레 27:21] 유빌년에 이르러 성결하게 구별한 그
밭이 여호와의 소유로 제사장에게로 돌아오고
그 구별한 자의 유업 밭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업 밭을
성결하게 구별할 때 곡식 가격대로 매기고, 팔지
않으면 그대로, 오래되어 팔면 유빌 남은 해로
제하여 주며,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하고, 팔
리면 속할 수 없으며, 유빌에 제사장에게 돌아간
다는 뜻입니다. 유업은 영원한 뿌리입니다. 유빌
은 자유의 나팔입니다. 유업 밭을 성결하게 구별
<카다스>할 때 곡식 가격대로 매기고 유빌에 제
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구별<카다스>은 '구별하
다'나 '신성케 하다'라는 의미로, 조상 유업이 제
단처럼 거룩해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
는 레위기 25장의 유빌 명령과 연결되어, 땅의
영속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
르백 세겔 곡식 가격은 민수기 18장의 제사장 몫
과 병행되어 생산성의 가치를 부각합니다. 유빌
남은 해 제하는 감가상각은 레위기 25장의 공의
원리를 적용하며, 다섯분의 일 추가는 속죄의 자

비를 더합니다. 팔리면 속할 수 없음은 불가침성을, 제사장 반환은 회막의 소유 전환을 암시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땅의 유업을 하나님 의 것으로 중재함을 드러냅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조상 유업의 '부정함'을 예수 의 피로 속죄할 때 영원한 유업을 상기시키며, " 새 하늘과 새 땅" 약속처럼 자유의 유별을 제시 합니다. 이 구절은 유업 헌물의 완성으로, 서원이 영속적 주권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 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반환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자유를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땅의 빵처럼, 유업의 가치를 예수 의 은혜로 채우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헌신 속 공감("나도 뿌리 깊었어")으로 영속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의 부활로 매일 유업 새로워지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영원케 합니다.

레위기 27장 22-25절은 산 밭 서원을 제시합니다. 유업 아닌 밭의 헌신 시 곡식 가격 매김과 유별 원주 반환, 속할 시 다섯분의 일 추가가 일시

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레 27:22] 만일 사람이 유업 받이 아닌 산 받을 여호와께 성결하게 구별하거든 그 가격을 성소의 일 세겔에 오르백 세겔 곡식 종자 거가격대로 매길 것이라

[레 27:23] 만일 그가 그 성결하게 구별한 받을 속하고자 하거든 그 가격에 그 다섯분의 일을 더하여 주되 그 가격이 그대로 있을지라

[레 27:24] 그러나 유빌년에 이르러 여호와께 성결하게 구별한 그 받이 그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 유업이 되리라

[레 27:25] 모든 가격은 성소의 일 세겔로 매길 것이라 이 세겔은 이십 게라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산 받을 성결하게 구별할 때 곡식 가격대로 매기고,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하며, 유빌에 원주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산 받은 빌린 들판입니다. 유빌은 돌려주는 손입니다. 산 받을 성결하게 구별<카다스>할 때 곡식 가격대로 매기고 유빌에 원주에게 돌아갑니다. 구별<카다스>은 '구별하다'

나 '신성케 하다'라는 의미로, 일시적 소유가 제단처럼 거룩해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동사는 레위기 25장의 유빌 명령과 연결되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나 인간 자유를 존중함을 강조합니다. 오르백 세겔 곡식 가격은 유업밭(16절)과 동일하나, 유빌 반환은 레위기 25장의 공의 원리를 적용합니다. 다섯분의 일 추가는 속죄의 자비를, 성소 세겔(20게라)은 출애굽기 30장의 공정한 단위를 부각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일시적 헌물을 영구적 자유로 중재함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빌린 삶의 '부정함'을 예수의 피로 속죄할 때 영원한 유업을 상기시키며,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와 그의 것" 약속처럼 돌려주는 자유를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산 밭 헌물의 완성으로, 서원이 일시적 주권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반환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자유를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빌린 빵처럼, 산 밭의 가치를 예수의 은혜로 채우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헌신 속 공감("나도 빌렸어")으로 돌려줌의 문을 엽니

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로 매일 자유 새로워지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해방합니다.

[레 27:26] 오직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레 27:27]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레 27:28]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레 27:29]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 27: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 27:31]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레 27:32]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와 거룩한 것이
되리니

[레 27:33] 그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레 27:34]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
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
라

레위기 27장 26-3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
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난 것과 십일조의 규
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규례는 처음 난 짐
승과 땅의 생산물 십일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헌
신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합
니다. 처음 난 것은 구별할 수 없고, 십일조는 거
룩하며,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합니다. 이는
애굽 탈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나안에서 살던
백성에게, 창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
명을 상기시킵니다. 제사장들의 중보 역할이 핵
심으로, 평가는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언약 공동
체의 공의와 거룩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거룩한 것이 되느니라”라고 반복하시며, 헌물

의 신성함을 밝히십니다. 이는 사랑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사명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쳐진 완전한 제사를 예고합니다. 이 장면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헌물(1-33절)의 경제적·영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균형 있게 제시하며, 백성의 삶이 첫 열매 헌신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레위기 27장 26-34절은 처음 난 것과 십일조의 헌신을 규정합니다. 이 구절들은 처음 난 짐승의 불가침성과 땅·짐승 십일조의 거룩함을 통해 모든 생산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하며, 바꾸려 하면 둘 다 거룩하고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하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헌신은 자발적 첫 열매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적 감사와 공의를 일깨우는 규례로, 현대 신앙인에게도 삶의 열매를 드리는 헌신임을 상기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이 규정은 자비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처럼 영원한 수확을 예고합니다. 십일조는 풍성한 바구니처럼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안에서 불가침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레위기 27장 26-29절은 처음 난 것과 저주할듯이 구별한 헌물을 제시합니다. 처음 난 짐승의 불가침성과 저주 구별의 영구성을 강조하며, 속할 시 다섯분의 일 추가가 주권의 절대성을 나타냅니다.

[레 27:26] 그러나 여호와께 처음 난 소나 양은 누구든지 그 것을 구별할 수 없으니 그 처음 난 것이 여호와의 것이 되느니라

[레 27:27] 만일 그것이 깨끗한 짐승이 아니면 속할 때에 그 가격에 다섯분의 일을 더하여 주되 제사장의 매긴 값대로 할지니라 만일 속하지 아니하면 팔리되 제사장의 매긴 값대로 할지니라

[레 27:28] 그러나 사람이나 짐승 중 아무것이든지 여호와께 저주할듯이 성결하게 구별한 것은 팔리지 못할 것이요 속할 수도 없으리니 그 중에 제물로 드릴 만한 것이든지 사람 중에 제물로 드릴 만한 것이든지 가장 좋은 제물이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 되느니라

[레 27:29] 저주할듯이 성결하게 구별한 어떤 사람이라도 속할 수 없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난 소나 양이 구별할 수 없고 여호와와의 것이 되며, 깨끗하지 않으면 속할 때 다섯분의 일을 더하고, 저주할듯이 구별한 것은 팔리거나 속할 수 없으며 사람이라면 죽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난 것은 첫 열매 봉인입니다. 저주는 영원한 저주입니다. 처음 난<베코르> 소나 양이 구별할 수 없고, 저주할듯이 구별<하레姆>한 것은 여호와와의 것이 되니라 선언하십니다. 처음 난<베코르>은 '첫 열매'나 '선택된 것'으로, 출애굽기 13장의 이집트 재앙 후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 명사는 민수기 3장의 레위인 헌신과 연결되어, 모든 첫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강조합니다. 저주할듯이 구별<하레姆>은 '완전히 바치다'나 '파괴 헌정'으로,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전투처럼 전쟁 제물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영구적 헌신의 절대성을 부각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속할 시 다섯분의 일 추가는 레위기 5장의 속죄 원리와 병행되어 자비를 더합니다. 팔리지 못하고 속할 수

없음(28절)은 불가침성을, 사람의 죽음(29절)은 극단적 헌신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제단 역할이 첫 열매와 저주를 중재함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삶의 '첫 열매'를 예수의 부활처럼 드릴 때 영원한 소유를 상기시키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부르심처럼 완전한 헌신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처음 난 헌물의 완성으로, 서원이 절대적 주권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봉인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첫 열매의 빵처럼, 구별된 삶을 예수의 피로 완성하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헌신 속 공감("나도 첫째였어")으로 영원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몸으로 매일 첫 열매 드리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선택케 합니다.

레위기 27장 30-34절은 십일조의 헌신을 제시합니다. 땅과 짐승의 십일조가 거룩하며, 바꾸려 하면 둘 다 거룩하고 속할 시 다섯분의 일 추가가 감사와 주권을 강조합니다.

[레 27:30] 땅의 모든 십일조 곧 땅의 곡식이나 포도나 열매 중에 생산한 모든 십일조는 여호와 의 것이니 그 것은 거룩한 것이라

[레 27:31] 만일 사람이 그 십일조 중에서 무엇을 속하고자 하거든 그 값에 다섯분의 일을 더하여 주되

[레 27:32] 짐승의 십일조 곧 양이나 소나 무엇이든지 양치기의 지팡이로 지나갈 때에 열째 되는 것이 여호와와 의 것이 되느니라

[레 27:33]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거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하리라 만일 바꾸려 하면 그 짐승과 바꾸려 한 짐승 둘 다 거룩하니 속할 수 없으리라

[레 27:34]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계명으로 명하신 규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십일조가 여호와와 의 것이 되고, 짐승의 열째가 그분의 것이 되며, 바꾸려 하면 둘 다 거룩하고 속할 시 다섯분의 일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십일조는 감사 바구니입니다. 열째는 선택된 열매입니다. 땅

의 십일조<마아세르>가 거룩<카다스>하며, 짐승의 열째가 여호와와 것이 되니라 선언하십니다. 십일조<마아세르>은 '열분의 일'로, 창세기 아브라함의 멜기세덱 헌납과 연결되어 구원의 감사를 상징합니다. 이 명사는 민수기 18장의 레위인 몫으로, 공동체적 지지를 강조합니다. 거룩<카다스>은 '구별하다'나 '신성케 하다'라는 의미로, 생산물의 첫 열매가 제단처럼 바쳐짐을 부각합니다. 양치기 지팡이 지나갈 때 열째(32절)는 자연스러운 선택을, 바꾸려 하면 둘 다 거룩함(33절)은 불가침성을 드러냅니다. 다섯분의 일 추가(31절)는 속죄의 자비를 더합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제단 역할이 열매를 중재함을 암시합니다. 영적으로 이는 현대 신앙 생활에서 삶의 '생산물'을 예수의 십자가처럼 드릴 때 영원한 수확을 상기시키며, "열매를 맺되 먼저 열매를 맺게 하라" 교훈처럼 감사의 헌신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십일조 헌물의 완성으로, 서원이 감사 주권임을 강조합니다. 지도자 아저씨들이 소년들에게 가르치듯, 이 열매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서 십일조의 포도주처럼, 생산의 가치를 예수의 은혜로 채

우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 나라의 수확 모험을 미리 보여주며, 감사 속 공감("나도 열째였어")으로 풍성의 문을 엽니다. 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로 매일 열매 드리는 팀워크를 약속하며, 타락한 마음을 사랑으로 풍성케 합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레위기

초판발행	2025. 10. 2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